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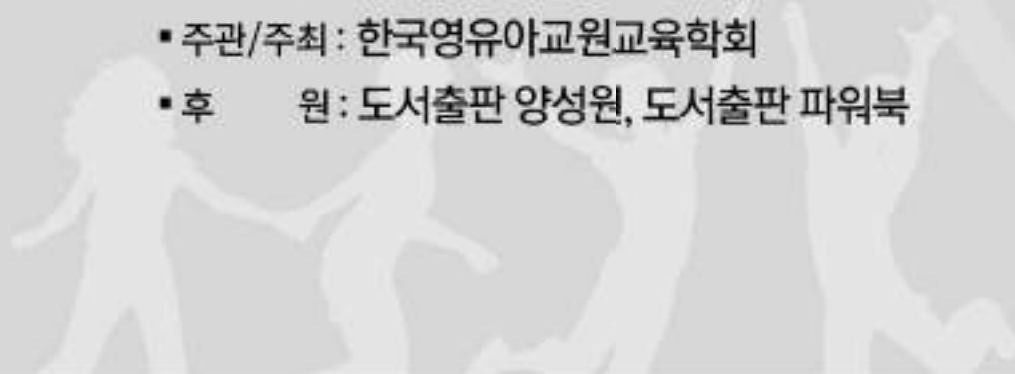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유아교육



- 일 시: 2017년 4월 15일(토요일) 09:00~17:00
- 장 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대학 9층 대강당
- 주관/주최: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 후 원: 도서출판 양성원, 도서출판 파워북



❀ 모시는 글 ❀

세계가 첨단을 향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이 즈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유아교육’이라는 주제로
유아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AI)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방술(方術)인지는 몰라도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서 벗어나 있는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그 시대를 위한
인재 양성의 요람이어야 합니다.

항공우주산업, 유전자 공학, 탄소배출권 등에서 보듯
세계는 무한경쟁으로 나아가는 현실에서
일본을 따라잡지 못하고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유아에게서
새로운 우리를 위한 가능한 동력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한 동력의 모색이 이번 학술대회에서
쫓아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두 손 모아 정성으로 모십니다.

2017년 4월 15일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장 김 희 태

❀ 학술대회 일정표 ❀

- ▶ **대주제** :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유아교육
- ▶ **일 시** : 2017년 4월 15일(토) 09:00~17:00
- ▶ **장 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대학 9층 대강당

▶ 일 정:

제 1 부 09:00~11:50		사회: 오채선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09:00~09:30	접수 및 등록	
09:30~09:40	개회 및 축사	
09:40~10:40	기조 강연_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 박형주 소장(국가수리과학연구소)	
10:40~10:50	휴식	
10:50~11:50	주제 강연_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아교육 :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김지영 교수(송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11:50~13:00	점심 및 휴식	
13:00~14:50		논문 분과 발표 (7~8층)
		논문 포스터 발표 (8층)

제 2 부 13:00-17:00		사회: 신금호 교수(대구대학교 유아교육과)
13:00~13:50	실천주제 강연 1_ 4차 산업혁명 시대 유아교육과정의 방향과 과제 장명림 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지원연구본부)	
13:50~14:40	실천주제 강연 2_ 4차 산업혁명과 유아교사교육 환경, 매체의 변화 유구종 교수(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14:40~14:50	휴식	
14:50~15:40	실천주제 강연 3_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모 역할 전우경 교수(중앙대학교 부모교육아카데미)	
15:40~16:20	실천주제 강연 4_ 교구로봇 코딩교육의 프로그램 적용 김상희 교수(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16:20~16:40	종 합 토 론_ 이병래 교수(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16:40~17:00	포스터 논문 시상 및 정기총회 김희태 학회장(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 분과 발표 일정표 ❀

분과 1	상호작용	장소	711호
		좌장	전유영 교수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조교수)
13:00~13:25	뇌 과학에 근거한 영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방향 양수영(한양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13:25~13:50	예비유아교사의 진로결정수준과 정서지능 및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 이진희(송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이영미(송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13:50~14:00	휴식		
14:00~14:25	초등학교 취학 직전 아동의 쓰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에 관한 조사 연구 김혜원(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14:25~14:50	「논어」의 '禮' 개념에 나타난 유아생명교육에 대한 함의 탐색 임홍남(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BK21플러스 연구원), 김은주(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분과 2	부모교육	장소	712호
		좌장	황정숙 교수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유아교육과)
13:00~13:25	유아교육기관의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고은교(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수경(남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3:25~13:50	부모-유아 마주이야기에 대한 의미 탐색 문명희(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유아교육전공 박사과정), 남연정(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유아교육전공 박사수료)		
13:50~14:00	휴식		
14:00~14:25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김선형(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 황해익(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4:25~14:50	유아의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부모 우울 간의 관계 분석 이영진(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노승희(경민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분과 3	교사교육	장소	713호
		좌장	이영애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13:00~13:25	예비유아교사의 실습경험에 나타난 긍정 정서 탐구 탁정화(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13:25~13:50	예비유아교사의 영유아교육관련 민간자격증 취득이 갖는 의미 탐색 박선영(송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13:50~14:00	휴식		
14:00~14:25	장애전문 어린이집 교사들이 경험한 누리과정 교사연수의 의미 이연승(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인영(경성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14:25~14:50	보육교사양성 교사교육자들의 학습공동체 참여 경험과 의미 강희신(건국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박사졸업), 박수경(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분과 4	영유아 사회발달	장소	714호
		좌장	이승하 교수(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13:00~13:25	어머니의 상위정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김소라(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김희태(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3:25~13:50	실내놀이와 실외놀이에서 나타나는 유아 또래관계 사회연결망 분석 장영훈(강동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13:50~14:00	휴식		
14:00~14:25	어린이집 1세반 영아들의 사회적 관계 특성 탐색 노희연(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14:25~14:50	어린이집 1세반 영아들과 또래들의 사회적 관계형성 탐구 최정은(공항공공나무 어린이집 원장), 박찬옥(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분과 5	프로그램 및 평가	장소	715호
		좌장	김남희 교수(강원대학교 유아교육과)
13:00~13:25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적용효과 김영아(송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13:25~13:50	통합적표상 접근의 유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이은미(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지성애(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3:50~14:00	휴식		
14:00~14:25	미술영역에서의 브릿징 평가: 유아교육 현장적용 가능성 탐색 양정은(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이진희(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4:25~14:50	영아교사 전문성 척도 개발 연구 김정미(GS건설 꿈과 희망의 어린이집 원장), 박찬옥(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분과 6	기관운영 및 관리	장소	804호
		좌장	주봉관 교수(신구대학교 유아교육과)
13:00~13:25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원장, 보육교사, 어머니의 인식과 요구 이연승(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유진(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13:25~13:50	누리과정 정책 수요에 대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 온라인 뉴스와 기사 댓글을 중심으로 박창현(육아정책연구소 육아지원연구팀 부연구위원)		
13:50~14:00	휴식		
14:00~14:2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유아교육기관 조직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정혜영(동의대학교 보육가정상담학과 조교수), 김현수(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14:25~14:50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장학을 위한 장학컨설팅에 관한 사례 연구 김대욱(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분과 7	놀이 및 상담	장소	805호
		좌장	김태인 교수(성결대학교 유아교육과)
13:00~13:25	내·외부 지원 및 협의를 통한 유아 바깥놀이 개선 나귀옥(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경희(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김 화(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13:25~13:50	충동적 기질로 인해 ADHD 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놀이치료사례 고문숙(전, 대구미래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3:50~14:00	휴식		
14:00~14:25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산만하고 충동적인 만 5세 유아의 놀이치료 사례 문남희(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주심리치료사)		
14:25~14:50	불안정 애착으로 분리 불안을 보이는 만 5세 여아의 놀이치료 사례 하영례(대구사이버대학교 놀이치료학과 외래교수)		

❁ 포스터 발표 ❁

장소 : 8층

- **유아교육기관장 다면적 리더십 척도 개발**
 _ 이신주(영진전문대학 사회복지과 조교수)

- **놀이유형별 아버지의 놀이참여 실태**
 _ 황정숙(청강문화산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창의성 교육 세미나 수업 과정을 통한 경력 교사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 변화 탐구**
 _ 오한나(덕성여자대학교 박사졸업), 이영애(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유아인권교육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연구**
 _ 최수진(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 석사과정), 권희경(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정서조절이 유아 문제행동 지도에 미치는 영향**
 _ 김수진(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 권정윤(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 **유아교실에서 ‘대장 되기’의 의미**
 _ 류미향(동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예비유아교사의 구성주의 이론 현장적용 경험: 경사로 활동을 중심으로**
 _ 빈혜원(동아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김소이(동아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홍희경(동아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박경금(동아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류미향(동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보육교사의 직무배태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_ 고성미(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
 송주연(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수경(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수)

- **토의를 통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이 유아의 사회성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_ 윤세미(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 이정숙(한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목 차 ❁

■ 모시는 글	
■ 기 조 강 연_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	13
박형주 소장(국가수리과학연구소)	
■ 주 제 강 연_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아교육 :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47
김지영 교수(송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 실천주제 강연 1_ 4차 산업혁명 시대 유아교육과정의 방향과 과제	59
장명림 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지원연구)	
■ 실천주제 강연 2_ 4차 산업혁명과 유아교사교육 환경, 매체의 변화	81
유구종 교수(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 실천주제 강연 3_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모 역할	103
전우경 교수(중앙대학교 부모교육아카데미)	
■ 실천주제 강연 4_ 교구로봇 코딩교육의 프로그램 적용	115
김상희 교수(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 종 합 토 론 _ 이병래 교수(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131

■ 7개 분과 논문 발표

분과 1 : 상호작용	139
분과 2 : 부모교육	159
분과 3 : 교사교육	179
분과 4 : 영유아 사회발달	199
분과 5 : 프로그램 및 평가	219
분과 6 : 기관운영 및 관리	239
분과 7 : 놀이 및 상담	257

■ 포스터 논문 발표 28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

박 형 주 소장(국가수리과학연구소)

**통찰의 시대,
지식이 아니라 학습능력이
경쟁력이다**

박형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도발적 질문-

학교는 지식 전수 기관인가,

or

학습법을 배우는 곳인가?



21세기가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는 역설

새로운 지식이 너무 빨리 출현하니,

→ 오히려 얼마나 아는가는 덜 중요

어차피 수년 내에 낡은 지식이 될 것이고

→ 새로운 걸 계속 배워나가야

대학에서 전공한 지식도

→ 직장에서 유용한 기간이 짧고, 곧 '옛' 지식

21세기는
‘지식 과잉’ 과 ‘무한 정보’ 로
요약된다

방대한 지식과 데이터에 묻혀 길을 잃는 사람들



데이터의 함의를 읽어내며 닥친 문제의 본질을
보고 해결하는 능력이 시대를 이끈다

바야흐로 지식의 시대는 저물고
통찰의 시대가 온 것이다



통찰의 사례



램프를 든 여인 The Lady with the Lamp

* 뫼뮐로의 시 '선덕 필로메나' 중

크림전쟁

Crimean War (1853~1856)

스쿠타리의 여전병원에서 부상병을 맞이하는
나이팅게일 (영국 화가 제리 케렛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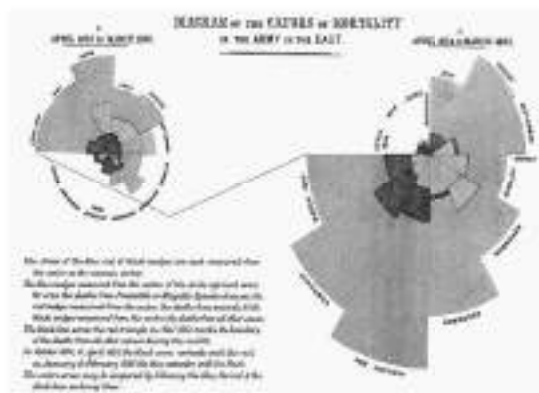
**왜 전쟁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야 하나?**

- 1854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질문 -

나이팅게일은 위대한 질문을 했고 그에 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

- ❖ 크림 전쟁에 참전한 영국군 20만명 중에서
사망한 21,097명을 통계학적으로 분석
- 2,755명 작전 중 사망
 - 2,019명 상처 후유증으로 사망
 - 16,323명 각종 병으로 사망

나이팅게일의 Rose diagram (1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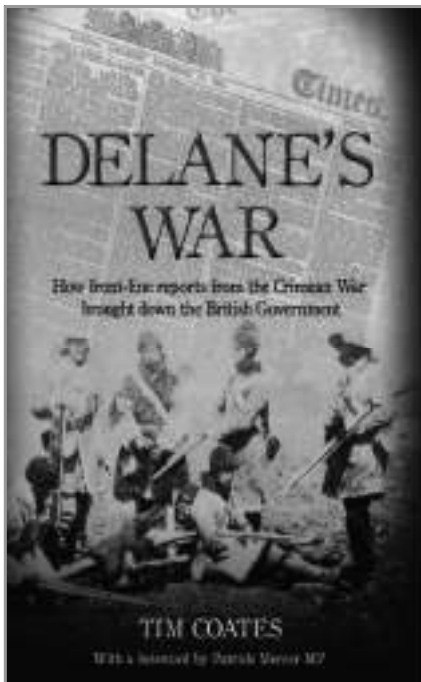
크림 전쟁 당시 영국 육군의 사망 원인을 보여주는 보고서에 수록

나이팅게일은

크림 주둔군 사령관인
라글란 경에게 서한을 보내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전쟁터의 상황과 원인을
알리고 위생병동 건립을
요청



나이팅게일이 크림 주둔군 사령관인 라글란 경에게
1855년에 보낸 호소문



영국신문 더 타임즈의
편집장 존 딜레인은
나이팅게일의 호소를
집중 보도하고 지원

**국내 여론이 들끓자 영국 정부는 조립식
위생병동을 제작하여 전장으로 보냄**
→ 사망률의 비약적 감소 (42% → 2%)
→ 기부금의 답지로 나이팅게일 기금 설립
→ 전쟁 후 세계 최초의 간호학교 설립 (현재
King's College London의 간호대학)



위대한 통계학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 1820~1910
- 영국왕립통계학회 최초의 여성회원
- 미국통계학회 명예회원



이질적인 것들의 만남과 연결

- 나이팅게일: 간호사는 약간의 의학 지식에 천신의 정신만 있으면 된다는 19세기에 데이터와 수학을 사용해서 공중보건의 개념을 영원히 바꾸어 버림. 시대의 관을 바꾼 선각자이자 혁신가
- 흄스키: 수리논리학의 개념을 언어학에 깊이 도입
- 솔제니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고 197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러시아의 소설가. 과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유지
- 스티브 잡스: 아이폰즈와 아이폰을 탄생시키며, 과학과 공학의 교육에서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유행어로 만든 혁신가
- 존 내쉬: 수학 박사 논문에서 다룬 게임이론은 경제학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서 199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그의 게임이론은 정치학에도 큰 영향



인문학 내의 융합? 공학 내의 융합?

동질적인 것들의 단순 합 보다,
인문학과 과학의 연결 같은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들의
충돌과 상호 극복
→ 그런 충돌이 판을 바꾼다!

한국에서 교육은...



Hendrik Hamel,
1630-1692
"Korean children are
always reading books
day and night. It is such a
wonder that
the children understand
books
remarkably well."
"Hamel's Journal and a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Korea, 1652-1656"





Jean Henri Zuber,
1844-1909
(1866년 병인양요
감화도)
"It is admissible that
books are present
in every single
household including
poor ones.
This also hurts our
pride."
"Le tour du monde"

1950년대 텐트 학교

60년의 변화

Saoul, 1953



Saoul, 2013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맥락을
이해하며 전략을 짜는 건
리더의 소양이고 기업의 top
manager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



단순 반복 업무를 로봇과
인공지능이 맡게 되는
시대에는,
현장의 하급직원도 이런
자질을 가져야..

K12 Education

Education has become a big social cost (rather than an asset)

- Excessive private tutoring
 - Percentage of Out-of-school expense in total education expenses:
OECD average 8.6%, Korea 19.3%, USA 8.4%, France 8.2%, Finland 0.7%
- Wide-spread early-education, and Parents' excessive interest in gifted student education
 - PISA score: #1 Finland 1658 points, #2 Korea 1625 points
 - Learning efficiency index: #1 Finland, #24 Korea
 - Investing time and money in learning is effective up to certain point, but Korean students are going far beyond that point

33

K12 Education

- 반복해서 문제만 풀게 하는 것은 독이 될 수도
 - 지치고 피곤하고 지긋지긋하고...
- 내용을 켜는 게 아니라
 - 지금의 내용에 스토리를 더하고 의미의 생명력을 부여해야
- 수학 과목의 예:
 - 개념이 탄생한 **역사**와, 다양한 영역에서 증대되는 **활용성** 소재를 포함해야

교육에 대한 변화 요구

기업의 신규 프로젝트에 투입된 직원은 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조직에 속해 일함

- ✓ 문제 해결과정 → 몰랐던 지식을 습득
- ✓ 이전에 알았지만 “함께 접하지는 못했던” 다양한 분야와 만남
- ✓ 팀원들은 연령과 지역, 배경과 전문성이 다양

Jason Tyszco

Executive Director, Center for Education and Workforce, US Chamber of Commerce Foundation

미래의 대학은

이런 일자리의 조직 형태를 유사하게 구현해야.
즉, 학과의 칸막이 대신 문제해결형 조직의 형태로
이합집산이 가능해야...

현장의 필요에 맞추는 교육으로는
하나의 직업에만 종사 가능...

직업의 탄생소멸이 빈번한
21세기에는 위험도가 높다

지식이 아니라 학습능력이
일자리에 더 중요

K12 Education Reform

Goal

Educate children to have

- ✓ **Logical & Computational & Critical Thinking**
- ✓ **Ability to draw conclusion from a large set of data**
- ✓ **Ability to communicate the conclusion to non-experts**

Curriculum

- ✓ **Languages and arts** help students to express themselves, and to communicate to others
- ✓ **History** puts perspectives on what we are doing
- ✓ **Mathematics** offers the best drill for thinking rationally and rigorously, and to draw meanings from unstructured data
- ✓ → Recent reduction of math curriculum is quite worrisome. Rather, history and applicability of the existing materials should be highlighted to add story and perspectives

Evaluations

실수해도 괜찮아!!

서술형 문제풀이



자기 생각의 과정을 기록하기

프랑스 수학 입시는 100% 서술형
중국 입시도 서술형 다수
북한의 학교 수학 문제도 모두 서술형

- 적은 수의 서술식 문제를 긴 시간 동안 궁리하며 풀게 해줘야
-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문제를 해결해 내는 능력을 얻어나가고 생각은 깊어져
- 아이가 미래 앞서라면서 부딪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도 닮았다.

코딩 교육

Soft Skill << System Skill !!

✓ **How do we make an App?**



- ✓ 1) What App do we want make?
- ✓ 2) Why do we want to make it?
- ✓ 3) How do we differentiate it from the other players in the world
- ✓ 4) How do we assign each task to team members?
- ✓ 5) How do we actually design and program?
- ✓ 6) What marketing strategy do we use?

대학 및 대학원 교육

Things to Consider

- ✓ **Korea has very high college entrance rate (over 70%)**
- ✓ **The un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is at historic high, and is considered a major social problem**
- ✓ **Academia values Theory Makers rather than Problem Solvers**

Career Path of New Math PhDs in Korea

- Career Path of 274 recent PhDs

- ✓ Universities: 28.8%
- ✓ K12 schools: 23.4%
- ✓ Research Institutes: 8.8%
- ✓ Industrial companies: 1.8%
- ✓ Startups: 1.8%
- ✓ Government: 1.8%

Reform

- ✓ **Less lecture & more active role of students**
- ✓ **Cross-disciplinary courses**
- ✓ **Research & Education are tightly tied**
- ✓ **Summer internships in research and/or industry**
- ✓ **Problem solvers are also valued:** professors and students helping industry to solve their problems
- ✓ **Encourage professors and students to create start-ups**
- ✓ **Colleges count professors' relevant contributions for the evaluation purpose**

Beyond Colleges

Learning beyond/outside colleges

- ✓ **Jobs require new skills that the job seekers do not have**
- ✓ **New channels of learning offer new possibilities, most notably the expansion of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ware)**
- ✓ **High school graduates with MOOC certificates should be employable without prejudice**
- ✓ **Expand PSM (Professional Science Masters) programs at colleges**
- ✓ **Colleges should be more open to retraining the grown-ups, by counting professors' relevant contributions for the evaluation purpose**

과학 발전과 일자리 문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혁명

18세기: 증기기관 ⇒ 기계 생산 ⇒ 1차 산업혁명

19세기~20세기 초: 전기에너지 ⇒ 대량생산 ⇒ 2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 컴퓨터 + 인터넷 ⇒ 생산자동화 ⇒ 3차 산업혁명

현재: 로봇 + 인공지능 ⇒ 실세계 + 가상세계 ⇒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자...

Luddite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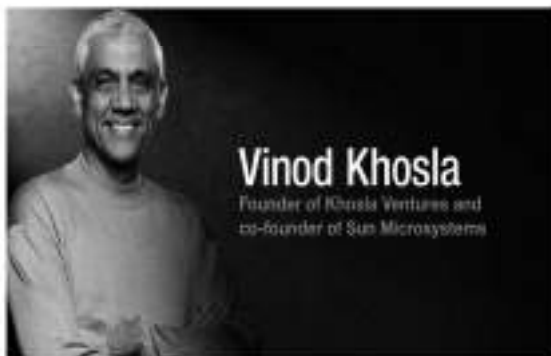
일자리 감소

- 로봇의 활용도 증대
 - 전체 일자리의 절반 정도가 로봇으로 대체 가능
- 공유경제의 개념 등장
 - 차량과 숙박업소 감소 및 종사자 일자리 사라짐
- 자율주행자동차
 - 택시운전사와 버스운전사 일자리 사라질 가능성
- 핀테크
 - 은행의 대면업무 감소
 - 2015년 미국과 유럽 은행원의 10%인 10만 명이 일자리 잃음.
10년 뒤 은행 관련 일자리의 절반 사라질 것으로 예상
- 빅데이터 무인진단법
 - Vinod Khosla는 현재 의사 수익 20%만 살아남을 것으로 추산



Vinod Khosla

“Machines will replace 80 percent of doctors”



- Sun Microsystems 공동창업자
- 실리콘 밸리의 주요 벤처 투자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빅데이터의 부상

- 인간 삶의 전 영역에서 방대한 데이터가 창출됨
 - ✓ “지난 2년 간 세계 휴대폰을 통해 창출된 데이터는 인류의 2천년 역사에서 창출된 데이터 총량과 비슷” - 2011년 매킨지 보고
- 방대한 데이터는 숫자의 나열에 불과. 그 속에 숨겨진 뜻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일자리가 요구하는 주요 소양이 될 것
 - ✓ “수학적 이해도를 가진 데이터 분석가와 방대한 데이터에 의해 만들어지는 복잡한 상품을 이해하고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설명할 수 있는 전문 세일즈 요원 필요” - 2016년 다보스포럼 미래일자리보고서

빅데이터의 시대정신

- 영웅이 어끄는 시대에서 참여민주주의 시대로의 변화

-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는 단지 기술적 진보가 아닌 훨씬 더 큰 함의
- 방대한 데이터에서 의미를 읽어내는 수학적 방식의 진보는 엉뚱하게도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내는 중
- 사회 구성원들의 다수 견해가 변화를 이끌면서, 대중은 계도의 대상이 아니라 시대를 이끄는 주체가 됨
- 계몽주의의 그림자가 드디어 곱히는 중

엘리트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갈등



고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밝힐
권리를 가진다는
직접민주주의를 상징

엘리트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갈등

- 소크라테스: 직접민주주의가 궤변과 혼란을 방지함을 간파하고, 지적 소양을 가진 소수가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 민주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독을 마실 것을 선고 받음
- 플라톤: 철인 왕은 20세에서 30세까지 산술, 평면기하학, 입체기하학, 천문학, 화성학을 교육받아야 한다는 철인정치 주장. 아카데미를 창립하고 철학과 기하학 연구를 하면서 엘리트들을 길러냄.
-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로 정복왕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됨
- 현대: 인구가 늘면서 불가능해진 직접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가 대체. 엘리트의 역할을 토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패션산업의 예



ZARA

- 세계 최대의 의류 회사
- 인스턴트 패션과 소량다종 생산의 효율성으로 성장
- 창업자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Forbes 세계 부자 순위 1위

Before:

엘리트 디자이너의 통찰과 영감으로 주도
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유명 디자이너가
유행할 옷의 디자인을 제시하고 대량생산

After: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보통 사람들의 기호와 바람을 파악하고, 여러
디자이너의 집단적 작업으로 신속하게 제품을 출시
전자전능한 지도자의 방향제시 대신 소비자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
→ 패션의 직접민주주의 구현



함께 보기

-연결과 융합의 효용성-

**Uber와 Air B&B가
파격적인 기술력이나 특허를 가졌나?**

Zara의 옷이 정말 특별한가?

**Amazon의 물류와 배송을 혁신하고 9천억원에
매각된 Kiva 시스템즈는 넘사벽의 하드웨어
기술력을 가졌나?**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연결하는 것

기술이 최고라고?

기술적 우월성 → 경쟁자의 주력 → 오래 버티기 힘들다
높은 수준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력이 주효한 분야는 지속적인 경쟁우위 유지 가능

기술보다는 문제해결능력이 미래 경쟁력

하지만 취업 준비의 방식은...

- 스펙 중심의 취업 준비 일상화
-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젊은이 과도
- 청년실업률 사상 최대치

→ 세대갈등의 양상

스펙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해결력” 의 척도로서만 유효 →
관련성은 점점 미미해지고 있음



**기업은
어떤 인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상식 시험?

기본적인 상식은 필요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은 휴대폰 검색으로도 해결 가능...

외국어 시험?

외국어 능력은 접할 수 있는 세상을 늘려주지만, 기계학습에 기반한 자동번역의 발전으로 상당부분 해결 가능...

수학시험?

단순 공식 암기나 반복학습에 의한 문제풀이 능력은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과 무관...

배우는 능력테스트

생소한 영역의 책을 주고 1주일 후에 발표하기?

문제해결능력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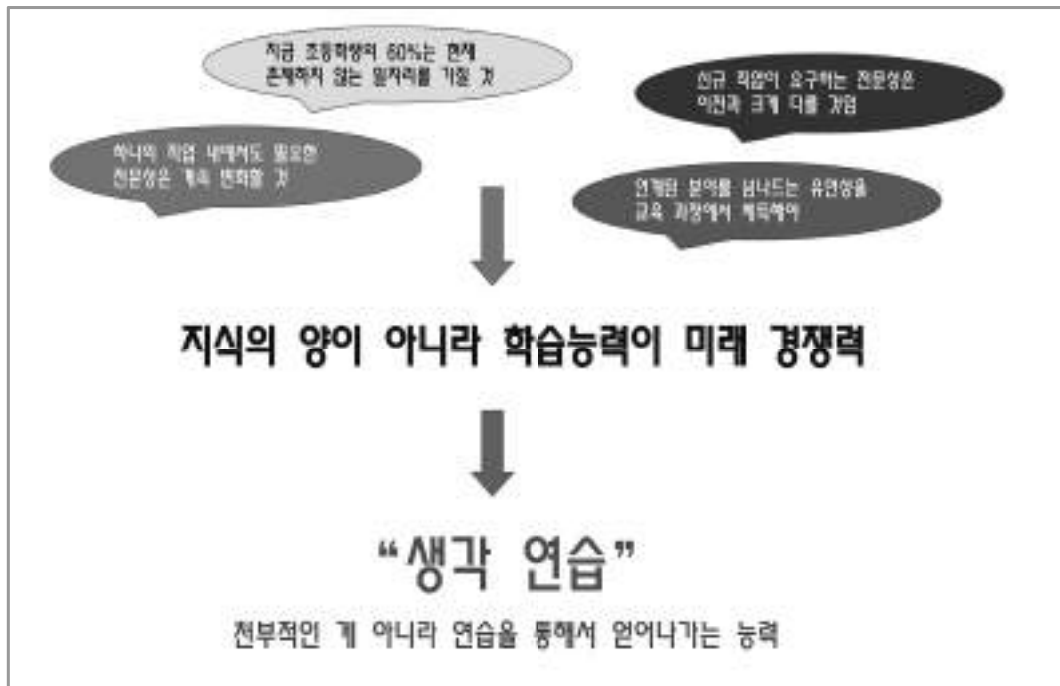
심층면접 대상자를 연수원에서 일주일간 지내게 하면서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미니 버전을 던져주고 일주일 안에 해결
방안 요구?**

**기술 트렌드 또는 소비자 트렌드 등에 관련된 빅 데이터를 주고 일주일
내에 그 의미를 해석할 것을 요구?**



생각 연습



생각 연습의 과정

- ✓ 기초 자료를 모으고 합리적 추론의 과정을 거쳐 결론에 다다르는 능력을 얻어 나가는 과정
- ✓ 이런 연습과 훈련을 받지 못하면?
 - ✧ 합리적 주장과 궤변을 구별하지 못한다
 - ✧ 사실과 선동을 혼동한다
 - ✧ 통계적 대체와 불확 소란의 차이도 잘 모른다
 - ✧ 장의와 임의용변을 동류로 여긴다

*** 합리적 사고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 길러진다 ***

생각연습의 주요 도구 수학교육 & 다독(多讀)

수학은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기술로 변질

프랑스 고등학교 수학 종강고사: 2시간에 석술형 10문제
한국 고등학교 수학 종강고사: 50분에 선다형 및 단답형 20문제
한국 : 프랑스 = 4 : 1

이건 기계에게 맡겨도 될 기술이고
복잡다단한 세상 문제의 해결 능력과도 무관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평생 수학 사용해보진 못했어 잘 하셨는데...

국문과에 갈건데 왜 다독분을...

누가 왜 암들었는지도 모르는 어려운 수학 용어를 제대로 설명도 안해주고, 반복해서 문제만 풀라고 하니...

반복적 문제풀이 방식의 수학교육에서는
작은 실수도 치명적이고
아이들은 수학 문제 보는 게 공포

교과 내용 감축이 답?

교과 과정의 문지마 감축을 물어뜯으면 → 단순 반복학습 가중 →
작은 실수도 치명적 → 호기심이나 생각은 사치 → 모험도 사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무언지 모르는 아이들을 미래 세상으로 내몰게 됨

- 단조로운 교과내용을 반복하며 '실수 안하기 전문가'가 되어가는 우리 아이들은 미래 직장에서 평생 처음 보는 일들의 해결을 요구 받을 것
- 아이들이 변한 생각의 틀을 넘어서서 모색과 해결의 통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에 다양한 수준이 포함돼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아교육 :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김 지 영 교수(송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주제 강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아교육 :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김 지 영¹⁾

I.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다가온다.

지금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주제가 ‘제 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는데, WEF는 제 4차 산업 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 혁명’이라고 설명한다.

구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기	18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1970년대 이후	2020년 이후
혁신 부문	증기의 동력화	전력, 노동 분업	전자기기, ICT 혁명	ICT와 제조업 융합
커뮤니케이션 방식	책, 신문 등	전화기, TV 등	인터넷, SNS 등	IoT, IoT
생산 방식	생산 기계화	대량생산	부분 자동화	시뮬레이션을 통한 자동생산
생산 통제	사람	사람	사람	기계 스스로

1~4차 산업혁명 비교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1차 산업 혁명은 18세기 증기기관의 발견으로 인한 생산 과정의 기계화를 이뤄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 대량 생산을 이뤄냈다. 20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과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 혁명을 이루어 냈다. 4차 산업 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산업이나 서비스의 경계를 뛰어넘어 서로 다른 산업과 서비스를 결합시키게 될 것이다.

1)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교수



지능정보기술과 타산업 및 기술의 융합 사례

(출처 : 미래부)

드론,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나노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이 모두 4차 산업혁명의 영역으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해질 것이다. 많은 미래학자와 4차 산업혁명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은 속도와 파급 효과 측면에서 1,2,3차 산업과는 차원이 다르게 사회와 경제 구조를 빠르고 광범위하게 바꿀 것이라고 예측한다.

새로운 물결의 변화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는 교육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러한 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의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다가올 미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의미한다.”²⁾ 미래세대가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목표, 과정, 방법은 현재의 시점에 기준을 설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을 미래에 필요한 인재로 키워나가고 미래 변화에 맞추어 교육 시스템을 맞추어 나가기 위해 우선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변화들에 대해 민감해 질 필요가 있다.

Ⅱ.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³⁾

1. 학력 파괴의 바람이 불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이 사람을 채용한다면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기계로도 대체할 수 있는 단순 지식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미래에는 잘 외우고, 시험을

2) 찰스 파넬 외 <4차원 교육 4차원 미래역량> 새로운봄, 2015

3) 본인의 저서 <다섯 가지 미래 교육 코드>의 내용을 편집하여 구성함

잘 보는 능력은 절대 경쟁력이 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대학=취업=성공’이라는 신화에 암묵적으로 의존했다. 그러나 이 신화는 이미 무너진 믿음에 불과하다. 지금도 단순한 학력보다는 본인이 가진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취업이나 성공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곧 이제 누구나 대학에 가는 시기가 온다. 교육계에서는 우리나라의 학력인구 감소가 대학 정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점을 2018 년으로 예측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 연구팀에 따르면 2018 년부터 대입 정원과 입학 자원의 역전 현상이 발생되어 처음으로 입학 자원이 대입 정원에 미달하게 된다. 현재 대입 정원인 약 56 만 명이 유지될 경우 2018 년 입학 자원은 54 만 9890 명으로 대입 정원에 9146 명 부족하다. 그리고 5 년 후인 2023 년에는 학령인구가 39 만 7998 명으로 급격히 줄어 대입 정원보다 16 만 1038 명이 부족하게 되고, 이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미래에는 모든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지만, 대학 졸업장은 더 이상 취업이나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되지 못한다. 대학 졸업장이 아닌 자신만의 실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벌써 시작된 학력 파괴의 바람이 미래에 더 강해질 것이다.

2. 지식의 가치가 바뀐다

과거에는 지식이 비대칭했다. 소위 가방끈이 긴 사람이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지식을 얻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런 지식 비대칭 시대에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큰 가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손에 든 핸드폰만 터치하면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하여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지식 대칭의 시대가 된 것이다. 지식 비대칭의 시대에는 당연히 지식의 소유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무기가 되지 못한다. 지식 대칭 시대에는 지식 활용 및 지식 생산이 중요하다. 지식을 잘 찾아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필요한 지식을 찾아 활용하고, 기존의 지식들을 조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

또한 지식의 수명이 계속 짧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학 4 년 동안 전공 지식을 쌓으면 그 지식의 수명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회사 업무에도 활용이 되었다. 그러나 점차 지식의 수명이 짧아지면서 4 년간 대학 교육을 받는 사이에 많은 기술들의 수명이 다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생겨나는 등 대학 교육과 현장 사이의 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식의 빠른 소멸과 생성으로 우리 아이들 세대는 앞으로 계속해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식의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쌓아두는 지식이 아닌 필요에 따라 필요한 지식을 바로 학습하고 업데이트 하며 ‘적시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런 지식 가치의 변화에 따라 우리 아이들은 지금처럼 무조건 교과서의 내용을 외워서 지식을 암기하고 쌓아두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 지식 활용자 및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3. 직업생태계가 바뀐다

“2016년 현재 세계의 7세 어린이의 65%는 나중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5년 내 선진국에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인공지능·로봇기술·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닥쳐 상당수 기존 직업이 사라지고 기존에 없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주관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은 2016년 발표한 〈일자리 미래〉 보고서에서 위와 같은 예측을 발표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직업에 맞추어 아이들을 빚어내려고 하는 노력은 헛수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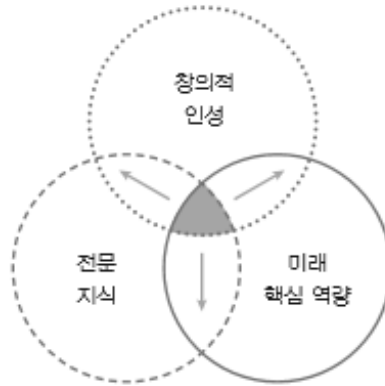
현재의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일의 성격이 달라진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이후, ‘알파고 시대’란 말을 많이 쓰는데, 알파고 시대에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은 자명하다. 미래 사회에서는 창조적인 일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반복적인 일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는 정형적 업무(routine task), 그 중에서도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대부분 인공지능인 AI가 대신할 것이며, 인간은 사람을 상대로 하거나 분석력을 필요로 하는 비정형적 업무(non-routine task)를 하게 될 것이다. 미래에 급증하는 비정형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위 고차원적 역량이 필요하다. 고차원적 역량에는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다문화 감수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미래는 취업이 아닌 창직의 시대가 된다. 직업의 개념을 융통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직업’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미래를 읽지 못해 하는 치명적인 실수다. 미래 사회에서 살아갈 아이들에게는 특정 직업을 찾아 ‘취업’을 하는 제한된 길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만드는 ‘창직’의 길을 개척하는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창직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지식, 기술, 능력과 흥미와 적성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창직이라고 해서 기존에 없던 아주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관련된 직업들을 연결하고, 기존 직업에 새로운 요소를 더하고, 기존 직업들의 틈새를 찾는 과정에서 창직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사회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 및 적응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창직의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의 교육은 매끈하고 반듯한 도자기를 빚어내는 교육이 아닌, 아이들이 자신의 모양대로 개성 있는 도자기를 빚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4. 인재가 바뀐다

인재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는 확실히 새로운 인재상을 요구할 것이다. 미래학적 관점에서 본 인재상은 “멀티플레이어이자 리더십이 강하고 경험이 많으며, 문제해결능력, 창의적-분석적 사고, 팀워크, 의사소통능력, 의사결정능력이 뛰어난

아이다.”⁴⁾ 공부는 잘하지만 미래 역량들이 부족한 아이들은 앞으로 어디서든 환영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교육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아래 그림에서 보듯 창의적 인재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전문지식, 미래 핵심역량, 창의적 인성이다.



창의적 인재에 3가지 핵심 요소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과거에는 IQ가 높은 인재를 원했다면 이제는 NQ가 높은 인재를 원한다. NQ는 ‘Network Quotient’의 약자로 ‘네트워크 지수’, 또는 ‘공존지수’라고 한다. 공존지수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운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과거의 우리 사회는 수직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수평적 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수평적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가는 능력이 중요시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미래에 NQ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비단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을 잘 하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융·복합시대, 네트워크 사회가 도래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중요해지는 지식 생산력과 지식 공동체 형성에 NQ가 핵심적인 역량이 되기 때문이다.

변화가 가속화 되는 시기에 앞으로 기업들은 변신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변신을 해본 사람을 우대할 것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생각하는 틀, 기존의 경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변화의 파도를 타기가 어려울 것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는 빠른 속도로 기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됨의 가치가 더욱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 미래사회에서도 “성숙하고 인격적이며 사람다운 인재를 찾을 것이고, 이것이 인재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⁵⁾인성과 함께 인간에게 차별적인 능력인 ‘감성’이 큰 경쟁력이 될 것이다. 감성 디자인 능력이 미래에 중요한 능력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감성 디자인 능력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행복의 느낌들을 새롭게 디자인하거나 향상해 전달하는 능력, 이를 지속가능하도록 경영해주

4) 박영숙, 〈2020 미래 교육 보고서〉, 경향미디어, 2010

5) 최현식, 〈2030 인재의 대이동〉, 김영사, 2016

는 능력을 의미한다.”⁶⁾

Ⅲ. 교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미래에 지식의 가치, 직업 생태계, 그리고 인재상이 바뀌면서 교사의 역할도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될 것이고, 기계로 대체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다른 직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는 교사들도 비정형적이면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1. 비정형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교과서나 교과과정대로 잘 가르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였다면 앞으로는 가르치는 학생들의 특징, 수준, 요구를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필요한 학습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큐레이팅(curating) 할 수 있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가 될 것이다. 이미 짜인 틀에 따라 교육 계획을 세우는 교사가 아니라 교육 과정을 새롭게 기획을 할 수 있는 교사를 더욱 더 필요로 할 것이다. 적응력이 없는 교육과정은 경직될 수밖에 없고 뒤쳐질 수밖에 없다. 미래에 교사들은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학습자의 요구, 흥미, 개인의 성장 목표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에는 기술을 발달로 학습자 스스로 선택하고 관리하는 개별 맞춤형 학습이 늘어날 것이다. 학습자가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별 학생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학습 자원을 제공해주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교수 역량도 더 많이 요구될 것이다.

2. 기계로 배울 수 없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빠른 속도로 인간의 능력이 기계로 대체될 것이며 교사들은 이제 기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한 일 중 하나가 ‘관계’를 통한 학습이다. 인성을 길러주는 일, 감성을 키워주는 일, 소통을 강화하는 일,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일은 기계를 통한 학습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간의 관계를 통해, 공감을 통해, 인간적인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학습이다.

미래사회는 다양한 패러다임의 공존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갈등, 인간과 기계와의 분쟁, 생명윤리에 둘러싼 갈등, 인공지능으로 통제되는 사회에 대한 불만족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며, 이에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져 교육 현장에서도 영적, 존재적 가치를 전달하거나 논의하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⁷⁾ 따라서 미

6) 최윤식, 최현식, 〈2030 미래의 대이동〉 김영사, 2016

래의 교사들은 이런 부분에서 역량을 더 길러야 한다. 티칭보다 상담, 코칭(coaching),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역량들이 앞으로 교사들에게 더 요구될 것이다.

3. 배움을 지속해야 한다

지식의 총량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반면 개별 지식의 수명은 감소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2-3년 단위로 새로운 지식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에도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될 것이며, 미래에는 기계와 함께 교사가 협력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미래 교육의 방향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교사들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기계와 협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미래 교육은 인간인 교사를 통해서만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첨단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배움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 공동체 안에서의 협력 학습의 중요성이 강화될 것이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협업이 경쟁력이다. 교사들도 교사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을 나누는 학습 공동체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유아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미래 변화에 맞추어 지금의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들이 집중해야 할 미래 역량으로 <다섯 가지 미래 교육 코드>에서 꼽은 것이 자기력, 인간력, 창의융합력, 협업력, 평생배움력이다.



다섯 가지 미래 역량

<출처 : 다섯 가지 미래 교육 코드>

7) 최윤식, 김진주, <2030 기회의 대이동>, 김영사, 2014

1. 자기력

자기력은 한마디로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발전시키는 능력이다. 자기력은 아이들의 성장의 평생 동력이 된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계속 변화의 바람이 거칠게 부는 시대에 살게 될 텐데 사회가 흔들릴수록 흔들리지 않는 자기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강점, 흥미, 욕구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와 교육은 아이들을 ‘평균’이라는 시스템에 맞추게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많은 미래 학자들이 이제 ‘평균적 사고’의 종말을 외치고 있다. 앞으로는 평균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생존이 가능해진다. 자기력을 갖추지 못하는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누군가의 요구나 외부의 상황에 맞추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만의 능력과 스토리를 키워가지 못한다. 우리 아이들을 미래에 자신만의 차별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로 키우고 싶다면, 유아 교육을 함에 있어 평균적 사고, 평균적 행동을 강요하기 보다는 각자의 아이들이 가진 고유한 결과 색을 찾아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2. 인간력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게 될 텐데 그럴수록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것이다. 인간다운 능력을 함축한 두 단어는 ‘사고력’과 ‘감성력’이다. 우리는 흔히 혁신의 핵심이 기술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술을 생각해 내는 것은 사람이며, 혁신의 주체는 그 사람이 가진 ‘문제 의식’과 ‘공감 능력’이다. 앞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의 핵심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고하게 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다양한 갈등과 혼란 상황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도덕적 가치관과 윤리 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 사고력을 촉진하기 위해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아이의 질문력을 강화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감이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공감이 점점 더 결핍되고 있다. 혼자 사는 사람과 핵가족이 늘어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공감력을 키울 기회와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미래에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미래에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관계 지향적인 일이며 이 일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역량이 공감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에 뛰어들어 다양한 사람의 감정, 상황, 행동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3. 창의융합력

미래 사회는 복잡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지식과 분야

를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더 요구할 것이다. 창의융합력은 지금도 중요한 코드이지만 미래에는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될 것이다. 놀이는 아이의 창의성을 높여 주는 가장 좋은 활동이다. 아이를 창의융합형 인재로 키우고 싶다면 주도적인 놀이, 함께하는 놀이, 개발하는 놀이를 통해 창의성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평소에 사용자가 아닌 개발자가 되어 보는 경험을 해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의적인 사람은 사고가 유연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교사들은 ‘완벽’ ‘완성’ 보다는 ‘시도’ ‘도전’에 대해 아이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창조적 도전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창의융합 시대에는 서로 다른 분야를 잘 넘나드는 사람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경험을 넘나들고, 학문 분야를 넘나들고, 서로 다른 사람을 넘나들면서 창의융합적 역량이 키워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계를 두지 않고 경험하고 체험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책이든, 사람이든, 도구든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연결해보는 경험을 교사들이 많이 디자인해 줄 필요가 있다.

4. 협업력

미래는 집단 지성의 힘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협업능력이 높은 사람이 개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환영 받게 된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 것이고, 네트워크 사회의 성향이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자 잘하는 능력보다 함께 잘하는 협업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협업력을 키워주기 위해 교사들을 어릴 때부터 아이를 갈등이라는 학습의 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툼, 생각차이가 생겼을 때 이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해결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배움이 일어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릴 때부터 ‘다름이 도움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다름이 도움이 되는 경험을 많이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협업력을 기르기 위해 어릴 때부터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퍼실리테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며, 최종적으로 공동의 결론 혹은 대안을 만들어내는 회의 활동은 아이들을 협력자로 키우는데 유용한 활동이다.

5. 평생 배움력

마지막으로 호모 헨드레드 시대, 지식의 수명이 더욱 더 짧아지는 미래에는 스스로 배움 시스템을 계속 가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평생 배움력이 없다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이의 평생 배움력을 키워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어릴 때 배움에 대한 호기심을 꺾지 않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 선행학습, 지나친 지식교육으로 인해 배움에 대한 무기력증을 갖는 경우가 많다.

배움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교사들은 아이를 자세히 관찰하고 그 아이가 지

금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몰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평생 배움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이의 성장 곡선에 맞고 아이의 관심에 맞는 ‘적기 교육’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평생 교육의 주요한 자원이 되는 것이 바로 책이다. 책읽기에 대한 관심을 어릴 때 갖도록 해주는 것은 아이의 평생 배움력에 기초 체력이 된다.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책 읽기가 아니라 책과 자신을 연결해보는 책읽기를 통해 아이들이 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 책읽기 교육이 필요하다.



실천주제 강연1

4차 산업혁명 시대 유아교육과정의 방향과 과제

장 명 림 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지원연구본부)

실천주제 강연1

4차 산업혁명 시대 유아교육과정의 방향과 과제

장 명 림¹⁾

I. 들어가는 말

- 2016년 1월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 일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에 직면하게 되고, 그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이라고 4차 산업혁명을 예고함. 이후 3월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로 우리나라는 물론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전세계의 충격과 관심을 불러일으킴.
- 급격한 기술 변화의 ‘지능정보사회’로 일컬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사회 전반 및 교육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자국의 방안과 대책을 모색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그 이전인 2011년부터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한국형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교육을 학교현장에서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2016.12.23)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개혁 방향 및 과제탐색 논의는 주로 초·중등 및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취학전 단계에서부터의 생애출발점 평등과 취학전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단계도 포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유아교육의 특성을 반영하고, 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을 포함하는 유아교육과정의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지원연구본부장

- 본 고에서는 이러한 배경에 터하여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 방향과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변화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터하여 향후 유아교육과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함.

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 전망²⁾

1.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트렌드와 교육의 역할(김진숙, 2016)

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트렌드

-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정보기술(IT), 인지과학(CS)의 융합 기술로 발전하고, 이로 인한 지능형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이 생산을 주도하는 사회 구조로의 혁명으로 정의됨.
- 융합기술 트렌드는 지능화, 가상화, 초연결로 구분됨.
 - **지능화** : 인간과 기계의 관계로서, 머신러닝, 딥러닝,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인간처럼 기계가 사고하도록 진화되는 현상. 지능적 사회로의 변화는 인간의 정체성 논란과 함께 단순 반복적인 업무나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예측과 추론, 문제 해결 기술 대체 등 일자리 지형의 변화가 예견됨.
 - **가상화** :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와의 융합 현상으로, 특히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이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체험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물리적 일상이나 사회 경제 활동 전반이 가상화될 것으로 예측됨.
 - **초연결** :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연결되는 사회로의 변화. 디지털 네트워크와 모바일 정보기기의 확산은 인간 교류 범위 무한정 확대, 사회 전반의 글로벌화가 가속화, 지구상의 모든 정보들이 공유될 것임.

나. 미래 학교, 교육 및 학습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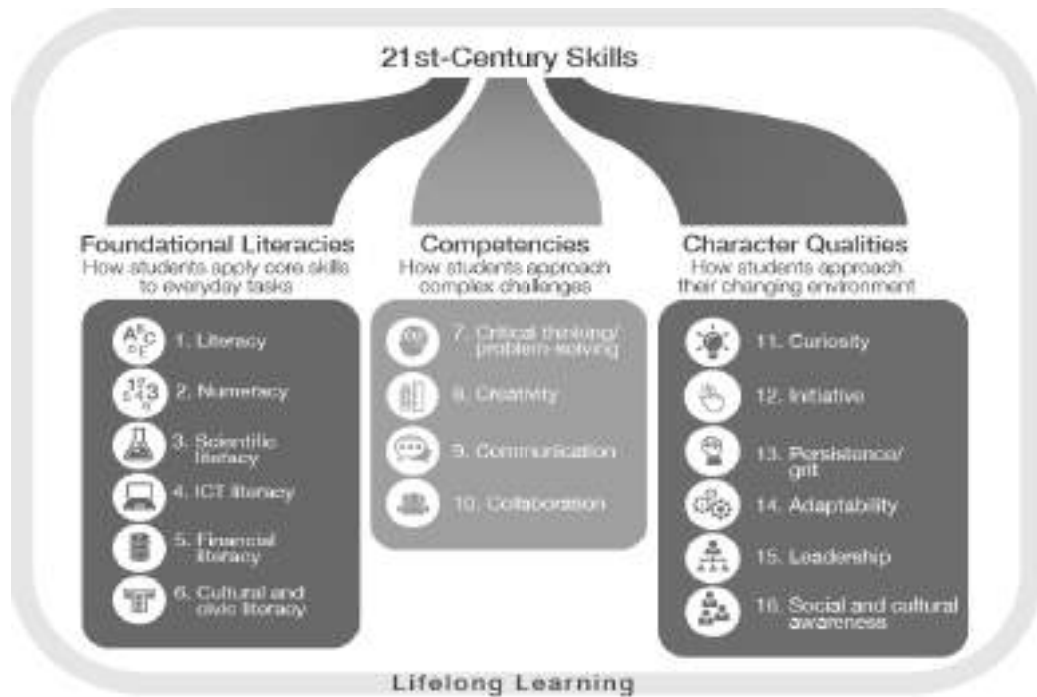
- 학교는 학습공동체의 경험을 제공해 주고,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가 고려된 선택적 교육 과정이 확대되며,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T 기술의 적극적으로 도입됨.
- 한 사람의 천재를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의 재능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 그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즐거움과 유용성을 깨닫게 해야 함.

2) 최근 제 4차 산업혁명/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발표문이나 기고문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함.

- 미래 학습 형태 : 실제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 방법, 학습의 지향점, 평가의 실질적인 방향 전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교육 환경, 특히 교사의 역량 강화 등이 중요
 - 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학습 경험 융합(Blended Learning), 교과 간, 학문 간 융합(STEAM Learning),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의 융합(Crossover Learning), 과학적 논쟁과 맥락 기반 학습(Context-based Learning)
 - 이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와 교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 전제임.
 - ② 시공간을 넘나드는 협력 활동, 학습자를 소비자가 아닌 메이커(Maker) 또는 창작자(Creator)로 전환시키는 학습 활동, 실생활에서의 적용을 염두에 둔 프로젝트 학습, 과제 기반 학습 활동
 - 협력의 범위가 온라인을 통해 한 교실에서의 교사와 학생이 아니라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는 경험으로 확대, SW 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전 교과에서 IT 기술이 융합되어 학생의 아이디어가 다양한 형태(SW, 마인드맵,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로 표출되도록 해야 함.
 -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은 교과 내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과 연결되도록 깊이 있게 설계(디퍼러닝)되어야 함.
 - 이러한 학습 활동을 기획하고 설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사 간에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사 대상의 학습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야 함.
 - 교사 연수에 있어서도 기술 융합을 위한 기본 역량과 학습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연수 과정이 마련되어야 함.
 - ③ 학생들의 학습 활동은 기술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고, 분석되어, 학습 개선 정보로서 교사와 학생에게 제시되고, 이러한 학습 분석(Learning Analytics) 기술이 전반적인 평가 체계를 바꿀 수단이 될 것임.
 - 결국 이러한 분석 정보가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적응적 학습(Adaptive Learning)을 가능케 하고, 별도의 시험이나 평가가 없어도 학습성과가 진단되는 스텔스평가(Stealth Assessment) 방식이 적용될 것임.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의 미래(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

- 21세기를 위한 핵심 기술과 사회 정서 학습 기술(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Skills
 - 특정 소수의 개인이 아닌 모든 개인들로 하여금 문해와 수해능력과 같은 ‘기초 기술 (foundational skills)’ 뿐 아니라 협력, 창의성, 문제해결력과 같은 ‘역량 (competencies)’, 일관성, 호기심, 주도성과 같은 ‘인성(character qualities)’을 갖추도록 요구함.
 - WEF는 ‘21세기 기술’로서 16가지 핵심 기술을 제시함.



[그림 1] 21세기에 필요한 기술들

〈출처 : World Economic Forum(2015b), New vision for education: Unlocking the potential of technology, Colony/Geneva: World Economic Forum. * 본문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6)의 원고를 정리한 것이나, 그림은 WEF(2015) 원문의 것을 그대로 제시함.〉

- 21세기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 : 에듀테크(Education Technology)
 - 실제 교육의 결과 측면이나 기술 격차 해소 측면에서 에듀테크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짐.
 -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에듀테크의 활용 가능

○ 에듀테크(Education Technology)

-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훈련된 교사의 부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같은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 도출
-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좀 더 많은 학습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같은 비용으로 더 나은 수준의 교수 내용 제공
- 지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망 모델들을 발굴하여 이를 발전시키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우수 사례들을 전파하는 활동을 보다 손쉽게 실행
- 기술을 활용하여 훨씬 더 폭넓은 데이터를 대량으로 빠르게 확보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실시간으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관한 인사이트 확보
- 시험, 채점과 같은 업무로부터 교사를 해방시켜 줌으로써 이들이 역량과 인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사들의 생산성 향상

3.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의 미래(김승환, 2016)

○ 미래형 교육정책

-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반영, “governance”
- 지능정보 활용 맞춤형 교육체제 : 미래형 교과서/콘텐츠, 지능형 학습플랫폼, 온라인 학습포트폴리오 등
- 학생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로 전환 : 수업연계 과정중심평가, 성취기준평가제, 교사평가자율성, 역량중심평가
- 수업혁신과 유연한 학제 개편 : 자유학기제 확대, 고교무학년제, 다양한 학습경험 및 학점인정체제

○ 타분야와 융합하고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 필요

- 과도한 지식주입, 반복학습식 교육방식→학업에 대한 흥미, 배움의 즐거움
- 창의적 인재(메이커) 교육

○ 지능정보사회의 미래 핵심 역량교육

- 창의성, 문제해결력, 정보역량, 시민성 등 미래세대 핵심 역량 함양

○ 미래를 대비하는 창의융합인재와 과학교육

○ 지능정보시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혁신은?

- 수업과 교실은 진짜 세상의 문제해결 중심, 학생주도 체험, 창의성 계발의 장으로 변화

○ 미래형 교실(교육공동체)

- 학생주도, 실생활문제해결, 팀체험학습
- IT 결합/SW교육
- 창의적 체험, 융합인재교육(STEAM), 메이커(learning by doing) 접목

4. 미래교육개혁의 방향(이주호, 2016)

가. 프로젝트학습과 수행평가 중심으로의 교수학습방식의 전환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학습방식을 바꾸어야 함.
 - 많이 아는 것만 추구하는 ‘표층학습(surface learning)’으로부터 많이 알면서 동시에 깊이 알고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심층학습(deep learning)’으로 발전해 나가야 함.
- 그 동안 우리 교육은 지나치게 주입식 교육과 선다형 평가에 의존해 오면서 학생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교사들도 자기효용감을 상실하고 있음.
- 심층학습을 위한 대표적인 교수학습방법인 프로젝트학습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현실 문제 및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협동적인 그룹 활동으로 진행되는 학습임.
 -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은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길러주고, 현실문제/과제해결을 위한 수업은 창조적 문제해결역량을 키우며, 협동적 그룹 활동을 통한 수업은 소통기반협력역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컴퓨팅사고력 교육 및 진로·기술 교육의 혁신

- 수학·과학교육과 기술교육을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컴퓨팅 사고력은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사람이나 컴퓨터가 효율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고과정으로 정의 됨(정인수, 2016, 재인용).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과 체제에서 수학, 과학,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컴퓨팅 사고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전략 및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교사양성 및 재교육, 입시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다. 교육개혁의 추진

- 교사의 프로젝트학습과 수행평가 역량 강화 연수와 교육 체제를 구축함.
- 프로젝트학습과 수행평가의 현장 실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정보 및 컨설팅체제를 구축함.
- 프로젝트수업과 수행평가를 모든 학교에 확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 및 확산 체제를 구축함.
- 프로젝트학습을 위한 다양한 교사 유인체제를 강화함.
-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학교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중간기구의 설립과 교육·정보화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의 자율성 확대, 이들 기관들이 아래로부터의 현장 변화를 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5.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미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정제영, 2016)

- 미래형 학제 개편 검토
- 학습자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기 위한 활동 강화
- 완전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자 중심 평가제도 구축
- 지능정보사회의 창의적 교사 양성
- 미래형 교육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그림 2] 현재의 학교와 미래의 학교 모습(정제영, 2016)

6. 초·중등교육의 미래 비전과 혁신 영역(정미경 외, 2016)

-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한국의 교육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육 환경을 둘러싼 사회, 기술, 환경,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한국 초·중등교육의 혁신영역을 탐색·제시함.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최근 교육정책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요 및 특징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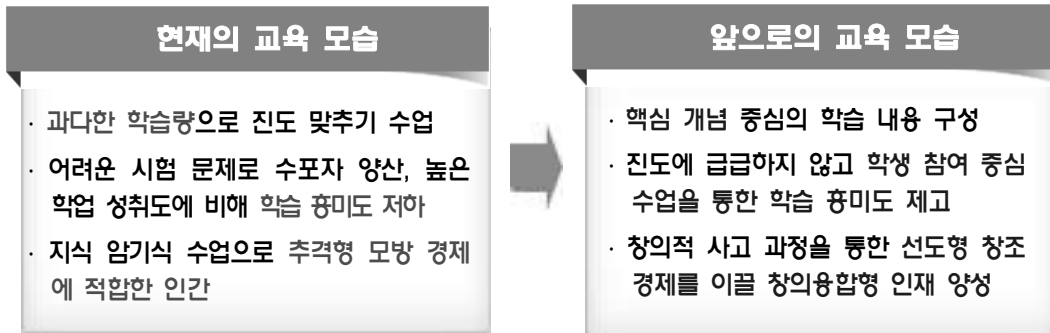
가.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5.9.23.)

- 교육부는 ‘6대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과제로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발표(2015.9.23.).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
 -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문·이과 공통 과목 신설, 연극·소프트웨어 교육 등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 강화
 - 교과는 단편지식보다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교실 수업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수·학습 및 과정 중심의 평가 방법 제시
 - 새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과서, 대입제도, 교원 양성 및 연수 체제 등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병행 추진
-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 제시

- ▶ 창의융합형 인재 :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 ▶ 추구하는 인간상
 - 자주적인 사람 :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사람
 - 창의적인 사람 :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사람
 - 교양 있는 사람 :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사람
 - 더불어 사는 사람 :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 ① 자기관리 역량, ② 지식정보처리 역량, ③ 창의적 사고 역량, ④ 심미적 감성 역량, ⑤ 의사소통 역량, ⑥ 공동체 역량

- ▶ 자기 관리 역량 :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 ▶ 지식정보처리 역량 :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 창의적 사고 역량 :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 ▶ 심미적 감성 역량 :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 ▶ 의사소통 역량 :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 ▶ 공동체 역량 :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그림 4]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대하는 교육의 변화 모습

나. 초등학교 교육과정 주요 개정 사항

-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군)에 한글교육을 강조하는 등, 유아 교육과정(누리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고
- 초등 1~2학년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 늘리되, 학생들의 추가적인 학습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해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편성·운영하도록 함
 - * 안전한 생활은 생활안전/교통안전/신변안전/재난안전 4개 영역으로 설정하여 지식 보다는 체험 중심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안전한 생활습관과 의식을 습득하게 함

2. 융합인재교육 정책 추진³⁾

가. 융합인재교육 정책 도입 배경

- 2009년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중국과 핀란드에 이어 3위의 성적 기록
 - 2011년 실시한 ‘수학·과학 성취도 비교연구(TIMSS)’에서는 우리나라가 과학 성취도 1위, 수학 성취도 2위 차지
- 높은 학업성취도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 자발성에 있어서는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
 - 2006년 PISA에서는 과학에 대한 흥미가 57개국 중 55위 기록
 - 2011년 TIMSS에서는 수학 과목의 자신감과 즐거움 점수가 50개국 중 각각 47위, 과학 과목도 자신감이 50위, 즐거움이 47위로 최하위권
-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에서 진행되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식, 암기식으로 실시되는 과학 수업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
 - 즉, 주입식·암기식 문제 풀이 중심의 수업 방식으로는 지필시험의 성적은 높일 수 있지만 그 과목을 학습하려는 동기와 흥미는 유도하지 못한다는 의미
- 이러한 과학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융합인재교육(STEAM) 시작
 - 지식기반사회는 기술이나 지식만을 지닌 것에 그치지 않고 감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함.
 - STEAM교육을 통해 실생활과 연계된 주제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흥미롭고 재미있는 과학 수업,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과학수업을 만들고자 함.
 - STEAM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수학·과학 교육 패러다임임.

나. 융합인재교육의 개념과 특성

-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고자 추진되는 STEAM교육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의 약칭으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교과 간의 통합적인 교육 방식

3) 한국과학창의재단 융합인재교육 STEAM, <http://steam.kofac.re.kr>(2015. 2. 27접속)의 내용을 중심으로 1~4절을 정리한 것이며, 장명립(2015. 4) 한국유아교육학회 2015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를 재인용함.

- ▶ STEAM교육은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소양과 실생활의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



[그림 5] 융합인재교육(STEAM)의 정의와 개념도

- 미국이 수학·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던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ematics) 교육에 예술적(Arts) 요소를 추가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감성을 일깨우기 위한 교육
 - 수학·과학에 대해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학생들을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재로 키우기 위한 것
 - STEAM교육에서 예술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디자인 중심의 미술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미술외에도 liberal arts의 인문교양분야, language arts의 언어 소통 분야까지도 모두 포함
- STEAM교육이 기존 교육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특징은‘융합’이며, 궁극적인 융합은 실생활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융합’
- 새지식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보화시대에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기존 지식을 어떻게 융합에 활용하는가의 문제에 대답하는 것이 더 중요
- STEAM에서 강조되는 ‘융합적 소양(STEAM Literacy)’은 다양한 지식을 활용해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분야의 융합적 지식과 개념을 이해하고 실생활 문제에 적용
 - 종합적 문제해결과 창의적 사고 방법을 학습하고 다양한 가치 창출에 기여
 - 과학, 기술, 공학 등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기르고 긍정적 태도를 함양
 - 배려, 의사소통, 개방성, 다양성, 협동심 등과 같은 인성을 기름

3.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가. 미래교육 방향

○ 교육부는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미래 교육의 전망과 우리 교육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교육 방향을 제시하였음(교육부, 2016.12.23.).

- ①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유연화)
- ②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자율화)
- ③ 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개별화)
- ④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기르는 교육(전문화)
- ⑤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교육(인간화)

나. 추진 전략

○ 이러한 미래교육 방향에 맞는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22개 추진전략 제시



[그림 6]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교육정책 중점 추진전략(교육부, 2016.12.23)

구분	현 재	지능정보사회
유연화	학년제 학교 내 교육활동 중심 오프라인 수업 중심 경직적인 2~4학기제	학점제 학교 안팎 교육활동 포함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등
자율화	교사 중심 획일적 강의식 수업 국가 중심 교육과정 운영 국가교육청·학교 단위 총괄 평가 상대평가 중심 신임교원의 실무능력 부족 강의식 대학교육	학생 참여 중심 다양한 수업 모형 학교·교사 중심 교육과정 운영 교사 단위 수사·상시 평가 절대평가 중심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교원 자기주도 학습 기반의 대학교육
개별화	누적된 학습부진 학급단위 집합식 교육 학생부 중심 학생활동 기록 관 중심의 학습자료 제공 유선망, 데스크탑 중심 표준화된 학교모형	최소 학업성취 수준 보장 지능형 학습플랫폼 활용 개별화 교육 온라인 기반 종합 학습 포트폴리오 만·관 통합 교육콘텐츠 오픈마켓 무선망, 태블릿 PC 중심 다양한 미래학교 모형
전문화	초·중학교 SW교육 의무화 우수인재 양성 부족 우수인재 인력유출 현상 심각	모든 학교급 대상 SW 교육 활성화 지능정보기술 분야 우수인재 배출 우수인재를 유인하는 연구환경 조성
인간화	인간소외 문제 심화 우려 교육격차 확대 정보소외계층 정보 활용 미흡 성인의 학습기회 부족	인성교육을 통한 인간성 구현 교육격차 완화 정보소외계층 정보 활용 증진 성인의 학습기회 다양화

[그림 7] 지능정보사회 대응 교육정책 추진에 따라 달라지는 점(교육부 2016.1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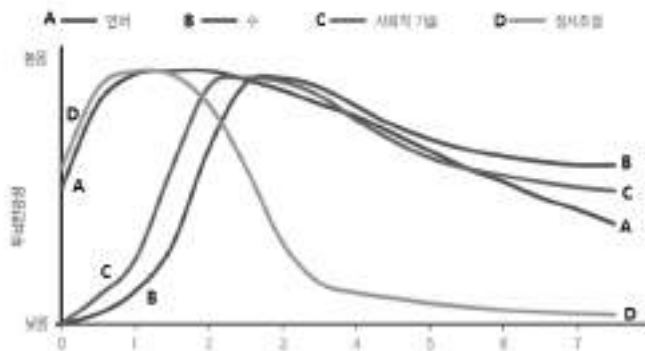
Ⅳ.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아교육과정의 방향과 과제

▶ 이상에서 살펴본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의 방향이 유아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터하여 향후 유아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1. 유아교육 본질에 충실, 영유아의 행복과 웰빙(well-being) 추구
2.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연속성 및 전문화
3. 국가 교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의 체계화
4.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다양화
5. 교사의 전문적인 누리과정 실행 지원

1. 유아교육(교육과정)의 방향 : 유아교육 본질에 충실, 유아의 행복과 웰(well-being) 추구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또 다른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유아교육(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아의 웰빙(well-being)⁴⁾과 유아 발달에 적합한 학습”인.
- 유아교육은 ‘유아의’, ‘유아에 의한’, ‘유아를 위한’ 내재율에 근거한 교육으로 실행되어야 함.
 - 영유아의 발달 수준 및 특성에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제공해야 함.
 - 영유아가 행복한 교육, 영유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개개인의 삶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공동체 의식의 기초를 마련하는 교육이어야 함.
 - 유아교육을 통해 유아가 경험하고 학습해야 하는 인지적인 내용/활동의 수준과 양을 적절하게 선정·제공해야 함.
- * 단, 지능정보사회의 IT기술 등을 그대로 학습이나 교과로 포함하는 것은 절대 지양
-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 목표 및 교수-학습 방법 등을 충실하게 실행하되, 특히,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 함양에 중점을 두고, 다원화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과 공동체 의식을 중시함.
- 유아교육(교육과정)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기반해야 하며, 특히, 영아기에 더욱 강조해야 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임.
 - 인지발달이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유아는 주어진 순서에 따라 특정 연령에 특정한 내용을 더 민감하게 학습하는데, 두뇌 민감성의 "정점(peaks)"은 그 각각의 기능/기술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Council for Early Child Development, 2010, 교육부 2013, 재인용)을 강조함.



[그림 8] 초기 두뇌발달의 민감기

* 출처: 교육부(2013). p77, Council for Early Child Development(2010)의 그림에 A, B, C, D 기호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임.

4)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

2. 영유아교육 · 보육과정의 연속성 및 전문화

- 0-5세 유보통합체계 내에서 0-2세 영아와 3-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0-5세까지의 연속적 · 전문화 · 특성화된 교육 · 보육 서비스 제공 필요함.
 - 0-2세 영아와 3-5세 유아 각각의 특성을 살려 더욱 전문화/특성화
 - 특히, 영아기는 정서적 안정감에 기초한 교육적 발달 지원
 - 만 3-4세 단계는 아동의 신체 · 정서적 발달 지원에 집중하고, 취학 직전인 만 5세는 초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초 소양 함양(교육부, 2017.3.8.).

◆ UNESCO는 ISCED를 개정 : 취학전 교육을 두 단계로 세분화하여 체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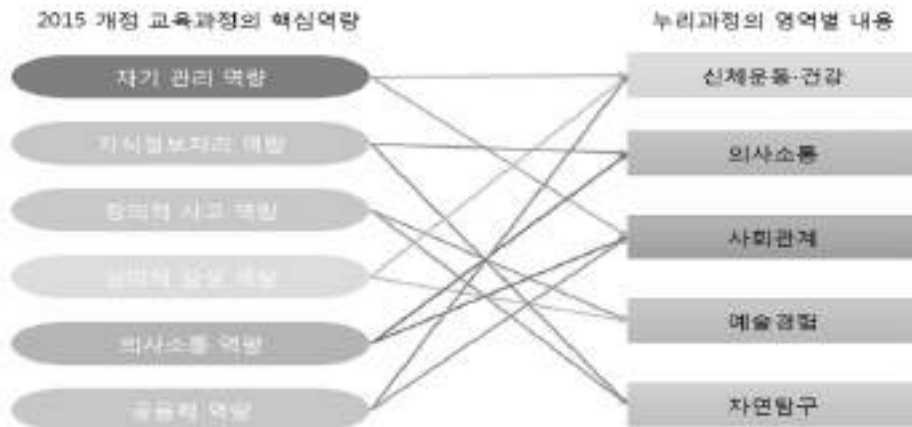
- 국제표준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level 0” (0세-취학전 교육)(UNESCO, 2011).
- ① 0-2세 영아의 교육적 발달 단계(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ISCED 01)
- ② 3세-취학전 유아의 교육 단계(Pre-primary education: ISCED 02)

- 더 나아가 0-2세 표준보육과정 → 3-5세 누리과정 →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연계되는 내용 체계화로 영유아 경험의 연속성 보장
 - OECD 국가들은 만 2.5세 또는 3세부터 초등교육 시작 전까지 국가수준의 유아 교육 · 보육과정 틀(framework)을 갖추고 있음.
 -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 한 부처에서 유아교육 · 보육 서비스 통합
 - 국가들은 0세부터 초등교육 시작 전까지 하나의 단일 교육과정 틀

3. 국가교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의 체계화

- 누리과정에 교육과정의 성격 및 추구하는 인간상 포함
 - 2007년 개정 유치원교육과정⁵⁾까지는 초등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과정의 성격’과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었으나, 누리과정에는 누락됨.
 -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명시
- 누리과정의 목적과 추구하는 인간상에 일치하는 목표 제시
 -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총괄목표와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된 세부 목표가 제시됨.
 - 누리과정은 5개 영역별(신체운동 ·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로 해당 목표만 제시되어 있는데, 누리과정의 목적과 추구하는 인간상에 일치하는 목표 제시 필요
- 초등 핵심역량과 누리과정의 영역별 내용 연계 및 재구성
 - 초등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누리과정의 내용은 대부분 연계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연계성의 정도를 분석하고 필요시 내용을 재구성함.

5) 5세 누리과정 제정과 함께, 이전의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은 3-4세 유치원교육과정(2011. 9. 5)로 개정 · 고시됨.



[그림 9] 초등학교교육과정의 역량과 누리과정 영역의 연계성

○ 누리과정의 영역별 내용의 양과 범위 축소·조정

- 학습량 적정화를 통해 협력 학습 등의 학생 참여 수업으로 전환하려는 초등학교과정 개정 특성 고려
 - * 많이 가르치는 교육(과도한 학습량과 문제풀이 위주)에서 → 배움을 즐기는 ‘행복 교육’으로 교육패러다임 변화 반영
- 누리과정의 연령별 수준, 범위, 분량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하고, 분량 축소 필요

〈표 1〉 3-5세 누리과정의 영역, 내용 및 세부내용 개수

구분		신체운동 · 건강	의사 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총 계
내용 범주		•신체 인식하기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 갖기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	•탐구하는 태도기르기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	20
내용	3세	14	10	11	10	11	56
	4세	14	11	12	10	12	59
	5세	14	11	12	10	12	59
세부 내용	3세	31	17	20	17	18	103
	4세	32	25	28	20	24	129
	5세	33	25	29	20	30	137

4.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다양화

- 유아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창의·인성교육 실행
 - 누리과정은 교과나 학습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니고,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및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한 것임.
 - 초등학교에서 최근 통합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을 통해 융합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유아교육에서는 이전부터 교육과정 그 자체를 통해 창의융합인재교육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천해 왔음.
 - 즉,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향하고, 유아중심의 놀이활동을 통하여 5개 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통합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행함.
 - 누리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1차적인 출발이며, 여기에 미래 창의융합인재교육의 키워드를 더욱 강조하는 방식으로 실행함.
 - *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통합적 지식과 개념 이해, 지식 융합 및 활용 능력, 자발성과 긍정적 태도, 능동적 참여와 감성적 체험, 실생활/주변환경과의 관련성, 창의·인성 등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프로젝트접근법 활용
 - 누리과정의 세부 내용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지도하느냐의 교수·학습 방법이 더 중요하며, 유아를 지도하는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이 더욱 의미있는 요소가 됨.
 - 지식과 기술의 주입식 지도가 아닌 유아가 실생활속에서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탐색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이를 확장해 나가는 태도를 가지도록 함.
 - 유아들이 중심이 되어 실생활속에서의 과제 해결을 협동적 그룹활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접근법을 적극 활용함.
- 유아-유아, 교사-유아간의 긴밀한 상호작용 및 공동체 경험 강조
 - 지식 습득은 다른 대안적 형태로 대체도 가능하게 되므로,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래들과의 공동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을 살리는 것임.
-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은 기관과 교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국가 기본교육과정(누리과정)의 목적과 목표 및 내용의 반영을 전제로,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유보통합 평가지표는 누리과정의 공통적인 질관리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지표로 축소하고, 자체평가 및 컨설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5. 교사의 전문적인 누리과정 실행 지원

-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화연수

- 유아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실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창의성과 전문적 역량이 매우 중요하므로 교사 연수가 강화되어야 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과 융합·통합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연수 내용을 포함함.
-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 누리과정의 충실한 운영과 미래 창의융합인재 지도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누리과정이 재구성된 프로그램과 자료가 개발·보급되어야 함.
- 유아 교사들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지식 및 정보자료의 공유가 필수적임.
 - 새로운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사들간의 학습 커뮤니티가 온오프라인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참고 문헌>

- 교육부 (2013). **OECD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OECD 2012. Starting Strong III :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한글 번역본)
- 교육부 (2015.9.23).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고시문.
- 교육부 (2016.12.23).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시안).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 (2017.3.8).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부 보도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묻는 교육의 미래. **글로벌평생교육동향 ISSUE 2016년 제 2호**.
- 김진숙 (2016). 제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역할. **월간교육 2017년 7월호**.
- 김승환 (2016).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교육의 미래. **한국교원교육학회 발표자료**.
- 이주호 (2016).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개혁. **정책논단 제55권 제1호**.
- 장명림 (2015.10). 본질적 관점에서의 영유아교육·보육과정 통합 방안. **2015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장명림 (2015.4).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누리과정의 현황과 개선 과제. **2015 한국유아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장명림, 현주, 박균열, 이정옥, 하민경 (2014).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 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4-03**.
- 정미경, 박희진, 이성희, 허은정, 김성기, 박상완, 백선희, 김현정 (2016).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Ⅰ) : 초·중등교육 영역.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6-28**.
- 정제영 (2016).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미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학회 교육정책포럼 주제발표.
- 한국과학창의재단 융합인재교육 STEAM. <http://steam.kofac.re.kr>



4차 산업혁명과 유아교사교육 환경, 매체의 변화

유 구 종 교수(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실천주제 강연2

4차 산업혁명과 유아교사교육 환경, 매체의 변화¹⁾

유 구 종²⁾

I. 들어가는 말

유래 없는 민간인의 국정농단에도 4차 산업혁명의 요소들이 숨어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아마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중심으로 문화융성사업을 염두에 두면서 5G 모바일 네트워크, UHD 방송, VR, AR기술 등의 첨단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이고 미래의 먹거리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을 파악했을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이권에 개입해서 추진하려고 한 것이 홍보동영상 뿐 아니라 세계인들의 시선을 한눈에 끌 수 있는 개폐회식에서의 엄청나게 빠른 모바일 환경과 초고화질 방송 관련 콘텐츠일 수 있다는 점은 실로 교육환경의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대선 정국에서 이슈의 하나인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부 폐지는 바람직한 것인가? 이러한 주장은 창의성, 문제해결 중심 교육뿐 아니라 절차적, 코딩적, 계획적, 반성적, 순환적, 하이퍼 사고 위주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의 변화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방적인 컴퓨터시스템에서 인공지능적인 로봇시스템으로의 진화처럼 일방적 교육에 대한 대안적, 융합적 관점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한국 ICT 혁명을 주도했던 대선주자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 과제의 관점에서 그 의의를 되새길 필요는 있어 보인다.

유아코딩교육을 위해서 유아교사는 경험중심, 놀이중심이라는 유아 중심의 관점과 더불어 통합교육이라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고려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코딩로봇은 이러한 코딩교육의 놀이중심 통합적 접근을 위하여 적절한 매체가 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코

1) 이 글의 일부는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2016. 5. 28, 경북대학교),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동계학술대회(2016. 12. 3, 안산대학교) 주제발표에서 발표되었음.

2)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딩로봇을 중심으로 하여 코딩교육이 누리과정과 적절히 통합될 수 있도록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코딩교육이 유아들의 절차적인 사고와 문제해결적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 연구들과 더불어, 국가적 지원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딩교육을 이룬 시기부터 시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영어 코딩이라는 제한점과 추상적 사고에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인해서 유아교육 분야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슈가 되어왔다. 때문에 본 고에서는 유아코딩교육을 구체적이고 놀이 중심적으로 코딩로봇을 통한 누리과정과 통합한 유치원 환경적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증강현실,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유아교사의 스마트 매체 활용은 점차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본고에서는 유아교육에서의 멀티미디어 교수매체와 스마트 교육환경 실천 방안 제시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환으로 개발된 ‘유아교육기관 스마트폰·태블릿PC 활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유아교육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전자칠판, 3D 스캐너·프린터, 디지털현미경, 스마트폰 마이크, 스마트청진기, 인공지능 통역기 등의 스마트기기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스마트기기들은 스마트폰의 App(앱)과 적절히 상호작용하면서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유아교육에서의 교수매체나 교재교구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pp들을 리뷰하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 유아들에게는 가상보다는 실세계 위주의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격하게 스마트기기가 보급됨에 따라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스마트기기에 최적화된 전자그림책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기법 활용의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 주제 가상현실 프로그램(Google Earth, Google Cultural Institute)과 관련 앱, 증강현실 그림책과 QR코드 활용, 유아 코딩교육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활용과 더불어 전술한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비롯한 인공지능로봇 등의 하드웨어적인 활용방법 제시를 통해 유아교사의 학문적·실천적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4차 산업혁명과 유아교육적 조망

‘다보스 포럼’의 의장이자 이 그룹을 이끌고 있는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 『제4차 산업혁명』에서 제시된 미래 진단을(Schwab, 2016) 참조하여 유아교육에서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의의 있는 작업이다. 이러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미래 교육을 조망하면서 그에 뒷받침되는 교육철학적 원칙 및 기초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유아교육적 적용에 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 시사점을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문화, 교육철학 및 가치 등의 차원에서 제안할 수 있다. 조상식(2016)은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교육의 과제를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교육의 과제를 반영한 융합유아교육학과의

과연 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보육교사2급 자격증(보건복지부)과 컴퓨터 실기교사 자격증(교육부) 이수과정을 중심으로 실현되었던 주성대학 컴퓨터보육과와 같은 모델이 4차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할 일이다.

Ⅲ. 유아교사의 증강현실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상황중심교육으로의 적용)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기술이 유아교육에 적용될 경우 전조작기 유아들의 특성상 현실과 가상을 혼돈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유아교육자나 현장의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다. 특히 가상현실 고글이나 헤드셋을 끼고 엉금엉금 걸어가고 있는 유아들을 볼라 치면 우주에서 환상 속에 헤매는 유아들의 모습으로까지 보이기도 한다. 데이비드 레비(David Levy) 워싱턴대학교 교수는 첨단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나머지 뇌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일컬어 팝콘 브레인(Popcorn Brain)이라 하였다. 이는 팝콘이 즉각 튀어오르는 것처럼 3차원적인 현상에만 반응할 뿐 그림책과 같은 2차원적인 자극에는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느리게 변화하는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팝콘 브레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소아학회는 아동들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TV 노출 시간의 엄격한 제한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포켓몬 Go’와 같은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게임이나 앱이 인공지능 교육용 앱으로 적용될 경우 유아교육 현장의 콘텐츠로의 통합이 용이하게 될 텐데 증강현실 GPS 앱 형태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물론 유아교사에 의해 적절히 활동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이다.

증강현실 식물성장 앱에 있어서는 저수지(현실)에서 물을 끌어 벼를 키우는 논농사나 고추를 키우는 발농사(가상) 활동으로도 상황 중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증강현실 도시경영 앱에 있어서는 사막이나 공터(현실)에 카지노나 도시(가상)를 건설하는 활동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 상황중심 교육 환경에서는 상황에 맞는 캐릭터가 등장할 수 있는데, 문화유적지에는 유적지 해설사 몬스터가 등장하고, 박물관에는 박물관 해설사 몬스터가 등장할 수 있으며, 소방훈련을 하는 유치원에는 소방사 몬스터가 나타나 시범을 보이고 유아들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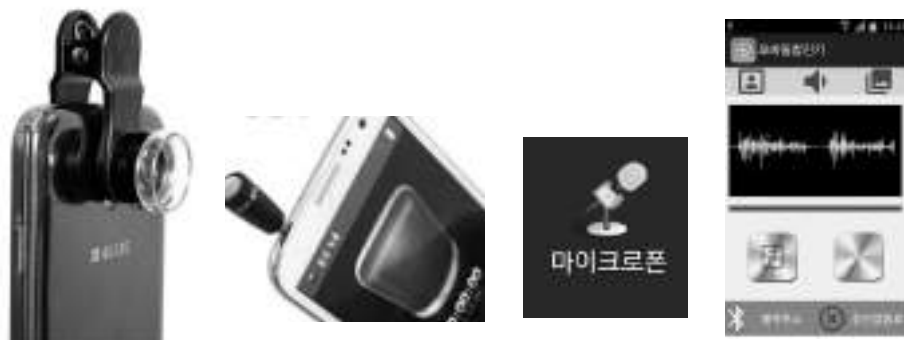
최근 의학 분야에서는 막힌 혈관을 뚫는 세균 크기의 인공지능로봇이 등장한 것을 보면, 유아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적용은 다양하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영유아 안전과 관련하여 ‘스마트버스’ 유치원·어린이집 앱이 실시간 운행정보와 위치를 제공하고 탑승한 유아들을 점검하는 시스템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 스마트기기는(최근에 유아들에게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유아용 Smart watch인 키즈폰과 같은) 선택활동영역에서 놀이하는 유아의 활동을 기록할 것이며 활동 순서를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극놀이 영역에서는 인공

지능 스마트기기가 전자태그를 통해 유아들의 동극활동을 TV 화면에 실시간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증강현실 캐릭터와 통합 운영되는 극놀이 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Ⅳ. 유아교사의 인공지능 App과 스마트 매체 활용

미국 아마존에서 공개한 가정용 사물 인터넷 기기 에코의 후속 모델 ‘에코 닷(Echo Dot)’의 경우 음성으로 정보 검색을 하거나 가정 내 사물 인터넷 기기 등을 조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기가 드론과 결합한다면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 아이들이 음성으로 명령하면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마법의 빗자루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³⁾ 기술은 앞으로 스마트기기와 더불어 발전하여 갈 텐데 유아교육에서의 활용성도 갈수록 증가해 갈 것이다.

최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교수매체들이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매체로 통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유아교육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유치원 교육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유치원에서 사용하던 슬라이드 매체는 컴퓨터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그 역할을 대신하더니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슬라이드 앱(파워포인트 앱, Polaris Office 앱 등)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유치원에서 사용하던 비디오카메라(캠코더) 매체는 이미 스마트폰 동영상 카메라가 대체하고 있으며 Movie Maker와 같은 컴퓨터 동영상 프로그램도 스마트기기의 동영상 앱(Viva Video, PowerDirector 앱 등)이 대체하고 있다.



[그림 1] 스마트폰 현미경, 스마트폰 마이크, 스마트폰 청진기 매체

특히 [그림 1]에서 보듯이, 유치원에서 수업활동자료를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는(60배까지 확대 가능) 스마트폰 현미경, 유아 발표 등을 큰 소리로 녹음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마

3)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출처: 두산백과]

이크, 자연의 소리 등을 증폭해서 듣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청진기 매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스캐너는 스마트폰 스캐너로, 기존의 팩스는 스마트폰 팩스로, 기존의 프린터는 스마트 프린터로 사용이 가능한데, 별도의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 뿐 아니라 속도 면에서도 훨씬 빠르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 간편하다는 것이 스마트 매체의 장점이다. 이러한 스마트 매체들은 서로 공유되어 최대한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림 2]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스캐너, 스마트 팩스, 스마트 프린터 앱의 공유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 스캐너로 스캐닝한 자료는 스마트폰 상에서 곧바로 스마트 팩스로 전송되거나 스마트 프린터로 프린트될 수 있다.



[그림 2] 스마트 스캐너, 스마트 팩스, 스마트 프린터 앱의 활용과 공유기능

최근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을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앱이 등장해 인공지능시대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통역비서, 지니톡, Papago). 이러한 앱들은 특히 각국 언어로 하는 연속대화를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그 정확도 또한 높아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번역 기술이 진일보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이러한 앱들은 단어나 문장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출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화에 가장 적절한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한 인공지능 번역과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Naver Labs에서 개발한 인공지능망(Artificial Neural Network) 기반 번역 서비스가 베타로 오픈되었는데, 네이버 번역이나 구글 번역에 비해 인간의 언어에 가까운 번역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일본어를 필터링해서 영어로 바꾸어주는 인공지능 통역기, 귀에 꽂아서 사용하는 웨어러블 인공지능 통역기가 등장한 것을 보면 이제 외국어 공부가 필요치 않은 시대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그림 3] 귀에 꽂아서 사용하는 웨어러블 인공지능 통역기 ‘파일럿(Pilot)’과 네이버 인공지능 번역기

사진출처: <http://funtenna.funshop.co.kr/article/5936>, <http://labspace.naver.com/nmt>

최근에는 사물이나 식물, 그림까지 인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앱도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다음 꽃 검색’의 경우 다음 앱의 검색기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꽃을 찍어 꽃 이름 검색을 하면 꽃 이름과 꽃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식물찾기’ 앱의 경우 나뭇잎을 찍으면 나무 이름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흰 종이 위에 고정된 상태에서 촬영해야 하며 100가지 나무에 국한되어 인공지능 나무 검색 앱이라고 하기에는 기능이 떨어지지만 유치원 탐구활동에 활용 가능하다. 꽃이나 식물, 나무의 사진을 찍어서 앱으로 질문을 올리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답을 알려주는 ‘모야모’라는 앱은 유아교육기관에서 그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포토 앱 ‘프리즈마(Prisma)’는 개개인의 사진들을 명화로 만들어 주는 앱이다. 이 앱에서 터치 한번이면 촬영한 사진이 뭉크, 피카소, 고호, 리히텐슈타인, 세잔느, 몬드리안 등의 화풍으로 변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스케치 스타일, 수채화, 모노크롬, 만화, 일러스트, 구름, 모자이크 등의 35가지 화풍을 지원하는데 전문화가 수준의 인공지능 작품을 순식간에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포켓몬 고’ 만큼이나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MS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촬영을 자동화하는 카메라 앱 ‘픽스(Pix)’를 iOS 용으로 출시했는데, 안드로이드(Android) 버전도 출시 예정이다. 셔터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전후 10프레임을 촬영하고 노이즈 제거, 색 보정을 한 뒤 그 중 베스트 샷을 자동으로 골라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미지를 자동 추출해서 약 2초 정도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라이브 이미지’ 기능도 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내년 2월 공개될 갤럭시S8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구글 고글스(Google Goggles)’는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앱의 일종으로, 휴대전화로 찍은 이미지를 통해 검색 결과를 얻는 인공지능 서비스다. 프랑스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찍으면 구글 고글스는 에펠탑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헤리포터 소설책의 표지를 찍으면 헤리

포터 책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내가 찍는 모든 정보가 다 검색의 대상이 된다. 명동 한복판에서 구글 고글스를 켜놓은 상태로 주변을 스마트폰으로 둘러보면 스마트폰 화면에 그 장소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그 나온 정보를 터치하면 관련된 정보를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는 도서, 역사 유적지, 명소, 명화 등에 한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글 서비스 또한 제약이 있다. 하지만 올해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앱에는 강력한 인공지능 증강현실 검색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카메라 앱을 이용하면 주변 도로나 환경을 스캔해서 목적지나 검색하고자 하는 대상(실제)으로 손가락(가상)으로 추적할 수 있다.



[그림 4] ‘다음 꽃검색’과 ‘Google Goggles’ 앱

사진출처: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sks7476>), 네이버 뉴스(2010. 08. 24일자)

‘구글 어시스턴트’는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 질문을 파악하고 지도 안내, 음악 재생, 예약, 스케줄 조회, 메시지 전송 등을 수행하는 인공지능(AI) 비서 시스템이다. 구글 스마트폰 픽셀에서 최적의 상태로 적용되는 구글 어시스턴트는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7월의 자동차 사진을 보여줘"라고 말하면 어시스턴트가 사용자의 구글 포토 앨범에서 자동차 이미지를 가져온다. "그랜드 캐년(Grand Canyon)을 찾아 줘"라고 명령하면, 어시스턴트가 구글 지도를 보고 직접 운전 방향을 안내한다(ITWORLD, 2016. 10. 21일자)⁴⁾.

구글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최신폰에 적용된 ‘구글포토’ 앱은 인공지능 사진클라우드 서비스이다. 구글포토에 업로드 된 사진 중에서 비슷한 사진, 비슷한 얼굴을 어시스턴트가 골라서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을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 그 외에도 찍은 장소, 사람, 앨범등도 인식해서 자동으로 분류해서 보여준다.⁵⁾ [그림 5]는 구글포토 어시스턴트 화면구성과 발표자

4) <http://www.itworld.co.kr/news/101685#csidxfb7ac4c861b094bef885062ddec599>

스마트폰에서 어시스턴트가 자동 생성한 동영상과 앨범을 보여준다. 어시스턴트는 발표자가 시드니 여행한 이틀간의 사진만 모아서 ‘Sydney로의 여행’이라는 제목의 동영상과 앨범을 만들었다. 내 허락도 없이 사진을 인식해 멋대로 제목을 붙였다.



[그림 5] 구글포토 어시스턴트 화면구성과 자동 생성한 동영상과 앨범

V. 스마트 교육환경, 스마트폰 태블릿 활용 프로그램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활용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유아들에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미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유해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디지털 시대 유아들의 특성과 사회적 요구를 보육 분야에서도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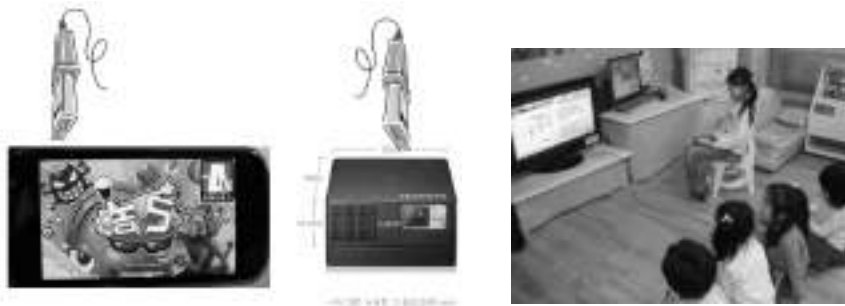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활용 가능한 대표적인 태블릿 PC로는 삼성의 갤럭시 탭과 애플의 아이패드가 있다. 이러한 태블릿 PC들은 유아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매력적인 디자인, 큰 화면, 밝고 선명한 화면, 소리와 음악 재생, 확대 기능,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터치패드, 진동과 감각 기능 등) 유아 중심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유아중심의 탐색적인 태블릿 PC 활동은 디지털 매체 과몰입 등 부

5) <http://cafe.naver.com/dolpeople/12917>, 재미있는 구글포토의 어시스턴트를 아세요?

작용도 예견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미래 보육분야의 매체로서 그 교육적 활용이 모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스마트 TV와 더불어 증강현실 기술을 등에 업고 교수매체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도 예외가 될 것 같지는 않으며 유아 교수매체나 교수자료 제작에도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다음은 스마트폰의 유아교육과 보육 매체로서의 활용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첫째, LCD 프로젝터나 대형 TV, PC 모니터 화면에 투사될 경우 스마트폰의 플래시 동화, 동요, 교수자료 등을 이용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 동화·동요 들려주기 활동 등이 가능해진다.



[그림 6] 스마트폰과 DLP 포켓 프로젝터의 연결, 대형 TV 활동

둘째, LCD 프로젝터나 대형 TV 화면에 투사될 경우 유튜브 동영상이나 파워포인트 자료 등을 이용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 집단 활동 등이 가능해진다. 특히 유튜브 동영상의 경우 스마트폰 애플에서 활동 주제에 따른 동영상을 검색하여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나누기 활동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6]은 갤럭시S와 DLP 포켓 프로젝터를 연결한 장면과 AV케이블을 이용하여 갤럭시 탭 화면을 대형 TV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면이다.

셋째, 스마트폰에 디지털현미경 렌즈를 장착할 경우 디지털현미경으로 사용이 가능해져서 과학탐구활동이나 자연탐구활동 등으로 전개될 수 있다. 아래는 디지털현미경 렌즈를 장착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유아들이 피부, 손톱, 두피를 관찰하는 활동 장면이다. 스마트폰 현미경으로 관찰한 보이지 않는 나의 몸 그리기 활동으로 확장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 스마트폰에 장착된 디지털현미경 렌즈

넷째, 유아교육기관에서 디지털현미경은 유아들의 과학탐구활동이나 자연탐구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매체이다. 특히 최근에는 100배 확대 가능한 휴대용 디지털현미경이 출시되어 유아들이 직접 견학이나 자연관찰 시 관찰 사물이나 동물, 식물 등을 촬영하여 어린이집에서 토론 활동으로 전개하기 용이해졌다.

아래 장면들은 유아들의 휴대용 디지털현미경을 사용한 자연탐구활동 장면들로 전날 심었던 씨앗(겨자씨앗)을 확대하여 화면으로 관찰하고 디지털현미경에 저장하고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저장한 확대화면은 컴퓨터에 연결되어 대형화면으로 시청하는 토론활동으로 확장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은 인터넷 콘텐츠와는 다르게 장시간을 요하지 않고 이동 중이거나 잠깐의 시간을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며, 이것은 유아들의 시기적 특성과 맞물린다고 할 수 있다(이주연, 2011). 이러한 이동성과 통합성이라는 특성과 관련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유아 중심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아들의 호기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미래 유아교육분야의 매체로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활용 방안이 그 교육적 활용이 모색되어야 한다(유구중, 2011). 다만 어린 시기에 스마트폰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이 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측면에 미치는 역기능에 대한 견해도 많은 만큼 신중히 접근되어야 할 것이며, 태블릿 PC나 매립형 스마트칠판 형태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 8] 유아교육기관 스마트폰-태블릿PC 활용 프로그램 사이트 메인화면 구성

유아교육기관에 매립형 스마트칠판이나 탁자형 스마트칠판을 설치하여 스마트영역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 선택활동영역 구성과 적절히 통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칠판상의 프로그램이 유아교육기관 교육활동을 적절히 보조하고 통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활동도가 높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8] 사이트에 제시된 프로그램 활동안 내용 중에서 태블릿 실로폰 활동은 음률놀이영역과 통합될 수 있으며 증강현실 블록놀이 활동은 쌓기놀이영역과 적절히 통합 운영될 수 있다. 태블릿상의 실로폰 연주 활동이나 3차원 가상의 블록을 이동하여 맞추는 활동은 기존 흥미영역의 식물 놀이감 활동을 보조하고 다양하게 한다. 스마트그림책 활동은 언어영역과, 스마트현미경 활동은 과학놀이영역과, 스마트칠판의 스마트팔레트 활동은 미술놀이영역과, 집짓기 앱 활동은 목공놀이영역과 잘 통합될 수 있다. 게임으로 인기를 누리던 ‘마인 크래프트(MINE CRAFT)’의 경우 MS가 최근 교육용 버전으로 출시하였는데, 컴퓨터 뿐 아니라 스마트칠판 등의 스마트기기에서도 운용 가능하여 교사가 참여하는 상호작용적인 건축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집트 피라미드, 그리스 신전 등을 스마트기기에서 탐험하고 건축할 수 있으며 교사를 위하여 칠판 기능도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현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형태라고 여겨지는 대형화면을 통한 스마트기기 투사에 의한 대집단 활동형태와 더불어 유아들과 교사의 협력활동에 의한 소집단이나 프로젝트 활동 형태를 통합 가정한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의해 개발된 유치원 스마트기기 대·소집단 활동 프로그램 활동안은 [그림8]에 제시된 유아교육기관 스마트폰-태블릿PC 활용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네이버’에서 [유구종] 검색 - ‘유구종교수 사이트’ 클릭 - 스마트폰 활용 프로그램 - ‘프로그램 활동안’ 메뉴).

저자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상에 구축한 유아교육기관 스마트폰-태블릿PC 활용 프로그램은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될 것이며 유아교육 현장의 교사들뿐 아니라 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을 위하여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활용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도움을 줄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유아 게임 과몰입 예방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아교사

들을 위한 ICT 기본 기술들이 소개되어 있어 유아교육 정보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오프라인 전자책과 온라인전자책, 스마트전자책 등을 제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구축 예를 소개하고 있다(그림 8 참조).

Ⅶ. 스마트 교사의 우리 동네, 세계의 여러 나라 활동

유아교육기관의 위치나 실외 전경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다음 로드뷰’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유아교육기관의 실내 전경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다음 스토어뷰를 활용할 수 있다. 네이버에서도 유사한 증강현실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유아교육기관 로드뷰 장면(찾아오시는 길 등)은 동영상으로 캡처하여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할 수도 있다.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등의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할 경우 ‘우리 동네’를 주제로 한 우리 동네 기관 찾기, 견학지 길 찾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 등의 지도 앱을 이용한 우리 집 찾기, 우리 집 가는 길 알아보기, 우리 동네 기관 찾기, 견학지 길 찾기 등의 활동과 통합될 경우 기존의 지도나 지구본 매체를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히 다음 지도 앱의 경우는 ‘로드 뷰’ 기능이 있어서 유아교육기관에서 견학지에 방문하기 전에 실제 견학지로 가는 길을 확인하고 견학지를 화면상에서 실제 형태 그대로 확인해보는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다.

‘구글어스’의 경우는 세계의 여러 나라를 주제로 세계 각국의 유적지나 유명 건물 등(에펠 탑, 피라미드, 루브르 박물관 등)을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전개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Google Cultural Institute’는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을 3차원 가상현실로 보여줌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나 ‘다문화’를 주제로 한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가상현실 사이트이다. 구글어스가 해당 건물이나 유적지 등을 대상으로 지도상에서 가상현실 외부 견학을 가능하게 한다면, ‘Google Cultural Institute’는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실내 견학을 가능하게 한다. 유아들은 선생님과 함께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을 실제로 방문한 것처럼 가상 경험할 수 있다.

Ⅶ. 유아교육에서의 인공지능로봇, 빅데이터 활용과 코딩교육

1. 유아교육에서의 인공지능로봇 활용

유아교육에서의 인공지능로봇 활용은 교사 행정업무, 일상 활동, 대·소집단 활동, 자유선

택활동 등에 적용될 수 있다. 보안상의 이유로 무선인터넷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회사가 여러 번 인수합병 되는 동안 AS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유아교육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니보 로봇은 인공지능로봇의 미래를 가늠해보게 한다.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의 경우 와이파이 환경의 제약 등으로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유아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효율적인 적용 예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제니보 인공지능로봇의 경우 100여 가지의 음성명령(앉아, 앞으로, 뒤로 등)을 수행할 뿐 아니라 상황이나 유아의 반응형태에 따라 다양한 감정표현을 함으로써 유아들과 감정교류를 할 수 있고 공감능력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9]는 넘어진 제니보 로봇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마음을 교류하는 유아들의 활동 장면이다. 이러한 인공지능로봇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타인이나 애완동물과의 공감과 같은 감정교류가 로봇이라는 ICT매체와도 가능하다는 점을 배우는 것이다.

KT는 키봇1에 이어 키봇2를 개발 시판했는데, 홈 모니터링, 빔 프로젝터, 자율주행 등 기존 제공되던 대부분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시켰다. SKT는 유아·초등생이 교육용 스마트로봇 '알버트'와 '아띠'를 이용해 SW 개발 과정(코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교구 패키지인 스마트로봇 '코딩스쿨'을 보급하였는데 유아 코딩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KT의 경우 키봇1, 키봇2를 선보이며 교육용 로봇 사업에 적극 나섰지만 이후 키봇3 생산을 취소했다. 이러한 로봇들이 지속적으로 유아교육에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드웨어(HW)적인 기술수준보다도 AI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더 발전시키고 이를 로봇에 적용하는 교육적 관점에서의 기술(technology)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림 9] 넘어진 제니보 로봇과의 공감 활동

2. 유아교육과 빅 데이터 활용

빅 데이터 활용 절차는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시사점 도출]의 과정을 거친다.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걸쳐 다양한 유아교육 수업전략이나 이론을 개발할 수 있다. 즉, 교사 역할이나 교사의 반성적 사고와 같은 교육적 요구는 빅 데이터 시스템에 수집, 저장되어 분석된다면 유아교육 교수방법이나 교수전략 수립과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아교육 활동이나 교수방법, 놀이형태, 상호작용 패턴 등의 교육현상 분석을 위해 빅 데이터 활용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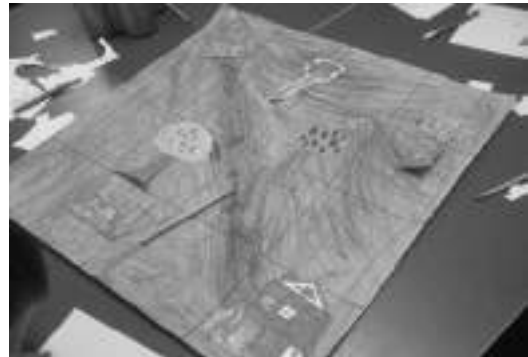
3. 코딩교육과 인공지능

유아수준에서의 코딩 교육은 단순히 컴퓨터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뛰어넘어 과학적, 논리적인 사고를 배양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논리적 사고, 창의적인 생각, 문제해결능력 등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므로 코딩교육이 더욱 주목받는 것이다(조영선, 이영호, 송상수, 2015). 즉, 앞으로 발전될 세상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절차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코딩교육이 부각되면서 유아교육에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2013년에 발표한 커리큘럼에서 코딩교육 key stage를 1부터 4단계까지 나누었고, Key stage 1은 5-7세에 해당하는 단계로 5세부터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하였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이러한 코딩교육에 활용되는 코딩로봇은 유아교육 분야에서 ICT와 과학, 사회, 건강안전 등의 융합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 활용도가 높다 할 수 있다. [그림 10]은 현재 영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유아 코딩교육 매체인 비봇(Bee-Bot)이다. 영국의 80%가 넘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지도에서 Bee-bot이 도착해야 할 목표지점을 정하면 아이들은 버튼을 눌러 방향과 순서를 정하고 명령어를 입력하여 자연스럽게 절차와 동작언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림 10]은 화살표에서 출발해서 각각의 스토리에 맞게끔 Beebot을 움직이는 코딩교육의 실재를 보여주는데, MUD(진흙, 장애물)를 피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강·안전과의 융합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물활동 형태의 코딩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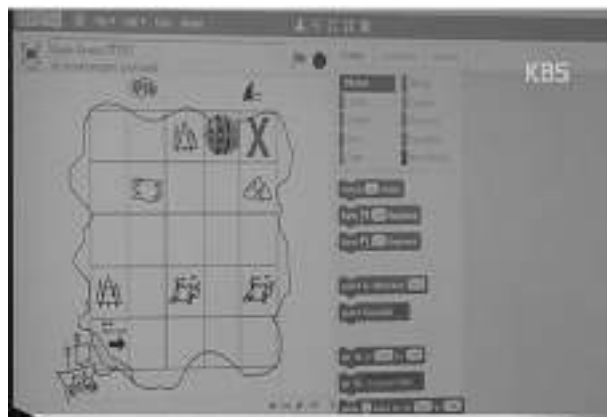
움직이는 방향을 유아가 직접 정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통한 절차적 사고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건강안전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림 10] Beebot 건강안전 코딩교육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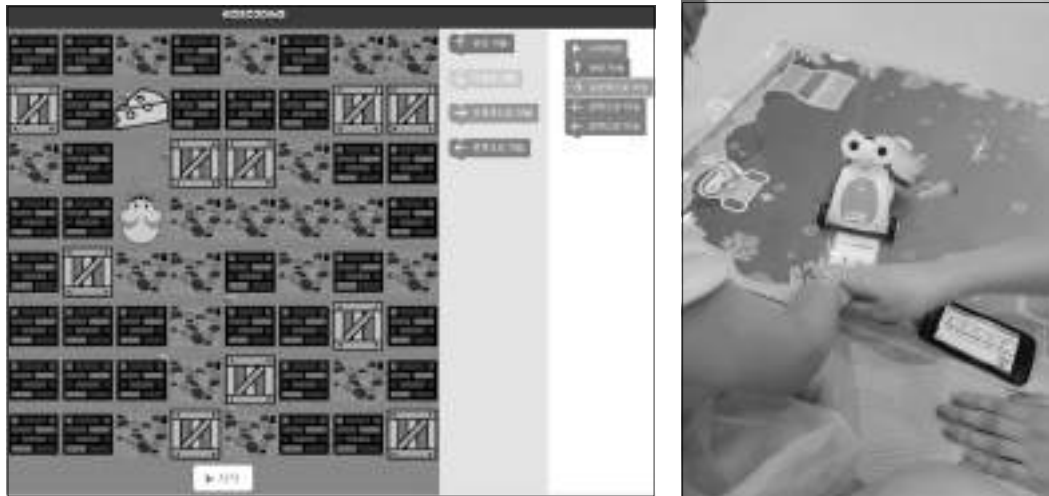
〈사진출처: 에코스쿨 놀이교육(<http://blog.naver.com/ecoschools1>)〉

[그림 11]은 이러한 Beebot으로 블록코딩을 해봄으로써 스크래치 활동으로 연계하는 장면이다.



[그림 11] Beebot을 활용한 블록코딩

〈출처 : 에코스쿨 놀이교육(<http://blog.naver.com/ecoschools1>)〉



[그림 12] '키드코딩'과 '코딩&플레이 프리스쿨' 프로그램

〈출처: 코딩&플레이(www.codingnplay.co.kr)〉

코딩교육의 장점은 코딩놀이를 통하여 논리성과 순차성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수학적 코딩활동은 스토리텔링 코딩(그래픽 인터페이스 환경에서의 이야기 만들기)과 영화 스토리 만들기(같은 형태의 코딩)와 같은 인공지능 활동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만3~5세 유아의 누리과정에 맞춘 '코딩애플레이(coding&play) 프리스쿨' 프로그램은 SK텔레콤이 추진하는 스마트로봇 알버트 활용 유아 코딩교육 프로그램이다. 유아들이 실제 진행하기 힘든 텍스트 코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코딩교육의 개념을 놀이를 하듯 익혀 CT(Computational Thinking, 컴퓨터적 사고력)를 증진할 수 있도록 구성해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스마트로봇 코딩 프리스쿨'은 교재와 스마트폰, 코딩로봇을 활용해 코딩을 직접 해 보면서 사고력 및 창의성을 기르는 프로그램으로 스마트 로봇 '알버트'와 유아 수준에 맞춘 스틱 카드로 아이들이 쉽게 코딩의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

[그림 13]은 '코딩&플레이 프리스쿨' 프로그램에서 스마트로봇 알버트를 활용하여 인체 '소화기관'을 주제로 코딩을 통해 소화기관들을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림 13] '코딩&플레이 프리스쿨' 프로그램의 건강안전교육 활동

〈출처: 코딩&플레이(<http://codingnplay.co.kr>)〉

Ⅷ. 유아교사의 3D 프린터, 스캐너 활용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창조경제를 이끌 신성장 동력 산업의 중심으로 “3D 프린팅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민 모두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 문화 형성을 위해 3D 프린팅 국민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3D 프린팅 전략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장난감 회사 ‘레고’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비디오게임에 이어 3D 프린터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맞게 된 레고는 직접 블록을 프린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상용화 하였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교사는 학생들이 실제 구상한 아이디어를 3D 프린터로 제작 및 수정하는 창의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수업의 경우, 3D 프린터로 직접 교재(인공장기나 기계부품 등)를 제작하여 체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규, 2014).

3D 프린팅 기술이 상용화 되면 교사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3D 설계도면이나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제품을 프린팅 할 수 있다(최은지 외, 2013). 하지만 자신만의 독창적인 모양과 기능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3D Max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설계를 해야 한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은 배우고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부분의 교사가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것이 3D 스캐닝 기술이다. 3D 스캐닝이란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해 레이저나 백색광을 대상물에 투사하여 대상물의 형상정보를 취득하여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교사가 원하는 모양을 종이나 찰흙 등으로 만들고 이것을 3D 스캐닝하여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고 이것을 보정하면 3D 프린터로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4] 3D Scanner로 모형 스캔하기

출처: <http://www8.hp.com/kr/ko/printers/3d-printers.html>

[그림 14]는 HP sprout PC(\$1899.99)와 Tiko 3D Printer를 적용한 교구제작 장면이다. HP sprout PC에는 3D Scanner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3D Scanner와 3D Printer를 적용할 경우 교구를 유아교사가 직접 스캔하여 입체로 제작할 수 있다. 제작된 교구로는 디오라마, 막대인형, 테이블인형, 모형, 동화캐릭터와 같은 다양한 형태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작된 교수매체나 실물에 RFID태그와 QR코드가 적용될 경우 실물과 전자칠판 콘텐츠, 3D가 연합된 새로운 형태의 실물표상교육이 구현될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동규 (2014). 3D프린터와 직업세계의 변화.
- 유구중 (2011). 유아교육기관 디지털 매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103-139.
- 유구중 (2013). **유아 컴퓨터, ICT, 스마트 교육**. 서울: 창지사.
- 이주연 (2011). 유아교육용 스마트폰 앱에 대한 부모 인식 조사 -유아의 행동패턴에 따른 부모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상식 (2016).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교육의 과제. **미디어와 교육**, 6(2), 152-185.
- 조영선, 이영호, 송상수 (2015). **Why? 코딩교육**. 서울: 예림당.
- 최은지, 김상아, 배지윤, 권연주, 이강희 (2013). 3D 프린터의 활용 및 현황 고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1(2), 385-388.
- 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computing programmes of study-key stage 1 and 2. retrieved at http://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39033/PRIMARY_national_curriculum_Computing.pdf.
- Schwab, K. (2016).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서울: 새로운 현재(메가스터디), (원전은 2016년에 출판).
- 에코스쿨 놀이교육(<http://blog.naver.com/ecoschools1>)
- 코딩&플레이(<http://codingnplay.co.kr>)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모 역할

전 우 경 교수(중앙대학교 부모교육아카데미 주임교수)

실천주제 강연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모 역할

전 우 경¹⁾

‘대한민국은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대결 이전과 이후로 시대가 나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알파고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선사한 이후, 제4차 산업혁명은 현재진행형이 되었다. 당연히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논의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대국이 진행되면서 몇 가지 재미있는 현상들이 생기도 했다(Amang Kim, 2017).

1.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유행했던 인공지능(로봇) 관련 영화들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
2. 학부모들이 바둑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3. 사람들은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을 ‘인간 대 기계’의 대결 구도로 만들었다.
4. 조만간 인공지능이 인간적인 감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5.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었다.

세기의 대국이 몰고 온 신드롬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유아교육기관에 놀이바둑 교실이 차려지고, 유아를 대상으로 코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4차 혁명 시대의 생존방법을 찾는 이들에게 “알파고는 알파高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한다. 혹시 ‘위기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Ⅱ.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상생하는 인재

1.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토인비(1884)에 따르면 기술적 혁신은 한 순간에 나

1) 중앙대학교 부모교육아카데미 주임교수

타난 격변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점진적으로 연속적인 기술혁신의 과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파고를 통해 전해지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말 그대로 ‘격변적’이다. 이전의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다른 것일까?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첫째, 변화의 주기와 폭이 너무나 빠르고 광범위하다. 200여년 전 제1차 산업혁명이 18세기 중반에 발생한 이래 현대사회로 진입할수록 새로운 기술과 기술적 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극단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용어가 세상에 소개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최근 기술혁명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변화의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런 격동기의 시대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하였다(Schwab, 2016).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인 리프킨(Rifkin, 2012)에 의해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생긴 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변화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폭과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제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하였다. 1876년 벨(Bell)이 발명한 유선 전화기의 보급률이 10%에서 90%로 도달하는데 걸린 기간이 73년이었으나, 1990년대에 상용화된 인터넷이 확산되는데 걸린 시간은 20년에 불과했고, 14년 만에 휴대전화가 대중화되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기술적 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점차 짧아지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김진하, 2016).

둘째,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지금까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기술적 혁신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생활 편의성,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주를 이룬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김진하, 2016). 2016년의 다보스 포럼과 알파고의 등장 직후에는 4차 산업혁명을 위기로 바라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인공지능이 확산되어 일자리가 줄어들고, 저성장 시대가 도래 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알파고 이후의 시대는 디스토피아(dystopia)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동화 기술 및 컴퓨터 연산기술의 향상에 의해 단순반복적인 사무행정직이나 저숙련 업무와 관련된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불과 3년 뒤인 2020년부터 자동화에 따른 직무대체가 본격화되어 10년 안에 1,575만 명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 될 것이라고 한다. 2016년 현재 전체 직업 종사자의 업무수행능력 가운데 12.5%는 즉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뒤에는 41.3%, 2025년에는 70.6%가 대체가능한 업무로 분류된다(중앙일보, 2016.3.25). 이러한 위협적인 연구 결과는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직업의 미래’ 보고서와 유사하다. 반면에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기존의 일자리는 줄지만 새로운 직업 즉, 미래형 신(新) 직업이 계속 나타나므로 인간의 일자리를 기계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직업지대로 변화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시대가 이루어져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이 극도로 향상되고, 기계가 일하는 동안 인간은 더 많은 시간을 사람답게 사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또한 인공지능 능력의 도움으로 외

계탐사와 환경 문제 등 인류가 당면한 전 지구적 문제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만큼 문제가 해결되는 유토피아(Utopia)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에 따른 대체 가능성은 해당 직업을 몇 가지 조건에 따라 살펴보는 과정을 거친다.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가, 창의성이 얼마나 필요한가, 예술과 관련되었나, 사람을 파악하고 협상·설득하는 일인가, 서비스 지향적인가’와 같은 특성이 고려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대부분 단순·반복적인 과업(Task)을 중심으로 대체되는 것이어서 막연히 일자리 소멸을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고용정보원의 관계자는 말한다(중앙일보, 2016.3.25). 일자리의 총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확 바뀔 것이라는 슈밥의 전망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면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상생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변화가 너무도 극적이어서 예상할 수가 없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구조적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한동승, 2016) 인간의 일상생활 곳곳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가 급속도로 현격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과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슈밥 교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3D 프린팅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은 산업과 일자리, 생산 활동은 물론 인간의 정체성에 관해서도 복잡한 문제를 던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디지털과 실물, 생물학 기술의 융합은 우리가 대화하는 방식, 물건을 만들고 사고 파는 방식, 공간을 이동하는 패턴까지 통째로 바꿀 파괴적 변화이다. ‘파괴적’이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가진 모델과 가치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인터뷰했다(중앙일보, 2016.4.29).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가 모두에게 기회가 되도록 정책을 결정하고, 공동의 가치를 세우는 것이 이 세대의 책임이다”라고 보면서 “새로운 것들이 자신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는 것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응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인간의 패배’를 걱정하는 것은 파괴적 변화에 압도당하는 모습일 수 있다. ‘인간 대 기계’의 대결로 보고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20세기의 경쟁 가치로 보기 때문이다. “기계는 인간의 능력을 보완해주고, 더욱 자유로워지도록 돕는 특성을 가진다. 기술은 인간이 어떤 통제력도 가질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이제껏 그래온 것처럼 더 나은 사회적 모델을 찾아갈 것이다”는 슈밥의 의견을 새겨 보아야 한다. 정말 그의 표현대로 “파괴의 묘미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10년 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된다.

2. 창의 융합적인 미래 인재

2025년은 다보스 포럼의 제4차 산업혁명보고서가 티핑 포인트들을 제시한 해라는 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해라고 할 수 있다(이주호, 2017). ‘4차 산업혁명’을 대대적 교육개혁의 조건으로 바라보고 교육개혁을 통해 대비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보는 이유이다. 교육은 가치를 지향하는 목적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시대적 가치는 변한다.

노딩스(Noddings, 2016)에 따르면 “19~20세기는 개인주의와 자기충족을 위한 자율성에 열광했지만, 21세기는 모든 수준에서 상호의존이 필수다. 21세기에는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하다”.

슈밥(2016, 조성식, 재인용)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이 불러 올 파괴적 혁신의 잠재력을 파악해서 인간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 및 역량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정신과 몸을 함께 발달시켜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네 가지 능력 요소는 상황맥락 지능, 정서지능, 영감지능, 신체지능이다. 상황맥락 지능인 정신은 지능으로 인지한 것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으로서 새로운 동향을 예측하고, 단편적 사실에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과 자발성을 의미한다. 이 능력은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효과적인 리더십의 전형적 특징으로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적응과 생존의 전제조건이 된다. 상황맥락(contextual) 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가치를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정서(emotional) 지능인 마음은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결합해 자기 자신 및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다. 정서 지능은 상황맥락지능을 보완하는 지능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자기인식, 자기조절, 동기부여, 감정이입, 사회적 기술의 실현은 정서지능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감(inspired) 지능은 영혼이다. 영감은 목적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창의성의 자양분이 되어 변화를 이끌어낸다. 공동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개인과 공동의 목적, 신뢰성, 여러 덕목 등을 활용하는 능력인 영감지능이 기능할 때 공동운명체에 대한 새로운 공공의 도덕의식 발달을 가능하다. 신체(physical) 지능 즉, 몸은 개인에게 탁월 변화와 구조적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자신과 주변의 건강과 행복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다. 상황 맥락, 정서, 영감 지능을 뒷받침하는 능력으로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복잡해지고, 의사결정과정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과정 중에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큰 압박감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능이다.

Ⅲ. 부모의 역할

“남들이 한다고 해서 굳이 우리 아이까지 코딩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아이는 코딩교육하면서 게임에 더 빠져들까 걱정이에요”

“대학의 컴퓨터 관련학과에서나 배움직한 코딩교육을 왜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2017. 3.1. 금강일보)

교육의 근본 목적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있다. 그동안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와 교사는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다음 세대가 발달시킬 수 있도록 애써왔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부모는 4차 산업혁명을 접하면서 미래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좋을지 몰라 정신적인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교육 부분에서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면서 의식도 2차 산업 혁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김태완, 2016)는 점을 고려해볼 때 부모들이 직면하는 혼란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전(前) 미국 교육부 장관인 리처드 라일리(Richard Riley)는 “현재 존재하지도 않은 직업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해주어야 한다” 고 말하기도 하였다.

기계와 컴퓨터가 사람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인지적 판단이나 고도의 지적, 정신적인 업무를 넘보는 시대로 접어들었고(구본권, 2015), 그 변화의 생생함을 하루가 다르게 경험하면서 부모가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은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인간의 소외’ 현상이 내 자녀에게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능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구분하고,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는 인공지능과 로봇 앞에서 과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되려면 부모인 나는 자녀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부모가 자신에게 끊임없이 하게 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의 특징을 찾고,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인간 고유의 특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구본권, 2015)는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기 위해 인지능력의 측면에서 ‘인간 vs. 기계’를 비교하는 관점은 이미 의미가 없고, 같은 맥락에서 로봇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늘어난다고 해도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들은 로봇이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감성이나 감정을 요구하는 직업을 비롯하여 비정형적인 대안을 찾는 문제를 다루거나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인간의 고유한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선진국 추격형에서 벗어나 창조적 혁신이 필요하다(한동승, 2016)는 인식이 나오는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추격형 혁신체제에서는 특유의 높은 교육열을 기반으로 빠른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 사회 전반에 걸쳐 탈추격형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소외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까지 취해 왔던 경쟁 대신 새로운 방법이 제안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과 기계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에 대한 재인식과 그 특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다. 이와 함께 미래에 대한 준비는 결국 현재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지금, 여기’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노력(강인경, 2016)의 차원에서 기대되는 부모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서적 관계의 힘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초연결성, 초지능성, 예측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한동승, 2016).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

결되고, 이 네트워크로 전송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런 분석을 통해 미래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화되는 시대이다. 초연결성(hyper connected)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신뢰이다(김태완, 2016).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기관, 집단, 사회, 국가 간에는 연결과 공유가 더 강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 개인과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개인으로서의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가장 가깝고 의미 있는 타인이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그 두 사람이 온전히 연결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기반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양방향적인 관계에서 볼 때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것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은 건강한 자기표현으로 나타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존재하게 하는 특성 즉, 호기심, 상상력, 창의력, 직관력, 그리고 다양한 감정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인간의 독특한 특성은 인생의 전 시기 중에서 유아기에 가장 활발하게 발달한다. 가드너(Gardner)에 의하면 5-7세 유아들은 그 이전 연령의 유아들이 갖지 못하고, 그 이후의 아동들은 잃어버리고 마는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 예술적 민감성을 갖고 있다(기순신, 2016). 부모의 역할은 이와 같은 유아의 특성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창의 융합형 인재에게 필요한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이다(기순신, 2016). 부모가 유아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면서 민감하게 관찰하고 세심하게 교감하는 환경, 그리고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물과 현상에 관심을 갖고 그것으로부터 느끼는 호기심을 표현할 수 있는 자발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접하면서 유아는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성인중심적인 관점에서 고정관념을 갖고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과잉보호하는 환경, 유아의 생각을 무시하면서 동기 유발 없이 조건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환경 안에서는 창의 융합 능력이 발달하기 어렵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정서적 관계이다. 자녀를 신뢰하고 수용하는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를 경험할 때 자녀는 자신에 대한 신뢰 즉, 온전한 자신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맺는 정서적 관계의 특성은 자녀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가 자녀의 상태를 통찰하고 그에 맞는 기다림과 침묵을 실천하는 ‘비효율’의 교육은 프로그램화된 효율성을 지향하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일상생활의 경험을 공유하며 맺는 정서적인 관계의 힘은 인간인 부모만이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특성이다. ‘교육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루소의 주장(전숙경, 2016)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2. 협력적 인성의 가치 교육

〈4차 산업혁명의 충격(2017)〉을 통해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교수는 “미래에는 일반적인 노동·자본 대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혁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치 있고 희소한 자원’이 될 것이다. 일과 보수는 더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하고 공평

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이루려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고 했다. 기회의 형평성을 높여 경제 성장과 인간 개발 간의 선순환을 구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달에 기초해 공존을 지향하는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을 요구한 것이다. 마이클 스펜스 교수를 비롯한 다보스 전문가들은 남을 이해하고 설득하며 남과 협력하고 남의 아이디어를 융합할 수 있는 ‘감성적 지능’ 혹은 사회적 기능(social skill)이 모든 직종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중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결 지능(connectional intelligence)라는 표현으로도 소개되고 있다.

그간의 인성 교육은 개인의 덕목을 기르는데 집중해왔다(오로라, 2016). 그러나 인성 교육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교육 가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인 사회적 특성 앞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미래 사회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 즉, 인성(人性)의 가치를 강조한다. 각 개인의 인성이 연결되고 융합되어 복합적인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협력적 인성’을 요구한다. 개인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도 협력의 가치는 필수적인 역량이다. 창의 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6가지 핵심역량 중 ‘공동체 역량’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한국형 융합인재교육(STEAM)이 추구하는 4C(Caring, Communication, Creativity, Convergence) 중 배려(caring)에 의해 발달할 수 있는 역량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갈등을 해결해보면서, 공존을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과하게 주장하는 대신 다름 안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 협력의 가치를 체험해 볼 수 있어야 한다. 협력적 인성은 교실 속에서 지식으로 배우는 인성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 경험하고 실천을 통해 길러지는 인성이다. 생산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대한 공감을 통해 정확한 문제를 찾아내 정의하고,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은 동료와 함께 협업과 소통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내는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3. 건설적 실패의 기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이 중시된다. 구체적으로는 인성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민첩성을 지니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계발을 하는 사람, 위험을 감수하고 기꺼이 도전하는 사람,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사람, 어려운 여건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가능성을 찾는 사람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마디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격 완성을 지향하는 교육을 필요하다(이기천, 2017). 그러나 현재와 같은 산업시대의 공장제 교육으로는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어렵다. 이미 검증된 안전한 방법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논리에 의해 경쟁구도의 관점으로 자신과 세상을 평가한다.

실패의 사전적 정의는 ‘목표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상황’을 말한다. ‘목표와 다르게 도출된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때’를 실패라고 규정짓는다.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실패는 혐오스러운 경험이 되지만 실패와 좌절에 대한 반응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혐오감을 특히 심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감정 상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집착하기도 하지만, 이를 빨리 정리하고 후속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설적인 대처 경향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특히 급속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환경 안에 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에 도전하고 적응하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이주호, 2017)을 발휘해야 하는 미래 세대의 입장을 고려해볼 때 자신의 실패경험에 대한 반응 양상은 동기 유발 및 과제 수행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반복적인 실패 경험이 유아의 동기나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실패 또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과잉보호는 하는 문제 또한 경계해야 할 부모의 모습이다. 실패를 경험할 때 유아도 무기력감에 빠지기 전에 실패에 대처하기 위해 심리적 저항(psychological reactance)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내하면서 시행착오 경험을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실패를 피하기보다는 실패 경험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가치관과 전략들을 가르치는 부모와 함께 할 때 유아는 ‘실패 결과에 대해서 비교적 건설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성’인 ‘실패에 대한 내성(failure tolerance: FT)’을 발달시킬 수 있다.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의 접근법인 텅커링(tinkering)은 분명한 목적이나 목표 없이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이연승, 조경미, 2016). 그러나 단순히 어떤 ‘물건을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텅커링을 하면서 유아는 스스로의 질문에 답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실패와 성공의 경험이 공존하는 과정을 거쳐 가능성 있는 결과를 탐구하며 실생활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한다. 이 과정 안에서 과학과 다른 학문과 융합과 협력이 이루어져 ‘변화를 만드는’ 능력을 갖춘 창의적 융합 인재가 될 수 있다. 유아가 온전히 자신의 시간과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의 개입을 줄여 ‘어떻게 배우는지를 배우는(learn to learn)’(이주호, 2017)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많이 아는 것만 추구하는 “표층학습(surface learning)”으로부터 많이 알면서 동시에 깊이 알고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심층학습(deep learning)”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Fullan and Langworthy, 2014).

Ⅲ. Back to the Basics, Back to the Future

2016년 다보스 포럼은 개인과 사회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한다. 지금까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이 빚어 낼 미래의 특성을 예상해보고, 그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 기대되는 부

모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아무도 가보지 않아 예측할 수도 없는 미래를 준비하려면 미래 교육은 과거의 기본교육에 충실해야 하고, 동시에 자녀 세대의 미래 삶을 대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미래 교육은 ‘변화의 철학’을 수용하면서 ‘기본기를 중시하는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인성 교육을 기반으로 ‘기본과 미래’를 하나로 융합하는 교육(김지숙, 2015)이 이루어질 때 각 개인은 변화에 적응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둔 부모가 담당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은 유아와 첫 번째 관계를 맺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인간으로서 유아기 자녀가 세상을 배우면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의 과정 속에 함께 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믿을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이 분열적이고 비인간화되기 보다는, 인간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인간이 중심이 되게 하는 변화가 되었으면 한다” 는 기대를 전했다. 질문을 바꿔보자.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장필성, 2016).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싶다.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이 예측 역시 설왕설래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비전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김대식, 2016).

<참고 문헌>

- 강인경 (2016).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오늘의 교육, 그 울통불통함에 대하여. KEDI 창립 44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제 95차 KEDI 교육정책포럼.
- 구본권 (2015).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서울: 도서출판 어크로스.
- 금강일보 (2017. 3. 1). 공주대 김상희 교수팀, 유아코딩교육 비교실험 주목.
- 기순신 (2016). 유아 창의성, 융합으로 키운다. 펴낸팍북스.
- 김대식 (2016). 김대식의 인간 vs. 기계. 동아시아.
- 김지숙 (2015). 인성기반 창의·융합적 리터러시 교육 - 뉴 3Rs 리터러시 언어학습 모형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21. 28(1), 189-217.
- 김진하 (201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모색. KISTPEP R&D Inl. 15.
- 김태완 (2016). 미래 사회의 전망과 교육 구상, KEDI 창립 44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제 95차 KEDI 교육정책포럼.
- 오로라 (2016).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유아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 한국교원교육학회 학

술대회자료집. 11. 313-323.

- 이기천 (2017). 미래 대안교육과 자유학년제, 브레인, 62(2), 57-57.
- 이연승, 조경미 (2016). 유아과학교육에서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의 의미고찰. **어린이미디어연구, 15(4)**, 217-241.
- 이주호 (2017).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 대전환, **선진화 정책시리즈. 2**, 158-189.
- 장필성 (2016). 2016 다보스포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과학기술 정책, 26(2)**, 12-15.
- 전숙경 (2016). 초연결사회의 인간 이해와 교육의 방향성 탐색, 교육의 **이론과 실천, 21(2)**, 55-80.
- 조상식 (2016).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교육의 과제, **미디어와 교육, 12**, 152-185.
- 중앙일보 (2016. 3. 25). AI, 선장·일반 의사도 대체...화가·요리사는 끄떡없다.
- 중앙일보 (2016. 4. 29). AI가 만드는 4차 산업혁명. 대형 제조업 붕괴는 필연.
- 중앙일보 (2017. 2. 15). **안철수의 '교육개혁안'을 지지한다.** 양선희의 시사각각.
- 한동승 (2016). 4차 산업 혁명 시대, 대학 교육과 콘텐츠, **인문콘텐츠, (42)**, 9-24.
- Amang Kim (2017).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까?** 중앙일보.
- Fullan, Michael. & Maeia, Langworthy. (2014). A Rich Seam: How New Pedagogies Find Deep Learning, Pearson.
- Rifkin, J. (2012). **3차 산업혁명.** 안진환 역. 민음사.
- Noddings, N. (2016). **21세기 교육과 민주주의,** 심정보 역. 살림터.
- Schwab, K. (2016).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역. 새로운 현재.
- Schwab, K. 등 (2017). **4차 산업혁명의 충격.** 포린 어페어스 편. 김진희, 손용수, 최시영 공역. 흐름출판.
- Toynbee, A. (1884). 영국 산업혁명 강의.



실천주제 강연4

교구로봇 코딩교육의 프로그램 적용

김 상 희 교수(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실천주제 강연4

교구로봇 코딩교육의 프로그램 적용

김 상 희¹⁾

I. 서론

교육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본 학습 능력에서 3R, 즉 읽기(Reading), 쓰기(Writing), 산술(Arithmetic) 등 세가지 능력이 요구되었다면,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미래의 디지털 경제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SW, SoftWare) 교육이 더해져야 한다. 즉 소프트웨어교육 안에서 컴퓨팅적 사고력(CT, Computational Thinking)을 키워 ‘글로벌 창의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면서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코딩교육’을 핵심과제로 보게 되었다. 이에 교육부와 미래창조부는 미래의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로봇기반교육으로 초중고 소프트웨어(SW)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SW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교육현장에서는 미래의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로봇기반교육이 단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로봇을 교수매체로 활용한 ‘로봇활용교육’이 시도되고 있다. 로봇활용교육은 로봇을 활용한 모든 교수학습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로봇의 부품을 활용하여 코딩과정을 통한 창작활동을 하는 교구로봇과 지능형 로봇을 활용한 교사보조로봇으로 구분된다. 교구로봇은 로봇의 설계, 조립, 구동 및 제어하는 코딩교육활동과 교과통합의 구체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사보조로봇은 서비스 로봇으로 학습보조 및 교사역할을 수행하는 로봇을 통해 교육을 지원하는 학습을 의미한다. 유아교육현장에서도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운영을 핵심과제로 추진하면서 2010년부터 로봇기반교육(R-learning)을 위해서 교사보조로봇인 제니보, 아이로비Q, 키봇 등을 가지고 로봇활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아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로봇활용교육을 살펴보면 교사보조로봇이 보급, 활용되고 있으며 로봇기반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로 인해 교사보조로봇은 유아교육에서 매력적인 교수매체로 혹은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 증진을 돕고, 유아의 사회, 정서발달의 향상과 상호작용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교사보조로봇은 고장이 잦고 언어적 의사소통이 용이하지 않은 부정적 측면도 보고

1)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되고 있다. 또한 이미 정해진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현장에 보급되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기 어렵다. 유아교사의 입장에서 로봇의 관리와 파손의 위험이 업무상의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로봇에 대한 교사의 이해 부족 등으로 교사보조로봇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유아교육현장에서 미래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한 로봇기반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부담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이면서 흥미 있는 활동으로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로봇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1. 코딩교육의 의미

1) 코딩(coding)이란?

- code(컴퓨터 언어)+ing(동작을 나타냄)
-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뜻한다.
- 즉, 코딩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뜻한다.

2) 코딩교육 학습의 효과는?

코딩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아이들을 꼭 프로그래머로 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는 일상생활의 서비스부터 의료, 교육까지 로봇과 함께하는 시대이다. 로봇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컴퓨팅적 사고를 키우는 코딩교육이다. 코딩교육은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는데 좋은 도구이므로 로봇과 함께 미래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소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코딩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모국어나 수학처럼 모든 사람이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3) 코딩교육은 지금 얼마나 전 세계에 열풍 중일까?



[그림 1] 세계의 코딩교육

〈그림자료 출처: <http://news.joins.com> (중앙일보)〉

2. 유아 코딩교육

현재 유아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코딩교육은 교구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과 태블릿PC를 활용한 EPL(Educational Program Language)방식의 코딩교육, 로봇완제품을 이용한 코딩교육 활동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구로봇 코딩교육

교구로봇의 코딩교육은 유아교육현장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조립형 블록 개념의 도구를 사용하여 유아들에게 친숙한 자동차나 동물형태의 로봇 등을 직접 조립하고 움직여 볼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하여 유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로봇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컴퓨팅적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공간지각력, 문제해결력 및 손과 눈의 협응력을 키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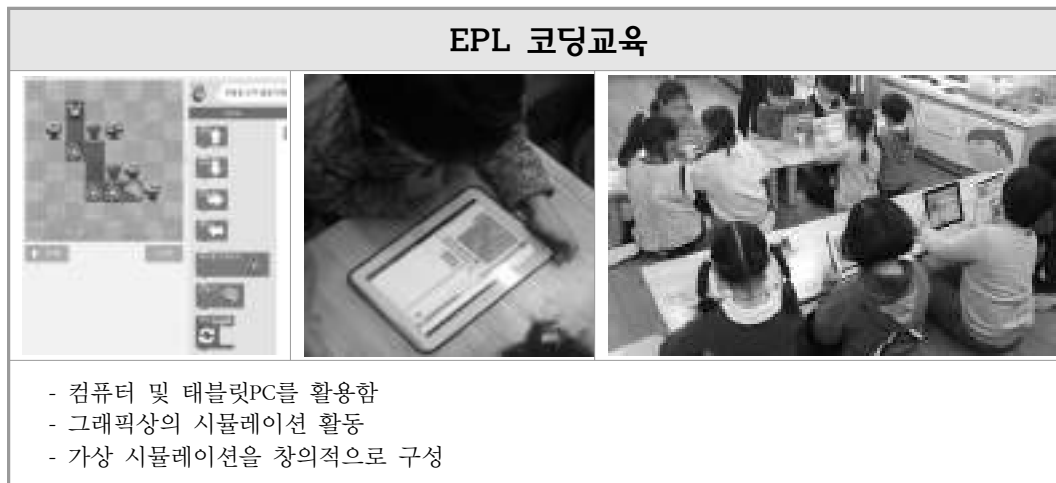
[그림 2] 교구로봇 코딩교육 활동

〈출처: 공주대 유아교육과 코딩교육 실험연구 자료의 일부〉

2) 태블릿PC 코딩교육

EPL(Educational Program Language)방식의 코딩교육은 태블릿PC를 활용한다. 유아 수준에서 사용 가능한 명령어를 포함하고 있는 블록형 아이콘을 손으로 끌어다 배열하여 프로그램상의 캐릭터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게 하는 활동이다. 스마트 폰이나 인터넷 게임에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게임을 하는 것

이 아니라, 다양한 코딩활동을 통해서 유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게임을 주체적으로 만들어보고 또한 확장활동으로 순차와 반복의 개념을 놀이로 경험한다. 이를 통해 컴퓨팅적 사고력의 기초지식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3] EPL 코딩교육 활동

〈출처 : www.code.org〉

3) 완성된 로봇 코딩교육



[그림 4] 로봇 완제품의 코딩교육

〈출처 : www.beebot.org(에코스쿨스)〉

Ⅱ. 로봇교육

1. 로봇교육

로봇의 정의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게 되는데, 산업·정보화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로 발전함에 따라 로봇의 패러다임도 기존의 노동대체 수단의 ‘전통적 로봇’에서 인간 친화적인 ‘지능형 로봇’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단일화된 로봇에 대한 정의나 분류는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학자들의 개인적 견해에 따른 정의나 분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능형 로봇’을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로봇 중 개인용 로봇은 그 목적과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하위분류 할 수 있다. 교육용 로봇은 이러한 개인용 로봇의 하위분류로서,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교육용 로봇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로봇을 교육컨텐츠 전달 미디어로 사용하거나 로봇을 조립하거나 제작하는 과정을 통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에서의 로봇 활용 방법에 따라 교육용 로봇을 ‘교사보조로봇’과 ‘교구로봇’으로 구분한다.

1) 교구로봇

로봇 프로그래밍은 학습 과정에서 공학 원리를 적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고 프로그래밍의 코딩과정을 통해서 공학과 정보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으며, 토의와 협동학습을 통해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 과학적으로 사고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함양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손으로 로봇을 직접 만드는 경험을 통해 아동발달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지적, 정의적, 신체적 영역에서 컴퓨터 교육의 지향점과 목적에 잘 부합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창조적 지식인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로봇 프로그래밍은 코딩교육의 학습 내용이자 방법으로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로봇은 학습자와 교사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학습동기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학습자가 로봇을 조작하거나, 로봇 프로그래밍을 통한 로봇을 제어하는 동안 로봇의 결점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교사보조로봇

교사보조로봇은 원격지 교사와 학생 간의 쌍방향 체감형 교육을 지원하거나 자체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 보조 또는 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능동적 교육자 역할의 로봇을 의미한다. 교사보조로봇은 교사보조와 동료교수로 구분할 수 있다. 교사보조는 외부 환경과 학습자의 상황에 반응할 수 있으며 매체성과 관계성도 가지는 의인화된 교육서비스로봇이 학습자와 교사의 학습 상호작용을 돕는 형태의 학습을 의미한다. 동료교수는 친구로서 정보를

알려주거나 가르쳐주는 개인용 로봇이다.
교육로봇을 분류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교육로봇의 분류

구 분	교구로봇	교사보조로봇
주요기능	• 3차원 구성 • 동작특성 • 프로그래밍(코딩활동)	• 음성인식 및 합성 • 이동 및 얼굴인식 • 학습관리시스템(LMS)
용 도	• 전문적 로봇기술 교육목적에 활용 • 일반교과(과학, 수학, 미술 등) 및 창의력 교육목적에 활용	• 학교, 유치원 등에서 교사를 보조 • 가정에서 학습자의 자발적 학습을 지원
관련사진		

<그림자료 출처 : www.uaroedu.com(코딩로봇 유아로), www.special.yeogie.com(교사보조로봇)>

2. 로봇교육의 교육적 의의

현재 국내의 유아교육에서는 교구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나, 초등교육 환경에서 교구로봇의 코딩교육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구로봇의 코딩교육은 조립형 블록인 로봇 부품을 직접 조립하며 만들고 스스로 만든 로봇을 작동시켜 보는 활동으로 전개되며 구체적이고 점진적으로 심화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논리적 사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계획하고, 로봇의 조립 및 수정의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응용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출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된다.

유아의 논리-수학적 지식에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논리-수학적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계획할 때는 4가지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물리적 경험을 바탕으로 물체의 움직임에 관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물리적 경험은 유아 자신의 행위를 통해 사물의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유아 자신이 사물에 대한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나타나는 사물의 반응이 관찰가능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유아는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구체적인 조작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해져 대상의 관련성을 찾아가면서 논리-수학적 지식이 향상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물리적 경험과 구체적 조작이 가능한 조립형 블록을 제공하고 이것을 조립하면서 크기나 모양의 차이뿐만 아니라 수량, 면적, 길이, 다양한 위치와 각도에 맞춘 일대일 대응 등의 구체적 조작을 경험하게 되면서 논리-수학적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구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의 조립 및 실행 과정은 논리-수학적 지식의 향상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에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새롭게 발견(문제의 이해)하고, 정의하며 새로운 해결책(아이디어의 생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안(계획 및 실행)을 찾아보면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교구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과정은 인식하기, 탐색하기, 탐구하기, 활용하기의 과정으로 이어지며 이는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의 문제의 이해, 아이디어의 생성, 계획 및 실행의 과정과 연계된다. 즉 교수학습과정의 인식하기는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에 문제의 이해와 연결되며, 탐색하기 과정은 아이디어의 생성과 같은 맥락으로 확산적 사고의 과정에 해당된다. 또한 탐구하기와 활용하기의 과정은 계획 및 실행의 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유아 스스로 문제해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창의적인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아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실행의 착오 또한 경험하게 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누리과정의 생활주제와 연계하여 구성된 교구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의 교수학습과정은 유아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논리-수학적 지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이유는 논리적, 수학적 개념과 그에 따른 인지적 지식의 이해가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창의적 문제해결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유아 코딩교육과 관련된 국외 연구 자료의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5-6세 유아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활동의 문제해결 반복 과정은 유아의 수학적 개념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구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의 활동은 초기 수준에 있는 상태이며 이를 적용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앞으로 로봇의 활용이 활성화 될수록 다양한 로봇의 등장과 사용이 기대되므로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구로봇의 코딩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Ⅲ. 교구로봇 코딩교육 프로그램

교구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이 컴퓨팅적 사고력인 논리-수학적 지식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구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 프로그램 활동을 시행하였다.

1. 검사도구

1) 논리-수학적 지식 검사도구

논리-수학적 지식 검사는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Shearer(1995)의 유아 다중지능 발달평가를 조혜진(2001)이 번안한 것으로 논리-수학적 지식 부분을 본 연구의 맥락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였다. 수정·보완된 검사도구는 유아교육 교수 1인과 로봇교육 자문교수 1인의 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수정된 내용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물이 ‘왜/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까?”의 문항을 연구 맥락에 맞추어 “배터리나 모터, 바퀴가 ‘왜/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까?”로 수정하였다.

2)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3가지 활동요소를 참고하여 작성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검사내용은 유아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하나의 요인으로 연결 짓고, 3가지 활동요소의 ‘문제의 이해’, ‘아이디어의 생성’, ‘행위를 위한 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활동요소와 관련된 문항은 각각 2개씩으로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교구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 프로그램

교구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 프로그램은 누리과정에서의 일상생활과 연계된 내용과 자연에 대한 이해, 생활 속 동식물 등의 내용으로 교육의 점증적 심화 과정을 고려하여 13차시로 계획하였다. 먼저, 교구로봇의 기초단계인 1단계부터 심화단계인 3단계까지의 수준별 내용과 구성부품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단계별 내용

단계	내용	단계별 로봇구성내용
1단계	· 블록의 조립 및 제조 · 배터리, 모터, 바퀴 및 2개의 빛 센서 · 블록을 분류하고 조립의 위치 찾기 위한 논리-수학적 과정 · 로봇의 창의적 구성	
2단계	· CPU를 이용한 입력 과정 ·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출력과정 ·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논리-수학적으로 분류하고 위치에 맞는 조립과정의 능력 · 로봇의 창의적 움직임 활동	
3단계	· 코딩블록 및 코딩보드 다운로드 · 로봇의 이동 경로를 예상하면서 코딩블록을 입력 · 창의적 확장 활동	

교구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 프로그램은 총 13차시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표 3〉과 같다.

〈표 3〉 교구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 프로그램 구성

단 계	생활 주제	차 시	활동명	선정이유	누리과정 관련영역
1 단 계	생활 도구	1	로봇	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로봇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로봇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기계라는 것을 안다.	창의적 문제해결 력
	유치원 과 친구	2	로봇을 만들 어요	로봇 교구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나눈다.	자연탐구 신체운동 · 건강

봄	3	기린로봇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전지에 대해 알고 로봇에 장착하여 변화되는 로봇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논리-수학적지식	사회관계 자연탐구
	4	소방차1	모터는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알고, 소방차의 LED 불빛을 꾸밀 수 있다. 배터리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전달하여야 바퀴가 움직이고 LED에 빛이 밝혀진다는 것을 안다.	논리-수학적지식 창의적 문제해결 력	의사소통 자연탐구
	5	소방차2	소방차를 조립하고 배터리를 이용하여 동작시킬 수 있다.		
우리 동네	6	장수 풍뎅이 로봇1	2단계에서는 LED의 활용과 접촉센서가 CPU를 통해 사람의 뇌처럼 명령을 해서 로봇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로봇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여야 움직일 수 있다. 접촉센서의 기능을 알고 장수풍뎅이를 동작시킬 수 있다.	논리-수학적지식	의사소통 자연탐구
	7	장수 풍뎅이 로봇2			자연탐구
	8	장수 풍뎅이 로봇3	3단계에서는 코딩보드가 코딩블록의 기능을 입력하여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코딩블록을 조작할 수 있다.	창의적 문제해결 력	자연탐구
2 단 계	9	트렉터1		논리-수학적지식	사회관계 자연탐구
	10	트렉터2			
	11	트렉터3	코딩보드에 코딩블록을 입력하여 로봇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실패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창의적 문제해결 력	자연탐구
3 단 계	12	로봇	비교적 쉬운 조립과정인 강아지로봇을 만들어 보면서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해 하는 기회를 갖는다. 조립의 과정을 마치고 리모컨으로 조정해 보도록 하여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확장 한다.	논리-수학적지식 창의적 문제해결 력	예술경험 자연탐구
	13	내가 만든 로봇	그동안 만들었던 로봇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로봇을 만들 때 재미있었는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표현해보도록 한다. 또 다른 로봇을 만든다면 어떤 로봇을 만들고 싶은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창의적 문제해결 력	사회관계 의사소통

교구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로봇을 스스로 조립하고 움직이는 과정을 통하여 로봇교육의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교수학습지도안의 예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교구로봇 활동 프로그램 교수학습계획안 예시

로봇활동		소방차2	활동차시	5차시
활동목표		모터가 바퀴를 움직인다는 것을 안다. LED 불빛으로 소방차를 꾸밀 수 있다. 배터리와 모터를 사용하여 바퀴를 움직일 수 있다.		
방법	창의적 문제해결과정	내용		
도입	인식하기/문제의 이해	1. 배터리에 관심을 가진다. T : 사람이 움직이거나 생각하기 위해 매일 무엇을 먹나요? T : 사람처럼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탐색하기/아이디어 생성	1. 배터리를 이용하여 모터를 움직일 수 있다. T : 모터는 무엇을 돌아가게 하나요? T : 모터와 바퀴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2. 모터를 이용하여 바퀴이외에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전개	탐구하기, 활용하기/ 계획 및 실행	1. 블록을 이용하여 소방차 로봇을 조립한다. 2. 주황색과 파란색 포트를 배터리에 연결한다. 3. 전원을 켜고 소방차의 움직임을 확인한다. 4. 소방차기 뒤로 가게 되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본다. T : 소방차의 바퀴가 왜 거꾸로 갈까요? T : 바퀴를 연결한 선을 다른 방법으로 연결하여 볼까요? 5. 소방차가 하는 일을 기억하며 소방차 로봇에 이름을 붙여준다.		
마무리	평가	친구들과 함께 배터리를 조절하여 소방차를 움직여 본후, 즐거웠던 점,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 나눈다.		



IV. 결론

유아를 대상으로 13차시로 구성 된 교구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구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 프로그램을 활동한 유아들은 다양한 크기의 모양 및 형태의 조립형 블록을 이용하여 로봇을 조립하는 경험과 로봇 작동을 위한 반복과 심화과정을 통해서 논리-수학적 지식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유아는 발달특성상 구체적이고 물리적 경험을 바탕으로 물체의 움직임에 관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직접 물체의 움직임을 만들어 보면서 변화의 과정과 물체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블록의 위치와 방향을 정확히 인지하여, 자신의 로봇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지각능력이 요구된다. 논리적 지각능력은 논리-수학적 지식이 향상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교구로봇을 조립하고 동작하는 반성적 관찰과정에서 유아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능력이다. 유아들은 반성적 조립과정을 겪으면서 논리-수학적 지식이 향상되었다.

둘째, 교구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 프로그램 활동에서 유아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본인만의 로봇을 만들었을 때 특별한 만족감과 희열을 느꼈으며 또래 친구들과 각자의 로봇을 함께 움직여보면서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또한 다음 시간에는 어떤 로봇을 만들지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활동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높아졌다. 자신만의 로봇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로봇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만족감은 좀 더 복잡해지고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아는 문제를 새롭게 발견하고 정의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안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다. 결국 유아는 물체의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인식, 탐색, 탐구, 활용을 반복하면서 학습의 과정을 구성하고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한 유아는 심화된 목표로 나아가며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초등교육 수준에서 이루어졌던 교구로봇 코딩교육을 유아교육현장에서도 활성화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컴퓨팅적 사고력인 논리-수학적 지식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에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구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의 교육적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교구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은 논리-수학적 지식 및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위해 보다 폭넓게 활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교구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은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지도안과 학습 자료를 구성하여 도입하였다. 일반적인 교구로봇 코딩교육의 경우 높은 난이도와 교수학습 지도안의 부재로 인하여 유아 교육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유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지도안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구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적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을 위한 로봇교육의 과정이 필요하다. 로봇교육 관련연수를 활

성화하여 유아교사들에게 필수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로봇의 조립이나 컴퓨터 코딩교육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들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역량 모델을 구축 할 수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향후 교구로봇을 활용한 코딩교육의 관련된 연구에서 논리-수학적 지식,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의 변인 외에 정의적, 사회적인 변인과 공간지각능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볼 것을 제안한다. 논리-수학적 지식,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인지적 능력 이외에도 문제해결의 과정에서의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사회성의 발달에 초점을 맞춘 정의적 측면과 공간지각능력에서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 문헌>

- 김소연, 설문규 (2010). 게임식 로봇교육을 통한 초등학생의 논리적 사고력 변화. **정보교육 학회논문지**, 14(1), 111-121.
- 김지현, 문성환 (2010). 초등 로봇교육에 대한 방과후 로봇 지도교사의 인식 조사. **한국초등 교육**, 21(1), 117-133.
- 김철 (2012). 로봇교육 관련 국내 연구동향 및 교육효과 분석. **한국정보교육학회**, 16(2), 233-243.
- 윤은경 (2012).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유아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순복 (2010). 쌓기놀이 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기하 및 공간 감각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연구**, 30(1), 95-119.
- 이연승, 정정희, 홍희주 (2015). 유아교육기관 R-러닝 적용상의 어려움 및 해결방안에 관한 델파이 조사연구. **아동교육연구**, 35(1), 221-241.
- 이은경, 이영준 (2008). 로봇 활용 프로그래밍 학습이 창의적 문제해결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3(2), 120-136.
- 이정순, 유구중, 김민정 (2012). 유아교육기관 지능형로봇활용 자유선택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7(3), 111-132.
- 임해미, 최인선, 노선숙 (2014). 논리·비판적 사고 신장을 위한 로봇 프로그래밍의 수학교육 적용 방안. **수학교육**, 53(3), 413-434.
- 정한울, 한수정 (2012). 교사들이 인식한 유치원 R-러닝 수업활동의 가능성과 한계. **어린 미디어연구**, 11(3), 27-47.
- 조여울 (2015). 미술활동 중심의 STEAM(융합인재)교육이 유아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혜진 (2001).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유아의 다중지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면중 (2015). 유치원/초등생 로봇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조사. **로봇학회논문지**, 10(2), 53-60.
- G. Fessakis, E. Gouli, E. Mavroudi (2013). Problem solving by 5-6 years old kindergarten children in a computer. *Computers & Education*, 63, 87-97.
- www.beebot.org (에코스쿨스)
- www.code.org
- www.news.joins.com (중앙일보)
- www.special.yeogie.com (교사보조로봇)
- www.uaroedu.com (코딩로봇 유아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유아교육

이 병 래 교수(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종합토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유아교육

이 병 래¹⁾

1. 1. 오늘의 이슈 :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유아교육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박형주 소장)

☐ 지식이 아니라 학습능력이 경쟁력이다

- 21세기는 지식 과잉'과 '무한 정보'로 요약된다.
- 이질적인 것들의 만남과 연결
 - － 나이팅게일, 촘스키, 솔제니친, 스티브 잡스, 존 내쉬
 - － 인문학과 과학의 연결 같은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들의 충돌과 상호 극복. 그런 충돌이 판을 바꾼다!

☐ 주장의 근거

- 과학기술의 발전 → 일자리 감소 문제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 엘리트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갈등
- 연결과 융합의 효용성
 - －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연결하는 것
 - － 복합적인 문제 해결력이 주요한 분야 → 지속적인 경쟁우위 유지 가능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아교육 :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김지영 교수)

☐ 4차 산업혁명과 사회 변화

- 학력 파괴 바람 : 대학 졸업장이 아닌 자신만의 실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 지식의 가치 변화 : 축적된 지식이 아닌 지식 활용 및 생산 역량이 요구된다.
- 직업생태계 변화 : 취업이 아닌 창직의 시대가 된다.
- 인재상 변화 : 전문지식, 미래 핵심역량, 창의적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가 요구된다. 인성, 감성이 요구된다.

1)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요구되는 교사상**

- 비정형적인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기계로 배울 수 없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 배움을 지속해야 한다.

☐ **유아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 자기력, 인간력, 창의융합력, 협업력, 평생배움력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아교육과정(장명림 본부장)

☐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5.9.23.)**

- 추구하는 인간상 : 창의융합형 인재
 - －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 － 핵심역량 :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 **교육부 미래교육 방향(2016.12)**

-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유연화)
-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자율화)
- 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개별화)
-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기르는 교육(전문화)
-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교육(인간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유아교육과정의 방향**

1. 영유아의 행복과 웰빙(참살이) 추구
2.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연속성 및 전문화
3. 국가 교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의 체계화
4.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
5. 교사의 전문적인 누리과정 실행 지원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아교사 양성(유구종 교수)

☐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교사교육이 요구된다.**

- 코딩교육의 교육적 유용성과 이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현실 제기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황(인공지능과 가상현실 · 증강현실,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에서 유아교사의 스마트 매체 활용은 필수적인 상황이 될 것임

☐ **교사교육에의 반영 제안**

- 유아교사의 증강현실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상황중심교육으로의 적용)

- 유아교사의 인공지능 App과 스마트 매체 활용
- 스마트 교육환경, 스마트폰·태블릿 활용 프로그램
- 스마트 교사의 우리 동네, 세계의 여러 나라 활동
- 유아교육에서의 인공지능로봇, 빅데이터 활용과 코딩교육
- 유아교사의 3D 프린터, 스캐너 활용

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모 역할(전우경 교수)

☐ 미래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상

- 상생하는 인재: 창의 융합적인 인재

☐ 부모의 역할

1. 정서적 관계의 힘
2. 협력적 인성의 가치 교육
3. 건설적 실패의 기회

☐ 미래 교육의 방향

- 교육의 근본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있다.
- ‘변화의 철학’을 수용하면서 ‘기본기를 중시하는 교육’
- ‘기본과 미래’를 하나로 융합하는 교육

2. 2. 토론자의 점언

1) 4차 산업시대 전망

☐ 세계미래보고서 2055 : 《유엔미래보고서》 2017년 최신판 / 박영숙

-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 제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제4차 산업은 인공지능으로 시작된다. 우리는 지난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을 통해 우리 앞에 바짝 다가온 미래를 두 눈으로 확인한 바 있다. 사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다. 음성을 인식해 비서처럼 일정을 알려주는 스피커라든지 맥락을 파악해 정확한 번역을 해주는 번역 애플리케이션, 인간보다 더 빠른 반응속도로 사고를 방지하는 자율주행자동차 등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응용되고 있고, 그 가치를 미리 알아본 사람들이 미래의 부를 독점하게 될 것이다.

2) 4차 산업시대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

☐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인간성 회복 문제

- 기술문명은 인간의 기계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 지금도 이미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다(알파고, 인공지능, 홍채 인식 등)
 - 기술문명은 매우 빠른 발전 속도로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인간 본연의 존재적 의미 상실 우려에 대한 문제

- 이미 물질문화의 변화 속도에 비해 인간의 정신문화는 매우 둔한 속도로 변화되어 왔다.
- 현대시대의 물질문화는 더욱 급속한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 현대인은 이미 기계문명 시대에 익숙해져 있다. 물질만능시대, 속물근성시대, 소유욕의 시대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 현대시대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속도나 파급 효과는 물질문명의 급격한 변화 분위기로 인해 매우 둔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 따라서 미래시대에는 인간 본연의 존재적 의미가 더욱 상실될 것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 인구문제 + 4차산업시대 문명에 따른 삶의 조건 문제

- 인구의 급격한 양적증가
 - 2016년 7월 현재 세계인구 : 74억
 - 2050년 세계인구 : 83억~109억 사이 (2012년 유엔 발표)
- 인구의 질적 수준 차이 발생
 - 문명의 발전과 그에 대한 적응 수준
- 인구의 양적증가, 질적 수준 차이 발생에 따른 미래문제
 - 1차자원의 급격한 고갈
 - 기후 환경의 급격한 변화
 - 일자리 제한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 빈부 격차의 심화

3) 요구되는 담론

□ 기술문명을 위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기술문명이어야 하다.

- 기술문명은 인간의 편리한 삶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속도와 변화가 급격하였고, 인간의 삶의 문화를 더욱 편리하게 보조해주었다.
- 인간의 삶의 일부를 기계문명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삶이 기계에 의존하는 변화가 급격히 확산

되고 있다. 인간이 기계에 속박당하는 상황까지 도래되었다.

- 그러나 ‘기술문명을 위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기술文明’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기계문명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이성적 판단에서 본성을 찾아가는 담론이 시급하다.

- 기술문명과 경제적 부는 인간 이성(理性)의 산물이다. 이성은 과학적 사고와 경제적 사고를 바탕으로 인간에게 물질적 부를 충족시켜주었다.
-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고 따르기 위한 지성을 발견하는 일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인류의 역사와 행복하지 못했고, 인류의 미래가 우려되는 근원이라고 판단한다.

□ 미래학자들은 미래시대에 요구되는 인간상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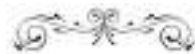
- 다니엘 핑크의 「새로운 미래가 온다, A Whole New Mind」, 하워드 가드너의 「미래마인드, FIVE MINDS FOR THE FUTURE」, 슈마허의 「굿 워크」, 최윤식과 정우석의 「부의 정석」 등을 참조할 수 있다.
- 이들이 요구하는 인간상은 두 가지 범주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유능성을 스스로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함께 더불어 행복해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 본 토론자는 이를 창조적 인간(創造的 人間)과 상생적 인간(相生的 人間)으로 명명하여 제안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갈 인재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은 여기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담론을 제안하고 싶다.



제 1 분과 논문 발표

상호작용



- 뇌 과학에 근거한 영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방향 141
양수영(한양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예비유아교사의 진로결정수준과 정서지능 및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 147
이진희(송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이영미(송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초등학교 취학 직전 아동의 쓰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에 관한 조사 연구 151
김혜원(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논어」의 ‘禮’ 개념에 나타난 유아생명교육에 대한 함의 탐색 155
임홍남(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BK21플러스 연구원), 김은주(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뇌 과학에 근거한 영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방향

양 수 영¹⁾

I. 연구의 필요성

다윈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적응이다. 즉, 생존을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 지 그 적응력에 달려있고, 이러한 개념은 오늘날에도 적용되어 이전 어느 시기보다 급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잘 적응하는 능력이 인간의 생존 및 성공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다(Contreras & Siu, 2015).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1~3차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우리사회의 경제 및 사회문화, 생활양식도 함께 변화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3차에 이은 통신망의 또 한번 진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융합하는 IoT, 인공지능 등으로 그 특징을 대변할 수 있으며, 스마트 지능화 사회로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다(LG 경제연구원, 2016). 스마트 지능화 사회란,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들조차도 똑똑해진 지능을 가진 것처럼 지능화가 된다는 뜻이며, 다시말해 무인화(無人化)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이경주, 2016).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편리함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보의 확대를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함으로써 직업의 소멸 및 급격한 직무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다보스포럼, 2016).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들은 3차 산업혁명의 컴퓨터 관련 기술과 관련되어 확장된 것으로서 그 적응력을 기르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Bessen, 2016; McKinsey, 2014). 그러나 컴퓨터 관련 능력이 평균이하인 경우는 향후 노동 환경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언급된다(O'Reilly, 2015).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책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교육을 강화하여 그 적응력을 기르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Brinson, 2014; Contreras & Siu, 2015). 그 이유는 미래의 과학기술은 컴퓨터와 융합하여 새롭게 변모하기 때문이며, 또한 새로운 정보의 창출 속도가 가속화됨으로써 이를 활용하고, 저장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을 보조할 수 있는 컴퓨터가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컴퓨터의 활용능력이 앞으로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으며, 새로운 변화와 지식창출을 더욱 활성화시켜 사회발전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1) 한양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할 것이다(최계영, 2016; DeLoura & Paris, 2013; Pearce, 2013; Shein, 2014). 따라서 앞으로의 컴퓨터 활용교육은 지금보다 더욱 강조될 것이다.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되며,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주로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와 다루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우리나라 초등교육부터는 코딩교육이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의무화된다(The science times, 2017). 많은 연구자들은 소프트웨어 교육이 미래 교육의 새로운 방향이며, 중심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Marucs & Davis, 2014; Wagstaff, 2012; Shein, 2014; Henn, 2014; Trovalds, 2014). 하드웨어 교육은 단순히 학습자를 절차에 따라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는 수동적 존재로 만들지만 소프트웨어 교육은 학습자가 컴퓨팅적 사고를 통해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함으로써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다(Cuni, 2014; Vaidyanathan, 2012).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초등학교 이전 유아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2006년 실태결과를 보면, 인터넷 시작연령이 만 3세로 밝혀지면서 그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국가 인터넷 사용실태 조사대상으로 만 3세 유아부터 포함되고 있으며, 만 3~5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은 50%를 넘어서며 최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2016). 구체적으로 유아들은 가정에서 다양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거나 증강현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임명희, 김성현, 2014), 방효국, 김낙홍(2013)에 따르면 유아들은 컴퓨터를 활용해 주로 게임을 많이 하며, 이에 대한 경험은 교육현장이 아닌 가정의 형제로부터 주로 배운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의 컴퓨터 교육은 사회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이 무능력하다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Oppenheimer, 2003; Buckingham, 2007; NooNoo, 2012; Ritz, 2011; Wagstaff, 2012). 즉, 유아교육기관 내 컴퓨터 교육과 컴퓨터 영역 운영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유아의 부모들조차 컴퓨터 사용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아이들에게 컴퓨터 사용을 무분별하게 허용하고 있는 실태이다(정규인, 2008; 정운주, 2005). 유아교육기관에서 컴퓨터 활용 교육은 대부분 교사주도로 운영되어 수업보조매체로만 활용됨으로써 유아들을 지극히 수동적 존재로 만들었으며, 교육용 로봇이 등장했지만 기술적 결함이 발생하여 오히려 유아의 활용에 있어서 제한을 주는 현상이 발생하였다(양수영, 2016; 유미열, 김경철, 최연철, 장연주, 2012). 이러한 유아의 소프트웨어 경험은 향후 컴퓨터 사용 태도형성 및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운서(2009)는 유아의 컴퓨터 사용초기 경험은 향후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게임과 같은 사용 경험과 잘못된 부모의 제한은 향후 중독이나 과몰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Ey와 Cupit(2011) 또한 유아들의 소프트웨어 경험이 교육적인 의도를 갖지 못한채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자매로부터 잘못된 사용습관이나 행동을 모방하게 되면, 단지 호기심 충족만을 위한 잘못된 활용목적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중독과 같은 부정적 현상이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미국소아학회(2011)는 신체발달이 온전치 못한 아주 어린아이들조차 경험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여러 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현재 우리는 유아들이 소프트웨어 경험을 올바르게 하고, 그 적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정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뇌 과학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올바른 소프트웨어 교육 방향을 탐구하여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유아교육현장에서 올바른 소프트웨어 교육방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해볼 수 있을 것이며, 가정에서도 올바른 지도가 가능해짐으로써 유아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영유아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한 뇌 과학 연구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뇌 과학 연구결과는 과학기술발전에 따라 그 결과가 구체화되며,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 5년간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한양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내 학술 DB를 활용하여 키워드를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software education, computer education, programming education, brain을 입력하여 총 16편의 연구물을 수집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뇌 과학 연구물을 융합연구방법으로 분석하고자 다음의 연구 절차를 거쳤다.

1) 융합연구 전문가 선정

융합연구 전문가는 뇌 과학분야 전문가 2인과 유아교육분야 전문가 2인으로 선정하였다. 뇌 과학분야 전문가들에게는 주로 뇌 과학 연구의 분석결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 방향의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유아교육분야 전문가들에게는 뇌 과학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방향의 적절성을 영유아발달 특성과 종합하여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2) 델파이 조사

본 연구자가 앞서 수집한 연구물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그 결과를 융합연구 전문가들에게 메일로 보내어 의견을 수집하였다. 총 3회에 걸쳐 의견을 수집하였다. 1회에는 각자 의견을 주로 적는 방식으로 연구에 참여하였고, 2회에는 자신 이외의 타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동의수준을 5점척도로 체크한 후, 동의수준이 낮은 경우 자신의 의견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3회에는 타인의 동의수준 및 의견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자신의 동의수준을 체크하고,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3) 면담

융합연구 전문가들은 3회간의 델파이조사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확인한 후, 1회 약 2시간 가량의 면담을 통해 이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조정함으로써 최종 뇌 과학 연구 결과에 기초한 영유아 소프트웨어 교육방향을 종합하고 결론내렸다.

Ⅲ. 주요 결과

1. 적절한 교육시기

만 2세이하 영아의 경우에는 두뇌에서 시청각 정보를 받아들이 통합하는 능력이 아직은 미숙하므로 통합된 감각자극을 경험하도록 하기보다는 개별 감각자극에 먼저 익숙해지도록 돕는 감각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 3세 이후부터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과 교육이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2. 교육 방법

만 3세 이후부터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을 제한시키기보다는 경험을 격려하는 것이 향후 이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과 유능감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을 격려하되 다음의 방법대로 지도하는 노력이 올바른 교육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호기심 자극을 통해 활용의 동기 부여하기

강제적 경험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호기심 자극을 통해 유아가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유아가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도록 도우며, 향후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동기화에도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

2) 활용의 목적을 이해시키기

활용의 목적을 이해시켜, 단지 호기심 충족만을 위한 것이 되지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향후 유아들이 소프트웨어를 접할 때 목적에 따라 두뇌 인지기능을 활용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전전두엽을 활발히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인지치리를 돕는다.

3) 조작의 인과 관계를 이해시키기

유아들로 하여금 조작의 인과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어떤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어떤 화면이 등장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역으로 다시 유아들에게 변화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질문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조작의 인과 관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통해 두뇌의 관련 시냅스 연결 및 강화가 가능하며, 이러한 두뇌 발달은 이후 다양한 소프트웨어에도 쉽게 응용되도록 돕는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근본 목적인 컴퓨팅적 사고 증진을 도울 수 있다.

4) 직접 조작의 기회를 제공하기

조작의 인과관계가 이해된 후에는 유아들이 직접 조작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들은 스스로 조작을 통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능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소근육을 조절하여 활용함으로써 두뇌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규칙에 따라 활용하는 경험을 주기

소프트웨어는 그 특성상 유아들로 하여금 주의집중을 오랜시간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여 유아들의 주의집중 한계를 넘어서게 할 수 있다. 이는 유아의 신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아들로 하여금 활용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만하고 멈출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제한을 두는 방식이 그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가 아닌, 단순히 시간으로만 제한을 둔다면 유아들에게는 활용에 대한 아쉬움이 남도록 함으로써 향후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목적을 달성한 경우 멈출 수 있는 규칙을 정해, 규칙에 따라 활용하는 경험을 습관화하도록 도와야 한다.

6)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유아기는 창의성을 발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소프트웨어를 통해 창의적 사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창의적 활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ICT 교육에서는 이

를 위해 프린터 활용을 적극 추천하여 프린트한 결과물을 토대로 창의적 활동을 확장하도록 강조한다. 하지만 만약 컴퓨터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그외 다른 하드웨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라면, 이후 장면을 유아들이 계획해보거나 유추해보도록 하는 등의 창의적 사고를 유도해 볼 수 있겠다.

IV. 결론

본 연구는 곧 도래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능력으로 급변화하는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발전을 이끌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적응 및 활용능력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교육정책으로 시행되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도 코딩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잘못된 사교육이 넘쳐나고, 조기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유아를 대상으로한 올바른 소프트웨어 교육방향이 연구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뇌 과학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영유아 소프트웨어 교육 방향을 탐색하여 밝혔다. 이는 향후 미래사회를 대비한 유아교육현장에서 구체적인 교육방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가정과 사회에도 올바른 지도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비유아교사의 진로결정수준과 정서지능 및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

이 진 희¹⁾ · 이 영 미²⁾

I. 연구의 필요성

1. 고용시장의 변화에 따른 진로와 취업 관련 연구 증가

과거와는 달리 현 사회에서 대학생 신분이라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위기에 있는 갈등상황에 놓여져 있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라 실업률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취업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 가는 상황에서 진로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로는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이 자신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로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 및 취업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며, 예비유아교사들의 진로방향과 결정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관련 연구들의 수행이 시급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2. 진로결정수준 관련 선행연구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진로결정수준은 주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개인적 변인과 진로 관련행동 및 환경적인 변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 활용 및 관련성 판단, 직업적 가치 등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진로결정에 대한 행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기와 용기를 부여받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진로결정수준에 개인의 인지적 요인이외에 정서적인 측면이 함께 작용하여 진로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김중운, 박성실, 2011).

진로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인지, 정서 등의 개인적 변인 이외에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변인 또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변인이다. 사회인지적진로이론(Social

1)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2)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은 개인의 진로결정과정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SCCT는 다양한 인지적-개인적 변인과 이러한 변인들이 어떻게 개인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지를 강조함으로써 진로발달과정을 이해하고자 하고 있다. 많은 관련 연구들은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개인 인지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Lent, Brown, & Hackett, 2000). 개인의 정서지능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특히, 정서지능은 타인과 자신의 감정을 인식, 이해하고 조절 및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볼 때 자신과 부모, 교사 및 동료와의 관계 형성정도가 정서지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목적

기존 연구들이 진로결정과 관련되어 주로 개인 인지적이고 심리적인 변인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진로결정과 정서와의 관련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적인 요인을 정서지능과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진로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진로결정에 정서지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적 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의 진로결정수준과 정서지능 및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 경기도에 소재한 3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27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70부를 배부하였고 최종적으로 241부를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자료 분석은 진로결정수준과 정서지능,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주요 결과

1. 예비유아교사의 진로결정수준,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간의 상관관계

1) 진로결정수준과 정서지능과의 상관관계

예비유아교사의 진로결정수준과 정서지능($r=.329$, $p<.01$) 및 정서지능 하위요소 간(자기정서인식 $r=.303$, $p<.01$, 타인정서인식 $r=.167$, $p<.01$, 정서활용 $r=.349$, $p<.01$, 정서

조절 $r=.254$, $p<.01$)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중 정서활용이 예비유아교사의 자기결정수준과 가장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지능이 예비유아교사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활용 및 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서지능 중에서도 정서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진로결정수준과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관계

예비유아교사의 진로결정수준과 사회적지지($r=.289$ $p<.01$) 및 하위요소 간(부모지지 $r=.169$ $p<.01$, 교사지지 $r=.255$ $p<.01$, 친구지지 $r=.255$ $p<.01$)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 중 교사지지와 친구지지가 동일한 수치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가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을수록 다시 말해, 부모나 교사, 친구들의 지지가 있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부모보다는 교사나 친구의 지지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 및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1) 정서지능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 하위요인 중 자기 정서인식($\beta=.170$ $p<.001$)과 정서활용($\beta=.243$ $p<.001$)이 예비유아교사의 진로결정수준을 유의한 수준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 정서인식 및 정서조절은 예비유아교사의 진로결정수준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으나 자기 정서인식 및 정서조절이 예비유아교사의 진로결정수준을 의미있게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해 하위요인 모두(부모지지 $\beta=.013$ $p<.001$, 교사지지 $\beta=.181$ $p<.01$, 친구지지 $\beta=.178$ $p<.05$) 진로결정 수준을 유의한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세 하위요인 중 부모지지가 예비유아교사의 진로결정수준을 가장 의미있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교사지지와 친구지지 모두 진로결정수준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어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수준을 예측하는 의미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과 사회적 지지는 예비유아교사의 진로결정수준을 예측하는데 전체 변량의 1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지능($\beta=.1244$, $p<.001$)과 사회적 지지($\beta=.159$, $p<.05$)는 진로결정수준을 정적으로 의미 있게 예측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수준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이다.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은 진로결정수준과 의미있는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지능이 진로결정수준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는 통해 진로결정수준에 정서적 요인은 인지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에 대한 결정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미래 취업과 진로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탐색, 획득, 활용 및 평가하는 인지적인 과정에서 정서적인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진로결정이라는 복잡한 과정에서의 정의적 요인의 역할과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 관련된 연구결과는 개인 내적변인이외에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신정옥, 2011; Lent, 2000). 학생들의 정서지능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인지하고 안정적으로 통제하며 활용하는지에 따라 진로와 취업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측면 즉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를 형성하고 지원받는가에 따라서도 변화되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사회적지지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이다. 진로결정수준에 있어 정서지능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학생들의 정서와 환경이 진로결정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을 위한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진로에 대한 정보인식 및 이해와 더불어 정서적이고 환경적인 지원체제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아동의 쓰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에 관한 조사 연구

김 혜 원¹⁾

I. 연구의 필요성

어휘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의 기본이 되며, 어휘를 습득하는 것은 언어학습능력의 바탕이 되며 언어사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차숙, 2004). 5세 누리과정 중 의사소통 영역에서도 낱말의 발음에 관심갖기, 다양한 낱말 듣고 뜻 이해하기, 다양한 단어 사용하여 말하기가 포함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3). 유아기의 언어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이 발달하는 데에는 어휘에 관심 갖고, 어휘를 이해하고, 어휘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습득 및 언어발달에 있어서 새로운 어휘를 배우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며, 급속한 어휘발달을 이루는 유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이차숙, 2004).

부모들과 현장의 교사들은 다양한 활동 및 환경을 제공하며 유아의 어휘력이 발달하는 데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에 대한 자료가 없어 현장의 교사들은 유아의 어휘에 대한 이해와 발달을 돕는 활동 제공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만 5세 유아가 어느 정도의 어휘를 읽을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교사가 유아가 어느 정도의 어휘력을 가져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유아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목록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이와 관련하여 지성에 외(2015)는 유아 및 초등학교 교육에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기본 어휘목록구성의 궤도를 밝히는 기초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영국, 호주에서는 유아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 목록을 구성하는 다양한 연구가 있고, 호주의 Oxford Wordlist 연구의 경우 국가의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 결과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유아의 발달적 수준에 적합한 교수를 수행 및 유아의 어휘 수준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만 5세 유아가 쓰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목록을 구성하기 위한 첫 단계 연구로, 초등학교 취학 직전 아동이 쓰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첫째, 초등학교 취학 직전 아동이 자주 사용하는 쓰기 주제는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취학 직전 아동의 쓰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아동이 쓰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목록을 구성하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의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5세 유아 총 160명(남: 77명, 여: 83명)을 대상으로 쓰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서울 경기 지역의 유치원 5곳(공립 2곳, 사립 3곳)에 칸없는 흰 종이 10장으로 구성된 쓰기자료 240개를 2016년 12월에 배부하였다. 2017년 2월에 쓰기자료 222개를 수집하였다. 이중에서 쓰기가 없이 그림만 있거나 친구가 쓴 내용을 따라쓰기(copying)를 한 쓰기자료 62개를 제외한 총 160개의 쓰기자료를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다. 각각의 쓰기자료에서 3개씩 쓰기본문 선택하여 총 480개(남: 231개, 여: 249개)의 쓰기본문을 분석하였다. 총 8983개의 낱말(남: 3673개, 여: 5310개)을 분석하였으며, 1개의 본문은 평균 19개의 낱말(남: 16개, 여: 21개)을 포함한다.

Ⅲ. 주요 결과

1. 초등학교 취학 직전 아동이 자주 사용하는 쓰기 주제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 아동이 자주 사용하는 쓰기 주제는 표 1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절(겨울), 초등학교, 졸업, 친구에게 쓴 편지, 겨울방학, 친구, 놀이, 유치원, 동물, 자유쓰기 순이다. 성별로 알아보면 남아의 경우 계절(겨울), 초등학교, 친구에게 쓴 편지, 겨울방학, 졸업, 눈, 놀이, 유치원, 친구, 자유주제 순이고, 여아의 경우, 계절(겨울), 초등학교, 졸업, 겨울방학, 친구, 친구에게 쓴 편지, 눈, 계절(여름), 놀이, 동물 순이다.

〈표 1〉 초등학교 취학 직전 아동이 자주 사용하는 쓰기 주제 Top 10

순위	남 (빈도, %)	여 (빈도, %)	전체 (빈도, %)
1	계절(겨울)(37, 16.0)	계절(겨울)(48, 19.3)	계절(겨울) (85, 14.7)
2	초등학교(25, 10.8)	초등학교(19, 7.6)	초등학교 (43, 7.4)
3	친구에게 쓴 편지(17, 7.4)	졸업(18, 7.2)	졸업(32, 5.5) 친구에게 쓴 편지(32, 5.5)
4	겨울방학(15, 6.5)	겨울방학(16, 6.4)	-
5	졸업(14, 6.1)	친구(15, 6.0) 친구에게 쓴 편지(15, 6.0)	겨울방학(31, 5.3)
6	눈(13, 5.6)	-	친구(24, 4.1)
7	놀이(12, 5.2)	눈(10, 4.0)	놀이(19, 3.3) 유치원(19, 3.3)
8	유치원(10, 4.3)	계절(여름)(7, 2.8) 놀이(7, 2.8) 동물(7, 2.8)	-
9	친구(9, 3.9)	-	동물(13, 2.2) 자유쓰기(13, 2.2)
10	자유쓰기(8, 3.5)	-	-

2. 초등학교 취학 직전 아동의 쓰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 아동의 쓰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는 표 2와 같다. 아동이 가장 많이 쓴 낱말은 조사(예, 은/는, 이/가, 을/를, 랑, 도)이다. 이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나, 좋아요, 겨울, 친구, 눈, 있어요, 그리고, 엄마, 눈사람, 아빠, 학교, 눈싸움, 유치원, 꽃, 싫어요, 집, 같이, 우리, 많이, 선생님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나, 좋아요, 겨울, 눈, 그리고, 눈사람, 친구, 눈싸움, 싫어요, 유치원, 있어요, 가요, 엄마, 친구들, 재미있었어요, 같이, 아빠, 집, 학교, 먹고 순이고, 여아의 경우 좋아요, 친구, 나, 겨울, 있어요, 꽃, 눈, 엄마, 아빠, 학교, 그리고, 많이, 선생님, 우리, 있으니까, 집, 눈사람, 유치원, 때, 하고 순이다.

〈표 2〉 초등학교 취학 직전 아동의 쓰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 Top 20

순위	남 (빈도)	여 (빈도)	전체 (빈도)
1	나(62)	좋아요(78)	나(133) 좋아요(133)
2	좋아요(55)	친구(72)	-
3	겨울(50)	나(71)	겨울(108)
4	눈(46)	겨울(58)	친구(105)
5	그리고(35)	있어요(53)	눈(93)
6	눈사람(34)	꽃(52)	있어요(79)
7	친구(33)	눈(47)	그리고(69)
8	눈싸움(30)	엄마(43)	엄마(66)
9	싫어요(29)	아빠(42)	눈사람(61)
10	유치원(28)	학교(39)	아빠(60)
11	있어요(26)	그리고(34)	학교(57)
12	가요(24)	많이(30) 선생님(30) 우리(30) 있으니까(30)	눈싸움(53) 유치원(53)
13	엄마(23)	-	-
14	친구들(20)	-	꽃(52)
15	재미있었어요(19)	-	싫어요(48)
16	같이(18) 아빠(18) 집(18) 학교(18)	집(29)	집(47)
17	-	눈사람(27)	우리(42)
18	-	유치원(25)	같이(41)
19	-	때(24) 하고(24)	많이(40)
20	먹고(17)	-	선생님(39)

I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해 논의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취학 직전 아동이 자주 사용하는 쓰기 주제는 계절(겨울), 초등학교, 졸업, 친구에게 쓴 편지, 겨울방학, 친구, 놀이, 유치원 순으로 누리과정 생활주제, 유아의 주변 및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초등학교 취학 직전 아동의 쓰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는 나, 좋아요, 겨울, 친구, 눈, 있어요, 그리고, 엄마, 눈사람, 아빠, 학교, 눈싸움, 유치원, 꽃, 싫어요, 집, 같이, 우리, 많이, 선생님 순으로 자신의 경험 관련한 어휘를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남아와 여아가 쓰기에서 나타난 어휘 사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호주의 연구(Bianco, Scull, & Ives, 2008)에서도 나타난다.

「논어」의 ‘禮’ 개념에 나타난 유아생명교육에 대한 함의 탐색

임 홍 남¹⁾ · 김 은 주²⁾

I. 들어가며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권리와 편의를 높여준 반면, 생명경시 현상과 같은 문제를 남겨두었다. 이유 없이 타인을 살해하고, 권력을 지닌 사람이 타인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례,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하는 사례 등이 그 예이다. 이는 자본과 물질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따라 모든 대상과 생명을 도구화하여 인식함에 따라 드러나는 현상이다. 현대 사회는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그 실마리를 교육에서 찾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최근에는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정부는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하였다(고재석, 2016).

인성이라는 용어의 포괄성과 모호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유아 인성교육의 덕목으로 효(경로효친),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유아인성교육에서 제시된 덕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덕목들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향해야 할 덕목들임을 발견할 수 있다. 생명 존중, 생태적 관계에서의 생명의 가치와 같은 생명교육에 대한 내용은 인성교육 덕목 중 존중이나 협력의 하위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인간중심에 바탕을 둔 유아인성교육이 전개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인성은 생명에 대한 존중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권은주, 1998).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대상과 처음 접하며 관계 맺는 시기의 유아에게 필요한 인성교육은 무엇보다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는 교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유아인성교육에서 생명에 대한 키워드가 부족한 점은 생명을 존중하는 유아교육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우리 전통 사회는 모든 날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사상의 문화를 전수해왔다. 이는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적 뿌리인 삼신사상을 통한 홍인인간의 이념이나 동학의 시천주 사상(임재택, 2008)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고유의 생명사상은 근원적 생명력이 가득 차 있는 모든 만물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와 같이 만물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문화는 우리 전통의 대가족 제도를 통해 삶에서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수되었다. 아이들은 생

1) 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BK21플러스 연구원

2)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명사상을 바탕으로 禮를 생활화하는 어른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옆에서 보고 자라며 생명에 대한 禮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내재화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삶이 곧 교육이 되는 환경은 성인들의 몸에 베여있는 생명존중 정신과 禮가 어떠한 연유로 행해지게 되는지 인식하게 함으로써 생명존중을 통한 禮를 실천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로 여기게 하였다.

우리 전통사회가 생명사상에 바탕을 둔 禮를 행하게 된 문화적 배경은 유교 사상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유교사상은 한반도에 전래된 최초의 외래문화로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고, 한국문화의 주류를 이루어왔다(김덕균, 2007). 이는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논어」와 「효경」을 학자들의 필수과목으로 제시하고, 왕과 지식인들의 필독서였다(이중수, 2009)는 점을 통해 드러난다. 유교사상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공자는 인간의 삶 속에서 禮를 중심으로 삼았으며, 그가 집대성한 6경을 모두 禮라고 칭할 정도로 禮를 중시하였다(남상호, 2001). 특히 공자는 주나라의 禮인 古禮가 형식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성찰하며, 禮의 정신적 가치와 의미를 탐구하는 것으로 나아감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禮로 발전시켰다(장정호, 2010). 그에 따라 공자의 숭고한 정신과 사상에 따른 교육관, 가치관, 인간관이 모두 담겨 있는 「논어」에는(강혜정, 2015) 禮에 대한 공자의 인식과 태도, 지향점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논어」에 나타난 禮의 의미를 고찰하여 그 의미를 재정립해봄으로써 현대 유아생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논어」에 나타난 ‘禮’의 의미

첫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禮이다. 공자는 禮의 근본이 겉치레보다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禮를 의식이자 태도로 보았던 기존의 禮에 대한 인식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며, 禮는 마음에서 비롯될 때 실현되는 정의적 개념임을 제시한다. 특히 禮는 仁과 상보상성의 관계로 仁이 발현된 것이 禮이자, 禮를 실천함이 仁을 이루는 방법이다(김덕균, 2007). 유교에서는 이러한 仁을 다른 생명을 사랑함을 의미한다고 여기며, 모든 우주적 생명체는 仁이라는 사랑의 힘을 통해 조화롭게 얹혀 있다고 본다(김수청, 2004). 그러므로 仁한 사람은 禮를 통해 하늘 아래 모든 곳으로 그 힘을 발산하며,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Fingarette, 1993). 이는 仁과 禮가 주체로부터 나와야 함을 나타내며, 생명을 대하는 태도인 禮 역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마음에 그 본질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을 공경하는 태도가 禮이다. 유교에서는 자연만물의 생명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를 이루고 있으며, 인간의 심성과 자연의 원리는 다 함께 살려는 공생공존의 원리를 따른다고 본다. 즉, 유교는 만물이 서로 화육하고 끊임없이 창생한다는 생명창조 원리인 生生不息의 원리(유경동, 2008)를 따르며, 사랑하는 마음인 仁을 통해 모든 생명을 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와 같은 유교의 관점은 모든 생명이 평등하게 존귀하다는

장자의 ‘萬物齊同(만물제동)’과도 같은 견지에서, 존재의 생명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모두 동일하게 존귀한 생명을 대함에 있어 仁의 마음으로 대하며, 생명에 대한 공경의 태도를 취해야 함을 나타낸다. 더욱이 공자는 禮를 행해야 하는 대상을 인간에게 한정 짓지 않고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대상, 만물뿐만 아니라 마주하는 일에서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禮로써 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Ⅲ. ‘禮’의 의미를 통해 본 유아생명교육의 함의

첫째, 유아생명교육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의례화하는 예의 형식교육보다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교육이어야 한다. 「논어」를 통해 禮는 알아야 할 지식이나 행동 규범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이 밝혀졌다. 이는 유아생명교육이 자연이나 여러 생명체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것을 염려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날 생명을 그 자체로 존중해주며, 배려하는 마음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유아생명교육은 萬物에 대한 생명교육이어야 하며, 萬物이 지닌 생명성을 살리고, 이를 공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유아교육현장에서 행해지는 생명과 관련된 교육활동은 대부분 자기 자신과 또래, 자연환경에 한하는 생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생명’의 의미가 지닌 비규정성은 생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호성을 남긴다. 뿐만 아니라 「논어」를 포함한 동양철학에서는 모든 날생명은 온생명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 존재자가 확립됨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유아생명교육은 통시적으로 ‘생명’이라고 규정된 대상들에 한정하여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萬物에 대한 생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삶에서 실천하는 지행합일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논어」에서는 禮를 仁이 발현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를 실천하지 않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면 생명교육이라 할 수 없다는 결과로 귀결되게 한다. 또한 반대로 이유도 모른 채 동·식물을 가꾸고 먹이를 주는 행위를 교육활동의 하나로 하는 것 역시 생명교육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아생명교육은 유아들이 각 날 생명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들을 존중해야 하는 근본 이유를 알고 실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교육은 생명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한다. 그리고 그 행위가 내면화됨으로써 다시금 생명을 존중하는 도덕적 인격으로 귀결(장정호, 2010)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유아생명교육은 서로에 대한 공경을 통해 삶에서 전수되어야 한다. 동학에서 모든 만물이 곧 한울님이 됨으로써 존중받아야 한다고 여김에 따라 생태유아교육에서도 모든 아이들은 한울님으로써 생명성을 살리고, 모심으로 섬김 받는 존재여야 한다고 보았다. 생명존중을 통해 모심으로 존중받은 유아들은 타인을 대함에 있어서도 그들이 받은 모심의 태도로 타인과 만물을 대하게 될 것이다. 이는 「논어」에서 禮와 德으로 상대를 대한다면 모든 만물

이 자연스럽게 이끌어오며, 타인 역시 禮로써 공경한다고 본 관점과 같은 맥락이다. 이때 생명을 존중하고 모시는 태도나 禮는 행동규범이나 지식이 아니므로 상의하달로 전수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유아들이 삶에서 성인들의 좋은 본보기를 통해 익혀나갈 수 있어야 한다.

IV. 결론

본 연구 결과 禮는 삶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대상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삶의 태도라고 드러났다. 이는 禮가 의식이나 태도로 간주되며 그 본래 의미가 상실되었던 현대에 禮의 의미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그 가치를 재조명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논어」에 나타난 禮의 의미를 통해 유아생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전통의 생명사상을 바탕으로 한 유아생명교육의 함의를 탐색해본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생명사상을 근본으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생명사상을 다시금 서양의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교육 현실에서 우리 전통을 통한 생명교육의 철학적 배경을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제 2 분과 논문 발표

부모교육



- 유아교육기관의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161
고은교(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수경(남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부모-유아 마주이야기에 대한 의미 탐색 165
문명희(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유아교육전공 박사과정),
남연정(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유아교육전공 박사수료)
-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169
김선형(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 황해익(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유아의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부모 우울 간의 관계 분석 175
이영진(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노승희(경민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유아교육기관의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고 은 교¹⁾ · 신 수 경²⁾

I.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어린이 통학·통원용 차량의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통원용 차량에 대한 안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추가적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대책시행으로 2015년 초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등록을 의무화 하였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에 비해 학원과 체육시설의 등록률은 여전히 저조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모창운, 김탁영, 2015). 부모들이 영유아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낼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사항이 안전(윤선화, 2013)이라고 한 것처럼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여러 상황 중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놀이 안전, 시설·설비 안전, 교통 안전,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 스포츠 안전, 환경과 공해에 대한 안전, 화재 및 화상에 대한 안전 등 여러 요인 중에 교통안전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사고의 경우 사고의 정도 차이가 크고 한번 사고가 나면 생명까지도 위협하기 때문에 통학차량의 안전문제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영유아의 통학차량 안전에 관한 관심은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안전에만 국한되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 하에 원에 남겨져 있는 영유아들의 활동의 지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많은 연구들은 통학버스 안전 및 운행에 대한 실태(고준호, 2014; 구은미, 2008; 김심환, 2002; 김영철, 2010; 심윤영, 2004; 윤선화, 2004; 이율이, 이완정, 2004; 정윤경, 최영화, 2008), 영유아의 교통안전교육의 실태 및 교사, 경찰공무원의 인식(변정희, 2006; 이은혜, 2014; 조윤주, 2015, 조혜진, 구은미, 2010) 및 교통사고 개선방안(구은미, 2008; 이성재, 2015)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며 통학차량 운행 시 원에 남은 영유아 지도에 관한 실태 및 교사의 인식에 관한 몇몇 연구들(윤선화, 2013; 성영화, 최효정, 2015)만이 보고된 바 있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 및 통학차

1)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남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량 운행 시 학부모의 인식과 요구를 살펴봄으로써 통학차량의 올바른 운행 및 영유아 지도를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성영화, 최효정 2015)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및 차이를 조사하여 영유아들의 통학차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유아교육기관의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학부모 요구도는 어떠한가?
2. 유아교육기관의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학부모 인식에 따른 요구도 차이는 어떠한가?
 - 2-1. 자녀의 통학차량 이용 유무에 따른 유아교육기관의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차이는 어떠한가?
 - 2-2. 학부모의 교사 통학차량 지도횟수 인지 유무에 따른 유아교육기관의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차이는 어떠한가?
 - 2-3. 학부모의 통학차량 지도원 선택에 따른 유아교육기관의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차이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으로는 G시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에 자녀가 재원중인 학부모 414명이다. 총 414명의 학부모 중 자녀가 유치원에 재원중인 학부모에게 본 연구의 설문지 205부를 배부하여 170부를 회수하였고,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학부모에게 본 연구의 설문지 209부를 배부하여 188부를 회수하여 총 35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336명이 응답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학부모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은미(2008) 및 조혜진과 구은미(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성영화, 최효정(2015)의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된 요구도에 대한 교사용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유아교육기관의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학부모 인식에 따른 요구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은미(2008) 및 조혜진과 구은미(2010), 심은영(2004), 이명화(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서옥경(2012)의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된 실태 및 인식에 대한 교사용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인 설문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의 지도교수와 영유아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1차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질문지 문항 중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모호한 어휘로 구성된 문항들을 수정·보완 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6년 4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4주에 걸쳐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등 유아교육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후, 1차 우편 및 본 연구자가 직접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을 고려하여 직접 기관 방문을 통해 회수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총 414부 중 자녀가 유치원에 재원 중인 학부모 대상 170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학부모 대상 185부로 총 355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분석 자료로 부적합한 질문지 19부를 제외한 336부만이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유아교육기관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유아교육기관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및 차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과 t -test,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주요 결과

첫째, 유아교육기관의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학부모 요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빈도분석 실시 결과, 성별은 여성 306명(91.1%), 남성 30명(8.9%)이고, 연령층은 만30세 이하 29명(8.6%), 만31-35세 134명(39.9%), 만36-40세 132명(39.3%), 만41세이상 41명(12.2%)이고, 학력은 고졸 29명(8.6%), 전문대졸 98명(29.2%), 4년제대졸 191명(56.8%), 대학원졸이상 18명(5.4%)이고, 자녀수는 1명은 68명(20.2%), 2명은 208명(61.9%), 3명이상은 60명(17.9%)이고, 직업은 전업주부 141명(42%), 직장인 195명(58%)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의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학부모 요구 정도를 파악한 결과, 영유아 대상 교통안전교육지원($M=3.47$, $SD=.650$)과 차량 동승 교사 및 교사교육 지원($M=3.42$,

$SD=.65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대상 교통안전교육 지원($M=3.24$, $SD=.694$)과 차량시설, 설비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M=3.23$, $SD=.659$)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자녀의 통학차량 이용유무 따른 통학차량운영의 요구도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별로 모든 항목이 평균의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통학차량 지도횟수 인지 유무 따른 통학차량운영의 요구도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별로 모든 항목이 평균의 차이를 보였으나, 차량시설, 설비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t=4.483$, $p<.001$), 차량 보험료 지원($t=3.271$, $p<.01$), 차량 동승 교사 및 교사교육 지원($t=3.339$, $p<.01$), 차량 전담 도우미 지원($t=3.169$, $p<.05$), 운전기사의 자격제도 도입($t=2.711$, $p<.01$), 차량 관련 법 정비($t=2.385$, $p<.05$)만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항목들은 모른다 집단 보다는 알고 있다 집단이 더 통학차량운영의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학차량 지도원 선택 따른 통학차량운영의 요구도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별로 모든 항목이 평균의 차이를 보였으나, 차량 전담 도우미 지원($t=-2.270$, $p<.05$)만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통계학적으로 교사 선택 집단 보다는 비교사 선택 집단이 더 통학차량 운영의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통해 본 연구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영유아의 학부모들이 유아교육기관의 통학차량 운영을 학부모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편리함에 치우쳐 통학차량 안전 및 영유아 지도의 중요성을 깨우치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의 통학차량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추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학부모 인식 및 요구 조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올바른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 문항에서는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문항만이 포함되어 있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해 부모님들의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볼 수 없었기에 이에 대해 통학차량 안전사항에 대한 설문문항이 추후 연구에서는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통학차량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 통학차량 운행 시 남아있는 영유아에 대한 지도 연구는 진행되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 조사되어진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활동들을 통하여 원에 남겨진 영유아들을 지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추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유아 마주이야기에 대한 의미 탐색

문명희¹⁾ · 남연정²⁾

I. 연구의 필요성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주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를 인간은 유아기에 대부분 발달시켜 나간다. 유아는 사회정서발달뿐 아니라 학습을 촉진하는 다목적 도구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며 이들이 적극적으로 주변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주변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언어발달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은 태도, 생각, 애정, 사상 등을 전달해 주는 인간관계의 핵심적 요소이므로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 또는 약화시키기도 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다(유금숙, 2005). 유아의 부모와의 대화는 유아의 인지 발달을 돕고 이들 간의 정서적 유대를 튼튼하게 해준다. 유아의 정신기능의 발달은 유아가 자신보다 사회적 기술이 더 발달한 부모, 교사, 또는 이들이 속해 있는 문화 속의 주요 인물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화에서 이루어진다(Vygotsky, 1986). Berk(2001)에 의하면 에밀리의 요람 속 대화에서 취침시간에 자신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녀는 과거 사건의 기억, 풍부한 어휘와 복잡한 문법 형식과 일관된 내러티브와 생각의 논리적인 조직을 포함하여 인지 및 의사소통 능력의 다양성을 경험하였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기억을 이야기하고 이야기 된 그 기억은 자아가 발달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결국 부모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기억을 가지게 된 유아들이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더 자세한 기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김봉석, 2012).

부모-유아의 대화를 늘리고 대화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능동적인 대화방법으로 부모-유아의 '마주이야기'는 적절한 자녀 교육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박문희(1995)는 마주이야기는 아이들 말을 들어주고 알아주고 감동하는 교육,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때 들어주자는 교육,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어줄 수 있을 까를 알아내자는 교육으로 마주이야기 활동을 처음으로 유아에게 가르치는 교육으로 삼아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연계활동으로 구성하고 있다. 시키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터져나온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알아주고 함께 느끼어 감동해주는 마주 이야기(박문희, 1998)는 아이들의 머리 속에 무언가를 넣어 주려고 하는 지식전달 중심의 교육이 아닌 어디까지나 능동적인 아이들 편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게 하여 건강한

1) 서울여자대학교 유아교육전공 박사과정

2) 서울여자대학교 유아교육전공 박사수료

마음과 몸을 가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가려는 교육이라고 하였다. 한경순(2004)은 마주이야기는 유아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생각을 표현하게 돕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반응을 해주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오덕(1997)의 ‘마주이야기 시(詩)’는 아이들이 어디에서나 그때그때 무엇을 보고, 듣고, 행동하면서 저도 몰래 토해내는 말 또는 평소에는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생각을 동무한테나 어른들에게 말한 짧은 말을 선생님이나 부모들이 적어둔 것이라고 하였다. 부모-자녀 간의 마주 이야기는 인간의 성장에서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아기에 기억을 이야기하고 이야기 된 그 기억은 자아가 발달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정과 연계한 언어 및 인성교육을 위한 것으로 아이들 말을 들어주고 알아주고 감동해 주면서 아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을, 글자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부모-유아의 마주이야기를 통해 유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맥락을 분석하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들의 관심과 생활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한 유아교육기관과 가정과의 연계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부모-유아의 마주이야기는 어떻게 나타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J공립유치원의 만4세 유아12명, 만5세 유아8명과 S공립유치원 만 5세 유아 9명이다. 유아의 대부분은 유치원 주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력 9년차 1명의 담임교사가 2년 동안 마주이야기 활동을 바탕으로 하였다. 연구자료 수집 방법은 마주이야기공책, 관찰, 유아와 교사와의 면담, 현장기록노트, 유아의 결과물 등이다. 자료수집 절차는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 약 2년 동안 부모와 유아들의 마주 이야기 활동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주이야기는 유치원의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가정과 연계한 언어 및 인성교육을 위한 것으로 유아의 말을 들어주고 알아주고 감동해 주면서 유아들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을, 글자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담임교사는 마주이야기 공책을 가정으로 배부하여 일주일간 가정에서 나눈 이야기를 공책에 적어 와서 유치원에서 마주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의 마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연구자는 마주 이야기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유아와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느낌이나 생각 등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는 마주이야기 공책의 내용뿐 만 아니라 유아들의 모든 영역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유치원의 모든 교육과정 영역을 정의하고 관찰하였다. 관찰과 면담은 주로 마주이야기 공책을 가져오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많이 이루어졌지만 연구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요일에도 이루어졌다. 관찰은 그날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시간 이상이었고 2시간 이상 관찰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자료

분석은 연구기간 동안 수집된 마주이야기 공책 전사본, 유아의 관찰과 면담, 현장기록노트, 교사와의 면담, 유아의 결과물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문제의 마주이야기 내용의 의미탐색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단어와 문장들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추출된 개념들을 명명하고 범주화하면서 서로의 연관성을 찾아 유목화하였고, 유목화된 개념들을 상위개념으로 묶으면서 의미를 종합적으로 부여하는 형태로 분석되었다. 개념이 확정된 후에는 전사본을 다시 살펴봄, 개념 범주로 관련 내용을 통합, 분류, 재분류하는 순환적 과정을 되풀이 하였다. 이처럼 참여관찰, 현장 노트, 면담, 활동 결과물 등의 모든 자료를 삼각측정방법을 통해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살펴봄으로서 타당성을 높였으며 자료 분석 및 해석과 결과에 대한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유아교육 전문가와 동료보고를 진행하였다.

Ⅲ. 주요결과

본 연구에서 유아들의 마주이야기에서 나타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가정과 유치원의 연계성 갖기, 자연에 대한 인식, 미래의 꿈과 상상력 표현하기, 배려와 마음 표현하기, 체험활동을 통한 새로운 경험하기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부모와 유아의 상호작용형태에서 나타난 언어적 의사소통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 유치원의 연계성 갖기로 유치원 일과를 이야기하기, 유치원 텃밭활동 경험하기, 마주이야기 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언어와 문장의 의미 알아가기로 표현되었다.

둘째, 자연에 대한 인식에는 자연과 생물에 대한 상상력의 시간, 식물의 성장과 과학원리 이해하기, 곤충과 동물에 대해 이해하기로 드러났다.

셋째, 미래의 꿈과 상상력 표현하기에는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기, 상상력으로 노래와 이야기하기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배려와 마음 표현하기에는 부모의 마음 이해하기, 조부모 존중과 형제 배려하기, 또래 배려하기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다섯째, 체험활동을 통한 새로운 경험하기에는 전통풍습과 전통명절 경험하기, 세계여러 나라 풍습과 문화 이해하기, 여행을 통한 새로운 경험하기를 주로 표현하였다.

Ⅳ.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마주이야기는 유아교육의 여러 영역들과 연결되는 통합교육프로그램이므로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시사한다. 부모와 유아의 마주 이야기는 유아의 말을 그리기 활동 등의 미술활동으로 확장하거나 마주 이야기 내용을 이야기 나누기의 주제

로 삼아 반 유아들과 언어활동을 하고 요리활동이나 신체활동 등 다른 놀이 활동으로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마주 이야기 시를 다른 노래의 곡에 맞게 개사하여 음률활동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주이야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통합교육 활동으로 연계하여 적용해 유아의 발달 증진에 활용해 볼 가치가 있다. 또한 마주 이야기 활동은 유아교육기관과 가정과의 연계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황 해 익¹⁾ · 김 선 형²⁾

I. 연구의 필요성

최근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행복과 관련 있는 웰빙, 삶의 질, 안녕감 등 여러 개념들이 이슈화 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우리의 삶을 행복과 관련지어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정책적으로 2년마다 OECD와 함께 국가 간 웰빙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OECD대한민국정책센터, 2014), 우리는 ‘삶의 질’, 또는 ‘행복지수’라는 이름으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장을 경제발전지표로 알고 있던 GDP(국내총생산) 지수보다는 GNH(국민행복지수)로 비교하는 시대가 되었다(국가미래연구원, 2013).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영국은 2010년부터 국민행복지수를 통해 국가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EU 16개국은 국민플로리시 수치를 측정하여 국민의 행복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Seligman, 2011).

사실 행복에 대한 논의는 일찍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찾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행복의 의미와 지향하는 바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처럼 행복은 인간이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이기에 더욱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고대 그리스 쾌락주의 학파는 행복을 즐거움, 만족에 관한 긍정적 정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관적 안녕감 연구들은 행복 구성요인을 긍정·부정의 정서, 삶 만족 측면을 중심으로 인간의 행복을 설명하고 있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이와 달리 고대 그리스의 자아실현주의 철학은 행복을 인생의 가치 측면에 집중하여 성장, 의미 있는 삶 추구가 행복한 삶이라 정의하였고, 이를 심리적 안녕감 연구에서는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 통제, 삶의 목적, 개인의 성장 등을 행복의 주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Ryff & Singer, 1996). 이와 달리 긍정심리학은 기존의 쾌락주의와 자아실현주의 철학을 통합하여, 행복의 구성요소를 긍정적 정서, 몰입, 의미, 관계, 성취로 행복의 의미를 확장하여 플로리시(flourish) 개념으로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seligman, 2011). 긍정심리학의 웰빙이론에서 제안하고 있는 플로리시는

1) 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2) 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

행복의 만개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응답시점의 기분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일시적 행복감이 아닌 삶의 의미와 가치를 고려한 지속적 노력측면을 강조한 행복의 확장된 개념이다. 이에 행복의 지속성 및 실천성을 강조하는 개념임을 드러내기 위해 황해익과 탁정화(2014)는 ‘행복플로리시(fLOURISHING)’라는 용어로 그 의미를 대신하고 있다.

행복플로리시가 순간의 긍정적 정서나 인간의 욕구충족에 의한 만족감을 넘어 지속적 노력에 의한 인류 공통의 삶 목표로 보았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지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존재이다. 이처럼 최근 삶의 질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행복한 유아교사를 위한 연구들, 행복한 유아를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을 위한 연구는 움직임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어머니의 행복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행복의 결과로 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어머니는 자녀행복을 위한 역할수행자, 자녀의 행복이 곧 어머니의 행복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포함되어 있다(김선행, 황해익, 2015). 물론 영유아기 발달은 어머니라는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듯이, 영·유아와 어머니의 관계는 밀접하긴 하지만 어머니의 행복은 또 다른 측면의 이해가 필요하다. 어머니라는 대상은 성인여성의 개인내적 측면의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존재로 단순히 자녀양육 측면에 집중하여 행복을 논의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이에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 요소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유아기 어머니의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 측면에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어머니 행복연구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주제로, 본 연구는 행복 및 어머니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전문가를 통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방법을 통하여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 구성개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 구성개념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 구성개념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대상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들을 선정하였다. 포커스그룹 연구대상의 치우침은 제한된 표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료해석 과정과 일반화에 문제가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의 동질성과 분할성 원칙에 의하여 집단을 선정하였고(Mogan, 2007), 연구목적에 적합한 참여자 선택을 통하여 집단토의로 자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선정된 연구대상인 전문가 그룹은 총 세

그룹으로 유아교육전문가, 부모전문가, 그리고 유아기 자녀 어머니 그룹으로 그룹별 3명씩 총 9명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부모로서 자녀양육 경험을 바탕으로 어머니, 부모 및 가족 차원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전문분야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다음 <표 1>은 연구 대상의 구체적 선정 기준 및 자격 정보이며, <표 2>는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자격

구분	선정기준	구성인원	자격	공통점
유아교육 전문가	대학의 교수	3	- 박사학위 이상 - 긍정심리학, 심리측정분야 등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자 - 관련 과목 연수 및 강의 경험이 있는 자	자녀 양육 경험 있음
부모 전문가	부모상담 및 아동치료사	3	- 부모상담 및 가족상담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 있는 자 - 관련 과목 연수 및 강의 경험이 있는 자	
유아기 자녀 어머니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3	- 석사학위 이상 -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표 2>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구분	참여자	연령	학력	경력	직위	기타
유아 전문가	유아교육전문가1	46세	박사졸업	23년	대학교수	·
	유아교육전문가2	36세	박사졸업	6년	대학교수	·
	유아교육전문가3	43세	박사졸업	10년	대학교수	·
부모 전문가	부모전문가1	33세	석사졸업	10년	양육코칭전문가	·
	부모전문가2	42세	박사졸업	18년	가족상담전문가	·
	부모전문가3	35세	박사과정	9년	아동치료사	·
유아기 자녀 어머니	어머니1	35세	석사졸업	·	·	유아기 부모
	어머니2	36세	박사졸업	·	·	유아기 부모
	어머니3	36세	박사졸업	·	·	유아기 부모

2. 측정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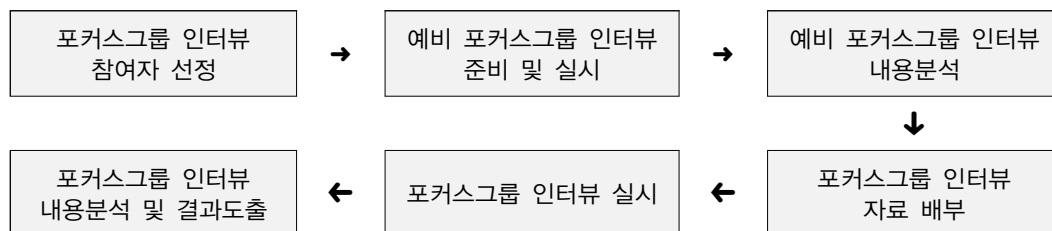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 구성개념을 구체화 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 구성은 황해익(2010)의 질문유형 구성 조건에 따라 논의 주제의 상위 개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면담의 목적을 내용으로 구조화하여 구성하였고, 유아교육전문가 3인(유아교육과 교수 2인, 유아교

육과 박사 1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적절성 확인 후 연구대상의 이메일을 통하여 면담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자료분석은 녹음된 내용을 전사한 자료들과 인터뷰 당시 기록한 연구자 현장노트를 바탕으로 개방코딩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 분석 단계에 따라 전사자료와 현장노트를 분해하여 개념화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는 전사자료와 현장노트를 모두 읽고 참여자의 진술을 그대로 부호화하는 방식으로 코딩하며, 추출된 개념을 측정 범주로 포함시키며 새로운 개념이나 범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까지 반복하여 비교와 대조 작업을 시행하였고, 도출된 범주는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삼각측정법(박사수료 1인 참여), 구성원점검(연구대상 참여), 동료검토를 통한 교차확인(질적 연구 전문가 2인 참여)의 과정을 통하여 자료를 분류 조직하였다.

다음 그림은 본 연구의 절차를 도식화 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연구절차

Ⅲ. 주요 결과

1.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 인식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에 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시기는 자녀에 관한 모든 것이 어머니의 행복과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족, 지인, 친구 등 어머니의 주요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자녀의 발달에 관한 공통주제에 관해 대화하며 어머니 스스로 지금까지의 어머니역할 수행을 평가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어머니들은 모성과 희생을 실천하고 있는 존재로, 자신의 행복보다는 가족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어머니를 둘러싼 여러 상황

맥락 및 관련 요소들을 심도 있게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2.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 구성개념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 구성요소는 ‘어머니’라는 존재를 성인여성의 행복관련 요소뿐 아니라 양육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복요소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중요요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성인의 행복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역할과업 수행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요소를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긍정심리학의 행복한 삶과 관련이 있는 페르마요소나 강점 활용처럼 어머니 행복의 현 상태에 관한 정보 보다는 행복플로리시를 위한 노력, 의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요소가 행복플로리시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나아가 행복한 삶의 구성요소 뿐 아니라 전문가들은 개인을 둘러싼 현실적 문제, 기본욕구 충족 측면을 반영해야 실증적으로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는 어머니의 개인내적 삶 만족 충족을 바탕으로 하여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이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를 둘러싼 긍정적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플로리시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로 드러났으며, 현실적 문제로 경제적 수준, 양육지원 문제 등의 현실적 상황요소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에 대한 인식은 어머니의 발달과업과 관련지어 살펴보았을 때, 자녀양육이라는 측면이 어머니의 행복 개념과 깊이 있는 관련성이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인식하는 행복은 자녀와 관계가 깊으며(김의철, 박영신, 권용은, 2005; 박영신, 김의철, 김미숙, 2012; 정미라, 강수경, 최은지, 2013), 양육의 과정에서 주위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 특성으로 인하여 가족의 지원이나 어머니 역할의 인정이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었다(고선주, 1997; Brooks, 2010). 이혜경(2015)의 연구에서도 영아기 어머니가 문화센터 수강을 매개로 동일 집단 간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러한 어머니역할의 만족감 얻기 위한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안지성과 신세니(2013)의 연구에서 부모기의 낭만적 환상은 실제 부모 역할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어머니됨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기회를 가질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초기부모기에 접어들어 실제 양육 상황과 어머니가 지닌 양육에 관한 태도나 신념 등이 어머니가 느끼는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행복플로리시 구성개념 탐색

시 고려할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에 따른 많은 부분이 어머니에게 전이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자녀발달에 관한 결과가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모성, 희생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은 어머니를 제외한 일반 성인의 행복감과 구분되는 독특성으로 드러났다. 가정을 형성하고 자녀를 가진다는 것은 부부 공통의 역할과업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자녀양육의 책임이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주어져 있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이 어머니의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현상은 어머니 역할을 더욱 부담스럽게 하는 일로(최은아, 2014), 부부간의 배려와 협조가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 구성개념은 양육역량,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대인관계, 지원인력관계, 긍정적 정서, 삶의 의미, 성격강점, 삶의 여유, 양육몰입, 양육효능감, 건강 및 활력, 성장,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상태, 자존감, 영성, 성취, 외모, 그리고 사회문화환경의 19개 요소로 유목화 되었다. 이는 크게 유아기 어머니의 역할과업 수행에 따른 행복요소, 성인 개인내적 행복요소, 긍정심리학의 행복플로리시 요소, 그리고 현실적 측면의 개인외적 요소의 네 가지 측면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는 행복관련 선행연구들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요소로, Horn, Jarden, Schofield와 Duncan(2014)이 행복에 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행복의 범주들이나 유아기 자녀 어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행복플로리시 요소(김선형, 황해익, 2015)와 일치하는 요소들이 많았다. 그리고 국내외 개발된 행복척도의 구성개념들(서은국, 구재선, 2011; 이은주, 2010; 정계숙 외, 2013; Ryff, 1989)과 비교해 보더라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를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일시적 만족감에서 벗어나 어머니 개인의 계속적 노력에 따른 행복한 삶의 지향으로 보았을 때,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는 한 인간으로서의 어머니 개인내적 특성, 부모발달단계이론을 바탕으로 한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역할과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어머니라는 존재가 지니는 특수성 등을 중심으로 하여 심층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유아의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부모 우울 간의 관계 분석

이 영 진¹⁾ · 노 승 희²⁾

I.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아이 도대체 왜 그럴까?’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흔히 갖게 되는 질문이다. 유아의 문제행동을 보며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심각성을 느끼는 경우 소아정신과나 각종 심리센터를 방문하여 검사나 심리평가를 받는 부모들도 있다.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유아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이후의 발달과정에 관계하여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원인을 생의 어린시기에 발견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김현령, 유수민, 2015). 유아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를 둘러싼 환경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Bronfenbrenner & Morris, 1988)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서 가정 및 부모를 들 수 있다.

유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는 부모와 관련된 요인은 유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요인과 유아의 문제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김미정, 김영희, 2011).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 자라가게 되는 유아기 자녀에게는, 특히 부모의 심리적 특성 환경이 중요한 환경적 요인임이 제시되고 있다(Barber, 1994; Davies & Dumenci, 1999). 그러므로 유아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정서적인 문제, 즉 심리적 부적응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문현숙, 문영경, 2009; Bowlby, 1982).

부모의 심리적 특성 환경 중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 변인으로, 개인과 환경과의 일상적인 교류의 결과로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인 따분함, 신경질, 성급함, 당황, 좌절감 등의 일상적 스트레스(강희경, 조복희, 1999)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부모의 양육특성 중 양육스트레스를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

1)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2) 경민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하는 선행연구들이 있다(Huth-Bocks & Hughes, 2008; Liu & Wang, 2015; Stone, Mares, Otten, Engels, & Janssens, 2016).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 변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 비해 무척 제한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패널조사 자료를 통한 상관분석 및 구조적 분석이 몇몇 이루어지고 있으나(김영미, 송하나, 2015; 최효식, 윤해옥, 연은모, 2016; 황성온, 황지온, 2015), 이 또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문제행동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한 영향력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연구를 통해 유아의 가족 변인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부모의 우울 역시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 환경이다. 부모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도 특히 우울감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되어 왔다(Elgar, Mills, McGrath, Waschbrusch, & Brownridge, 2007; Renk, Roddenberry, Olivers, & Sieger, 2007). 우울한 부모의 자녀들은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와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를 보이며(곽소현, 2005), 우울성향이 자녀에게 불안, 수동성 같은 내면화된 장애 및 공격성과 행동화와 같은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ummings & Davis, 1994; Garber, & Martin, 2002; Olfson, Marcus, Druss, Pincus, & Weissman, 2003).

또한 아버지의 우울 수준이 높으면 자녀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Wilson & Durbin, 2010), 자녀에게 부적절한 양육특성을 나타내게 되며(김미정, 2014), 결국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김미정, 김영희, 2011; 여종일, 2015).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감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아버지의 우울감이 어머니의 우울감보다 자녀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기에(Marchand & Hock, 2003), 아버지의 우울감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종합해 보면, 유아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기 문제행동을 조기에 인식하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유아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 변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 또한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을 변인으로 예측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 변인도 함께 분석하여 유아의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변인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첫째, 유아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우울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우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 패널 자료인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 (2013)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2,150명의 만 5세 유아 및 부모이며 결측값을 제외하고 1,636명에서 2,150명의 유아의 측정치가 연구에 활용되었다. 연구 도구로 유아 문제행동 척도 K-CBCL, 부모 양육스트레스 척도, Kessler의 우울 척도(K6)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감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들과 하나의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 분석 전 단계에서 각 독립변수들이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다중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Ⅲ. 주요 결과

연구결과 유아의 문제행동 및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 간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은 확인 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결론적으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유아의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가장 높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 및 하위요인인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가장 높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유아의 문제행동 및 하위요인인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유아의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

과에 대해 강하나, 박혜원(2013)의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는 다른 집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이는 자녀에 대한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언급하였는데, 부모 변인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자녀에게 부정적 양육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이어져 자녀의 문제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아의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인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각각에 대하여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방안의 모색에 있어 문제행동 유아의 부모를 위한 개입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제 3 분과 논문 발표

교사교육



- 예비유아교사의 실습경험에 나타난 긍정 정서 탐구 181
탁정화(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예비유아교사의 영유아교육관련 민간자격증 취득이 갖는 의미 탐색 185
박선영(송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장애전문 어린이집 교사들이 경험한 누리과정 교사연수의 의미 189
이연승(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인영(경성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 보육교사양성 교사교육자들의 학습공동체 참여 경험과 의미 192
강희신(건국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박사졸업), 박수경(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예비유아교사의 실습경험에 나타난 긍정 정서 탐구

탁 정 화)¹⁾

I. 연구의 필요성

유치원 현장에서 경험하는 정서는 교사의 인지적 요소와 더불어 중요한 작용을 한다. 교사가 가진 정서성은 교육철학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고 교사로서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도모하고, 학생과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보호와 배려의 교사역할을 강화시킨다(Zembylas, 2007). 정서경험이 인지사회 중심의 교사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며(이진화, 유준호, 2009) 교수-학습과정을 수행하며 암묵적인 영향을 준다. 예비교사의 실습경험은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이론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간의 가교적 역할을 하며 교사로서의 지식, 태도, 신념 등의 교직 전문성의 발달시켜 나간다.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실습경험을 살펴본 연구는 체계적인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거나(조부경, 고영미, 2004), 실습과정에서 느끼는 갈등, 불안, 스트레스를 분석하는 연구(김수향, 한민경, 이은진, 2012; 박은주, 2016; 박지선, 이대균, 2013; 최은아, 탁정화, 2015)가 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예비유아교사들은 실습기간 동안 가장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실습이 이루어지기 직전과 실습 과정 중에 높은 불안 수준을 보인다(김시영, 이순자, 2008; 최은정, 2007). 이러한 실습불안은 갈등과 적응과정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여(조운주, 2004) 실습이후 진로고민과 교사가 되었을 때 과업 수행에 심리적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비유아교사의 실습경험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부정정서에 초점을 맞춘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실습경험 속에 나타난 긍정 정서에 대한 적극면담을 통하여 실습경험에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여, 어려움과 실습불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문제중심적 연구에서 벗어나 실습이 가지는 긍정적 경험을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예비유아교사가 경험을 균형잡힌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교육실습 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가 느낀 긍정 정서에서 교사로 거듭날 수 있는 반성적 성찰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첫째, 실습경험에서 예비유아교사가 경험한 긍정정서의 상황은 어떠한가?
둘째, 실습경험에서 예비유아교사가 경험한 긍정정서는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면담구성원은 4년제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을 마친 3·4학년 학생 10명이다. 면담과정에서 교육실습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현상에 대한 통찰력 있는 사례를 제시해줄 수 있는 참여자를 유목적으로 표집하였다.

2. 연구절차

일련의 사고틀을 확립하고자 연구자는 프로토콜(protocol)을 작성하여 다층이고 풍부한 이야기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며 예비유아교사들이 시간성에 따라 교육실습경험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긍정정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돕고자 수행되었다. 면담은 실습경험에 대한 집중(A), 경험에 대한 세부사항 재구성(B), 교육실습에 나타난 긍정정서의 의미에 숙고(C)하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면담을 이끌어나갔다.

3. 자료분석

예비유아교사의 교육실습에 대한 경험과 정서에 대한 담화분석자료와 참여자들의 면담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주제별(thematic) 코딩방법으로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반복적으로 면담전사본을 읽으며 행동과 사건에 나타난 기술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며, 상위개념을 범주화하는 라벨링을 실시하고 추후면담이 필요한 내용에는 질문목록을 작성하여 깊이 있는 해석과 성찰을 도모하였다.

Ⅲ. 주요 결과

1. 예비유아교사가 교육실습에서 경험한 긍정정서의 상황

1) 유아의 존재에서 발현되는 긍정정서

대학교 모의수업에서 가상의 아이를 상상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던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육

실습기간에 아이다운 특성이“살아있는”유아를 만나게 되고, 이러한 유아의 행동적 특성과 상호작용하면서 예비유아교사들은 긍정정서를 느꼈다. 아이다운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기운과 활력이 예비유아교사의 교육실습에 긍정정서를 야기하는 대상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사랑을 나누는 유아와의 관계에서의 긍정정서

유아와 사랑과 친밀감의 관계를 구축하면서 예비유아교사는 행복한 경험을 만들어 가는 데, 사랑, 우정, 유대감, 애착, 소속감과 같은 인간관계의 경험에서 느낀 정서가 긍정정서로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3) 가르침에 대한 공유된 만족으로서의 긍정정서

예비유아교사는 수업을 구성하거나 유아와 교육적인 상호작용의 기회가 부족하여 늘 어떤 수업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망설였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수업이후 아이들의 반응 속에서 만족감을 느꼈다고 한다. 부분수업이나 종일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학생선생님과 함께 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가르치는 직업이 가진 긍정적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4) 교사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의 긍정정서

실습이 이루어진 기간은 5월로 스승의 날을 경험할 수 있다. 스승의 날이라는 독특한 행사 뿐만 아니라 점점 “선생님 다워지는”, “수업에 능숙해지는”, “하루구성에 능숙해지는” 등의 변화되어가는 예비유아교사의 모습에서 만족하였다. 특히 실습지도교사가 “진짜 선생님 같은”, “학생이 아닌 선생님”의 모습이 느껴진다는 주관적인 표현에서 기분 좋아짐을 느꼈다.

5) 공간전이를 통한 해방의 경험으로서의 긍정정서

예비유아교사들은 간식시간, 아침출근, 퇴근, 유아들이 하원한 이후 등 소소한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정서를 발견하였다. 시공간의 변화로 인하여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경험도 긍정정서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현장학습, 소풍, 견학 등 특별했던 경험에서 익숙한 공간이 아닌 다른 곳으로 체험을 하거나 설레는 장소에서의 경험이 즐거움, 웃음을 유발한 것이다.

2. 예비유아교사가 교육실습에서 경험한 긍정정서의 작용

1) 교육실습경험에 대한 의미있는 향유경험제공

교육실습을 할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어떻게 끝이 났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예비유아교사들은 “힘들고”, “몸이 아팠어요”, “무사히 마쳤어요”라는 중립 또는 부정적 표현을 하기 시작하였지만 교육실습의 경험은 진정으로 행복하게 느낀 시간을 탐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2) 교사됨에 대한 가치부여

교육실습기간에 느낀 다양한 정서적 경험은 교사가 되기 위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부정정서는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하려는 동기를 자극하였고 긍정정서는 교사로 한걸음 다가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끼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육실습기간에 느낀 ‘하고자함’은 수업에 대한 욕망을 생산하고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과정에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교육디자이너로서의 변신

긍정정서는 새로운 생각을 유발하는데 기초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주제에 적합한 교육활동의 구성이나 교수매체를 고민했던 경험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부정정서는 문제상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하다면 긍정정서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고 심미적 환경을 구성하는데 활력을 제공해주었다고 한다.

4) 축적된 긍정경험으로 부정경험 완충하기

1-2주 동안의 실습경험은 단위활동계획 및 유아관찰이 이루어져 비교적 업무가 많지 않은 주였지만 4주가 되면서 반일수업계획, 종일수업계획을 세우며 피로감이 높아지고 수업불안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 경험에 직면할 때 마다, 교육실습동안 경험한 즐거웠던 감정과 긍정경험은 나를 힘든 시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으며, 실습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교육실습생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즐거웠고 행복했던 긍정경험들이 없었다면 힘든 실습기간이라는 인식에 지배받았을지 모른다는 인식을 보이기도 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가 실습기간동안 경험하는 긍정정서에 초점을 두어 실습기간동안 느끼는 긍정적 감정의 흐름을 적극면담의 방식을 통하여 탐구해보았다.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육실습을 하면서 하루 중에서도 복잡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해 나가는 주체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게다가 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즐거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더 나누고 활기와 열정이 넘치는 경향이 있었으며, 면담참여자들끼리 서로에게 질문하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교육실습의 의미를 구성해나가고 있었다.

예비유아교사의 영유아교육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이 갖는 의미 탐색

박 선 영¹⁾

I. 연구의 필요성

유아교육에서 교사의 자질은 교육기관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을 결정하며 유아의 학습과 발달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유치원 교사는 법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또는 4년제 대학,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거나 유아교육 관련학과에서 소정의 교직을 이수하여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사는 타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높은 편이나 유아교육과의 학생들 역시 취업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예비유아교사가 졸업과 동시에 유치원2급 정교사, 보육교사2급 등 2개의 국가자격증을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경쟁력 및 자신의 전문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 비용을 부담하며 민간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취득하고 있다(유연화, 임경애, 2011). 현재 영유아교육 민간자격증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자격증을 관리하고 발급하는 기관 역시 여러 종류이다. 취업을 앞둔 예비유아교사는 취업의 준비 혹은 본인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과정 중 하나로 민간자격증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예비교사의 경우 바쁜 학교생활과 학업준비로 인해 부족한 시간 등을 이유로 온라인 민간자격증 취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현장에서의 민간자격증에 대한 필요와 요구는 높은 편이나 예비유아교사 및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에 대한 연구는 실질적으로 전무하고 유연화, 임경애(2011)의 연구에서 유아교육과 졸업생의 취업준비행동에서 민간자격증이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일부 소극적으로 보고되어졌다. 또한 박선영(2016)이 예비유아교사들의 민간자격증에 대한 실태 및 인식을 연구하였으나 이 또한 민간자격증의 취득현황 위주의 연구로 실질적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이 갖는 민간자격증 취득의 의미를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에게 민간자격증 취득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1)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서울시에 위치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3학년 학생 6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영유아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득할 예정인 자들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설문과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에 참여하였다. 공식적 개별면담 이외에도 비 공식적 면담과 필요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추가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모든 면담과정은 녹음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전사를 하였고 동시에 반복적으로 의미 있는 범주파악을 진행하였다. 이후 최종 분석된 범주와 관련 아이디어, 어휘, 범주 도출과정을 유아교육전문가 2인에게 보여주고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Ⅲ. 주요 결과

1. 예비유아교사의 민간자격증 취득에 대한 기대와 어려움

1) 예비유아교사의 민간자격증 취득의 기대

① 취업으로의 희망 열쇠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유아교육관련 민간자격증 취득을 본인들의 취업을 용의하게 하는 수단 혹은 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친뒤 취득하게 되는 국가자격증과 함께 다양한 민간자격증을 보유하는 것을 통해 취업에 한발짝 다가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② 취업에 대한 불안감 해소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유아교육관련 민간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졸업을 앞둔 3학년의 경우 실습을 경험하면서 유아교육현장과 마주하게 된다. 이때 즈음 많은 예비교사들은 졸업 후 안정적인 취업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게된다. 이때 민간자격증은 예비교사들이 갖는 취업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로 여겨지는 것이다.

③ 교사로서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유아교육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교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민간자격증이 교사의 업무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소개되고 그러한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는 영유아교육관련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나 소개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 외에도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리라 믿

는 민간자격증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④ 유아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수행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유아교육관련 민간자격증 취득이 자신이 교사가 되어 만나게 될 유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민간자격증을 통해 배우게 되는 지식 및 기술이 유아들과의 생활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 것이다. 자신이 미래에 만나게 될 유아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어야한다는 기대와 생각이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2) 예비유아교사의 민간자격증 취득의 어려움

① 경제적 어려움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유아교육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는데에 겪는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들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 개의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은 발급기관과 종류, 취득기간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4만원에서 10만원 가량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비용은 수입이 없는 예비유아교사들이 감당하기에 어렵고 따라서 비용의 문제, 즉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② 정보의 부족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유아교육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때 실질적으로 이 자격증이 꼭 필요한지 선별해내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즉, 다수의 자격증 중 유아교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인지, 민간자격증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쓰일지 알려주는 정보가 부족하여 자격증이 갖는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하였다.

3) 영유아교육관련 민간자격증 취득에 대한 지원

① 대학의 지원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유아교육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 대학의 교육과정 내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나 대학에서 마련하는 단기 특강 및 연수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자격증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도 커서 가이드가 되어줄 지침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보다 단체로 자격증을 취득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며 대학의 보다 적극적인 민간자격증 관련 지원을 희망하였다.

② 유아교육 현장과의 협력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유아교육관련 민간자격증에 대해 실질적으로 유아교육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인지 조사한 후 꼭 필요한 자격증 위주로의 취득을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의 학과가 유아교육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예비교사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즉,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로서 취득하면 도움이 될만한 자격증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에 따라 자신들이 자격증 취득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의 영유아교육관련 민간자격증 취득의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고 영유아관련 민간자격증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목적으로 하였다. 예비유아교사에게 민간자격증은 자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자 취득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및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가진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비유아교사들에게 민간자격증의 취득은 개인들의 선택의 문제로 취급되거나 과소평가 될 영역을 넘어선 예비교사를 교육하는 대학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할 영역이 되었다는 점이다. 예비유아교사들은 민간자격증에 대해 예상보다 많은 관심과 취득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제반 여건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을 비롯한 유아교육의 전문가들은 영유아교육관련 민간자격증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안에서 예비유아교사에게 의미 있는 민간자격증을 선별하고 제안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전문 어린이집 교사들이 경험한 누리과정 교사연수의 의미

이 연 승¹⁾ · 조 인 영²⁾

I.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정은 2012년 3월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부터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있던 유아교육과정을 하나로 통일하여 교육하였다. 약 1년간의 실행 이후 누리과정의 교육적 효과와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며 이듬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연령을 확대하여 모든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단일유아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유아들도 별도의 교육과정이 아닌 누리과정을 개별적 장애정도에 따라 내용 및 활동 방법을 수정하여 교육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장애유아 담당교사들도 장애유아의 교육권 보장과 누리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하고자 꾸준히 누리과정 교사교육을 받아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유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누리과정 교사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를 통해 장애유아 담당교사들의 현직 누리과정 교사교육에 대한 만족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전문 어린이집 교사들이 경험한 누리과정 교사교육의 양상은 어떠한가?
2. 장애전문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교사교육의 방향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B시 장애전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8인의 장애유아 담당교사(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유아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담과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면담기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Krueger와 Casey(2009)가 제시한

1) 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경성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질문의 조건을 반영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반구조화 된 면담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유아교육과 교수 1인, 장애전문 어린이집 운영경력 10년 이상 원장 1인, 장애유아 담당 보육경력 7년 이상 교사 3인에게 질문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이후 인터뷰 소요 시간 파악 및 설문문항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장애유아 담당교사 3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면접 실시 절차 및 유의점을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1인의 연구보조자와 숙지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2017년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총 2회 걸쳐 실시하였으며 각 인터뷰 소요시간은 60분 ~ 100분 가량 소요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전사하여 현장노트와 함께 코드화 작업을 통해 분류 및 분석하고 추가 면담이 필요할 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내용을 심화 보충하였다.

Ⅲ. 주요 결과

연구결과, 첫째, 장애전문 어린이집 교사들이 경험한 누리과정 교사교육의 양상은 교사 개인당 1년에 평균 3회 이상 누리과정을 주제로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직무교육등 다양한 형태로 교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경력이 높을수록 교육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당교사들은 교육에 참석하기 전부터 장애유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대 자체를 하지 않으며 만족도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교사들은 교육 이수증 발급 및 원장님의 강요로 인해 누리과정 교사교육에 참석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교육을 진행하는 강 의 자 는 유아교육관련과 교수 또는 경력이 많은 일반 어린이집 원장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누리과정 전반에 걸친 총론과 운영사례 및 컨설팅은 일반유아 담당교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장애유아 담당교사들은 전혀 공감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둘째, 장애유아 담당교사들은 본인들을 위한 별도의 교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희망하였다. 먼저 교육의 형태에서는 강 의 자 1인이 다수의 교사를 대상으로 일방적 전달식 강의인 집합교육 형태보다는 장애유아 또는 특수교육분야와 누리과정 두 분야 모두에 정통한 전문가가 원에 직접 방문하여 소그룹 형태의 컨설팅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교육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사교육 내용적 측면에서는 누리과정 총론 및 지침서를 주제로 한 포괄적 내용보다는 장애유형과 장애유아 각각의 수행능력에 따라 누리과정의 활동내용 및 목표를 수정하는 방향과 활동자료를 적절하게 수정·보완하는 방법의 제시 등 보다 실제적인 교사교육 내용으로 구성하여 본인들이 누리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이 해소되는 교사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IV. 결론

장애유아 담당교사는 누리과정이 유아교육과정으로서의 교육적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유아가 가진 독특한 교육적 요구와 개별성에 맞춰 수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사료되므로 교사교육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어려움을 개선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먼저 현재 장애유아 담당교사들은 자주 누리과정 교사교육에 참석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되는 교사교육에 대해 단순히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수동적 참여를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이는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교육방향 제시 및 안내를 하는 내용의 누리과정 교사교육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교사교육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교사교육은 교사의 요구가 담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해야함을 의미한다. 즉 장애유아에 대해 정통한 교사든, 장애유아 보육경험이 전무한 초임교사 그 누구라도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장애유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여 교육과정에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사교육이 되어야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담당교사들은 현재 누리과정 교사교육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였다. 교육의 내용은 누리과정의 총론과 지침서 해석 치중된 교육내용은 다양한 장애유형에 맞춰 활동을 수정할 수 있는 지도와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 등으로 교사교육의 내용을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재 질의응답조차 할 수 없는 대규모 집합형태 및 온라인 교육보다는 담당교사들이 직접 질문을 하고 전문가를 통해 답을 구할 수 있는 면대면 의사소통 교육과 온라인 교육 시 Q&A 서비스를 확충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장애유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공통의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각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의 장애유아 담당교사만을 위한 교사교육 개설과 전문 컨설팅 파견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과 교육적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주체인 장애유아 담당교사들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 내용으로 구성된 별도의 교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장애전문 어린이집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통합학급을 담당한 교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유아와 장애유아 모두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교사교육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합교사를 대상으로 교사교육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보육교사양성 교사교육자들의 학습공동체 참여 경험과 의미

강 희 신¹⁾ · 박 수 경²⁾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사양성과정의 질은 미래의 교사들인 예비교사들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예비보육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양성기관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교육자는 예비교사가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 영·유아들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태도와 교수학습방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양성 관련 선행연구는 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교사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교사교육자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대학들은 교육의 질적 신장을 위하여 대학 교육의 정책방향을 연구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다(차현진, 2014). 예를 들면,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중심으로 교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수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임우섭, 2007). 그러나 대학의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도 일회성 워크숍이나 강연 형태의 교수법 중심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 및 교사양성기관의 교사교육자들의 전문성 신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반적 요구와 만족은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사교육자를 위한 교수 지원프로그램 관련 연구도 부족한 편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구성원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운영의 특징을 가진 학습공동체를 주목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대학 프로그램에서 교수 전문성의 연계적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차현진, 2014), 전통적인 대학 교원 연수 체제는 연수 내용이나 방법 측면에서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고, 참여 교원들의 자율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전통적으로 교사의 학습은 동료 교사들과 공유하거나 후배 교사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교사 개인의 지식으로 머무르는 경향(서경혜, 2008)이 있는데 교사교육자들의 학습 문화도 이와 유사하다(Cochran-Smith, 2003).

1) 건국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박사졸업

2)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부교수

학습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자발성에 기초하면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유혜영, 2010). 따라서 학습공동체는 일반적인 교수프로그램의 한계점을 해결하고 구성원의 협력, 반성적 실천, 동료의식, 학습지향성을 바탕으로 교수학습활동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또한 학습공동체는 개인주의 문화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정보 공유와 실천적 반성을 통하여 그들의 전문성 개발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장점을 내포한다. 교수 전문성은 수업의 현장에서 스스로의 수업을 계속해서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개발된다(서경혜, 2009). 이러한 전제에서 대학 교원을 위한 학습공동체(송윤희, 박미순, 엄미리, 2013)는 그들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측된다.

대학 교원이 참여하는 학습공동체 관련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동료와의 협력적 학습을 통해 실제적인 교수 활동의 변화와 전문성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구성한 학습공동체의 효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사들은 직무만족을 느끼고 실제적인 교수활동의 개선 효과가 있다(Bryk, Cambum, & Louis, 1999; Lieberman, 1994; Mclaughlin & Talbert, 2001; Newmann, 1996). 또한, 교수학습을 배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학습공동체의 경우 다른 교사와 협의하고 대화함으로써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다(Meyer, 2002).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원들로 구성된 학습공동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들로 구성된 학습공동체는 동료들 간의 협동심을 고취시키고 교사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 및 자부심을 주며 교사의 교수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다. 학습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구성원 간의 신뢰감 등을 통해 학습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원들은 개인의 교수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유정아, 2009). 이와 같이 유아교육 분야에서 교사 대상의 학습공동체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사교육자로 구성된 학습공동체 연구는 없는 실정이며 교사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교수능력이나 전문성 개발에 관한 연구도 미비한 편이다(박영은, 2014; 이동성, 2011; 이지은, 2013; 황혜영,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교육자들이 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해 경험해 나가는 과정을 탐구해보고 그들의 경험 과정에서 나타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첫째, 보육교사양성 교사교육자들은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둘째, 보육교사양성 교사교육자들에게 학습공동체 참여 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S보육교사양성기관의 교사교육자 6명이며, 모든 연구 참여자는 동일 기관에서 평균 5년 이상의 교사교육자로서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2. 자료 수집

1) 관찰

본 연구자는 S보육교사양성기관에서 연구참여자와 생활하면서 교사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완전 참여자’의 입장에서 현장을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 관찰 횟수는 예비연구 4회,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수업이 진행되는 2학기 일정에 맞추어 수업 개강 전 1회, 개강 후 8회, 종강 후 1회, 총 10회였다. 연구자는 직접 모임에 참여하여 과정을 녹음하였으며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연구 노트에 기록하였다. 관찰 녹음 후 바로 전사를 하였으며 전사를 할 때에는 언어와 비언어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한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확인 작업을 거쳐서 수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수정하였다.

2)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1차 인터뷰(연구 참여 전), 2차 인터뷰(연구 참여 중), 3차 인터뷰(연구 참여 후)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모두 1차, 2차, 3차 면담에 참여하였으며 1회당 1시간 정도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후 추가적인 질문이 요구되거나 면담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전화나 e-mail을 사용하여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은 녹음하였으며 면담이 끝난 후 바로 전사하였다.

3) 연구노트

연구자가 학습공동체 모임에 관찰자로 참여하면서 매회기마다 진행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연구노트를 기록하면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의문점등은 추후 추가질문을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 면담을 하며 중요하다고 인식한 상황이나 연구자가 느낀 점, 학습공동체 진행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반성, 학습공동체 교사교육자들과의 협력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성취감, 앞으로의 학습공동체 발전 방향에 대한 생각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이를 결과 해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4) 문서 및 모임 활동 자료 수집

수업 녹화 영상, 웹카페 수업자료, 수업 관련 계획안 및 학습자들과 함께 이루어진 활동

지, 학습자들의 평가지, 활동사진, 교사교육자들의 반성적 저널 등이 추가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자료 분석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자료의 정리 과정에서는 Nvivo11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Ⅲ. 주요 결과

첫째,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교사교육자들의 경험의 내용은 ‘좋은 수업 실천을 위하여 고민을 함께 나누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학습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풀어가다’ ‘열정적으로 배움을 실천하게 되다’ 의 크게 네 가지 경험의 내용이 나타났다. 먼저 ‘좋은 수업’실천을 위하여 고민을 함께 나누다’에서는 외부에서 주어진 계획된 수업 상황에서의 어려움, 과제물 피드백에 대한 어려움, 학습자들의 수업 집중을 높이는 교수 방법에 대한 고민, 강의 평가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 학습자 특성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고민하였다. 교사교육자들은 고민에 대한 문제들을 동료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좋은 수업 개선이라는 실천을 위하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에서는 동료 교사교육자들과 서로의 정보와 지식을 다양하게 공유하면서 동료로 부터 배움의 공동체 경험을 하였다. 다음으로 ‘학습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풀어가다.’에서 학습공동체에 참여한 교사교육자들은 학습공동체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학습공동체 참여에 대한 한계점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열정적으로 배움을 실천하게 되다.’에서 교사교육자들은 모임을 통해 공유하였던 지식들을 학습자에게 실행해 보는 실천의 장을 이루었다.

둘째, 교사교육자들의 학습공동체 참여 과정에서 ‘교사교육자로서의 성장’, ‘협력을 통한 공동실천의 몰입’과 같은 교사교육자로서의 변화해 나가는 모습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먼저 교사교육자로서의 성장에서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탈피’, ‘내면의 변화를 통한 과감한 시도’, ‘나눔의 재발견’으로 의미를 발견하였다. 기존의 익숙함에 대한 탈피는 새로운 것에 시도하고 도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기존의 방식과 전혀 다른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심리적, 시간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새로운 방법에 흥미를 갖고 수업에 변화를 느끼고 싶은 교사교육자들의 노력으로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즉, 내면의 변화를 시도하기 까지 동료 교사교육자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으며,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볼 수 있는 반성적 사고의 경험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는 교사교육자로서의 자신감과 교수 효능감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다음으로 협력을 통한 공동실천의 몰입에서는 ‘나눔의 기쁨’, ‘작은 퍼즐조각들이 모여 큰

그림 완성’, ‘쉼터 같은 공간’으로 나타났다. 교사교육자들은 좋은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학습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협력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작은 퍼즐조각들이 모여 큰 그림의 퍼즐을 완성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한편 학습공동체는 교사교육자들에게 학습의 공간이자 친밀감을 형성하는 친목의 장이 되기도 하였으며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쉼터같은 공간이 되었다. 특히 S보육교사양성기관에서 처음 강의를 맡게 된 교사교육자에게는 이런 학습 공동체의 경험이 기관과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경력이 많은 교사교육자에게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신감을 갖게 하였으며, 변화하는 교육의 흐름과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IV. 나가며

본 연구의 결과, 수업 진행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러한 고민들이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공통적인 고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좋은 수업’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동료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교육자들은 S기관의 교육적 맥락과 연계하여 다양한 수업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였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다. 그러나 교사교육자들은 학습공동체 모임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고 정해진 시간에 모여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도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사교육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도 경험하였고, 학습공동체 참여 후 오히려 S기관의 학습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도 갖게 되는 현상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교사교육자들은 이러한 난점을 점차 극복해 나가면서 교사교육자로서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교육자들은 학습공동체에서 학습한 것을 열정적으로 수업에 실천해 보기도 하였고, 자신의 수업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수업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교육자들의 전문성 성장은 외부의 압력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학습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지은(2013)은 교수 전문성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수업의 내용, 교수, 학생의 여러 요소들과 끊임없이 관계 맺고 소통하는 체계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노력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사교육자들의 실질적인 변화의 요인은 학습공동체가 S보육교사양성기관의 교사교육자로서 같은 기관에서 공동의 문제들을 공유하면서 그 기관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기관의 학습공동체 모임에서도 교사교육자들의 성장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교사들로 구성된 학교 밖 학습공동체는 교사의 변화가 개인적인 반성의 수준에 머물게 되는 사례가 많아 교사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학교에 돌아가서 학교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부분에는 한계를 갖는다(서경

혜, 2008). 이러한 점과는 다르게 S보육교사양성기관의 교사교육자들로 구성된 학습공동체는 단순히 개인의 변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S보육교사양성기관의 예비보육교사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관의 실천적 변화를 제공하는 기회를 준 것이다. 즉, 외부가 아닌 S보육교사양성기관의 내부 교사교육자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기관의 변화를 위한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교사교육자들이 학습공동체 참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해보면, 학습공동체 참여는 동료들과 함께 나눈 공동의 대화를 통해 익숙한 수업을 탈피하고 과감한 도전을 시도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습공동체 안에서 동료 교사교육자 간에 이루어졌던 협력을 통해 교사들은 나눔의 기쁨을 제공하는 유희의 공간 안에서 개인의 지식들이 모여 총체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탄생시켰고 동료들과의 정서적인 공유가 함께 하는 쉼터 같은 공간 속에서 친밀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학습공동체 활동을 학기 중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함이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인 학습공동체 운영의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각 학교나 기관마다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시켜 학습공동체의 효과성을 입증할 만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사교육자들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전문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교사교육자를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사례를 폭넓게 연구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다.



제 4 분과 논문 발표

영유아 사회발달



- 어머니의 상위정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201
김소래(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김희태(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실내놀이와 실외놀이에서 나타나는 유아 또래관계 사회연결망 분석 206
장영훈(강동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 어린이집 1세반 영아들의 사회적 관계 특성 탐색 212
노희연(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 어린이집 1세반 영아들과 또래들의 사회적 관계형성 탐구 216
최성은(공항공나무 어린이집 원장), 박찬옥(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어머니의 상위정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김 소 라¹⁾, 김 희 태²⁾

I. 연구의 필요성

에릭슨(Erikson)에 의하면 유아가 주변의 다양한 사람과 관계하면서 신뢰감이나 자율성, 주도성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자아(ego)는 불신이나 의심, 우울, 비생산성 등과 같은 성격이 발달하여 결국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정신건강이 적합하지 못하여 사회에 부적응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오늘날의 사회는 이러한 모습이 많아져서 유아들의 문제행동은 많이 늘어나고 심각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유아의 문제행동은 유아에게도 문제이지만 사회에게도 문제이므로 어떤 형태로라도 지원과 도움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원인이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유아기 이후의 학교생활에 실패나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Wicks-Nelson & Israel, 1991) 청소년기 비행이나 일탈로 이어지며 성인기 부적응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남소현, 김영희, 2000). 그러므로 유아의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나 방안을 실행하거나 문제행동이 나타나면 조기에 해결하고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Khaleque & Rohner, 2002). 유아의 문제행동은 어느 한 가지의 변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발생하므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별이 어머니의 상위정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자아탄력성, 문제행동 등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파악하고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상위정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는 물론 그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유아교사나 부모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 행동을 중재하고 효과적인 양육과 지도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연구문제1. 유아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상위정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문제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2. 어머니의 상위정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문제행동은 서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3. 어머니의 상위정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및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9곳의 어린이집과 2곳의 유치원에 다니는 학령전기에 해당하는 만 4, 5세의 유아 400명과 그들의 어머니 400명이다.

2. 연구도구

1) 어머니의 상위정서 척도

배지우(2009)가 개발한 부모상위척도(Parental Meta-Emotion Scale: PMES) 중 공감적 수용 8문항, 억압적 태도 8문항, 자각민감성 5문항, 지지적 신념 6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서, Cronbach's α 는 공감적 수용 .71, 억압적 태도 .62, 자각 민감성 .64, 지지적 신념 .70이다.

2)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척도

김희정(1995)이 변안한 Fabes, Eisenberg, & Bernzweig(1990)의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12가지 사건 중에서 예비조사를 통해 만 4, 5세 유아들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6가지 사건을 제외한 총 6가지 사건에서 유아가 보일 수 있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지지적 반응 18문항과 비지지적인 반응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서, Cronbach's α 는 지지적 반응 .81, 비지지적 반응 .71이다.

3) 유아의 자아탄력성 척도

고영희(2010)가 변안하여 수정한 Lebuffe & Naglieri(1999)의 DECA(Devereux Early Childhood Assessment) 중 애착 8문항, 자기통제 8문항, 주도성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서, Cronbach's α 는 애착 .86, 자기통제 .90, 주도성 .92이다.

4) 유아의 문제행동 척도

김인아(2004)가 번안한 Merrell(1994)의 아동행동척도(Preschool and Kindergarten Behavior Scales, PKBS) 중 외현화 문제행동 27문항과 내재적 문제행동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서, Cronbach's α 는 외현화 문제행동 .96, 내재화 문제행동 .90이다.

3. 연구절차

2016년 3월 2일부터 연구대상 유아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2016년 4월 5일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중 부실 기재 설문지를 제외하고 319부(79.8%)가 회수되었다. 최종 분석은 유아에 대한 교사평가까지 총 회수된 279부(69.8%)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주요결과

1.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상위정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상위정서의 차이에서 억압적 태도와 지지적 신념에서 나타난 성별의 유의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의 차이에서 비지지적 반응 범주에서 나타난 성별의 유의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었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에서 애착, 자기통제, 주도성 모두에서 성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에서 외현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어머니의 상위정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어머니의 상위정서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상위정서의 공감적 수용, 억압적 태도, 자각민감성, 지지적 신념

이 높을수록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서 지지적 반응의 수준은 높고 비지지적 반응의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상위정서와 유아의 자아탄력성 간에는 부분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상위정서의 공감적 수용, 자각민감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 중 애착과 자기통제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상위정서의 지지적 신념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애착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상위정서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에는 어머니의 상위정서의 지지적 신념이 유아의 문제행동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자아탄력성 간에는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애착, 자기통제, 주도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에는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에는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애착, 자기통제, 주도성이 모두 유아의 문제행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영향력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애착,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의 지지적 반응,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자기통제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자기통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상위정서의 억압적 태도, 공감적 수용, 지지적 신념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의 지지적 반응, 비지지적 반응, 그리고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애착, 자기통제, 주도성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주도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첫째,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상위정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에서 어머니의 상위정서의 하위요인인 억압적 태도와 지지적 신념에서 남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가 여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의 하위요인 중 비지지적 반응 범주에서 남아에 비해 여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애착, 자기통제, 주도성 모두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부장적인 전통사회와는 다르게 시대가 변화되어 가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성별의 잣대에 얽매이지 않는 경향이 커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여성이 제약받는 부분이 있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

어 다르게 평가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의 성역할학습을 받아온 어머니의 경우 남아에게 제재를 많이 가하면서도 남아가 성취지향적이기를 요구하고, 여아에게 허용적이면서도 여아가 관계지향적이기를 바라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성평등의식을 제대로 고취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어머니의 상위정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아의 자아탄력성,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관계있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상위정서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함께 고려하여 어머니의 상위정서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양육행동에서 인지적인 측면의 역할이 중요함을 환기시켰다. 문제행동이 정서적인 요소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문제행동에 대한 교정에 있어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정서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정서를 억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과 양육태도를 보이며 정서에 대한 통제를 강요하는 부모나 교사의 경우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양육과 교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자기통제와 애착,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중 지지적인 반응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상위정서의 억압적 태도, 공감적 수용, 지지적 신념,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 그리고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애착, 자기통제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자기통제이고,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유아의 자아탄력성의 주도성으로 나타나 이는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문제행동 간의 높은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재차 밝혀 유아의 탄력성이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아가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면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가 유아와 보다 애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사 자신도 유아와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상위정서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력이 있음을 밝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정서에 대한 신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취학 전기 유아를 둔 어머니의 상위정서를 확인하고, 이를 긍정적인 어머니의 반응으로 발현시키도록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색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실내놀이와 실외놀이에서 나타나는 유아 또래관계 사회연결망 분석

장 영 훈¹⁾

I. 연구의 필요성

유아는 놀이를 통해 배우고 자란다. 세상의 모든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배우며 놀이를 통해 성장한다. 유아가 주변세계와 소통 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게 본질적인 매체가 놀이이다(Erikson, 2000; Russ, 2004). 이런 놀이 경험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기술로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이다(김명순, 김창복, 이미화, 2002; 권희경, 2009, 재인용)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놀이 환경은 유아의 놀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놀이공간이 위치한 곳에 따라 실내놀이와 실외놀이로 구분된다(Frost, 1997; Hughes, 2012). 실내·외에 위치한 놀이 공간은 물리적 형태와 특성이 다르며, 실내놀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대체로 밀집되어 구조화 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실외놀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실내놀이 공간보다 덜 구조화 되어 있으며 유아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활동적인 형태의 놀이가 가능하도록 개방 된 형태이다(이수경, 이양희, 200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실내놀이는 교사가 교실 내 흥미영역을 구성하며, 유아들은 이러한 흥미영역 중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스스로 놀이 활동을 하는 자유놀이(free play) 형태로 운영된다(정미라, 박수경, 강은영, 2014).

놀이공간에 따라 놀이의 형태와 종류가 다르게 나타난다. 실내놀이 환경에서는 혼자놀이와 병행놀이가 많이 나타나며(조경희, 신동주, 1999; 권미나, 임정애, 2011), 이는 실내놀이(자유선택활동)의 놀잇감이 주로 구조적이며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권미나 외, 2011). 반면 실외놀이에서는 상호작용과 집단놀이가 더 많이 나타나며(장정백, 2002; Phelps, 1984; Howes & Matheson, 1992), 실외의 개방적인 환경이 유아들의 신체놀이를 자극하여 또래간의 신체적 접촉이 많이 발생한다(권미나 외, 2011).

실내·외의 놀이 상황에서 또래관계의 지위가 낮은 유아는 진행 중인 놀이 행동에 참여하기 위해 놀이 주변을 배회하거나 또래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해 놀이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반면 또래관계의 지위가 높은 유아들은 먼저 시작된 놀이의 특성을 자세히 파악하고 또래집단에 자신을 맞추어 놀이에 참여하고자 노력한다(권미나 외 2011; 김

1) 강동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송이, 박경자, 2001; Putallaz & Wasserman, 1989).

이처럼 또래관계는 유아의 제반 발달영역과 사회적 태도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Katz와 McCellan(1997)은 또래 인기도가 또래와 또래 간에 맺어지는 사회관계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임연자, 최미숙, 2011, 재인용). 또래 인기아는 또래집단 내에서 인정과 선호를 받게 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보다 성숙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이명숙, 2006). 즉, 유아기의 또래 인기아는 대체로 긍정적 사회행동과 문제해결력이 증가하게 되어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래 인기아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상황이나 일을 시도할 때, 또래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다양한 전략과 주도성 전략을 사용한다(김현희, 2012; Spivack & Shure, 1972). 인기아는 비인기아보다 집단내의 규칙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 및 행정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비교적 높았다(김윤하, 2006). 이는 집단 내에서 인기아가 가지는 환경에 대한 높은 적응력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자기조절과 상황에 따른 적절한 자기통제 능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리더십이 유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발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적 지원과 또래 상호작용이 필요하며(문병환 외, 2013). 이는 유아기 때부터 유아 스스로 주도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유아의 또래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놀이공간의 유형에 따른 또래 인기아나 비인기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실내·외 놀이 공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놀이 공간의 바람직한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유아의 개인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놀이 공간의 유형이 또래관계에 내에서 인기아나 비인기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 요인이라는 판단 아래,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유아 또래관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 간의 관계 연결망을 분석하기 위한 절차이다(최연철, 2012c, 재인용; Knoke & Kuklinski, 1982; Wasserman & Faust, 1994; Carrington, Scott, & Wasserman, 2005). 조직의 구성원은 여러 형태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는 다양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거나 소멸되며 더욱 복잡한 형태의 연결망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 본 연구는 개별적인 인기아, 비인기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며, 실내놀이와 실외놀이에서의 유아들의 또래관계를 사회연결망으로 비교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여러 분석방법 중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연구문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접 중심성 분석에 따른 실내외놀이에서 나타나는 유아 또래관계 사회연결망은 어떠한가?

둘째, 매개 중심 분석에 따른 실내외놀이에서 나타나는 유아 또래관계 사회연결망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실내놀이와 실외놀이에서의 유아 또래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 J 유치원의 만5세 목련반 원아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6년 7월 1일 현재, 목련반은 6년차 교사 한명이 지도하고 있었다. 남아 13명, 여아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의 평균 연령은 71.86개월(남아 평균 71.90개월, 여아 평균 71.15개월)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 한명 한명에게 자기반에서 실내놀이를 함께 하고 싶은 유아와 실외놀이를 함께 하고 싶은 유아 몇 명씩을 지명하여 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또래지명법(Coie, Dodge & Coppotelli, 1982)을 활용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학급 내에서 실내놀이와 실외놀이를 함께 하고 싶은 친구 5명의 이름을 이야기 해보라는 내용의 질문(사회성측정 인기도)으로 또래관계를 수집했다.

3. 연구절차

실내놀이와 실외놀이를 함께 하고 싶은 친구에 대한 질문은 2주간의 차이를 두고 실시하여 이전 질문이 이후 질문의 답변에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함께 놀이하고 싶은 친구에 대한 순위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유아들이 선택한 유아 5명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또한 질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만 다른 형태의 질문(누구에게 사탕선물을 주고 싶니?)으로 바꾸어 질문하고 유아가 답변을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5명을 모두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다. 유아들과의 면담은 체크리스트의 오류나, 전체 흐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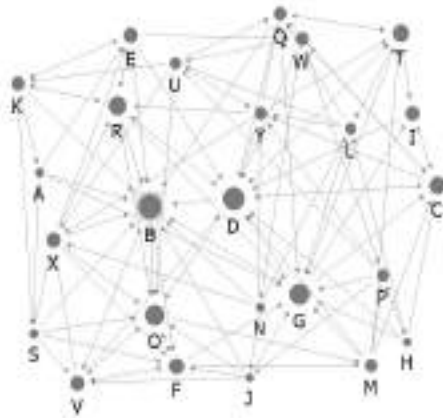
4. 자료분석

구글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체크리스트는 유아 또래 관계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하여 R프로그래밍을 통해 매트릭스 형태로 변환하였으며, UCINET 6.0 과 NetMiner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UCINET 6.0을 통해 사회연결망의 주요 통계수치를 산출하였으며, NetMiner 4.0을 이용해 유아 또래관계 상회연결망을 시각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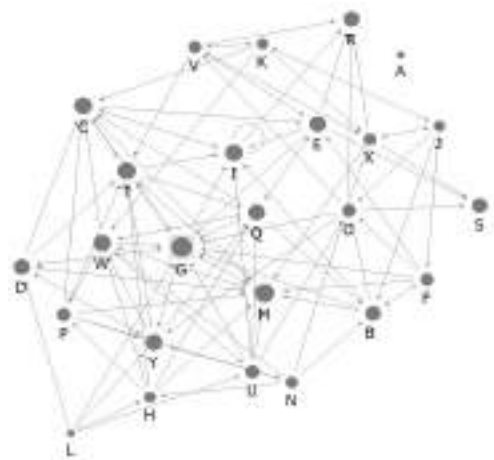
Ⅲ. 주요 결과

1.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에 의한 분석

근접 중심성은 단순한 직접 연결 관계만으로는 그 노드가 가진 네트워크상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연결뿐만 아니라 간접 연결도 고려하여 중심성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근접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연결망 내 다른 노드들과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결망 내에서 어떤 사람이 특정 정보를 가지고 있든 해당 사람이 그 정보를 습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실내놀이 근접 중심성



[그림 2] 실외놀이 근접 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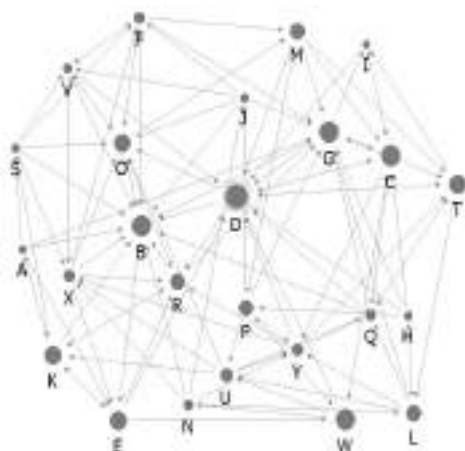
그림 1의 실내놀이의 연결망을 살펴보면 B여, D남, G남, O여, R여, C남 순으로 근접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경우 B여 유아는 연결망 내에서의 정보권력, 지위, 영향력에 대한 접근과 확보에 보다 용이하다.

B여 유아는 실내놀이 연결망에서 근접 중심성(.706)이 가장 높았으나 실외놀이 연결망에서는 근접 중심성(.444)이 평균(.426)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반면 M남 유아는 실내놀이 연결망에서 근접 중심성(.400)이 평균(.440) 이하로 나타났으나, 실외놀이 연결망에서는 연결 정도 중심성(.632)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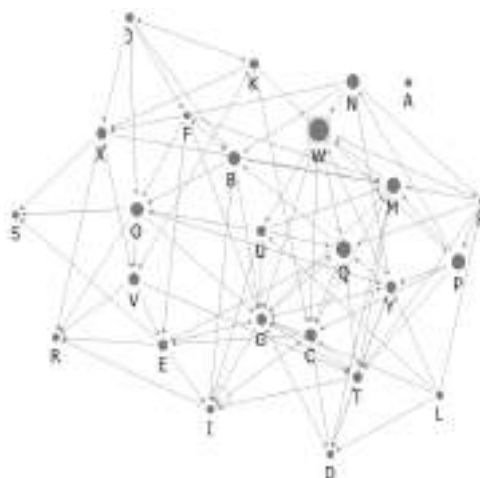
그림 2의 실외놀이 연결망을 살펴보면 G남, M남, C남, T남, I남, W남 순으로 근접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G남 유아는 실외놀이 연결망에서의 근접 중심성(.68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내놀이 연결망에서도 근접 중심성(.632)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실내놀이에서는 순위가 높지 않았던 M남(17위), T남(7위), I남(12위), W남(14위) 유아가 실외놀이 연결망에서는 많은 지명을 받아 높은 근접 중심성을 나타냈다.

2.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에 의한 분석

매개 중심성은 노드(유아)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매개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연결망 내에서 정보 흐름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재자(Broker)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실내놀이 매개 중심성



[그림 4] 실외놀이 매개 중심성

그림 3의 실내놀이의 연결망을 살펴보면 D남, B여, G남, C남, T남의 순으로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경우 D남 유아는 연결망 내에서의 정보 흐름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되어 연결망 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D남 유아는 실내놀이 연결망에서 매개 중심성(.135)이 가장 높았으나 실외놀이 연결망에서는 매개 중심성(.013)이 평균(.053) 이하로 나타났다. 6순위 까지 중 W남을 제외한 5명의 유아들은 대부분 실외놀이 매개 중심성 순위에서 하위권(D남-23위, B여-15위, G남-10위, C남-7위, T남-17위)이었다.

그림 4의 실외놀이 연결망을 살펴보면 W남, R여, P남, M남, Q남, E여 순으로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W남 유아는 실외놀이 연결망에서의 매개 중심성(.16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내놀이 연결망에서 매개 중심성(.091)도 6위로 높게 나타났다. 실내놀이에서는 순위가 높지 않았던 M남(12위), P남(16위), Q남(17위) 유아가 실외놀이 연결망에서는 많은 지명을 받아 높은 매개 중심성을 나타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지표를 토대로 또래 집단의 연결망 형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실내놀이와 실외놀이에서의 또래관계 사회연결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근접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실외 놀이에서 남아들의 인기도가 높게 나타났다. 실내 놀이 인기아의 경우에는 여아와 남아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실외놀이 인기아의 경우에는 남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실내놀이에서는 많은 지명을 받지 못해 인기도가 낮았던 남아들이 실외놀이에서는 많은 지명을 받아 높은 인기도를 나타냈다.

둘째, 실내놀이와 실외놀이에서의 매개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정보 흐름에 대한 통제력과 유아와 유아를 연결해 주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유아가 다르게 나타났다. 실내놀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유아는 대부분 남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외놀이에서는 여아와 남아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유아 또래관계 사회연결망의 중심에 여러 명의 유아가 있었으며, 특정 유아에게 유아들 간의 관계가 집중되지 않는 집단으로 또래집단 내에서 친근함이 유지되며, 이는 최연철(2014) 연구의 유아집단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위와 같이 실내놀이와 실외놀이에서의 또래관계 사회연결망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실내·외 놀이 공간에 따라 다른 유형의 놀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실외놀이에서는 여아보다 남아들이 보다 활동적(유연옥, 서인자, 2010; Henniger, 1985)이고, 여아들에 비해 남아들의 거친 신체놀이가 4배 이상 빈번하게 나타나며(이지영, 이경옥, 2008), 병행기 능놀이와 상호극화놀이가 더 많이 이루어지며(심숙영, 1997), 상호작용과 집단놀이가 더 활발하다(권미나 외, 2011, 재인용; Howes & Matheson, 1992)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어린이집 1세반 영아들의 사회적 관계 특성 탐색

노 희 연¹⁾

I. 연구의 필요성

1세 영아반을 살펴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영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교사들은 영아들의 사회관계 지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영아반의 사회관계지도는 어려운 것이라고 평가한다. 실제 많은 연구들(박성혜 외, 2005; 임수정, 이대균, 2015; 장문정, 2012; 천형영, 2015)에서도 영아반의 또래 간 갈등,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영아반 문제행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1세는 ‘자아’가 생기면서 더더욱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며 이러한 특성이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아들의 사회관계 지도를 할 수 있을까?

1세 영아들의 사회관계 지도를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영아들의 사회성 수준을 발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더불어 일반적인 사회성 수준으로 영아를 지도하려고 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사회관계 능력 향상을 위해 1세 영아기에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서툴고 부적합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영아들의 사회적 행동에 바르게 상호작용해줄 때 영아들의 사회관계능력은 향상될 수 있다(김혜옥, 2014; 정혜진, 2014)

사회관계 능력이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1세 영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에 대한 인식과 애착형성이다(이명주, 유연옥, 2011) 자신의 모습과 행동, 생각 등이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 영아들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존중과 인정을 해주는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게 되며 이것이 향후 사회관계 능력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1세 시기에 중요한 사회관계 경험을 1세 영아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1세 영아가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이해하고 있으며 무엇이 필요한 지 영아의 눈높이에서 이해함으로써 영아들의 사회관계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여기에서 영아들의 사회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사회관계 목표를 정해놓고 영아를 지도하는 방식

1)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이 아니라 사회관계 발달을 위해 1세 영아기에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과 특성으로서 영아들의 행동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 영아의 사회관계 특성을 이해하고 여기서 영아들의 사회관계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겠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K 어린이집 1세반 10명이다. 영아들의 평균 월령은 20개월(2015년 8월 기준)이었으며, 남아 6명 여아 4명이다. 연구대상 영아들은 1세의 일반적인 발달특성을 갖고 있는 영아들로 연구자가 사전 관찰과 발달사항 체크를 통해 평가한 영아들이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참여관찰은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20회의 관찰을 통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사전에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실에서 영아들과 만남을 가지며 영아들의 특성을 살피고, 라포형성 기간을 가졌다. 관찰기간동안 일주일에 2-3회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영아들의 일과를 관찰했으며, 주로 자유놀이 시간을 중점적으로 관찰하였다. 비디오 녹화와 현장일지를 주로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상황이나 영아의 행동에 대한 내용을 교사와 자연스럽게 공유하며 대화를 통해 자료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다. 주로 현장일지를 중심으로 관찰이 끝난 후 자료정리를 하였으며 비디오 녹화와 교사와의 대화 내용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분석을 동시에 하였다. 당일 관찰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일지와 비디오녹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이를 비슷한 맥락끼리 범주화 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어지는 관찰내용을 또한 반복적으로 읽으며, 이전 자료에 포함시키거나 분류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렇게 하여 매번 관찰과 관찰내용을 토대로 비슷한 맥락과 사례들을 범주화 해 갔으며 관찰이 끝나고 자료가 모두 수집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최대한 영아의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했으며, 이러한 내용에 영아발달과 표준보육과정 내용을 토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는 영아발달 특성과 표준보육과정의 사회관계 경험 내용을 토대로 영아들의 사회적 관계 경험의 특성을 어린이집 일상생활에서 관찰한 것으로 영아발달특성과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토대로 자료분석을 하는 것은 본 연

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Ⅲ. 주요 결과

1세반 유아들은 끊임없이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서툴렀고 자칫 비사회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기 쉬웠다. 실제 1세반 유아들에게 ‘사회성이 좋다’라는 평가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아들의 노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유아들은 항상 나와 타인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를 1세 영아의 사회관계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사회적’이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영아는 영아의 발달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사회적’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중점을 두었다. 전체적인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표현하기	‘너’ 관심가지기	‘우리’로 살아가기
- 나 여기 있어요! - 내가 ○○○이라구요 - 내 껌야! - 내 고집대로 할거예요!	- 선생님이 좋아요 - 너는 누구야?	- ○○반이에요! - 함께 해요!

이러한 모습은 순환적으로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기도 한다. 단계와 과정이라기 보다는 함께 이루어진다. 그러나 1세 영아에게 있어서 ‘나’는 사회관계를 이해하고 형성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나’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표현하고 주장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였으며, 가끔씩 같은 반에 생활하고 있는 또래 유아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끊임없이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했으나 그 기술과 방법 면에서 적절하지 않아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로 살아가는 것은 1세 영아에게는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주로 교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로 살아가기였다.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해야 하는 일이 어린이집에서는 일어난다. 1세 영아는 이해하기 힘들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도 혼자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서서히 또래와 교사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모방을 하며 함께 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며 ‘우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 관심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로 살아가려고 했다.

Ⅳ. 결론

사회관계 능력이 향상되어 가는 과정에서 1세 영아 시기에는 ‘자아’ 인식과 교사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통해 영아는 사회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1세 영아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하며 교사나 또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세 영아들의 사회관계 특성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자신’과 의미있는 ‘타인’과의 애착형성이라는 점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영아들의 부적절한 사회적 경험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영아들의 사회적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영아의 입장에서 사회관계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해하고, 그 모습을 사회관계를 위한 영아들의 노력으로 보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영아의 모습을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원해 줌으로써 영아들의 사회관계 능력 향상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 1세반 영아들과 또래들의 사회적 관계형성 탐구

최 성 은¹⁾ · 박 찬 옥²⁾

I. 연구의 필요성

영아기는 전 생애를 위한 사회적 관계의 토대를 형성하는 시기로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변화 가능성이 큰 시기이다.

현대사회 변화로 아주 어린 연령에서부터 가정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양육을 받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영아의 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다. 영아들은 주변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보육교사 및 또래들과 상호작용해야 하며, 많은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부모 이외의 사람들과 보내야 한다. 이렇게 영아기의 사회적 관계의 대상은 영아와 부모, 영아와 교사, 영아와 또래로 확대된다.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아들의 사회적 관계 대상의 확대는 1세에 더욱 분명해 진다.

1세 영아들은 자신과 비슷한 대상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발달적으로 1세는 사회적인 존재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맺음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또한 1세는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타인과 함께 자신의 언어, 또는 비언어적인 신호로 관계맺음을 시도하고 경험하며 사회적 전략을 학습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1세 영아들이 어린이집에 오랜시간 머무르면서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에 따라 동일연령뿐 아니라 연령이 다른 영아들과 놀이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은 비슷한 또래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경험 하게 된다.

영아기 사회적 관계는 이후 영아가 성장 발달해 가며 전인적 발달과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회성 발달에 초석이 되는 것으로 현대사회의 변화와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1세반 영아들을 대상으로 1세반, 0세반, 2세반 또래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은 대상에 따른 영아들의 사회적 관계맺음 전략을 통해 사회성 발달의 측면을 발견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영아기 사회적 관계를 통해 영아기 이후 사회성 발달을 돕는 기초 자료를 얻는데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영아라는 발달의 특성상 질적 연구를 통해 1세반 영아들의 사례를 관찰하고 분석하므로 어린이집 현장의 교사들이 1세반을 운영할 때 1세반 영아들의 사회적 관계형성 전략을 이해하고 교육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1세반 교실에서 1세 영아가 또래 영아들과 놀이하는 사회적

1) 공항꿈나무 어린이집 원장

2)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계형성과정에서 관계맺음을 위해 보이는 언어적·비언어적 신호체계로 영아가 시도하고, 좌절하고, 경험하는 것 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에 1세 영아들이 어린연령 영아들인 0세와 함께 놀이했을 때의 사회적 관계형성 전략과 또래보다 나이가 많은 2세 영아들과의 사회적 관계형성 전략을 알아보았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 1세반 영아들간의 사회적 관계형성 과정은 어떠한가?
2. 어린이집 1세반 영아들이 0세반 영아들에게 시도하는 사회적 관계형성 전략은 어떠한가?
3. 어린이집 1세반 영아들이 2세반 영아들에게 시도하는 사회적 관계형성 전략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E직장어린이집 1세반 영아들이 주된 참여자이며 총9명(0세 2명, 1세 3명, 2세 4명)이 연구의 대상이다. 자료수집은 2016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로 E어린이집 1세반의 하루일과 자유놀이상황에서 보이는 영아들의 사회적 관계형성 과정을 주2회씩, 1시간동안 40회의 참여관찰, 현장 연구노트, 비디오 촬영,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나선형자료 분석으로 기술, 분석, 해석을 하였다. 분석과정은 비디오 촬영본의 영상파일의 전사본, 현장연구노트, 면담자료를 조직화하기 위해 전사하기, 코딩하기, 예비범주 목록만들기, 범주명만들기, 자료로 묶기, 해석하기를 거쳤다. 질적연구의 타당도를 위해 자료삼각측정법과 연구자삼각측정법을 활용하였다. 즉 참여관찰, 면담, 관찰영상촬영, 연구노트 수집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수집에 활용하였으며, 연구자의 관찰기록에 의한 분석과 해석을 유아교육전문가 박사수료이상 3인과 함께 수차례 걸친 논의를 통해 검토를 받아 연구자의 편견과 주관적 해석의 관점을 배제하도록 노력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Ⅲ. 주요 결과

첫 번째 연구문제인 어린이집 1세반 영아들간의 사회적 관계형성 과정은 어떠한가? 에 대한 양상은 ‘또래 옆에 머무는 시기’,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 ‘의도적 참여 시기’, ‘또래와 함께 놀이하는 시기’로 나타났다. 1세 영아들간 사회적 관계형성과정에 변화가 나타났다. 영아들의 관계맺음을 위한 시도와 좌절을 경험했고, 관계회복을 위한 의도적인 관계맺음 재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또래와 함께 놀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가기 위한 영아들의 의도와 관계시도의 노력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아들의 사회적 또래관계의 맥락에서 영아들이 스스로 주체가 된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맺기 시도 및 문제해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영아기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어린이집 1세반 영아들이 0세반 영아들에게 시도하는 사회적 관계형성 전략은 어떠한가? 에 대한 결과는 1)정서적인 표현하기 2)피하기 3)친사회성보이기 4)조심스럽게 대하기 5)모르는 척 하기 6)힘 과시하기 7)부정어사용하며 몸짓하기 8)가만히 있기 9)응시하기 10)언어로 표현하기 11)놀잇감을 치우기이다. 1세 영아들과 0세 영아들간 사회적 관계맺음 전략에서 1세 영아들은 어린 영아에 대한 배려하기 행동을 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1세 영아들은 0세 영아들이 사회적 관계의 수평적인 대상이 아닌 보살펴 주어야 하는 ‘지원의 대상’이라고 인식한 것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어린이집 1세반 영아들이 2세반 영아들에게 시도하는 사회적 관계형성 전략은 어떠한가? 에 대한 양상은 다음과 같다. 1)관계맺기 시도의 전략에 따른 정서적 표현하기 2)시도와 거부에 따른 물러서기 3)비언어로 요구하기 4)비언어로 놀이 참여하기 5)신체접촉으로 관심을 보이기 6)힘으로 관계시도하기 7)언어표현을 하며 적극적으로 놀이 참여하기 8)놀이 관찰하며 참여의 즐거움 느끼기 9)친근함 보이기 10)사회적 언어로 요구하기 11)놀이제안을 수용하기 12)놀이제안하기 이다. 1세 영아들과 2세 영아들간 사회적 관계형성에서 1세 영아들은 2세 영아들의 말소리에 반응을 하고, 2세 영아들을 관찰하였다. 1세 영아들은 2세 영아들에게 사회적 관계시도를 하고 시도에 대한 좌절을 경험하지만 2세 영아들이 ‘관심의 대상’으로 2세 영아들에게 직접시도를 한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2세 영아들에게 친근감을 보이며 상대와 나는 친숙하다는 의미를 담고 사회적 언어를 사용한다.

IV.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세 영아들의 사회적 관계형성 과정은 ‘또래 옆에 머무는 시기’,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 ‘의도적 참여시기’, ‘또래와 함께 놀이하는 시기’의 4가지 과정을 보인다.

둘째, 1세 영아들은 0세 영아들을 ‘지원의 대상’이라고 인식하면서 2세 영아들과의 사회적 관계형성과는 달리 ‘조심스럽게 대하기’, ‘모른 척 하기’, ‘피하기’와 같은 배려적 행동전략을 주로 사용한다.

셋째, 1세 영아들은 2세 영아들을 ‘관심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고마워!’와 같은 사회적 언어전략을 사용하여 적극적인 시도를 보인다.

넷째, 1세 영아들의 사회적 관계형성에서 동일한 전략이라도 대상에 따라 그 전략의 내용은 다르다.

다섯째, 1세 영아들은 또래 영아들과의 사회적 관계맺음에서 대상에 따라 관계의 대상에 맞는 전략을 사용한다.



제 5 분과 논문 발표

프로그램 및 평가



-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적용효과 221
김영아(송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통합적표상 접근의 유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224
이은미(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지성애(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미술영역에서의 브릿징 평가 : 유아교육 현장적용 가능성 탐색 230
양정은(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이진희(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영아교사 전문성 척도 개발 연구 235
김정미(GS건설 꿈과 희망의 어린이집 원장), 박찬옥(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영유아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적용효과

김 영 아¹⁾

I. 연구의 필요성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전반적인 발달과 학습뿐 아니라 학교 부적응이나 학교 폭력과 같은 학령기의 다양한 문제행동과도 연관성이 높다. 생활습관 교육과 마찬가지로 문제행동도 습관이 되기 전에 예방과 조기교육이 중요한데,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3학년 이후 문제행동 지도를 시작할 경우 효과는 떨어지고 비용은 더 많이 소비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Hamre & Pianta, 2001). 따라서,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정서 프로그램의 실행과 효과적인 문제행동 지도전략이 필요하다.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긍정적 행동 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 PBS)은 물리적, 사회적, 교수적 환경의 조정을 통해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회 정서적 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국내외적으로 초중고에서의 문제행동 지도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검증된 긍정적 행동 지원은 유아교육으로의 적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인 문제행동 지도를 위해 영유아교육기관에 ‘긍정적 행동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적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행동지원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 전·후의 교사들의 문제행동 지도효능감은 어떠한가? 둘째, 긍정적 행동지원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적용

긍정적 행동지원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영유아 문제행동의 예방 및 지도와 관련이 깊은 긍정적 행동지원의 7개의 구성요소(표1 참조)의 이해와 적용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총 8회기로 각 회기는 1~2주에 한번 씩 이루어졌으며, 회기 당 9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각 회

1)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기의 진행방법은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자의 강의, 질의응답, 토의로 이루어졌으며, 회기의 끝은 그 날 배운 구성요소에 관한 적용 과제를 내주고, 회기의 시작은 전 주에 주어진 과제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각 회기의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긍정적 행동지원 교사교육 프로그램

회기	주제	내용
1	• 오리엔테이션	• 일정 안내 • 문제행동 정의, 관련요인, 원인분석 절차
2	• 긍정적 행동지원 소개	• 목표, 특성, 장단점, 구성요소
3	• 긍정적 행동지원 요소 이해 및 적용	• 물리적 환경, 하루일과 운영
4		• 교사-유아관계, 교실규칙
5		• 사회정서 기술 지도
6		• 문제행동 대응체계
7		• 가족협력
8	• 마무리	• 요소별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2.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적용효과

수도권에 위치한 5개 기관(유치원 2기관, 어린이집 3기관)의 36명의 교사가 교사교육에 참여하였다. 교사용 문제행동 지도 효능감 설문지는 두 개의 파트로 나뉘지는데, 첫 번째는 현재 교사들이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24개(5점 척도)이고, 두 번째는 지도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냐에 대한 질문 8개(5점 척도)이다.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설문지는 25문항(5점 척도)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방법, 절차, 자료에 대한 만족도와 프로그램의 이해정도 및 효과 등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긍정적 행동지원 구성요소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2주 정도 준 후에 문제행동 지도 효능감과 만족도 설문지를 온라인 설문지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교사 36명이 모두 답변을 완료하였다.

Ⅲ. 주요 결과

1. 교사의 문제행동 지도 효능감

문제행동 지도 효능감 사후 검사결과 문제행동 지도방법의 사용은 자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91),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자신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86). 문제행동 지도 효능감의 사전 사후 검사를 비교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지도방법 사용에 있어서는 평균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지도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서는 사후검사 결과의 평균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교사 문제행동 지도 효능감 검사 결과

	검사	<i>n</i>	<i>M</i>	<i>SD</i>	<i>t</i> -test
지도방법사용	사전	36	3.82	.38	-1.56
	사후	36	3.91	.43	
지도자신감	사전	36	3.54	.61	-4.37**
	사후	36	3.86	.64	

** $p < .01$

2.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방법, 절차, 사용한 자료, 지도에 대한 도움 정도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는 평균 4.4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 행동지원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평균적으로 이해하기 쉽다고 보고하였으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는 사회정서 활동 계획 및 운영으로 나타났다. 교사교육을 받기 전에도 긍정적 행동지원 구성요소에 대해 약간 혹은 그 이상으로 알고 있었으며, 가장 모르고 있었던 구성요소는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이었다. 교사들은 긍정적 행동지원의 모든 요소들이 문제행동과 매우 관련이 높으며 교실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모든 교사들은 긍정적 행동지원이 문제행동 지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연수에 다시 참여하길 바라고 다른 교사들에게도 긍정적 행동지원을 추천해 주고 싶다고 보고하였다. 주관적인 기술에서 많은 교사들이 긍정적 행동지원으로 문제행동 지도에 자신감이 생겼고, 유아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것에서 성취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IV. 결론

긍정적 행동지원의 7개 구성요소는 문제행동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들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사교육 전에 구성요소에 대해 약간씩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지도하기 위해 각 요소들을 교실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7가지 구성요소 중에서 이전에 잘 몰랐던 요소는 문제행동 대처방법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사양성 과정 동안에 문제행동 대처방법에 대해 배웠던 경험을 떠올리지 못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는 사회정서 활동 계획 및 운영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교육 중에 많은 교사들은 하루일과 중에 사회정서 증진 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사후 검사에서 교사의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행동지원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교사들의 문제행동 지도 효능감을 높여준 것으로 보인다.

통합적표상 접근의 유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이 은 미¹⁾ · 지 성 애²⁾

I. 연구의 필요성

유아기 다문화교육은 유아들이 다양한 문화 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 정체감을 형성함으로써, 나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최근 유아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다각적인 방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이 유아교육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유아기 다문화교육을 다양한 접근을 통해 프로그램 및 활동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실험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김영옥, 2002; 김혜숙, 2009; 박재옥, 2013; 이선애, 2013; 이영숙, 2012; 정경실, 이문옥, 2013; 차금안, 2012; 채영란, 지성애, 2010). 그러나 다문화교육을 국가수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 있는 유아교사들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실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Piaget(1972)는 유아들의 인지 발달 지식을 구축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표상이라고 하였다. Vygotsky(1978)도 표상은 유아의 추상력을 발달시키는 원동력이 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렇듯 유아교육에 있어서 표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Piaget와 Vygotsky 등의 학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에서도 통합적으로 표상하는 활동은 전인적 유아 발달을 이끌어 그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표상 접근의 유아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이 유아의 다문화인식, 언어능력, 친사회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통합적표상 접근의 유아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 유아교육현장 적용 효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표상 접근의 유아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은 어떠한가?

1)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2)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둘째, 통합적표상 접근의 유아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이 유아의 다문화인식, 언어능력, 친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S유치원 만 5세 두 학급 유아 총 50명(실험: 25명, 비교: 25명)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평균 월령은 실험집단 72.06개월($SD=3.46$), 비교집단 72.41개월($SD=4.60$)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t, p>.05$) 동질집단임이 확인되었다

2. 연구도구

1) 유아 다문화인식 검사도구

유아의 다문화인식을 검사하기 위하여 김판희와 이춘옥(2009)의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개방성, 수용성, 존중성 의 3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방성 영역 10문항, 수용성 영역 4문항, 존중성 영역 3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점수 부여 방식을 사용하여 점수화하였다. 유아가 받을 수 있는 최저 점수는 17점이며 최고 점수는 85점이다.

2) 언어능력 검사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로 박금주와 오상우 그리고 김청택(2011)이 표준화한 K-WISC-IV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에서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주요 소검사 중에서 ‘공통성’, ‘어휘’, ‘이해’ 이렇게 총 3개의 소검사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도구의 문항은 ‘공통성’ 23문항, ‘어휘’ 36문항, ‘이해’ 21문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 검사도구는 유아에게 ‘공통성’, ‘어휘’, ‘이해’ 등에 있는 질문을 하고 유아가 교사 질문에 답을 하면, 교사는 전문가 지침서를 참고하면서 0점 또는 1점, 2점을 준다. 언어 능력 검사에서 ‘공통성’의 최대점수는 44점이며, ‘이해’의 최대 점수는 42점이며, ‘어휘’의 최대점수는 68점이다.

3) 친사회성 검사

유아의 친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McGinnis와 Goldstein(1990)의 ‘친사회적 기술 상황 검사(SSM)’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의 문항은 사회생활 기본 능력 8문항, 기관 적

응 능력 4문항, 친구관계기술 8문항, 감정다루기 6문항, 비공격적 대처하기 4문항, 스트레스 다루기 9문항을 포함한 총 6개의 하위 영역,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도구는 일대일 개인 면접 방식으로 유아가 문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자료와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제시된 그림과 질문에 따라 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유아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고 40점에서 최저 0점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6년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6주 동안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표상 접근의 유아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 적용이 유아의 다문화인식과 언어능력, 친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검사에서 수집된 연구 자료를 SPSS 2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통합적표상 접근의 유아 다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적표상 접근의 유아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 체계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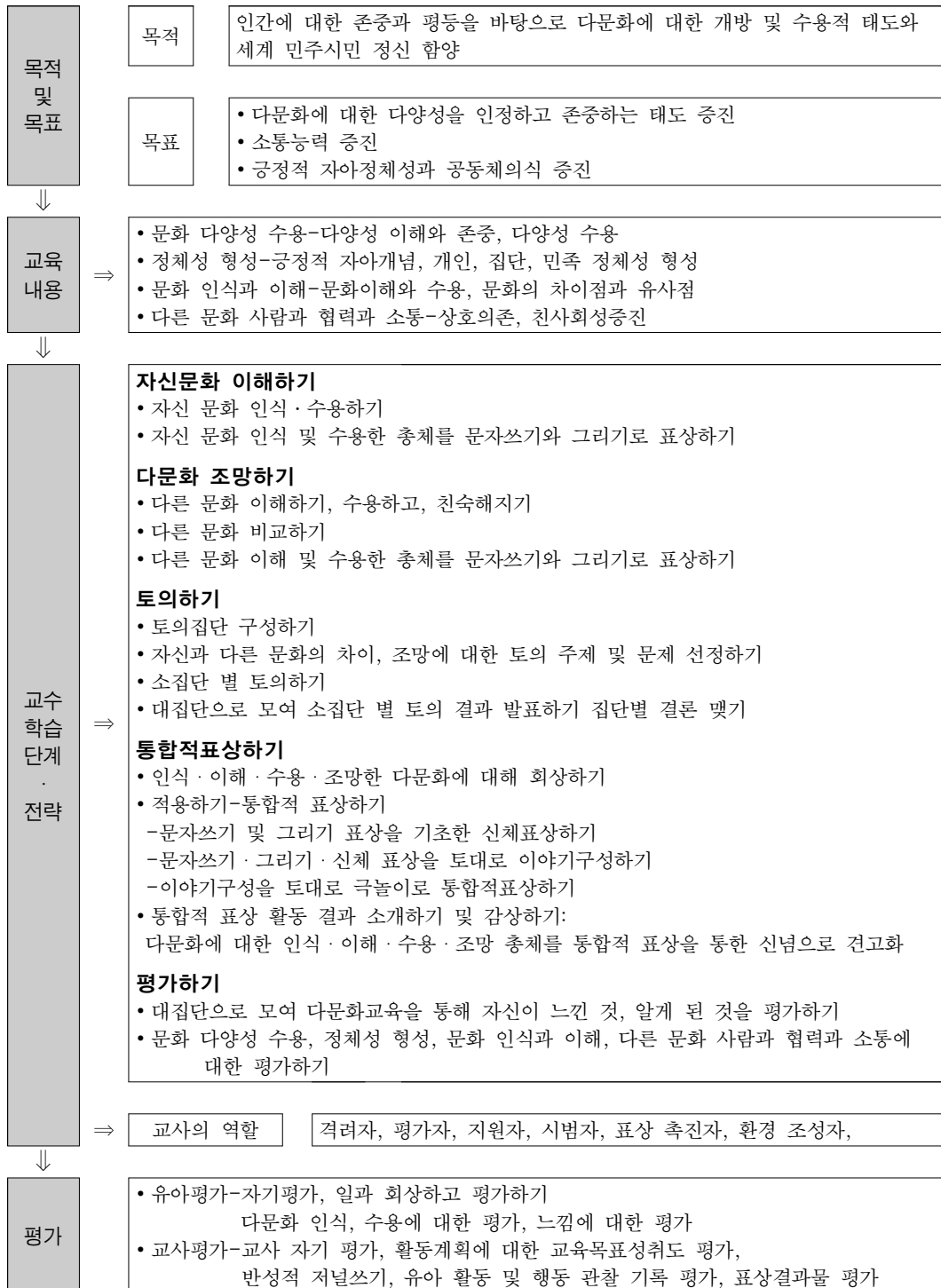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적표상 접근의 유아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 목적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평등을 바탕으로 다문화에 대한 개방 및 수용적 태도를 길러 궁극적으로 세계 민주 시민 정신을 함양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선정하였다.

첫째, 다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증진한다.

둘째, 소통능력을 증진한다.

셋째, 긍정적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증진한다.

본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문화 다양성 수용, 정체성 형성, 문화 인식과 이해, 협력과 소통으로 구축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단계는 자신문화 이해하기→다문화 조망하기→토의하기→통합적표상하기→평가하기의 5단계로 구성하였다. 통합적표상 접근의 유아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 교사역할은 격려자, 평가자, 지원자, 시범자, 촉진자, 환경 조성자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하였다. 통합적표상 접근의 유아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 평가는 유아평가와 교사평가로 구성하고 활동의 마무리부분에서 회상하기를 통해 유아가 자기를 평가하고, 활동관찰 기록 분석과 통합적표상 결과물,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교사에 의한 유아평가가 수행되도록 구성하였다. 교사 평가는 교수자 자기 평가로 활동계획안, 반성적 저널, 활동자료 분석을 통해 수행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1] 통합적표상 접근의 유아 다문화교육프로그램 체계

2. 통합적표상 접근의 유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교육현장 타당성 검증

1) 유아 다문화인식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

‘전체 다문화인식’에 대한 사전검사 결과에서는 실험집단($M=46.92$, $SD=13.61$)과 비교집단($M=44.12$, $SD=16.16$)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후검사 결과에서는 실험집단($M=64.17$, $SD=13.04$)이 비교집단($M=50.42$, $SD=15.3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t=3.35$, $p<.01$)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개방성’($t=2.80$, $p<.01$), ‘수용성’($t=2.82$, $p<.01$), ‘존중성’($t=3.20$,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적 표상 접근의 유아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이 유아들의 ‘전체 다문화인식’과 ‘개방성’, ‘수용성’, ‘존중성’,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

‘전체 언어능력’에 대한 사전검사 결과에서는 실험집단($M=17.87$, $SD=8.12$)과 비교집단($M=16.37$, $SD=6.50$)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후검사 결과에서는 실험집단($M=22.54$, $SD=5.01$)이 비교집단($M=17.16$, $SD=5.4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t=3.56$, $p<.01$)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공통성’($t=3.04$, $p<.01$), ‘어휘’($t=4.5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적표상 접근의 유아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이 유아들의 ‘전체 언어능력’과 ‘공통성’, ‘어휘’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유아의 친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

‘전체 친사회성’에 대한 사전검사 결과에서는 실험집단($M=16.71$, $SD=3.61$)과 비교집단($M=15.42$, $SD=4.92$)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후검사 결과에서는 실험집단($M=26.21$, $SD=3.83$)이 비교집단($M=20.21$, $SD=2.2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t=6.62$, $p<.001$)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기관적응능력’($t=5.03$, $p<.001$), ‘친구관계기술’($t=4.19$, $p<.001$), ‘비공격적으로 대처하기’($t=5.44$, $p<.001$), ‘스트레스 다루기’($t=5.02$,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적표상 접근의 유아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이 유아들의 ‘전체 친사회성’과 ‘기관적응능력’, ‘친구관계기술’, ‘비공격적으로 대처하기’, ‘스트레스 다루기’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적표상 접근의 유아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은 유아의 다문화인식,

언어능력, 친사회성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통합적표상 접근의 유아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은 유치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합한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유치원 현장에서 통합적표상 접근의 유아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

미술영역에서의 브릿징 평가: 유아교육 현장적용 가능성 탐색

양 정 은¹⁾ · 이 진 희²⁾

I. 연구의 필요성

미술활동의 평가는 예술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과 정서에 비추어 평가해야 하므로 객관적 평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정제국, 2000). 하지만 유아미술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대상인 유아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적합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개별화하여 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유아미술영역의 평가로는 여러 학자(Koster, 2005; Schirmacher, Fox, 2009; Gardner, Feldman, Krechevsky, Chen, 1998)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가장 이상적인 평가방법으로 포트폴리오 평가를 꼽고 있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유아관찰자료, 기록물, 활동결과물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유아의 학습 및 발달단계를 평가함으로써 개별적인 교육을 실천하고 평가결과를 교육과정에도 반영하는 평가의 한 유형이다(Shaklee, Barbour, Ambrose, & Hansford, 1997). 하지만 포트폴리오 평가의 실행에 있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수행평가 결과물로서의 작품을 오랫동안 보관하기가 힘들며 자칫하면 작품모음집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전자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 기존의 포트폴리오 평가가 가지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보완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관리를 제안하였고(김정철, 2007), 프로젝트 스펙트럼 평가에 근거한 유아미술 영역의 평가척도의 제안(이미라, 황해익, 2005), 유아들의 수행수준 및 발달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루브릭 개발 연구(김소연, 2008; 변윤희, 2004; 최현혜, 2012; 최혜진, 권유선, 2013) 등 미술영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낮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손쉽게 구하기 쉬운 재료들을 가지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고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 미술영역의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활동’속에서 평가할 수 있는 브릿징 평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브릿징 평가는 유아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1수준에서 10수준까지의 루브릭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좀 더 구조화된 수행평가 형식의 평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동중심 평가의 한 방법인 ‘브릿징 평가’의 미술영역에서의 실제 적용과정을 질적 사례연구로 조명하여, 대안적 평가로서의 현장

1)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2) 계명대학교 사유아교육과 교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세 학급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활동사례의 조명을 통해 유아교사들에게 평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러한 간접경험을 통해 유아교사들의 브릿징 평가 적용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 평가로부터 오는 막연한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브릿징 평가의 유아 미술영역에서의 적용과정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1) 유아교사

〈표 II-1〉 연구 참여교사의 배경특성

교사	유아교육 기관 유형	연령	결혼 유무	경력 (년차)	학력	전공	보육 및 교육 대상 연령
김교사	직장어린이집	29	미혼	5	대졸	유아교육	만4, 5세 혼합연령
민교사	공립유치원	44	기혼	20	대학원 재학중	유아교육	만5세
박교사	공립유치원	27	미혼	3	대졸	유아교육	만4세

2) 유아

〈표 II-2〉 연구 참여유아의 배경특성

학급	성명(가명)	성별	월령
김교사의 학급 (만4, 5세 혼합)	김지훈	남	72개월
	박진아	여	75개월
	서루희	여	70개월
	성효경	여	55개월
	우나연	여	62개월
	이준수	남	54개월
민교사의 학급 (만5세)	문영호	남	75개월
	오정희	여	77개월
	우채연	여	74개월
	윤예빈	여	76개월
	이수민	여	70개월
	장국현	남	76개월

박교사의 학급 (만4세)	김시현	남	58개월
	김윤주	여	68개월
	박민정	여	63개월
	오정윤	여	64개월
	이성준	남	59개월
	장현규	남	57개월

2. 연구절차

브릿징 평가의 시안완성(번역한 브릿징 활동 및 평가방법을 전문가들의 검토와 자문을 받아 내용타당도를 분석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상세화된 브릿징 활동 및 평가방법은 다시 현장 전문가 협의를 거치면서 최종 시안으로 완성) ⇒ 교사교육 ⇒ 브릿징 평가의 적용(수업 시연 및 관찰을 통한 유아의 상호작용과 반응 확인, 활동 결과물 분석) ⇒ 경험에 따른 교사의 관점 피드백(사전면담, 심층면담)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2015년 3월 중순에서 2016년 2월 말까지 이루어졌다. 참여관찰(비디오 녹화)과 사후면담, 심층면담과 추가면담, 전화통화 및 이메일 교신, 그리고 유아평가 기록지, 교사저널, 연구일지 등의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비디오 녹화자료, 음성 녹음기로 녹음된 교사의 심층면담, 추가면담 등 교사의 실천지식을 볼 수 있는 각종 면담자료는 한글 프로그램에서 전사하고 rtf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후 QSR NVivo 10.0 프로그램에서 코딩작업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자료는 질적 연구의 표준적 절차(Graue & Walsh, 1998)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Ⅲ. 주요 결과

1. 미술영역에서의 브릿징 평가 적용과정

브릿징 평가의 15가지 활동 중 미술영역의 활동은 크레파스 기법 연습하기, 자화상 그리기, 패턴블록으로 표상하기 활동이다. 크레파스 기법 연습하기 활동은 크레파스로 종이 위에 여러 가지 자국을 내어 보는 활동이며, 자화상 그리기 활동은 연필을 사용하여 ‘집’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활동이다. 패턴블록으로 표상하기 활동은 검은색 종이 위에 패턴블록을 놓거나 세워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는 활동이다. 이 모든 활동은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소집단으로 이루어졌다. 미술영역의 각 활동별 프로파일의 루브릭 수준을 정리하면, 크레파스 기법 연습하기 활동의 수준은 3수준에서 9수준으로 다양한 수

준으로 평가되었고, 자화상 그리기 활동의 수준도 3수준에서 9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턴블록으로 표상하기 활동은 2수준에서 9수준으로 다소 넓게 나타났다.

3-5세 누리과정(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의 예술경험 영역과 연계하여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면, 크레파스 기법 연습하기 활동은 아름다움 찾아보기 내용범주의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와 예술적 표현하기 내용범주의 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에 해당하며, 자화상 그리기 활동은 예술적 표현하기 내용범주의 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패턴블록으로 표상하기 활동은 아름다움 찾아보기 내용범주의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와 예술적 표현하기 내용범주의 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민교사 학급이 다른 학급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루브릭 수준의 편차가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민교사 학급은 만 5세 유아들로만 구성된 만큼, 활동 중 상호작용이 다른 학급보다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서로의 활동에 영향을 쉽게 주고받으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민교사가 크레파스 기법 연습하기 활동을 진행할 때 프로타주 기법을 유아들에게 소개하면서 다 함께 프로타주 기법을 순서대로 탐색해 보았던 것처럼, 교사의 교수 유형도 루브릭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교사와는 대조적으로 김교사와 박교사는 교사의 사전개입을 최소화하고 유아들의 활동에 대한 즉흥적인 생각과 표현, 그 자체를 평가하려고 하였다. 박교사의 학급에서 자화상 그리기를 할 때, 유아들이 자신의 집에 공룡이 살고 있다거나, 자신의 집이 영화관이라서 팝콘도 판다는 이야기를 하며 배경으로 그렸을 때, 그대로 해석하고 평가한 것이 그 예이다. 이처럼 브릿징 평가는 유아가 진공상태에서 혼자 사고하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교사의 철학이나 교수방법, 또래의 영향을 받아 활동하므로(Chen & McNameee, 2007), 이러한 사회적인 맥락이 평가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IV. 결론

유아교사들은 미술에 대한 이론 및 기술 습득을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하고, 미술영역의 환경구성 및 미술활동 운영에서도 도움을 받기 위해 유아미술교육에 대한 현직교육을 계속 필요로 하고 있다(유영옥, 2009). 유아교사의 미술관련 지식 및 실기능력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미술이론 및 실기능력을 충분히 습득한 후, 유아교육 현장에 들어가야 할 것(한운경, 2002)이 제안되기도 한다. 이영환과 정남숙(2000)은 우리나라의 유아미술교육이 단순한 그리기 활동이나 만들기 활동에 편중되어 있으며, 각종 미술 재료를 제공해 주고 결과물 도출을 위한 활동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점, 선, 면 등 미술의 기본 요소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누리과정에도 미술적 요소인 색, 질감, 모양, 공간 등의 탐색이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교사들은 미술활동의 진행에 있어서 미술의 요소보다 내용중심으로 가볍고 재미있게만 제공하고 요소별로 깊

이 있게 접근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참여교사들은 브릿징 평가의 ‘크레파스 기법 연습하기’ 활동에서 유아들의 탐색과정에서 드러난 창의적인 생각에 감탄하였고 화려한 결과물이 나오는 활동은 아니었지만,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중앙집권적인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평가의 시스템 속에서 새로운 유아평가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수 있고, 여러 시행착오와 함께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연구에 참여한 세 학급의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브릿징 평가를 경험해 봄으로써 자신의 학급에 적합한 수정, 적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역별 적용 가능성을 교사중심으로 보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개별유아의 강점영역을 볼 수 있도록 유아별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브릿징 평가의 적용을 전 영역에 걸쳐 소그룹의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이를 확장하여 한 학급 전체유아를 대상으로 영역별로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전체유아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을 때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기타 제반 상황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밝힐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 유아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유아들의 발달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다양한 평가활동 및 루브릭의 지속적인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브릿징 평가와 관련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교사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평가로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으로 또 다른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함일점을 찾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아교사 전문성 척도 개발 연구

김 정 미¹⁾ · 박 찬 옥²⁾

I. 연구의 필요성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영아는 가족들과의 생활, 친인척과 이웃과의 접촉, 어린이집 생활, 또래와 놀이를 하며 매일의 일상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영아가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최초의 시기에 있어서의 관계의 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영아교사는 가족 이외에 어린이집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며 관계를 맺게 되는 성인으로 영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존재이다. 특히 영아기는 기초성의 원리와 이후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교사의 전문성은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여성의 취업 증가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가정에서보다 어린이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영아들은 그들을 만나는 교사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아가 하나의 개체로서 이후의 삶을 건강하고 균형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로 만나게 되는 영아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영아교사는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역할과 자질,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영아교사는 유아교사에 비해 ‘보살핌’, 또는 ‘돌봄’의 역할이 많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영아들과 직접 상호작용 하는 영아교사의 특성은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영아교사들의 전문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장의 영아 교사들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전문적 자질은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영유아교사 전문성관련 선행 측정도구는 유아의 특성에 맞춰 유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제작되어 진 것으로 유아와는 다른 영아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영아교사의 전문성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아교사가 영아와 상호작용하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자기평가를 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필요함에 따라 영아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개념과 구성요소들을 탐색하고, 이를 기초로 영아교사의 전문성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교사 전문성 척도의 구성요소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아교사 전문성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어떠한가?

2-1. 영아교사 전문성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1) GS건설 꿈과희망의어린이집 원장

2)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2. 영아교사 전문성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기초조사

본 연구에서는 영아교사 전문성 척도 개발을 위해 먼저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여 영아교사 전문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영아반 교사의 하루 일과 업무 관찰과 설문조사를 통해 영아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구성요소들을 추출하였다.

2. 예비문항 구성 및 최종 문항 선정

기초조사 연구를 통해 개발한 1차 예비 문항 180개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한 4차에 걸친 내용타당도 검증과 이해도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120개의 예비문항을 완성하였다. 개발된 최종 예비문항들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근무하는 영아교사 683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과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문항과의 상호상관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수는 3개인 것으로 추출되었으며, 1요인은 전체 분산에 대해 19.261%, 2요인 18.246%, 3요인 15.30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의 요인은 전체 분산의 52.80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개 이상의 요인이 겹쳐지는 문항 30개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1요인으로 묶인 30문항 중 10문항은 1요인으로 묶이기 부적절하거나 내용상 의미가 중복된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3요인으로 묶인 24문항 중 2문항 역시 3요인으로 묶이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또한 1요인 1문항과 2요인 36문항 중 1문항을 내용상 3요인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3요인에 포함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78개의 최종문항들은 영아교사 전문성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해 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영아교사 전문성 척도의 측정 항목들 간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항목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고, 하위요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근무하는 영아교사 354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선행 척도인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발달 수준 자기평가 도구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발달 수준 자기평가 도구는

유아교사의 지식, 기술, 태도적인 측면의 전문성 발달 수준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자기 평가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유아’를 ‘영아’로,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대체하여 문맥을 수정하였으며, 55개의 문항 중 2문항은 유아교사 전문성 척도와 상관관계를 보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상관관계를 측정하는데 배제하였다.

Ⅲ. 주요 결과

영아교사 전문성 척도 개발을 위하여 전문성에 관한 문헌 고찰 및 선행연구, 설문조사, 영아반 관찰을 바탕으로 전문성 척도의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추출된 180개의 예비 문항은 상호상관분석 및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78문항으로 추출되었다.

첫째, 분석결과 돌봄의 상호작용(19문항), 영아발달과 보육과정(35문항), 교사-부모-지역사회 관계형성(24문항)의 3개 하위요인에 총 7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3개 요인은 영아교사들의 전문성 관련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영아교사가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3가지 요인 중 돌봄의 상호작용은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영아들을 돌보기 위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영아발달과 보육과정은 교사가 영아반을 운영할 때 요구되는 환경구성, 영아 발달적 이해, 보육계획 및 운영, 건강·영양·안전 관리 등과 관련된 보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친 내용을 의미한다. 교사-부모-지역사회 관계형성은 타인과의 관계 및 주변 환경과의 관계형성과 관련된 교사 자신의 신념, 동료교직원과의 관계,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의미한다.

둘째, 영아교사 전문성 척도의 측정 항목들 간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값을 구한 결과, .98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Cronbach' α 값은 영아교사 전문성 척도의 문항들이 전문성에 대해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도구 구성 변인 간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요인 간에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며 척도의 하위요인들이 같은 변인을 측정하고 있어 척도로써 타당성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 척도인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발달 수준 자기평가 도구와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각 하위요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개발한 도구가 영아교사 전문성 척도로써 적절함을 증명할 수 있었다.

IV.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아교사 전문성 척도는 돌봄의 상호작용(19문항), 영아발달과 보육과정(35문항), 교사-부모-지역사회 관계형성(24문항)의 3가지 요인 7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영아교사 전문성 척도 78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α 값 .98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Cronbach' α 값은 영아교사 전문성 척도의 문항들이 전문성에 대해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영아교사 전문성 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인타당도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6 분과 논문 발표

기관운영 및 관리



-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원장, 보육교사,
어머니의 인식과 요구 241
이연승(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유진(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 누리과정 정책 수요에 대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온라인 뉴스와 기사 댓글을 중심으로 245
박창현(육아정책연구소 육아지원연구팀 부연구위원)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유아교육기관 조직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248
정혜영(동의대학교 보육가정상담학과 조교수), 김현수(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장학을 위한 장학컨설팅에 관한 사례 연구 253
김대욱(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원장, 보육교사, 어머니의 인식과 요구

이 연 승¹⁾ · 이 유 진²⁾

I. 연구의 필요성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제도는 2015년 4월 30일 법안이 통과되어, 2015년 12월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가 설치 완료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2016년 3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CCTV 설치 관리 교육을 시행한 후, 지자체로 하여금 보육교직원 대상 자체교육을 시행토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16). 수년 동안 찬반양론으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CCTV 의무 설치 제도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아동학대 사례는 잦아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2015년 3월 개최된 인천의 ‘아동학대 문제의 근원 파악과 해결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어린이집 64곳을 1명의 점검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동아일보, 2016.09.12.).

이에 본 연구는 제도 시행 이후 1년여가 지난 현재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직원 및 자녀의 어머니 간의 인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바람직한 운용을 위한 요구도는 어떠한지 이해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보완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원장, 보육교사, 어머니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2.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원장, 보육교사, 어머니의 요구에 차이가 있는가?

1) 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B광역시에 위치한 8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 이후 원장, 보육교사, 어머니의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원장 81명, 보육교사 324명,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자녀의 어머니 324명으로 총 729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한 연구도구는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강선훈, 2015; 강미경, 2015; 권미란, 2012; 김은하, 2014; 박귀숙, 2016; 정현옥, 2011; 한정신, 2016)에서 활용한 설문지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목적에 부합하도록 문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최종 설문지는 유아교육과 교수 1인,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1인, 10년 이상의 경력교사 5인에게 문항에 대한 안면 타당도 및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진행하였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원장과 교사 그리고 어머니의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원장, 보육교사, 어머니)별, 연구대상 간 카이검증(χ^2)을 실시하였으며,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으로 나타난 경우 Fisher exact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성 인식과 CCTV 운용방안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의 경우 수준이 어떠한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 간 인식 및 요구도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NCOVA분석과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Post-hoc test로 LSD test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Ⅲ. 주요 결과

CCTV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 이후 원장, 보육교사, 어머니의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별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에 따라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의 적절성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원장과 교사의 경우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이 찬반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경우 압도적으로 CCTV 설치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CCTV 설치 의무화가 적절한 이유로 문제 상황을 식별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체로 인식하지만, 원장과 보육교사는 교사가 보호받는 느낌 때문이라고 두 번째로 높게 응답한 반면, 어머니의 경우 학부모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의 효과성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제도 시행 전과 후로 나누어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세 집단 모두 문제 상황을 식별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가장 큰 효

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어머니가 원장과 보육교사에 비해 높게 효과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영유아의 안전, 교사의 전문성 향상, 보육시설의 홍보적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관해 원장과 교사의 응답은 설치 전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 CCTV 설치가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감 증진에 대한 효과는 원장보다 교사와 어머니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수혜자에 대한 연구대상별 인식은 학부모, 영유아, 원장, 교사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원장과 교사의 경우 수혜자를 학부모로 인식하는 반면, 어머니의 경우 학부모와 영유아를 수혜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연구대상별 인식은 교사, 영유아, 원장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 집단 모두 사생활 침해의 피해자를 교사로 인식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원장은 원장이, 교사는 영유아를 피해자로 인식하였다.

CCTV가 설치되어야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원장과 교사의 경우 실내·외 놀이터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어머니의 경우 보육실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CCTV가 설치되지 않아야 하는 장소에 대해 원장과 교사는 보육실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어머니의 경우 급식실(식당)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CCTV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에 대한 요구를 살펴본 결과, 전체 요구도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서 원장과 교사보다 어머니의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감시 도구가 아닌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도구로만 활용한다’가 가장 높게, ‘오해의 소지 예방을 위한 음성 녹화기능을 추가한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IV. 결론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제도 시행은 적절하며, 시행 전과 비교하여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수혜자를 학부모로, 피해자를 교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원장과 보육교사는 비슷한 인식을 보여, 어머니와는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는 CCTV 설치에 대해 모든 문항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교사와 원장의 경우 CCTV 설치에 대한 인식이 찬반으로 나뉘었고, CCTV 설치가 특히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감 향상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학부모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설치 후에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효과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해서도 원장과 보육교사, 어머니 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원장과 교사는 실내·외 놀이터에 설치하고 보육실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어머니는 보육실에 설치해야 하며 급식실에는 설치하지 않아

도 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CCTV를 감시도구가 아닌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며, 오해 소지예방을 위한 음성녹화 기능을 추가하고, 영유아 관찰 및 분석에 활용하며, 영유아의 개별 지도 방안 수립 및 교사의 자기 장학에 활용하기를 바라는 요구가 보통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활용에 대한 요구도 역시 어머니가 원장 혹은 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CCTV 운용이 어머니에게는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원장과 교사가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 내에서의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이며 CCTV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CCTV 설치가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어린이집 시설의 일부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감을 비롯한 만족감 충족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만족감도 함께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원장과 보육교사, 어머니 간의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누리과정 정책 수요에 대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온라인 뉴스와 기사 댓글을 중심으로

박 창 현¹⁾

I.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발맞추어 미래형 교육과정과 창의·인성을 고루 갖춘 융합형 인재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의 측면에서 창의성과 다양성이 강조되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국가수준의 유아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도 시대적 흐름과 현장의 요구들을 반영하여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누리과정 정책을 통해 0-5세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조하였으며, 영유아의 평등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 동등한 학습 출발선을 보장하는 무상보육(교육)제도를 시행하고자 하였다(이진화, 박창현, 윤지연, 2015). 연구의 측면에서도 누리과정 정책이 시행된 지 6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누리과정 정책에서 강조했던 목표들을 중심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해왔다(이윤진, 김지현, 이민경, 2016; 이진화 외, 2015). 그러나 향후 누리과정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지형도를 그려보는 일은 정책 개발의 기초가 되며, 추후 방향을 모색해보는데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론에 나타난 누리과정에 대한 주요 논점을 파악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온라인 뉴스와 기사의 댓글을 추출하여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하여 미디어상에 나타난 네티즌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누리과정 정책 수요를 면밀하고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하여 미디어상에 나타난 네티즌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누리과정 정책의 수요와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뉴스 기사에 나타난 누리과정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은 어떠한가?

둘째, 온라인 뉴스 기사와 댓글에 제시된 누리과정에 대한 네티즌의 인식은 어떠한가?

1)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지원연구팀 부연구위원

Ⅱ. 연구방법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누리과정 관련 온라인 뉴스와 기사 댓글을 추출하였다. 데이터 구성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관이 자체 개발한 Crawler를 통해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네이버 뉴스 검색엔진²⁾에서 검색어로 ‘누리과정’, ‘유아교육’, ‘보육’, ‘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으로 검색된 전체 수집 기사는 총 58,441개였으며, 삭제기사는 40,789개였다. 삭제 키워드는 홍보성 기사와 키워드에 의해 자동 수집된 뉴스들 중에서 신문사 이름이나, 실명이 거론된 인명, ‘별누리교실’ 등과 같이 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키워드는 삭제하였다. 유효기사의 수는 17,651건으로 유효기사의 비율은 전체의 30.2%였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 연도별 동향 추이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주요 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뉴스 기사에 나타난 누리과정에 대한 논점은 첫째, 여론에서 누리과정 정책은 0-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으로 인식되었으며, 둘째, 누리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정책의 측면에서는 거의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셋째,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는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추이를 분석한 결과, 첫째,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 영유아의 기관이용률이 급격히 높아졌고,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0-2세 가정양육정책으로의 전환과 저출산 정책에 대한 재논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누리과정 5시간 운영, 누리과정에 양성평등 내용 포함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셋째, 누리과정 정책에서 보육교사와 기관의 질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았으며, 아동학대와 어린이집 비리, 유치원에서의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 CCTV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

2) 네이버 검색엔진은 타 검색엔진에 비해 해당기간동안 평균 점유비율이 82.63%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표적인 포털 검색엔진으로 선정하였음. 인터넷트렌드(<http://www.internettrend.co.kr>)에서 2013년 5월 1일부터 2016년 5월 26일까지 검색엔진 점유비율을 검색한 결과 네이버 82.63%, 다음 13.58%, 구글 1.85%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표 1> 워드 클라우드 검색 빈도 분석 결과 (2013년 1월-2016년 6월)



순위	화제어	빈도
1	누리과정	4515
2	예산	3528
3	누리과정예산	1757
4	정부	1567
5	편성하다	1541
6	지원	1429
7	보육교사	1222
8	교육청	1104
9	편성	1040
10	서울	990
11	강조하다	963
12	새누리당	939
13	교육	932
14	교육감	926
15	발표하다	887
16	교육부	841
17	도교육청	781
18	유아	700
19	실시하다	678
20	프로그램	629

주: 검색빈도는 20순위까지만 제시

IV. 결론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론에 나타난 누리과정 정책은 누리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정책의 측면에서는 거의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국민들이 누리과정을 모든 3-5세에게 평등한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유아기 표준으로 인식되도록 홍보하고 이해시키는 작업과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므로, 정책입안자와 행정가,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누리과정 정책이 애초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 목표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들은 아동학대와 CCTV 문제, 기관의 비리를 누리과정과 연계지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현장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투명하고 안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유아교육기관 조직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정 혜 영¹⁾ · 김 현 수²⁾

I. 연구의 필요성

유아교육기관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로, 유아교사와 원장을 비롯한 교원들은 조직체계 안에서 조직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조직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며 교직생활을 영위한다(이순자, 2008). 유아교육기관을 하나의 유기체적인 사회적 조직체로 보는 이러한 관점은 조직의 질적 향상을 조직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유아교육기관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아교육기관 조직의 여러 특성들에 주목하였으며, 유아교육기관의 조직문화(김영옥, 2003; 이효림, 정정희, 2015), 원장의 리더십(서현, 송선화, 2010; 송영호, 2012),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및 직무 몰입(길현주, 2016; 박영신, 2012) 등을 주요 개념으로 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물들은 유아교육기관 조직의 주요 특성들 간의 관계를 알아냄으로써,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하고, 결과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물들이 양적으로 팽창되어 있고 그 주제도 다양하여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연구동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관련 논문들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키워드는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농축하여 선택하기 때문에(유소영, 김용학, 2013), 다양한 연구 논문을 분석할 수 있는 용이한 분류 단위이다(권미경, 2014).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논문에서 추출한 키워드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문헌 자체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연구동향을 분석하는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아내고 주요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 분야의 전반적인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여 유아교육기관 조직 관련 연구의 전반적인 특징, 주제 현황과 주제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유아교육기관 조직과 관련하여 향후 진행될 연구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함으로써 유아교육기관 조직의 효과성을

1) 동의대학교 보육·가정상담학과 조교수

2) 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높이는 방안을 탐색하고, 나아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유아교육기관 조직에 대한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Ⅱ .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문헌을 검색하는 과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연구대상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국내 학술지 및 게재 논문에 대한 각종 학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한국학술지인용색인(www.kci.go.kr)을 통해, ‘조직, 유아교육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유치원원장, 어린이집원장, 유아교사, 영아교사, 원감’ 등을 조합하여 학술지를 검색하였으며, 출판연도는 따로 제한하지 않았다.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 제목검색을 통해 발견된 문헌은 총 326편이었으며, 이 중에서 중복된 문헌을 제거한 후 1차 선정된 문헌은 232편이었다. 둘째, 초록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유아교육기관 조직에 관련하지 않은 내용인 경우, 학술지 전문이 없는 경우, 전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가 불충분한 문헌은 제외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문헌은 <표 1>과 같이 총 214편이었다.

<표 1> 분석 대상 문헌의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N (%)
등재	등재지	180 (84.1)
	등재후보	32 (15.0)
	기타	2 (0.9)
발행 연도	2000년 이전	1 (0.5)
	2001-2005	15 (7.0)
	2006-2010	53 (24.8)
	2011-2015	111 (51.8)
	2016-2017	34 (15.9)
주제 분야	교육학	88 (41.1)
	유아교육	24 (11.2)
	사회복지	22 (10.3)
	생활과학	17 (7.9)
	사회과학교육	13 (6.1)
	아동보육	12 (5.6)
	영유아복지	9 (4.2)
	기타	29 (13.6)
계		214 (100.0)

〈표1〉과 같이, 분석대상 문헌 중 등재지는 180편, 등재후보지 32편으로 나타났다. 미등재지라고 하더라도, 이는 KCI에서 제공되는 학술지이며 본문을 살펴본 결과 내용이 충실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포함시켰다.

2. 자료분석

정제과정을 통해 추출된 키워드들은 UCINET6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이수상, 2013). 첫째, 네트워크의 전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드의 수, 평균연결정도, 밀도, 지름, 평균 경로거리, 컴포넌트의 수 등과 같은 구조적 속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노드들 간의 응집도를 기반으로 하는 하위집단 분석 중 k-core방법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코어(core)는 일정한 수의 연결정도를 가지는 노드들의 집단으로, k값은 노드집단 내 노드들의 연결정도 크기를 의미한다(장임숙, 장덕현, 이수상, 2011). 셋째, 네트워크 내에서 개별 노드의 영향력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분석한 네트워크는 NetDraw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화하였다.

Ⅲ.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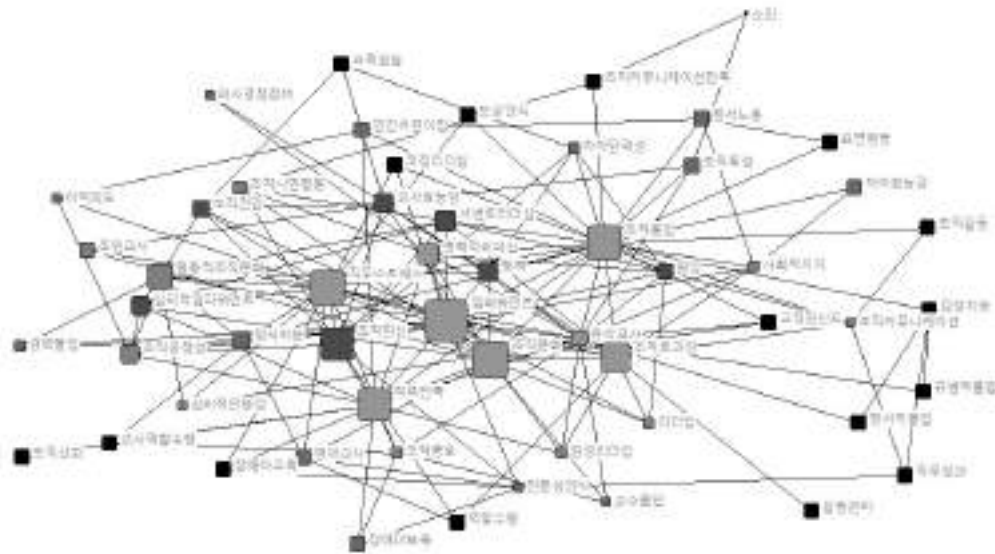
1. 유아교육기관 조직에 대한 연구물 내용분석

유아교육기관 조직에 대한 연구물의 키워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출현빈도 5회 이상 상위 30개 개념이 추출되었다. 우선 ‘조직몰입(63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는 ‘직무만족(51회), 조직문화(33회), 임파워먼트(31회), 조직효과성(28회)’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출현빈도 상위개념 중에서 기관장의 역량과 관련하여 ‘변혁적리더십(16회), 서번트리더십(10회), 감성리더십(5회)’ 등이 나타났으며, 조직구성원인 교사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직무스트레스(24회), 소진(7회), 행복(7회), 정서지능(6회), 심리적안녕감(5회)’ 등이 나타났다.

2. 유아교육기관 조직에 대한 연구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첫째, 유아교육기관 조직 관련 연구물 키워드에 대한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을 살펴본 결과, 키워드는 총 229개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네트워크 밀도는 0.009과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하위 네트워크를 뜻하는 컴포넌트의 수는 191개, 평균 경로거리의 값은 3.174이며, 지름은 8로 나타났다.

둘째, 키워드 간의 응집도를 기반으로 하는 하위집단 분석 중 k-core방법을 사용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연결정도가 3이상인 노드집단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그림 1) k-core분석을 통한 연결정도가 3이상인 키워드 네트워크

셋째, 키워드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개별 키워드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연결중심성은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문화, 조직효과성, 임파워먼트’, 근접중심성은 ‘조직몰입, 직무만족, 임파워먼트, 조직문화, 직무스트레스’, 매개중심성은 ‘조직몰입, 직무만족, 임파워먼트, 직무스트레스, 유아교사’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 키워드 중심성

순 위	개념	연결 중심성	개념	근접 중심성	개념	매개 중심성
1	조직몰입	0,016	조직몰입	0,227	조직몰입	8,004
2	직무만족	0,014	직무만족	0,212	직무만족	3,482
3	조직문화	0,008	임파워먼트	0,196	임파워먼트	3,186
4	조직효과성	0,007	조직문화	0,192	직무스트레스	2,239
5	임파워먼트	0,006	직무스트레스	0,189	유아교사	1,724
6	조직혁신	0,006	조직혁신	0,185	조직문화	1,707
7	직무스트레스	0,005	조직효과성	0,185	변혁적리더십	1,548
8	교사효능감	0,005	변혁적리더십	0,178	조직건강	1,444
9	이직의도	0,004	교사효능감	0,177	조직효과성	1,140
10	조직시민행동	0,004	조직시민행동	0,170	조직혁신	1,055

IV. 결론

유아교육기관 조직에 대한 연구물들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조직몰입이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였으며 조직 구성원인 기관장과 관련해서는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교사와 관련해서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내용이 빈번하게 출현하였다. 또한 유아교육기관 조직에 대한 연구물의 키워드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한 결과,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및 매개중심성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육기관 조직에 대한 연구에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하며 다른 중요 개념들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핵심 키워드임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유아교육기관 조직과 관련한 핵심적인 연구주제가 무엇인지, 전반적인 특징이 어떠한지를 논의하였다. 이는 향후 유아교육기관 조직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장학을 위한 장학컨설팅에 관한 사례 연구

김 대 옥¹⁾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학 컨설팅은 기존의 장학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보다 현장 중심적이며 교사중심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교사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별 교사가 직면한 문제상황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한다(김초운, 2013). 장학 컨설팅은 더 좋은 수업을 위해 컨설턴트와 컨설턴티가 수업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 정보를 공유하고 교수학습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상화 협력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다(천호성, 2008).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개발된 수업 컨설팅의 과정이나 절차, 방법들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으나(안미정, 2013),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개개인에게 꼭 들어맞는 장학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유아교육기관의 물리적 환경은 유아의 발달과 관련이 있으며(장상옥, 2015), 유아교육기관의 교실환경은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에 끊임없는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질 높은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개선시키면 그만큼 더 질 높은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교사가 필요로 하는 영역에 대한 맞춤형 장학 컨설팅을 실시한다면, 교사의 장학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고 수용하는 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환경장학을 통해 교실 내 벽면활용과 흥미영역 중 역할영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이에 맞는 컨설팅 내용 범주를 구성하고 장학의 단계를 고찰하고, 장학 컨설팅 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교사에게 적합한 장학 컨설팅 모형을 제공하게 되어 의의를 가진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장학 과정에서 교사와 컨설턴트가 각기 직면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연구문제 2.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장학을 위한 장학의 내용 범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장학을 위한 수행단계와 장학모형은 어떠한가?

1) 경상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Ⅱ. 연구내용 및 방법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장학을 위한 장학컨설팅의 실행과정을 살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방법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장학컨설팅에 대한 참여 관찰과 면담을 위주로 수행되는 질적인 접근은 장학컨설팅 활동의 과정을 구체적이며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자료수집방법은 면담과 참여관찰, 교사의 반성적 저널이며, 각각적인 자료를 삼각검증의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면담은 장학컨설팅이 수행된 교사들과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와 교사간 면담을 수행할 뿐 아니라 환경장학을 실시하기 위해 장학협의회를 구성하여 장학협의회에 속한 장학위원 3인간 활발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역시 개별면담과 집단면담이 병행되어 실시되었다. 면담을 보완하고자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참여관찰은 연구자를 포함한 장학위원 3인이 지속적으로 교실환경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으며, 장학위원과 교사 간에 의사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실시되었다. 교사들이 장학과 관련하여 작성한 환경장학에 대한 반성적 저널도 수집된 자료 중의 일부이다.

장학은 2015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7개월간 실시되었다. 1차 환경장학의 내용은 5월과 6월 2달동안 구성하였으며, 1회차 장학은 7월에 실시하고, 2회차 장학은 9월, 마지막 3회차 장학은 11월에 실시하였다. 2달의 간격을 두고 교사가 장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향후 실시할 장학의 내용구성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여 교사에게 적합한 장학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연구문제에 따라 실시하였다. 먼저, 환경장학을 실시하는 동안 교사와 컨설턴트 간의 갈등에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환경장학의 내용 범주를 구성하였다. 교사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계속하여 수정하여 완성하였다. 환경장학을 위한 장학의 수행단계를 구성하고 교실 내 벽면활용과 역할영역 활용을 위한 환경장학 모형을 개발하였다.

Ⅲ. 연구결과

유아교육기관의 교실 내 벽면활용과 역할영역 활용을 위한 환경장학 컨설팅에 관한 사례를 고찰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사와 컨설턴트의 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정

갈등의 원인은 장학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교사의 나태함, 개선의 의지 없음, 무력감, 장학위

원에 대한 반감, 교사 본인의 스타일의 고착화 등 6가지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효율적인 장학을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장학위원 3인간의 면담과 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나타났다. 주로 갈등의 원인을 소거하며, 생각을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갈등의 해결은 개별 면담으로도 수행하였고, 2회차와 3회차 장학에서 교사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2.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장학을 위한 장학의 내용 범주

장학의 내용 범주는 1회차와 2회차, 3회차로 구분되어 구성되었다.

	1회차	2회차	3회차
환경장학의 내용범주	타기관 교실내 벽면활용/역할놀이영역 활용의 사례 교사들이 생각하는 교실환경 개선방향	개선된 교실환경에 대한 분석 장학위원의 구체적인 교실환경 구성 방향 제시	본 기관과 교사에게 적합한 환경구성에 대한 적용점 제시 다른 영역의 개선 가능성 탐색

3. 유아교육기관의 장학을 위해 개발된 환경 장학 모형

유아교육기관 현장 요구조사	분석 및 파악	- 환경장학에 대한 사전 교사의 인지 정도 - 환경장학을 실시하였을 때 만나게 될 잠재적인 위험요소 - 교사들의 장학 수용 의지 확인 - 환경 장학 컨설팅이 필요한 환경 유형 - 환경장학 컨설턴트의 자격 - 환경장학 컨설턴트의 활동 의지
환경장학 내용범주 개발		- 컨설팅 영역 설정: 교실내 벽면, 역할놀이 영역 - 장학 세부내용 범주 개발: 회차별 내용, 회기별 자료분석 - 장학분석틀 개발: 장학의 실천정도 확인 및 지속적인 피드백을 위한 틀
환경장학 컨설팅 실시	회기별 실시	- 개별 교사별 편차를 반영한 분석 및 개선 - 장학분석틀에 의한 장학 수행정도 분석
환경장학에 대한 장학위원 협의 및 확정		- 장학위원들의 협의 의견하여 수정 후 반영

IV. 결론

먼저,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장학에서 교사와 컨설턴트가 직면하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후속 유아교육기관에서 수행될 장학 컨설팅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장학을 위한 장학의 내용 범주를 회차별로 달리 확인하여 장학의 단계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장학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 7 분과 논문 발표

놀이 및 상담



- 내·외부 지원 및 협의를 통한 유아 바깥놀이 개선 259
나귀옥(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경희(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김 화(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 충동적 기질로 인해 ADHD 행동을 보이는 유아에 관한 놀이치료 사례 263
고문숙(전, 대구미래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산만하고 충동적인 만 5세 유아의 놀이치료 사례 271
문남희(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주심리치료사)
- 불안정 애착으로 분리 불안을 보이는 만 5세 여아의 놀이치료 사례 275
하영례(대구사이버대학교 놀이치료학과 외래교수)

내·외부 지원 및 협의를 통한 유아 바깥놀이 개선

나 귀 옥¹⁾ · 김 경 희²⁾ · 김 화³⁾

I.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바깥놀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지침서인 3-5세 누리과정 해설서에는 하루 한 시간 이상 바깥놀이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현장의 교원들도 바깥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바깥놀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로서는 나쁜 날씨, 학부모의 학습에 대한 요구와 안전에 대한 우려, 교육과정 실행으로 인한 시간 부족 등을 들 수 있다(김은희, 유준호, 2012; 최목화, 변혜령, 2010; 한보라, 권미량, 2013). 유아들이 신체운동 뿐만 아니라 구성놀이, 문제해결 활동, 상상 및 역할놀이 등 질 높은 활동을 촉진하고 싶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바깥놀이를 지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교원들이 참여적 및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실행연구는 현장의 교육환경 및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그러나 교원들은 자신의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를 위한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에 대하여 믿지 못한다(Huberman, 1996; Labaree, 2003). 따라서 이렇게 바깥놀이가 긴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활성화되어야 하는 변화의 시점에 교육현장의 맥락 내에서 대학의 연구자 혹은 다른 전문가가 함께 하는 지원과 협의를 통한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문제: 내·외부 전문가 지원과 협의를 통하여 유아교육기관의 바깥놀이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

1)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3)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유아들의 바깥놀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 참여자는 G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취원한 유아(90명), 교원(원감 1인, 교사 5인) 및 연구자(3인)이다. 본 연구자들과 교원들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바깥놀이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계획하고, 참여하여 이를 실행해 나갔다(Henson, 1996).

2. 연구절차

유아들의 바깥놀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연구자와 교원들이 함께 하는 계획하기, 실행하기, 반성하고 점검하기의 순환모형(Elliot, 1991; Kemmis & McTaggart, 1982)에 의거하여 이루어졌고, 내·외부 전문가의 지원과 협의를 통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의 실행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33회(22일 동안) 진행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자 및 원감에 의한 유아 바깥놀이 관찰, 내·외부 지원 및 협의 시 참여자간 토론, 연구자에 의한 원감 및 교사 면담 등의 자료와 연간 및 주간 계획서 등을 수집하였다. 참여자간 토론, 16회, 관찰 16회, 원감 및 교사와의 형식적 면담 8회, 비형식적 면담을 7회 실시하였다. 작성된 관찰일지, 원감 및 교사와의 면담 전사본, 내·외부 지원 및 협의 시 참여자간 토론 전사본을 분석하여 최종 8개의 상위 범주를 추출하였다.

Ⅲ. 주요 결과

1. 신체활동을 넘어서 다양한 놀이

바깥놀이가 주로 대근육 운동으로서 종합놀이터에서 미끄럼을 타거나 오르내리기, 잡기놀이 및 모래놀이터에서 흙을 파고 노는 양상이었으나 이 프로젝트를 시행해 가면서 다양한 놀이가 나타났다. 즉, 바깥놀이터에서 신체활동을 넘어서서 파스타 및 모래를 활용한 감각놀이, 신문지, 생활용품, 음감 벨 및 타악기를 활용한 음악 활동, 종이 및 보드블록에 그리기, 꾸미기와 만들기 등의 미술활동, 자연물을 이용한 동극과 미끄럼틀에서의 극놀이, 블록 놀이 등의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졌다.

2. 실내·외 연계 및 이전놀이와 연속되는 놀이

실내에서 하던 교육과정 활동과 연계된 바깥놀이가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주제가 ‘나의 몸과 마음’일 때에는 모래놀이터에서 손과 발 찍기, ‘우리 동네’일 때는 주스 가게 놀이, ‘공룡’일 경우에는 공룡 모형을 이용한 놀이나 만들기를 하였다. 또한 몇몇 바깥놀이는 이전의 놀이와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유아들이 교실에서 만든 배를 물에 직접 띄워보기 위하여 시작하게 된 ‘바다 만들기’ 활동과 ‘곤충 집 만들어 주기’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3. 문제해결의 기회가 있는 통합적 놀이

짧고 단편적인 활동 위주의 바깥놀이가 통합적인 놀이로 발전되었고, 이러한 놀이에는 문제해결의 기회가 많이 포함되었으며, 유아 주도적 및 창의적으로 진행되었다. 즉, 교구가 배달될 때 사용된 두꺼운 종이박스들로 집 만들기를 하였는데, 몸체뿐만 아니라 지붕, 소파, 침대, 비밀번호 잠금장치가 있는 대문, 망원경 등을 포함하는 꽤 복잡한 형태의 집을 만들고, 들어가서 놀이하였으며, 이 놀이집이 비가 맞지 않도록 미끄럼틀 아래로 옮기고, 거기에 적합하게 집을 수선하고 정교화하였다.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이 집만들기 활동을 실행해 나갔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이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였다.

4. 연령 간 교류를 촉진하는 놀이

바깥놀이가 활성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러 학급이 동시에 바깥놀이를 하게 되었다. 즉, 3-4 세, 4-5 세 혹은 3-5 세 반 유아들이 함께 놀거나, 모든 유아가 한꺼번에 바깥놀이터에서 놀이하였다. 이렇게 혼합 연령으로 놀이함으로써 인성과 사회성을 촉진하게 되었다. 높은 연령의 유아가 낮은 연령의 유아의 활동을 도와주면서 배려와 양보를 배우고, 낮은 연령의 유아는 높은 연령의 유아들을 모델링하여 여러 가지 수준 높은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면서 많은 상호작용과 협력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5. 경계선을 확장하는 위험부담 놀이

프로젝트의 초반까지는 이 유치원에서도 위험성이 있는 놀이는 대체로 금지되었으나 중반부터 긴 줄을 복합놀이기구에 적용하여 놀기, 우유 상자들을 높이 쌓고 오르내리거나 그로부터 뛰어 내리기, 나선형 미끄럼틀에서 큰 고무통 혹은 종이박스를 타고 내려오기 등 위험성이 있는 놀이를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후반기에는 유아들이 나무에도 올라가고, 거꾸로 매달리는 놀이도 허용되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바깥놀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들의 지원과 협의를 통한 실행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유아교육 현장의 바깥놀이는 설비들을 연결할 수 있고, 변화, 조작, 결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자원과 재료들을 제공하고, 서로 다른 연령의 유아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유아들에게 위험성이 있는 놀이를 허용함으로써 문제해결이 있는 통합적 놀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 전문가들의 지원, 현장 교원들과 유아들의 능동적인 참여, 구성원들의 반성과 협의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한 명의 교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감을 포함하는 유치원 전체 차원에서 참여가 진정한 개선을 이루었다고 본다.

충동적 기질로 인해 ADHD 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놀이치료사례

고 문 숙¹⁾

I. 서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독자성을 가진다. 얼굴, 키, 몸무게 등 타인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개인마다 독특하며 생후 초기부터 개인차를 보인다. 또한 일정한 성장기간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사람을 둘러싼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여 그 사람만의 독특한 행동방식이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독특하고 구별되는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개인차를 ‘기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왔다.

기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최근 20년간으로, 선구적인 역할은 Tomas와 Chess(1977)의 뉴욕종단연구(New York Longitudinal Study : NYLS)에 의해서였다. 기질이 선천적 차이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들은 뉴욕종단연구를 통해 나타나는 기질적인 성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Plomin과 Daniels(1984)는 상호작용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기질과 환경간의 조화의 적절성을 연구하였다. 부적응 문제를 초래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Patterson(1980)은 통제하기 어려운 아동은 부모로 하여금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가져오게 하고 이러한 강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을 더욱 거부적이고 공격적으로 만들어 문제행동으로 진전하게 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유아가 유치원 교실에서 보이는 부적응적 문제행동을 놀이치료를 기반으로 상담한 사례연구를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내담자의 인적사항

1) 전, 대구미래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내담아는 만5세 남아로 부는 대학원졸, 모는 대학을 졸업했으며 종교는 없다. 아동은 외동이며 제왕절개로 분만. 출생 시 큰 문제는 없었다. 모는 자녀가 보이는 산만한 행동을 문제시 하지 않으며 이 연령 남아들이 보이는 특성으로 여기며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배변활동은 남아이어서 옷을 벗긴 상태에서 자유롭게 배변을 하도록 했다. 임신에 대한 반응은 부모 모두 만족했다고 한다.

아동의 식습관은 3세 이전에는 편식이 없었으나 3세 이후부터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지 않아 식사시간이 오래 걸렸다. 배변활동은 늦은 4세에 시작했으며 대변가리기 방법은 하의를 벗기고 쉬어나 응가가 마려우면 변기에 가서 하자고 애기했다. 아이가 거부할 경우는 그냥 두었다. 수면 활동은 자다가 깨서 울었다가 안아서 달래면 다시 잠이 들었다. 현재 병력은 없으며 건강하다. 걷기는 25개월로 다소 늦으며 손가락질도 36개월에 시작했다. 인지상태는 보통으로 모는 판단하고 있으며 눈맞춤을 할 줄 알며 낮가림도 보통이라고 한다. 좋아하는 놀이는 도로놀이이며 자동차를 좋아한다. 고집이 세고 말대꾸가 심하나 부모에게 애교가 많고 어리광을 잘 부리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울고 때를 쓴다.

아동은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편이며 부모와의 관계는 무난한 편이다.

부 ⇨ 아동과의 관계(특히 자녀양육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모 ⇨ 아동과의 관계(좋지도 나쁘지도 않으나 놀이에서 모성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자주 표출한다)

영아기는 자주 보채고 고집이 세었으며 유아기에도 고집이 세고 장난감을 사 달라고 보채면 끝까지 고집한다. 고집을 부릴 경우 아무것도 사주는 않는 방법으로 대했으며 자주 자녀와 힘겨루기를 한다. 아동은 특히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 심하게 고집을 부리는 등 기분에 의해 좌우된다. 유치원의 담임은 아동은 교실에서 대집단활동 시 자신이 관심 있는 내용에는 많이 나서다가 관심이 없는 부분이 나오면 산만한 행동을 한다고 보고했다. 교실에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친구들을 휘방하거나 부수는 행동을 한다고 한다.

문제발달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대소변가리기와 걷기, 수저사용 등 신체발달이 느린 편이었으며 문자인식을 못하며 만 5세의 언어능력으로는 매우 느린 편이다. 또래와 어울리기를 즐겨하나 다른 또래의 놀이를 방해하고 특히 대집단 활동시 특히 방해가 심하다
- ② 듣기와 말하기 언어영역이 두드러지게 낮다. 문장완성검사와 그림검사시 건성으로 대하고 답을 한다.
- ③ 자신의 감정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통제못하며 기분에 따라 행동한다.
- ④ 공공규칙은 이해하고 지키기 어려우며 교실에서 또래 친구들의 놀이를 자주 방해한다.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 물어보지 않고 다른 친구들 것을 만지고 담임교사가 놀이감을 정리하자고 하면 다른 친구들 것을 부수면서 정리했다고 하고 ‘아 깜빡했다’고 말한다.

(2)의뢰사유

가정에서는 고집이 세고 말대꾸가 심하며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못하는 등 높은 산만함을 보인다. 교실의 대집단활동 시 자신이 관심있는 내용에는 많이 나서다가 관심이 없는 부분이 나오면 산만하게 행동한다.

(3)치료적 기대

감정조절능력키우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인식할 수 있기. 모의 경우 자녀와의 힘겨루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상호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연구도구

1) 검사도구

(1) 아동 검사도구

PDI 검사

아동용 문장완성 검사

다중지능 검사

(2) 부모 검사도구

어머니 양육태도 검사(MBRI)

2)사전검사

(1) HTP 검사분석결과

대충그림을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인 대답을 한다. 사람그림은 빠르게 줄라맨을 그린다.

(2) 문장완성 검사

그림검사와 비슷하게 질문에 대답하기 매우 귀찮아하며 빨리 끝내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하면서 건성으로 듣는다.

(3) 다중지능검사

공간지능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체, 인간친화, 자연친화는 고르게 나타났으며, 3번째가 논리 수학적 사고, 다음으로 자기성찰과 언어능력 그리고 음악적 능력이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4) 어머니 양육태도 검사(MBRI) 결과

못마땅한 일이 일어날 때 내담모는 자녀를 이해하기보다 자녀가 잘못을 할 때는 쌀쌀하게 대하는 등 자녀로 하여금 거부당한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2). 모의 내향적 태도와 외향적 태도를 비교해 본 결과 외향적 태도를 보였다(+5). 즉 내담모는 자녀에 대해 애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때론 통제적 행동으로 자녀를 대하면서 의존적 모습을 보이는 등 이와같은 양육적 모습은 전형적인 현대 한국 의 30대 어머니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어떤 문제들을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의존형 양육태도를 지니고 있다(-16)

3)놀이치료 과정

(1) 적용된 놀이치료이론

본 사례에 적용된 놀이치료 이론은 절충적 접근으로 발달놀이치료기법, 아동중심 이론, 인지행동접근방법을 적용하였다. 놀이치료사례에 적용되는 놀이이론들은 아동 개인의 특성과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놀이로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본 사례의 아동은 기질적으로 까다로와 구조가 없는 치료과정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비구조적 놀이방법으로 아동을 대하는 방식을 특정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으며 비구조적 자료는 구체적인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는 놀잇감들을 주로 활용하는 발달놀이치료기법을 활용했다. 아동의 양육환경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결과, 특히 부모와의 양육환경과 외부환경에 의하여 애정 욕구, 자율성과 주도성의 박탈 기회로 인해 발생이 되었다고 보고 아동중심이론을 적용하고 치료자는 긍정적 강화를 해주는 역할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역할을 동시에 활용했다. 놀이치료 초기 아동은 통제적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가게 되고 놀이치료 중기에는 치료적 제한 설정을 이해와 수용, 책임 순서로 계획했다. 치료자는 실수를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작은 변화와 노력을 인정하면서 아동이 새로운 활동과 과제에 도전할 수 있는 자기동기화가 촉진되어 긍정적 모습으로 변화되는 인지행동접근을 사용했다.

그 결과 아동의 애정욕구와 자율성과 주도성이 발달되고 아동의 증상적인 행동은 향상이 되며 아동의 기질적인 어려움도 극복되어 보다 더 적응적이 되도록 돕는다.

(2)상담목표와 상담전략

회 기	목 표	주요놀이활동 및 평가	치료자 역할	부모상담(놀이회기)
초기 (1회~5회)	•아동관찰과 정보수집 •아동과 모의 특성 알아보기 •수용적인 놀이환경제공 •치료자와 신뢰관계형성	활동 : 자동차(레미콘, 포크레인등),비행기, 로봇인형, 모래, 찰흙 평가 : 탐색, 눈맞춤은 가끔하나 매우 산만함 놀이특성: 놀이감들을 이것저것 만지작	•반영적 경청 •공감하기를 통해 감정 인식하기, 지지하기 •인지된 감정 즉시 반영하기 •놀이	부모상담1; 가족의특성과 부모와 아동의 특성탐색.

		거리다가 멈춘다 정서 : 불안, 산만, 힘겨루기 놀이주제: 자동차와 비행기추락 등	상대자되어 주기	
중기 (6~10회)	• 애정욕구 충족 • 통제감 가지기 • 감정 인식하기 • 부정적 감정 표출하기	활동 : 비누방울, 모래놀이, 자동차, 풍선놀이 평가 : 칭찬과 인정하기로 자존감회복 놀이특성 : 놀이감구입에 집착 정서 : 퇴행적분노 놀이주제 : 모래를 통한 감정표현	공감 감정인식 제한하기(무 엇이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지 전달)	부모상담2 : 자녀와 상호작용 방법 알아보기 대처와 숙달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모색
후기 (11~14회)	• 감정공유와 표현 • 자아존중감 회복	활동 : 플레이도우 평가 : 안정감, 상호작용 가능, 타인에게 관심가지기 놀이특성 : 모래놀이, 플레이도우 정서 : 안정, 흥분 놀이주제	수용가능한 대안제시하기 놀이확장을 격려하기	• 반복되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이해와 지지 • 모가 지닌 양육관 지지하기 • 양육에 자신감 가지기

Ⅲ. 주요 결과

1. HTP 사전 -사후검사 비교분석

아동의 동적가족화를 살펴보면 사전검사에서는 나무에서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을 그렸다. 이는 외상으로 인한 상실감, 체념, 집중력 결여를 나타낸다. 아동은 가정이나 유치원에서 행동에 대한 지적을 자주 받아오면서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인 것을 나무그림으로 알 수 있다. 아동은 집을 투시화로 그렸으며 이는 취학전 아동에게 흔히 나타나는 그림 형태로 정상적인 표현방법이다. 지붕에 불이 났다고 표현하고 지붕은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내적인 인지과정과 관련되어 있으며 복잡한 내적 상태를 의미한다. 지붕에 형태를 그린 것으로 보아 외부세계와 접촉하는 방식이 공상세계에 몰두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사후 동적가족화 그림에서 나무를 그리라는 요청에 사람의 형태를 그리고 자신을 투사시켜 역동적인 모습으로 표현했다. 나무의 모습이 나무형태라기 보다 지탱하고 있는 버팀목과 같은 그림이다. 집그림의 경우 사전검사에서는 투시화로 집을 그렸으나 사후검사에는 집모양의 형태를 그리고 굴뚝과 창문을 묘사했다. 창문은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세상을 내다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타인이 집안을 들여다 볼 수 있

는 통로로서 환경과의 접촉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 굴뚝은 가족 내의 온정적인 분위기, 가족간의 교류를 의미한다. 굴뚝에서 나오는 한 가닥의 선으로 표현되는 연기는 가정 내의 따뜻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연기가 강한 바람에 의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압력을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한다.

2. 문장완성검사 -사후검사 비교분석

문장완성검사는 내용을 듣고 답하기보다 현실과는 괴리된 상상적 대답이 많았다. 나는 친구가 많으며 친구들과 노는 게 좋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아무 얘기 않는다. 나에게 좋았던 일은-장난감 조정하기. 내가 걱정하는 것은-없다.

등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으나 사후검사시 생각을 하는 편이다.

3. 놀이치료과정

아동은 감정조절이 되지 않을 때는 모래를 움켜잡거나 농기를 반복하면서 자아조절능력을 스스로 키우려 했다. 1~5회기 동안 아동은 손으로 모래를 만지고 움켜쥐면서 집단무의식을 만지는 것 같이 혼돈의 상태를 보였다. 또한 모래를 많이 만짐으로써 더 깊은 무의식에 닿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가 무의식의 공포가 일어나면 비행기와 자동차를 모래에 파묻곤 한다. 6회기에 이르러서는 아동의 감정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고 치료자에게 놀이자가 되어주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5회기 까지를 놀이치료 초기단계로 보았으며 감정을 보인 6회기를 중기로 삼았다.

7회기 이후부터 놀이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으며, 가끔 치료자와 상호작용을 하기도 한다. 9, 10회때는 자신의 기분을 언어로 나타내기도 하나 여전히 모래로 혼돈된 감정을 달래곤 한다. 11회기 때 다음 놀이아동인 6세 여아가 들어와 같이 놀이가 진행되었고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래를 인식하고 함께 놀이를 했다. 11회기에 이르러서야 놀이치료실이 독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놀이치료시간동안 놀이실이 자기의 방인지 알게 되어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안정적인 정서적 교류의 부족으로 혼돈과 산만함이 9회부터는 조금씩 안정이 되찾아갔으며 자동차 이외 다른 놀이감을 가지고도 놀이를 지속한다. 10회기 이후를 놀이치료 말기로 정했다.

치료자는 함께 놀이상대자가 되어주고 안정적인 정서적 교류를 통해 감정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1~4회기 동안 아동의 말과 감정을 반영해주고 아동이 선택한 놀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아동의 욕구를 묘사해주고 재미와 열정적일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5회기 때는 모에게 놀이상황을 전달하고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 상태를 알려주니 상담을 거부하고 놀이치료를 종료할 것을 통보해왔다. 치료자는 아동은 기질적으로 산만한 편이며 배변훈련과 같은 양육환경으로 인해 좌절을 보이는 것이 아동의 부적응행동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모에게 설명해주었다. 모에게 아동의 특성과 증상과의 관

계를 이해시키고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정서적 교류를 위한 양육기술이 필요함을 알려주었다.

IV. 결론

본 연구 사례아동은 유치원 교실에서 부적응 행동이 문제가 되어 놀이치료를 받게 되었다. 아동은 기질적으로 까다로우며 모와 힘겨루기를 해왔다. 모는 유쾌하게 생활을 하며 자신은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모습과는 달리 아동의 잘못을 다룰 때는 쌀쌀하게 대하는 등 아동으로 하여금 거부당한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부모를 어렵게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여기고 통제적으로 아동을 대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는 양육태도는 아동으로 하여금 좌절감을 가지게 만들었다. 아동이 문장완성검사에서 장난감 조정하기가 가장 좋았던 일로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아동은 양육환경에서 느꼈던 좌절감은 자동차를 조절하는 것으로 감정을 달랬다. 모로부터 거부당한 감정은 산만함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기질적 요소가 더해져 ADHD적 행동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닌 기질적인 것과 양육과정에서 모로부터 거부당한 정서가 부적응적 행동으로 이어졌다.

아동은 매회기마다 모래에 장난감을 파묻거나 감정통제가 되지 않으면 모래를 얼굴에 대고 부비는 행동을 했다. 자동차 이외의 것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놀 가지고 놀았거나 친숙한 것에만 관심이 있다. 놀이치료 초기에는 감정통제를 못하고 이것저것 만지기만 하고 몰입을 못하며 주위의 어떤 말에도 감정조절을 못한다. 가령, 장난감을 망가뜨리는 행동에 대해 언급을 하거나 제한을 두면 곧바로 모래영역으로 달려가거나 ‘똥꼬, 똥집’하면서 찌르는 행동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나타낸다. 그러다가 치료자가 ‘OO 또 화났구나’와 같이 아동의 감정을 인식해주면 곧 바로 모래영역으로 달려간다.

내담아가 매회기마다 감정통제가 안될 때 모래영역에 가는 것을 발견했다. 모래상자 앞에서 아동은 자신의 무의식을 대면하고 모래상자속에 대상들을 묻으면서 대상과의 분리에 힘쓰고 혼돈스러운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래가 아동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토대가 되었다. Lowenfeld는 아동의 사상, 감정, 감각, 관념 및 기억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각뿐 아니라 촉각과 같은 감각적 요소를 지닌 기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모래는 아동의 산만함과 부적응적 행동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아동은 모래를 만지면서 스스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역할을 했다. ADHD기질을 지닌 아동에 대한 연구들은 모래는 충동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충동성을 감소시켜주고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과잉행동들을 감소시킬 수 있게 한다고 보고한다.

1~5회기 동안 아동은 손으로 모래를 만지고 움켜쥐면서 집단무의식을 만지는 것 같이 혼돈상태에서 6회기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5회기까지를 놀이

치료 초기단계로 보고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6회기를 중기로 삼았다. 6~9회기를 중기로, 주변사람과 환경에 관심을 가지지게 된 10회기부터 14회기를 놀이치료 말기로 보았다.

아동은 모의 불안정한 정서적 교류와 까다로운 기질로 인해 정서조절이 어려워 사회성 발달이 늦어지게 된 것이며 놀이치료자가 놀이 중간에 놀이를 제안하거나 질문을 하면 좌절감을 느끼고 이것이 회복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14회의 놀이치료를 마치고 집단 활동에 적응력을 보이고 치료자와의 산만함은 줄었으며 놀이에도 집중력을 보였다. 문장완성검사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HTP사전 -사후검사는 많은 변화를 보였다.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산만하고 충동적인 만 5세 유아의 놀이치료 사례

문 남 희¹⁾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애착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아동학자 볼비에 의하면 애착은 인생 초기에 가까운 사람에게 강한 애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애착 형성에서는 유아와 부모 등 양육자 간의 초기 관계의 질이 가장 중요하며, 양육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한 영유아는 애착을 발판으로 세상을 능동적으로 탐색하며 애착이 형성된 대상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애착이 형성된 대상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찾으려는 욕구를 갖게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형성된 애착은 강한 연결강도와 정서적 유대의 지속으로 지속적인 심리적 연계로 타인에게 근접을 추구하고 유지하려는 행동이다.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한 영유아들은 다른 사람과 만족스럽고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반해, 불안정 애착관계를 형성한 영유아들은 타인을 불신하는 등 적절한 사회성을 배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영유아기에 이런 애착형성의 초기 경험은 영유아가 앞으로의 삶에서 겪게 될 전 생애에 걸쳐서 대인관계와 사회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애착을 보이는 남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문제 행동을 기반으로 놀이 치료를 통하여 문제 행동 감소와 안정애착의 대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변화 했을때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논하여 보고자 한다.

1. 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의 변화는 어떠한가?
2. 놀이치료 과정 중 부모 상담을 통하여 나타난 양육태도의 변화는 어떠한가?

1)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주심리치료사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1) 내담아 인적사항

-이름: ○스즈 -2011년 01 월 11 일 (만 5 년 9개 월) -의뢰시기: 2016년 10월

2) 가족 관계 및 문제력

-내담 부 (75. 06 .24) 회사원 -내담모 (80 .03 .10) 회사원-내담아 여동생 (13.08. 21)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

모- 직장일과 양육을 혼자서 고스란히 맡았던 모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었으며,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표현이 빈약함. 가끔씩 아동의 고집을 가끔씩 수용해 주는데, 그럴 때 아동은 뭐든 사달라고 고집을 부림. 아동은 모와 더 밀착 관계를 보임.

부- 가정 내에서 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며, 특히 아동과 동생의 차별이 심하여 특히 아동이 동생을 때릴때는 매를 들면서 심하게 혼을냄. 아동은 부에게 신체화로 놀아 줄 것을 늘 요구하지만 수용해주지 않음. 늘 동생과 편애를 하는 부에게 아동은 욕구 불만이 많음.

(아동의 문제력)

만 5세인 아동은 충동성이 강하여 잘 기다리지 못하고, 산만하여 유치원에서의 규칙이 어려우며,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친구들에게 화를 내거나 잘 집적거리고, 자신의 욕구가 수용되지 않을때는 교실에 눕거나, 밖을 나가는 등 자아 통제력이 낮음.

2. 연구 도구

1) 아동 사전검사: K-WPPSI-IV, K-PRC, K-CBCL, ATA, HTP, SMS, SCT-C

아동은 전체 IQ(66)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시공간은 96으로 평균 수준, 작업 기억은 86으로 평균 하 수준, 처리 속도는 81로 평균 하 수준이고 유동추론은 72로 경계선 수준이며, 언어이해는 68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추론 능력이 낮은 수준으로 가정에서도 체계적인 학습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아동에게 정서적 표현과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해주지 형성이 되지 않았음으로 보여줌.. 정서적으로 아동은 불안, 우울과 위축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의 산만하고 자아통제력이 약한 상태로 외부 자극에 대해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산만함과 충동성을 외현화 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 작용에 어려움을 보이며, 가정 내에서 충분한 애정적 상호작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갈등 양상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이다.

2) 모 사전 검사: MMPI, SCT

아동의 모는 자신이 생각하는 규범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다소 경직된 사고를 보이며,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어 아동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음. 또한 배우자에게 애정 결핍을 호소하며, 지금의 생활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무기력함을 보임.

3. 연구방법

1)치료계획의 목표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7회기 진행 중이며, 각 회기마다 아동중심 놀이치료 40분, 부모 상담 20분. 총 60분으로 각 회기를 진행하고 있다. 아동의 놀이 치료는 아동중심 놀이 치료를 통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이 선택한 놀이를 수용 받고, 이해받는 경험 속에서 애정욕구를 충족하여, 신뢰감을 쌓도록 하며, 선택한 놀이를 확장해 나가면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통제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동의 부-모는 가족과 아동의 개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아동과 함께 하는 놀이의 중요성을 알고 역할을 실천하며, 부모는.. 산만//충동양육기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ACT-충동), 아동이 통제했을 때 강화를 주고, 아동에게 감정인식과 표현을 증가 시킬 수 있도록 한다.

Ⅲ. 주요 결과

1. 놀이 치료를 통한 유아의 변화

1)초기 단계 (1~4회기)

(놀이특성) 놀잇감을 탐색을 하면서도 쉽게 놀잇감을 정하지 못하는 강박을 보였으며, 공격주체의 놀이를 하지만 확장이 힘들. 뭐든 치료사에게 의존하는 형태를 보여서

치료자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도록 반영 하면서 기다려 주었으며, 아동의 욕구를 수용해 나가면서, 아동의 감정과 행동의 표현들을 치료자는 반영해줌.

2)중기 1단계 (5회기~10회기)

평가 : (놀이특성) 놀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놀 수 있으며, 치료자와 약속한 규칙에 대하여 지키려고 노력함. 놀이의 종류가 줄고 놀이시간이 길어지고 점차 놀이에 몰입을 해 나감. 놀이 과정에서 치료자의 제한을 수용하려고 노력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짐. 놀이 중에 긍정, 부정 정서 공유됨. 시작과 마침, 중얼거림, 기질적 산만과 충동성으로 어려움을 보이지만 제한을 수용하기 시작함. **(정서)** 흥분, 즐거움, 놀림, 분노

2) 중기 2단계 (10회기~~16회기)

평가 : (놀이특성)

상대방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놀 수 있으며, 전쟁이나, 싸움의 주제가 아닌, 역할 놀이 위주로 확장을 하면서 놀이를 하고, 상대방에게 조울을 할 수 있으며, 규칙에 대하여 수용이 가능하고, 스스로 규칙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주도적 계획의 확장을 보임.

(정서) 화남, 흥분, 분노, 즐거움, 뿌듯함, 기대감, 즐거움, 뿌듯함, 양보

IV. 결론

초기 동안 아동은 주도적으로 놀잇감을 선택하여 놀지 못하면서 치료사에게 의존을 많이 하였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남의 뜻을 하는 혼란한 내재화를 보여줌 아동이 가정 내에서 정서적으로 지지감이나 인정이 많이 빈약해 보였고, 또한 놀이 할때 치료자의 반영에도 무반응 또는 자기 필요한 말과 관심 몰입만 하는 산만하고 충동적인 느낌을 주었음. **중기 동안** 주도적인 놀이가 가능해 졌으며, 수용적인 환경에서 놀이가 치료자와 관계적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특히 목욕놀이라든지, 역할 놀이 위주로 아동이 놀이를 선택하면서 우호적인 관계적인중심으로 놀이를 진행 하면서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쌓여 갔고, 애정의 욕구가 충족되어 가면서 놀이의 종류가 줄고 놀이시간이 길어지고 점차 놀이에 조금씩 몰입해 나가게 되었음. **모**는 부모의 치료 목표에 동의를 하고, 부모 상담에서 교육 받은 것을 가정 내에서 실천을 잘하고 있지만, 부는 협조가 부족하여 부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앞선다.

불안정 애착으로 분리 불안을 보이는 만5세 여아의 놀이치료 사례

하 영 레¹⁾

I. 서론

본 연구는 최근 맞벌이 증가,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및 조기 교육의 열풍 등으로 조기에 보육시설에 가게 되는 유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모와의 애착형성에 어려움을 보이다가 이것이 부모와의 분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유아 또한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만5세 5개월 여아로 모와의 불안정애착으로 인하여 분리가 되지 않은 유아의 놀이치료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육현장에서 모와 분리불안을 보이는 유아를 이해하고 지도하는 기초자료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유아는 유치원 7세반으로 월 1회정도 부와 만나고 모와 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유아의 주호소는 분리 시 울면서 다른 곳을 혼자서 가지 않으려 하고, 또래와 놀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며, 표현이 너무 없고 말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생이나 오빠언니에게 물건을 빼앗기면 주장을 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를 해 버리는 것이었다.

유아의 기질적 요인을 살펴보면, 유아는 기질상 낮가림이 많고 조금 예민하고 잠자는 것이 힘들어 자주 깨고 먹는 양도 적고 느린 반응을 보이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유아의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유아는 어릴 때부터 까다로워 양육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결혼부터 부의 부재, 부와의 갈등, 2세까지 유아의 병원치료로 만성적인 우울을 가진 모가 유아의 상태를 민감하게 지각하여 반응적, 일관적으로 교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런 모에게 유아는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편안한 교류가 어려웠을 것이고 안정적인

1) 대구사이버대학교 놀이치료학과 외래교수

로 애착을 형성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모가 2세 후반부터 학습, 책 읽기와 학습 프로그램으로 공부시키는 환경 속에 유아는 그 자체로서의 온전한 수용을 받지 못하고 피상적인 양육과 학습을 강요받으며 모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모의 지배적인 양육으로 인해 자율성과 주도성을 발달할 기회가 없었다. 이로 인해 유아는 모와 분리가 안 되고 어느 환경에서든 쉽게 불안해지고 새롭거나 분명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학습적인 면과 또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소극적이고 위축된 면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유아의 검사결과에서는 지적 능력은 IQ 111의 평균 상 수준으로 언어성 IQ 115, 동작성 IQ 104로 나타났다. 언어성 지능에 비해 동작성 지능이 다소 저조하여 친숙하지 않은 문제 해결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에 필요한 지적 능력이 우수하여 학업성취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의집중력과 인내력을 반영하는 소검사 평가치가 다소 저조하였다. 여아는 쉽게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어 새롭거나 분명한 지침이 없는 모호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며, 자신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안감은 전술한 학습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소극적이고 위축된 면모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모는 공무원으로 내향적인 성격으로 모는 감정보다 너무 사고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으로 꼼꼼하고 잔소리가 많고 내성적 성격(ISTJ)으로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살고 있다. 그리고 모의 원모는 책임감은 있으나 억척같고 잔소리가 많고 모에게 기대가 커서 다른 집안의 친구와 비교를 당하면서 성장을 하였다. 모의 원부는 유아기동안에는 잘 해 주고, 놀러 다닌 기억이 있고 중1에 원부의 사업 부도로 채권자들이 집에 온 이후로 본 적이 없고 원부가 바람을 피우고 중2년 원모와 이혼을 한 이후 이혼한 부모가 밉고 부끄러워 위축되어 성장하였다. 모와 유아와의 관계는 갈등관계로 모는 유아에게 통제적이고 잔소리를 많이 하고 유아는 모에게 대응을 못하고 화남을 억압하고 있다. 한편 부는 자연주택사업을 하고 여유롭고 내향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지만 현실감이 없다. 그리고 부의 원모는 책임감은 많으나 부의 요구를 잘 모르고 자상하지는 않았고, 원부는 무섭고 독재적이라 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형과 비교를 당하면서 부의 욕구를 억압하면서 성장하였다. 부와 유아와의 관계는 기질적으로 유사하여 잘 통하고 월 1회 만나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좋은 관계이므로 부와 헤어짐을 힘들어하였다.

모의 검사결과에서는 모의 불안감, 통제적인 양육태도 및 가정 내 긴장 등이 오히려 유아에게 밀착이 되어 있으며 남편과의 아직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아 만성적인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유아에게 이를 충족하기 위해 놀이보다 책과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느린 유아에게 간섭과 지시를 많이 하여 유아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박탈한 것으로 보인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6년 3월 2일부터 2016년 12월 26일까지 이루어졌다. 주 자료는 1주일에 1회 B상담실에서 치료자와 놀이치료 상호작용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이다. 또한 보조 자료로 유아의 변화를 더 이해하기 위하여 회기별 10여분 동안의 부모 상담과 월 1회 정도 부모상담한 내용이 있다.

3. 자료분석

먼저 비디오에 촬영된 상담자와 내담유아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 내용은 40회기로 28시간이다.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주요 내용과 놀이 특성을 기록을 하고, 사례에 대해 수퍼비전을 받고 수퍼바이저 1인과 함께 한 회기의 비디오를 보면서 놀이평가 및 놀이 주제 결정과정을 점검하였다.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을 하여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윤리성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대상아의 부모에게 마지막 종료상담이 이루어진 후에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유아에 대한 연구동의서를 받았다. 그리고 유아에 관한 모든 자료를 가명으로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약속드렸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만5세 여아로 모와의 불안정애착으로 인하여 분리가 되지 않은 유아의 놀이치료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치료자는 유아의 예민한 기질과 양육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좌절환경이 유아가 보이는 증상들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유아의 행동과 말을 허용하는 환경을 제공하여 안정애착 재형성을 도와 모와 분리가 이루어지고 유아의 자율성과 주도성발달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정을 느끼고 적절하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래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한편 부모에게는 유아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유아의 문제의 원인, 예민한 기질의 특성을 고려한 놀이와 양육기술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주 양육자인 모의 개인 상담과 모의 특성으로 인한 유아에게 끼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나아가 부가 유아의 현재 상태를 잘 이해하고 모의 힘든 점을 온전히 이해하고 부의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아 치료를 진행하였다.

놀이치료과정의 초기, 중기, 말기 및 종결 단계에 나타난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기단계(1-4회기)의 변화

유아의 초기의 놀이치료 목표는 정보수집, 유아와 부모의 특성 탐색, 안전하고 수용적인 놀이실 제공, 치료자와 신뢰 관계, 부모와 분리되었기에 치료자는 추적하기, 반영하기와 공감하기를 하면서 신뢰감을 쌓아갔다. 주요활동으로는 주로 모래를 만지고 놀잇감을 묻어두

는 모래놀이, 점토 놀이, 도로에 차만 가득찬 주차놀이, 자동차, 비누방울놀이를 하였고, 놀이주제는 탐색, 안전함. 슬픔과 상실감, 힘의 놀이가 주로 이루어졌고 주요 정서는 불안, 이완, 즐거움, 슬픔이 표현되었다. 초기단계의 놀이를 평가하면 유아는 불안하여 부모와 분리가 안 되었으나 점차 밖에서 모가 기다리면서 분리가 되고 혼자서 입실을 하게 되고 놀이실 내에서 탐색, 확인을 하고 치료자와 눈맞춤과 비언어, 말로 공유가 되고 놀이로 함께 웃고 유아 스스로 선택으로 시작되고 긍정적 정서가 교류되었다.

한편 부모의 초기 상담의 목표는 치료자가 모와 신뢰감을 쌓고, 부모-유아 행동 평가 결과를 해석 상담하고 놀이를 통한 애착 증진을 위한 놀이촉진 전략상담을 통하여 어릴 때 놀아주지 못한 놀이를 통한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

2. 중기단계(5-30회기)의 변화

유아의 중기의 놀이치료 목표는 유아의 내면에 억압된 공격성의 표출과 적극적인 자기 표현, 부정적 반응과 긍정적 정서, 퇴행촉진, 자율성과 주도성, 양극감정의 표현의 촉진이었기에 치료자는 유아의 불안과 관련된 억압을 표현하고 부정적 경험이나 갈등을 편안하게 드러내도록 감정을 수용하고 반영하고 적극적인 경청을 하고 인내하면서 도왔다. 주요활동으로는 주로 차로 여행놀이, 펀칭백치기, 스펀지 총쏘기, 악어와 복불복, 총놀이, 공격놀이, 신체놀이, 개구리 멀리 뛰기, 부정적 감정을 치료자에게 투사를 한 치료자 물건 훔치고 골탕 먹이는 놀이, 아빠가 있는 가족 여행놀이, 인형에게 멋진 새 옷 입히기, 만들기, 요리, 물건사기를 통한 사람 초대하기, 감정책을 통한 상대고려, 학급에서의 갈등에 대한 문제해결시간 등이 나타났다. 놀이주제는 경쟁, 힘과 공격성, 안전감, 양육, 관계 힘(훔치기), 공격성(싸움), 양육(애착과 불안 해소), 대인관계(양가감정과 불안 해소), 힘(훔치기), 공격성, 경쟁, 주도성의 놀이가 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놀이의 주요 정서는 흥분, 즐거움, 놀림, 분노, 통제감 기대감, 통쾌감, 자랑스러움 등이 표현되었다. 구체적으로 중기 1 단계(5-12회기)에서는 자율감의 충족이 되고 애정욕구충족이 되고 치료자와 부정적 감정 표출 후 공유하면서 긍정적 정서 증가하였다. 중기 2 단계(13-20회기)에는 부정적 감정이 더 적극적으로 표출이 되고 애정욕구충족이 되면서 치료자와 감정을 공유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중기 3 단계(21-30회기)에는 양가감정이 생기고 모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해 나간 한편 긍정적 자기상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중기단계의 놀이를 평가하면 유아는 놀이가 치료자와 관계적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유아가 능동적, 적극적 공격적, 관계적, 적극적이고 몰입적이 되고 놀이에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치료자에게 직접적으로 표출을 하고 수차례 자신을 예쁘게 장식을 하면서 모에 대한 양가감정과 긍정적 자기상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아의 자기상, 자아가 강화되어갔다.

부모의 중기 상담의 목표는 치료자가 부모에게 부모와 유아의 특성과 문제의 원인 탐색, 원모와의 관계, 모와 유아문제의 관련성, 모의 감정을 알고 조절하기, 주도성발달과 사회성 전략/감정코칭, 점진적 적응전략과 문제해결기술 등의 상담을 통하여 모 자신과 이로 인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실천하도록 도왔다.

3. 말기 및 종결단계(31-40회기)의 변화

말기 및 종결단계의 놀이치료 목표는 유아의 주도하는 활동의 확대, 문제해결기술의 사용, 유능감의 증진이었기에 치료자는 유아에게 친구와의 문제해결 기술을 사용하고 역할놀이와 치료자의 모델링, 자기표현촉진하기, 다른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기로 자아가 견고해지기를 도왔다. 주요활동으로는 초대놀이, 요리놀이, 퀴즈내기, 장점말하기, 속상한 친구문제 해결, 파티놀이, 모래상자가죽과 미래꾸미기 등이 이루어졌고 놀이주제는 대인관계, 동물과 사람을 초대한 파티, 새끼 고기와 아기의 탄생과 결혼, 자존감, 대인관계(유능감)등이 나타났다. 그리고 놀이정서는 자신감, 자긍심, 융통성, 수용성, 적응성 등이었다. 말기 및 종결단계놀이를 평가하면 유아는 게임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여유로워지고 상대를 수용하고 자신의 강점과 상대의 감정을 인식, 문제해결력도 생기고 높임말과 말끝을 흐리지 않고 친구와의 갈등 시 주장하는 내적 힘이 생기고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면서 성공과 함께 내적 동기가 활성화되어 자신감이 생긴 유아로 변화되었다.

부모의 말기 및 종결 상담의 목표는 치료자가 부모에게 유아의 새로운 활동의 도전, 종결이후 과제, 모의 심리상태, 부의 역할을 도와 건강한 가족으로 생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실천하도록 도왔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만5세 5개월 여아로 모와의 불안정애착으로 인하여 분리가 되지 않은 유아의 놀이치료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초기부터 아동중심놀이치료의 틀을 유지하였으며 중기 이후 유아가 자신감이 생겼지만 다른 새로운 활동을 시도할 때 불안한 유아를 위해 점진적으로 직접 노출을 하는 인지행동놀이치료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초기단계에 유아는 치료자와 신뢰까지 탐색을 하고 주로 모래놀이만을 하는 소극적인 태도와 불안한 감정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Benedict(2006)가 지적한바와 같이 양육자와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유아가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에 처했을 때 나타내는 반응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중기단계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이 형성이 되어가면서 점차 놀이실내에서 자신의 억압된 분노를 표현하면서 점차 자기를 표현하게 되고 심한 분리 불안과 위축에서 벗어나서 안정감을 찾아갔다. 이러한 결과는 중기 단계의 아동은 적극성과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래에게 자기표현을 하게 되면서 안정적이 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이정숙김윤희, 2001; 하영례, 2006, 2012; Muro, Ray, Schottelkorb, Smith, & Blanco, 2006).마지막으로 말기 및 종결단계에는 상대의 감정에 반응을 하고 문제해결을 하며 새로운 활동에 도전을 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의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하영례(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된다.

본 연구는 1명의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지만 유아교육 현장에 분리불안을 보이는 유아를 이해하고 지도하고 부모상담을 하는데 유용한 기초 정보로 의의가 있다.

포스터 발표

- 유아교육기관장 다면적 리더십 척도 개발 283
이신주(영진전문대학 사회복지과 조교수)
- 놀이유형별 아버지의 놀이참여 실태 289
황정숙(청강문화산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창의성 교육 세미나 수업 과정을 통한 경력 교사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 변화 탐구 294
오한나(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이영애(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유아인권교육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연구 297
최수진(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과정), 권희경(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정서조절이 유아 문제행동 지도에 미치는 영향 301
김수진(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 권정윤(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 유아교실에서 ‘대장 되기’의 의미 305
류미향(동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예비유아교사의 구성주의 이론 현장적용 경험: 경사로 활동을 중심으로 308
빈혜원(동아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김소이(동아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홍희경(동아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박경금(동아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류미향(동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보육교사의 직무배태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311
 고성미(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
 송주연(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수경(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수)
- 토의를 통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이 유아의 사회성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314
 윤세미(한양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 교사), 이정숙(한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유아교육기관장 다면적 리더십 척도 개발

이 신 주¹⁾

I.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다양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이다. 이 사회의 구성원은 어떤 형태로든 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조직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조직의 기능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업을 분담한 구성원의 역할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박가영, 2009; 전정태, 1989). 유아교육기관도 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결속된 사회적 조직체이며,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목표 수행에 자발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조정하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이민경, 2005).

현대사회에서의 영유아 교육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아교육기관 조직이 외부의 통제에서 현장 중심으로 상부의 지시와 기계적인 역할 수행에서 권한 위임과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역할 수행으로 획일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에서 개별적이고 다원적인 접근으로의 전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상경, 2015). 즉 유아교육기관을 둘러싼 복잡하고 유동적인 교육환경 상황들로 인하여 유아교육기관장은 경영 관리자의 역할을 넘어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복잡한 조직운영 체제의 성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리더십 역량을 필요로 한다(박영호, 2011; 유정옥, 2015; 주현준, 2007; Murphy, 2002; Williams & Johnson, 2013). Rousseau(1978)는 조직 관리에서 사회적 기술적 접근 모델에 기반한 다면적 접근 이론을 제시하였고, 개인특성, 직무특성, 조직특성과 같은 다면적 요인들을 동시에 측정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면적 접근 이론은 현대 사회와 유아교육기관이 안고 있는 다양성과 다면성의 본질을 잘 반영해 주는 것으로(임종일, 김은희, 2003) 유아교육기관장 리더십도 유아교육기관 조직의 성장 발전을 위해 목표 지향적 실체인 조직과 구성원의 융화가 이루어지는 다면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유아교육기관장 리더십은 조직의 지속 가능하고 조직의 발전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며, 조직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다면적인 요인들을 동시에 측정하고 분석하는 다면적 접근 방식(Rousseau, 1978; Yukl, 2008)으로 유아교육기관의 특성과 조직문화에 알맞는 유아교육기관장 다면적 리더십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진전문대학 사회복지과 조교수

Ⅲ. 주요 결과

유아교육기관장 다면적 리더십 척도의 범주와 구성요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준	범주	구성요소
개인수준	변화지향능력	가치관
		추진력
		사명감
	자기존중	솔선수범
		자기효능감
		자기개발능력
		자아통제능력
		상황조절능력
	윤리성	정직성
상호관계 수준	이해·배려	공정성
		개별적 배려
	동기부여	상호이해
		목표설정
	성장지원	격려와 기대
		교수지원
		교사전문성신장지원
집단수준	근무환경조성	평가
		복리증진
	팀워크	교육환경지원
		협력하기
	관계형성	정보공유
		권한·책임부여
		공동체형성
조직수준	비전설정	비전제시
		비전공유
		조직목표제시
	갈등관리	구성원 간 갈등
		조직업무갈등
	조직문화조성	조직운영
		소속감
		조직문화
	대외협력 관계	지역사회 기관교류
		행정기관과의 관계

유아교육기관장 다면적 리더십 척도의 범주와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최종 개발된 척도는 5점 평정척도로 다음과 같다.

수 준	범 주	문항 번호	문항(우리 원장선생님은~)
변 화 지 향 능 력		1	교(보)육에 대한 추구하는 철학과 목표가 분명하다.
		2	교(보)육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목표를 추구한다.
		3	교(보)육 목표에 대한 강한 결단력을 보여준다.
		4	새로운 교(보)육 정책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한다.
		5	업무를 총괄하여 계획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행한다.
		6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한다.
		7	자신의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직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8	교(보)육에 모범행동을 함으로써 교사들을 이끈다.
		9	직무를 솔선하여 수행한다.
개 인 수 준 (28)	자 기 존 중	10	교사들을 통솔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다.
		11	교직자로서 자신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알고 있다.
		12	강한 확신을 가지고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13	교(보)육의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하다.
		14	전문성 발달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에 관심을 갖는다.
		15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16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다.
		17	상황에 도움이 안되는 말이나 행동을 자제한다.
		18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받아 들인다.
		19	아는 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20	창의적인 사고와 발상을 한다.
		21	의사결정 이후에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
		22	힘든 상황에도 구성원들과 함께 유연하게 대처한다.
		23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교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24	업무 수행 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
		25	정해진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26	교사들에게 진실된 행동을 보여준다.
		27	유아교육기관장으로서 품위에 손상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
상 호 관 계 수 준 (30)	윤 리 성	28	교직원을 임명할 때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 인사를 처리한다.
		29	교사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배려와 조언을 해준다.
		30	교사를 개별 인격체로서 생각하고 개성을 존중해 준다.
		31	교사의 행동이나 능력을 신뢰한다.
		32	어려움에 처한 교사를 도와준다.
		33	교사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34	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35	교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정서적으로 배려한다.
	이 해 · 배 려	36	교사가 달성해야 할 구체적 업무 목표를 스스로 설정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7	교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관 및 신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해준다.
		38	교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
		39	교사가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업무에 대한 성취감 고취를 기대한다.
		40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준다.
		41	교사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지지적인 분위기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 준	범 주	문항 번호	문항(우리 원장선생님은~)
			격려해 준다.
		42	교사가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43	교사의 잘못에 대하여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조언해 준다.
		44	교사에게 교(보)육의 환경 변화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45	중간관리자로서의 교사로 성장 발전에 필요한 조언을 해준다.
		46	교사의 교수전략 강화를 위해 교사 네트워크(장학, 연구 활동, 각종 연수 등) 기회를 제공한다.
		47	교사의 자아실현 욕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48	교사가 업무능력 신장에 활용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지도 방법 등의 자원을 제공한다.
		49	교사들이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도록 지원한다.
성 장 지 원		50	교사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 준다.
		51	교사가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52	교사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서 경력별, 직급별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지원해 준다
		53	교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업무처리 사항을 찾아내어 지도해 준다.
		54	교사가 자신이 생각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 깊이 숙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55	교사의 적절한 수업평가를 통해 자기개발 기회로 활용하게 한다.
		56	교사들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 준다.
		57	교사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근무평가시 고려한다.
		58	교사의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를 수업평가에 반영한다.
		59	교사연수, 병가, 출산휴가 등의 이유로 교사 부재 시 대체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근 무 환 경 조 성	60	출·퇴근시간, 근무일수를 적절하게 지켜준다.
		61	교사들의 육체적·정신적 피로감을 감안하여 업무분담 및 휴게시간을 잘 활용되게 한다.
		62	교사실, 휴게실 등의 교사 편의 시설을 제공한다.
		63	교사들에게 인센티브(성과에 대한 보상)를 제공한다.
		64	교사들의 급여체계를 타 기관 보다 적절하게 지급해 준다.
		65	교사들이 교수-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료 및 교구를 충분히 제공한다.
집 단 수 준 (19)	팀 위 크	66	교사들 상호간의 팀워크나 협동을 강조한다.
		67	기관 운영에 있어서 교사들을 파트너로 생각한다.
		68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발생하는 문제는 규칙, 절차 보다 교사들의 참여를 통해 합리적, 민주적으로 해결한다.
		69	교사들과 협력하여 교육목표 및 운영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관 계 형 성	70	교사들 간의 정보공유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장려한다.
		71	조직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목표를 교사들과 공유한다.
		72	조직의 운영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사들과 공유한다.
		73	교사들이 직무수행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위임 해준다.
		74	교사들의 업무 분담 및 관리 책임은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75	교사들의 역량에 따라 적절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책임을 분명히 한다.
		76	조직의 사명감 공유를 통하여 기관의 공동체 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77	경쟁보다는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수 준	범 주	문항 번호	문항(우리 원장선생님은~)
조직 수준 (10)		78	유아교육기관 조직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한다.
		79	새로운 교(보)육 동향을 인식하고 설정된 비전의 의미를 원 운영 전반에 융통성 있게 반영하고 실천한다.
		80	원의 비전을 설정하는데 앞장서며, 이 과정에 교사들을 참여시킨다.
		81	유아교육기관의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82	유아교육기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규칙, 방침, 운영 절차 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한다.
		83	원의 교(보)육 목표를 연간계획안, 월간계획안, 주간계획안, 일일계획안 등에 반영한다.
		84	교(보)육과정 계획, 편성, 운영에 교사를 함께 참여시킨다.
		85	우리 기관만이 추구하는 특색 교(보)육 프로그램을 잘 반영하고 한다.
		86	예(결)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심의, 집행하고, 집행 과정의 투명함을 운영위원회(지역인사, 교직원, 학부모 등)를 통해 알린다.
		87	관계청의 지침을 중시하여 업무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한다.

IV.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특성과 조직문화에 알맞는 유아교육기관장 다면적 리더십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기관장 다면적 리더십 척도는 유아교육기관장 역할과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척도개발 측정 질문 선정 및 응답유형 결정 요건면에서 적절한 Likert식 5점 평정척도 8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 타당화의 경우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하였으며, 초등학교장 다면적 리더십 척도(주현준, 2011)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문항내적일치도, 반분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결과 .93~.98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본 척도 상호관계수준의 구성요소들은 유아교육기관 조직 특성상 유아교육기관장의 리더십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집단수준 문항들 중 근무환경조성 및 교육환경지원에 대한 문항들은 유아교육기관 조직 특성을 반영한 문항들로 추출되었다. 유아교육기관장 다면적 리더십 척도는 개인수준, 상호관계수준, 집단수준, 조직수준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기관 조직 경영에 필요한 리더십을 다면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각 수준별 의미하고 있는 범주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유아교육기관장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척도 활용을 통하여 유아교육기관장의 수준을 파악하여 각종 교육연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놀이유형별 아버지의 놀이참여 실태

황 정 숙¹⁾

I. 연구의 필요성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와 문화적 변화로 ‘양육적인 아버지’라는 새로운 아버지상이 부각되면서, 아버지가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동반하여 놀이하거나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분위기이다(안수미, 2013; 이주리, 2011). 이에 아버지의 놀이 참여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졌고, 그들은 아버지가 유아의 놀이에 참여할 때 서로가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고(Ginsburg, 2007), 정서지능과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김종혁, 2016; 홍유정, 2016), 유아의 행복감(서진영, 2015)과 사회적 유능성 및 친사회적 행동(윤지은, 2015; 장여옥, 2016), 그리고 창의성, 언어능력, 조망수용능력, 협동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Pruett, 2000).

더불어 아버지가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김수희, 2004)과 놀이참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김은주, 2006; 류희정, 이진희, 2013)이 이루어졌고,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유아의 특정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김혜연, 2014; 송미란, 2016; 오정미, 2014; 유민형, 2016; 이해숙, 2014; 황승희, 2015). 이를 보면 아버지가 유아의 어떤 놀이에 어떤 수준으로 참여하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세밀히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최신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만 2~5세 유아의 아버지가 놀이의 유형에 따라 어떤 수준으로 놀이에 참여하는지를 조사하여 아버지의 놀이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아버지를 대상으로 놀이 관련 교육을 실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유아의 놀이유형별 아버지의 놀이참여 실태를 알아보는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놀이유형별 아버지의 놀이참여 수준은 어떠한가?

1-1. 아버지는 유아의 어떤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1)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1-2. 아버지는 유아의 어떤 놀이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가?
 1-3. 아버지는 유아의 어떤 놀이를 바라보기만 하는가?
 1-4. 아버지는 유아의 어떤 놀이에 무관심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I시에 거주하는 만 2~5세 유아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총 368부의 놀이 참여에 대한 설문지(22문항)를 배부하여, 수거한 설문지 중 유효한 응답을 한 아버지 32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아버지의 놀이참여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Severson, Tompson, 그리고 Roach(1988)의 놀이유형과 이숙재(1984)의 놀이참여 정도를 참고하여 원희영(1997)이 제작한 검사지를 김찬숙(2010)이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놀이유형을 여섯 가지(구성놀이 3문항, 신체놀이 4문항, 교수놀이 4문항, 게임 3문항, 역할놀이 4문항, 기능놀이 4문항), 놀이 참여 수준을 네 가지(무관심, 바라보기,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로 구분하고 있다. 각각의 조작적 정의는 <표 1>, <표 2>와 같다.

<표 1> 놀이유형에 대한 조작적 정의

놀이유형	정의
구성놀이 (constructive play)	쌓기와 끼우기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저작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만드는 놀이
신체놀이(physical play)	경미한 신체적 놀이와 서로 몸 접촉을 필요로 하는 격렬한 신체 놀이
교수놀이 (instructive play)	사물의 이름, 색깔, 그리고 수를 가르쳐주기 위해 책을 보거나 질문하고 대답하는 놀이
게임(game)	경쟁의 상황과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는 놀이
역할놀이(pretense play)	사물과 자신, 환경을 상상적 상황으로 대처하는 놀이
기능놀이 (functional play)	물체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활동적이며 의도적으로 물체를 조직하는 놀이

〈표 2〉 놀이 참여 수준에 대한 조작적 정의

놀이참여수준	정의
무관심	자녀를 혼자 두거나 아내, 형제·자매와 함께 놀게하고 부모는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다.
바라보기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자녀의 옆에서 놀이행동을 바라보고 살펴본다.
소극적 참여	놀이에 참여하지만 자녀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반응하는 정도로 소극적인 참여를 한다.
적극적 참여	자녀의 놀이에 놀이자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며 놀이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3. 자료분석

최종 수집된 자료들은 엑셀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Ⅲ. 주요 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표 3〉과 함께 살펴보면 아버지가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는 수준은 소극적 참여가 가장 많았고(139명, 43%), 적극적 참여(126명, 39.5%), 바라보기(48명, 15.3%), 무관심(8명, 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놀이는 신체놀이(170명, 53%)와 기능놀이(164명, 51.1%), 게임(142명, 44.2%) 순이었다. 특히 신체놀이 중에서 자녀가 몸 간질이기, 서로 껴안기 등의 신체놀이를 할 때(241명, 75.1%), 자녀가 씨름과 같이 힘 겨루는 놀이를 할 때(195명, 60.7%)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둘째, 아버지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놀이는 역할놀이(159명, 49.5%), 구성놀이(157명, 48.9%), 교수놀이(153명, 47.7%) 순이었다. 특히 구성놀이 중 자녀가 퍼즐(종이, 나무) 맞추기 놀이를 할 때(172명, 53.6%)에 소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셋째, 아버지가 바라보기만 하는 놀이는 역할놀이(77명, 23.9%), 구성놀이(61명, 9.0%)였다. 세부문항에서는 신체놀이에서 자녀가 음악에 따라 춤추는 놀이를 할 때(118명, 36.8%), 인형이나 로봇으로 상상놀이를 하려고 할 때(88명, 27.4%) 바라보기만 한다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

넷째, 아버지가 무관심한 놀이는 구성놀이(14명, 4.4%), 역할놀이(11명, 3.4%) 순이었다. 특히 가장 무관심한 놀이는 역할놀이 중 자녀가 소꿉놀이(엄마, 아빠놀이 등)를 하려고 할 때와 구성놀이 중 퍼즐(종이, 나무) 맞추기 놀이를 할 때, 그리고 블록(레고, 나무 또는 종이블록)으로 만들기를 할 때(15명, 4.7%)가 같은 수치로 나타났다.

〈표 3〉 아버지의 놀이 유형별 놀이참여 수준

놀이유형	내용	놀이참여수준(응답자수, %)			
		무관심	바라보기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구성놀이 (constructive play)	1 자녀가 퍼즐(종이, 나무) 맞추기 놀이를 할 때	15(4.7)	58(18.1)	172(53.6)	76(23.7)
	2 자녀가 블록(레고, 나무 또는 종이블록)으로 만들기 놀이를 할 때	15(4.7)	53(16.5)	152(47.4)	101(31.5)
	3 자녀가 장난감이나 그 외 물건들을 조립하면서 놀 때	11(3.4)	73(22.7)	148(46.1)	89(27.7)
	평균	14(4.4)	61(19.0)	157(48.9)	89(27.7)
신체놀이 (physical play)	4 자녀가 몸 간질이기, 서로 껴안기 등의 신체놀이를 할 때	1(0.3)	9(2.8)	70(21.8)	241(75.1)
	5 자녀가 달리기, 잡기놀이를 할 때	8(2.5)	27(8.4)	111(34.6)	175(54.5)
	6 자녀가 씨름과 같이 힘 겨루는 놀이를 할 때	2(0.6)	22(6.9)	102(31.8)	195(60.7)
	7 자녀가 음악에 따라 춤추는 놀이를 할 때	5(1.6)	118(36.8)	129(40.2)	69(21.5)
교수놀이 (instructive play)	8 자녀가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읽으려 할 때	8(2.5)	64(19.9)	161(50.2)	88(27.4)
	9 자녀가 글자 읽기나 쓰기에 관심을 보일 때	5(1.6)	43(13.4)	158(49.2)	115(35.8)
	10 자녀가 숫자세기에 관심을 보일 때(수세기, 더하기 빼기 등)	6(1.9)	37(11.5)	145(45.2)	133(41.4)
	11 자녀가 주변의 사물이름말하기 놀이를 할 때	3(0.9)	34(10.6)	151(47.0)	133(41.4)
게임(game)	12 자녀가 주사위나 윷 등을 이용한 규칙있는 게임을 할 때	5(1.6)	29(9.0)	168(52.3)	119(37.1)
	13 자녀가 가위바위보 게임이나 손유희 놀이를 할 때(씨씨씨와 같이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놀이를 하고자 할 때)	7(2.2)	29(9.0)	134(41.7)	151(47.0)
	14 자녀가 숨바꼭질과 같은 숨기놀이를 할 때	11(3.4)	38(11.8)	117(36.4)	155(48.3)
	평균	8(2.5)	31(9.7)	140(43.6)	142(44.2)
역할놀이 (pretense play)	15 자녀가 소꿉놀이(엄마, 아빠놀이 등)를 하려고 할 때	15(4.7)	79(24.6)	154(48.0)	73(22.7)
	16 자녀가 병원놀이(의사, 환자 등)를 하려고 할 때	13(4.0)	65(20.2)	164(51.1)	79(24.6)
	17 자녀가 인형이나 로봇으로 상상놀이를 하려고 할 때	13(4.0)	88(27.4)	147(45.8)	73(22.7)
	18 자녀가 가게놀이를 하려고 할 때	11(3.4)	75(23.4)	167(52.0)	68(21.2)
기능놀이 (functional play)	19 자녀가 공놀이를 하려고 할 때	1(0.3)	20(6.2)	106(33.0)	194(60.4)
	20 자녀가 목적물 맞추기(장난감 볼링, 다트 등) 놀이를 할 때	5(1.6)	36(11.2)	118(36.8)	162(50.5)
	21 자녀가 비행기 날리기와 같은 활동적인 놀이를 할 때	1(0.3)	24(7.5)	124(38.6)	172(53.6)
	22 자녀가 비눗방울놀이나 빨대불기놀이를 할 때	3(0.9)	47(14.6)	143(44.5)	128(39.9)
평균		3(0.9)	31(10.0)	123(38.3)	164(51.1)
전체 평균		8(2.2)	48(15.3)	139(43)	126(39.5)

IV. 결론

만 2~5세 유아의 아버지 321명을 대상으로 놀이유형별 놀이참여 실태를 밝힌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놀이는 신체놀이였다. 이는 아버지의 놀이참여도는 신체놀이가 가장 높았으며(송미란, 2016), 아버지의 놀이는 신체적, 감각적 자극이 많으며 놀이 행동도 활발하다고 한 조윤희(2016)의 연구와 맥락이 같다. 더불어 아버지가 신체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유아가 놀이를 더 즐기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려하고, 융통성이 있고 창의적인 놀이를 잘 하며, 또래 관계에서 유능하고(장여옥, 2016),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황승희, 2015)에 비추어볼 때, 아버지에게 신체놀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개입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버지가 가장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놀이는 역할놀이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놀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라는 김은주(2009)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아버지는 비교적 복잡한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역할놀이에 다른 놀이에서 보다 소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에게 유아의 연령별 역할놀이의 교육적 특성과 놀이참여 방법에 대한 구체적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셋째, 아버지가 바라보기만 하는 놀이는 역할놀이였다. 이는 역할놀이에서 아버지의 참여가 가장 낮게 나온 송미란(2016)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나, 구성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가장 낮았다는 유민형(2016)의 연구와는 다른데,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차이가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가 역할놀이에 참여하는 수준이 높을 경우 유아의 자기조절능력(황승희, 2015)과 정서적 안정감 및 행동조절능력(윤영배, 유준호, 2010), 리더십(김진혜, 2009)이 높다는 연구들을 볼 때, 역할놀이를 바라보기만 하는 이유를 밝혀내고, 역할놀이의 중요성과 참여방법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넷째, 아버지가 무관심한 유아의 놀이는 구성놀이였다. 이는 아버지의 참여도가 가장 낮은 역할놀이 다음이 구성놀이였다는 연구결과(전숙희, 2016)와 유사하다. 대부분의 구성놀이가 유아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 능동적으로 이뤄지지만 성인의 적절한 개입은 필요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포함한 아버지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창의성 교육 세미나 수업 과정을 통한 경력 교사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 변화 탐구

오 한 나¹⁾ · 이 영 애²⁾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사는 학생과 그들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수업을 결정한다(Renzulli & De Wet, 2014). 영유아 교사들은 교실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유아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돌봄과 교육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의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에 적절한 창의성 발달을 이끌어 줄 수 있는 현장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유아를 지도하는 현장의 교사가 창의성에 대한 개념과 신념, 창의성 실천에 대한 해설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창의성 발달을 위한 교육의 진단과 계획에 있어 주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아교육분야에서는 향후 교사교육을 위한 연구과제로 교사의 창의성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교사의 창의성을 증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교사교육안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조형숙, 2015). 하지만,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창의성 관련 연구에 있어서는 창의성 교사교육을 통해 교사의 인식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학원의 창의성 교육 세미나 수업 과정을 통해 교사들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드러난 의미를 파악하여 창의성 교사교육의 시사점과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H대학 대학원에서 창의성 교육 세미나를 수강하였던 경력교사 대학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원 석사과정 학생 11명이다.

2. 창의성 교육 세미나 운영 과정

창의성 교육 세미나는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14주차의 온라인 과정과 2회의 오프라인 모임으로 진행되었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먼저, 연구 초기에 진행한 “내가 생각하는 창의성이란” 토론과 『창의성의 발견(최인수, 2011)』, 『생각의 탄생(미셸 루트벤스타인, 로버트 루트벤스타인, 2007)』 서적을 읽고 난 후 진행한 토론 및 토론보고서, 연구 후기에 진행한 “창의성 교육 세미나 수업을 듣고 난 후”의 토론의 내용을 전사파일로 모아 수집하였다.

4. 자료의 분석과 해석

두 연구자는 전사파일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의미 있는 어휘, 어절, 아이디어, 변화 과정 등을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예비범주화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 이후 다시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예비목록과 비교해 가는 과정을 되풀이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경력 교사의 경험과 인식의 변화과정이 드러나는 부분들의 내용을 기술하고 연구자들의 경험, 기존 문헌 고찰 등을 바탕으로 이를 해석하면서 범주에 대한 수정과 보완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다.

Ⅲ. 주요 결과

경력 교사들은 창의성 교육 세미나 수업 과정을 통해 창의성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이 이루어졌는데, 창의성에 대한 개념의 변화, 실천의 변화, 교사 신념의 변화 과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창의성에 대한 개념이 초기에는 “창의성은 낯설고 어려운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생활 속에서 창의성의 개념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해 후기에는 “창의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창의성의 실천에 있어서 연구 초기에는 “창의성의 실천은 어렵지만 알고 싶은 창의성”이라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우연한 수업 상황에서 창의성을 발견하는 회상의 경험을 통해 후기에는 “창의성 실천에 대한 감 잡았어!”라는 표현과 함께 실천을 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창의성에 대한 신념을 초기에는 “나는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은 다양한 창의성 발휘의 순간을 회상하며 자신 안에 있는 창의적 특성을 찾아나갔다. 이를 통해 후기에는 “나는 창의적인 교사야!”라는 관점으로 창의적인 교사인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창의성 교육 세미나 수업 과정을 통한 경력 교사의 창의성 인식 변화 과정에서 찾은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력 교사들은 수업 과정에서 반성적 고찰을 통한 창의성에 대한 재발견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창의성에 대한 협력 공동체로서의 참여 경험을 하게 되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의 창의성 교육 세미나 수업 과정을 통해 경력 교사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찾은 의미는 무엇인지 밝혀 창의성 교사교육의 시사점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창의성 교육 세미나 수업 과정을 통해 경력 교사들은 창의성에 대한 개념, 창의성에 대한 실천, 창의성에 대한 신념 부분에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초기, 후기에 변화를 나타냈는데 그 변화에는 창의성 교육 세미나 수업 속에서 경험한 다양한 도전과 적용의 과정이 의미 있는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창의성 교육 세미나 수업 과정을 통해 먼저, 경력 교사들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회상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과거 실천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창의성 교육의 현장 적용의 노력을 다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예비교사 뿐만 아니라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창의성 교사교육 방안의 한 예로, 그들은 창의성 교육의 현장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의 마련, 창의인성교육의 구체적인 방안 및 측정도구 개발,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강조하며 폭넓은 연구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업 과정 속에서 창의성 교사교육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현장에서 부딪히는 창의성 실천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함께 찾기도 하고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창의성 교육의 사례를 나누는 장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다양한 현장 속에서 교사로서 경험한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제안을 하기도 하고 격려를 통해 창의성 실천의 방안을 모색해 나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창의성 교사교육의 긍정적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외에도 경력교사들은 유아 창의성 교육을 위해 교육제도 및 체제 개선을 통한 현장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정, 교육기관, 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창의인성교육의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유아인권교육에 대한 예비 유아교사의 인식연구

최 수 진¹⁾ · 권 희 경²⁾

I. 연구의 필요성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교사들이 유아인권 존중과 유아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인권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인권교육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들의 유아인권교육에 대한 기초자료가 수집이 필수적이므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인권 및 유아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1-1.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인지도 및 유아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1-2.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1-3.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인권교육의 목표 및 방법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1-4.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인권교육의 실시 방향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예비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관한 중요도는 배경 변인(연령, 교육실습 유무,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북도 소재 K대학 유아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1, 2, 3, 4학년이다. 연

1) 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과정

2) 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구에 참여한 학생은 1학년 42명, 2학년 37명, 3학년 40명, 4학년 41명 총 160명이었다.

2. 연구도구

1) 유아인권 및 유아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남궁선혜(2011)가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질문지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유아교육과 교수 1명에게 의뢰하여 자문을 구한 후, 유아교육과 일반대학원 학생 3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질문지를 재구성 하였다.

2) 유아인권에 대한 중요도

유아인권 중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중요도 문항은 UN의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1993년 Hart와 Zeidner가 'Children's Rights Perspectives of Youth and Educator: Early Findings of a Cross National Project'를 통해 개발한 문항과 이를 기초로 한 선행 연구 문지은 (2016)이 개발한 유아인권교육에 대한 유치원 학부모의 인식조사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질문에 대한 타당도는 유아교육과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았다. 그 이후 예비조사는 유아교육과 일반대학원 학생 3명에게 실시하였다. 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과 보완을 한 후 질문지를 재구성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절차

최종적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설문을 받은 후 즉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연구자에 의해 설문지가 배부 및 수거 하였고, 160부를 배부하여 100% 회수, 분석 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예비유아 교사들의 유아인권 및 유아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배경변인과의 관련성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X^2 검증을 하였다.

Ⅲ. 주요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인권 및 유아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인지도 및 유아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체 응답자중 알고 있다 45.6%, 보통이다 41.9%로 응답하였으며, 유아 인권하면 가장 먼저 연상 되는 것은 유아 존중으로 전체 응답자의 48.1%가 응답하였으며, 학대가 35.0%로 다음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유아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항목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1.3%가 유아 인권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인권의 실태에 대한 인식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인권 침해 사항으로 체벌, 선택과 의사결정에서의 제외가 24.4%, 의사표현의 부자유가 23.1%로 응답하였다. 이에 따른 유아 문제행동을 지도하기 위해 유아 교사가 유아의 행동을 제재할 때 나타는 인권 침해 상황에서는 신체적 처벌이 34.4%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의 인권 교육 환경은 전체 응답자의 74.4%가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따른 개선 사항으로는 유아교사의 자질 향상이 42.5%로 가장 높았으며, 유아교사의 비율 증가가 31.9%로 상위를 차지하였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인권교육의 목표 및 방법에 대한 인식에서 유아인권교육의 목표는 유아의 자존감 향상이 57.5%로 가장 높았으며, 이에 따른 유아인권교육 실시 방법에 있어 실시 횟수는, 월 1회 1시간이 가장 적당하다고 응답한 횟수가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효율적인 유아 인권교육 실시 규모는 대집단이 46.9%, 소집단이 47.5%를 나타냈다.

넷째,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인권교육의 실시 방향에 대한 인식에서는 유아인권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6.9%가 대체로 잘 시행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인권교육 실시가 어려운 이유 중 55.0%가 지도 내용과 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유아교육 실시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변화로 교사들의 인권 의식이 44.4%로 가장 높았으며, 유아인권 교육 프로그램 실시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의 정기화가 38.1%, 프로그램의 강화 30.6%, 별도프로그램의 개발이 25.6%를 나타내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예비 유아교사의 유아 인권에 관한 중요도 배경변인 (연령, 교육실습 유무,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IV. 결론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나 유아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았다.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예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개념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 유아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경험 해 볼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필요성을 제시한다. 더불어 일상적인 유아학대 및 인권 문제 상황에 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심층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 한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인권 침해 사항을 체벌과 선택과 결정에서의 제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최근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유아인권의 침해 대상을 교사라는 점에서 볼 때 논의의 여지가 있다. 예비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유아의 인권 문제가 교사와 유아만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대상과의 문제 상황들에 대한 학생의 인식에 관해 심층적인 교육을 통한 변화의 필요성에 요구를 맞춰줄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유아인권 교육의 목표는 유아의 자존감을 키워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도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인권교육은 월1회-1시간, 소집단 활동을 통한 교육방법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예비교사들은 단기적 활동이 아닌 정기적 활동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소그룹 활동을 통해 언어 영역과 역할 영역의 활동 영역에서 실행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식했다. 소그룹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예비교사의 인식을 통해 일회성 활동이 아닌 생활 속에서 습관화 되어 져야 한다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회적 행사성 교육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실천 가능성을 기대 할 수 있었다.

넷째, 현재 유아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아인권교육 실시 현황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며, 인권 교육 실시의 어려운 이유를 지도 내용과 방법에 대한 안내 부족이라고 응답 하였고,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 인권 교육 실시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변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인식의 주체가 교사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졸업 후 유아 인권의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및 지도 내용과 교수법에 대해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현장 학습 경험과 연령, 학년에 따른 인식 정도의 관계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모든 학년의 예비 교사가 유아 인권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현장에 나아가 영유아기 아동들이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원 양성기관에서부터 유아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수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었다.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정서조절이 유아 문제행동 지도에 미치는 영향

김 수 진¹⁾ · 권 정 윤²⁾

I. 서론

유아의 문제행동이 증가함(권정윤, 이승숙, 송나리, 2013)에 따라 유아교사가 유아 문제 행동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김관비, 2011; 문송이, 2008; 송나리, 2012). 이러한 어려움은 과중한 업무와 정서적인 소진을 경험(신민주, 2012)할 때 더 많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유아교사의 정서적인 소진이 높으면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유아 문제 행동 지도 시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김영은, 이희선, 2016)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유아 문제행동을 지도할 때 유아교사의 정서조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김주환, 2011)을 의미한다.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영향을 준다(권수현, 2010). 다시 말하면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은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어 유아 문제행동 지도를 할 때 긍정적인 방법으로 지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 문제행동 지도에 있어 긍정적인 지도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아교사의 정서조절과 회복탄력성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내적요인에 영향을 주는 정서조절과 회복탄력성이 유아 문제 행동 지도에 영향을 주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정서조절 어려움, 유아 문제행동 지도는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정서조절 어려움, 유아 문제행동 지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정서조절 어려움이 유아 문제행동 지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

2)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직중이며 유아반 담임교사 225명을 임의표집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은 김주환(2011)의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Korean Resilience Quotient Test: KRQ-53)도구를 사용하였다.

유아교사의 정서조절 어려움은 조용래(2007)가 변안하고 타당화한 설문지 한국판 정서조절 어려움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DERS)를 사용하였다.

유아교사의 유아 문제행동 지도전략은 김연하(2007)가 제작한 총 34문항의 유아 문제행동 지도전략 척도-교사용(Teacher Strategy Questionnaire: TSQ)을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 앞서 설문지 문항의 적절성과 이해도, 응답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유치원교사 5명과 어린이집 교사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10주간 서울·경기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유아교사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총 225부를 배부하였고 212(94.2%)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부를 제외한 200(88.9%)부를 최종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독립표본 *t*-검증, 일원분산분석(ANOVA), *Pearson* 상관관계분석, 중다선행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교사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정서조절 어려움 및 유아 문제행동

지도의 차이

회복탄력성은 교사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아확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시간이 길수록 자기조절능력과 충동통제력이 낮게 나타났다.

정서조절 어려움은 교직경력이 낮을수록 충동통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문제행동 지도전략은 유아교사의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 예방전략 전체와 긍정적 예방전략 I, 긍정적 반응전략이 낮게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예방전략 전체와 긍정적 예방전략 I, 긍정적 예방전략 II을 더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무시간이 길수록 부정적 반응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정서조절의 어려움 및 유아 문제행동 지도 간의 관계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정서조절 어려움 간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유아 문제행동지도의 긍정적 예방전략 전체와 긍정적 반응전략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부정적 반응전략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유아교사의 정서조절 어려움과 유아문제행동지도의 긍정적 예방전략 전체와 긍정적 반응전략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정적 반응전략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3.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정서조절 어려움이 유아 문제행동 지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자기조절능력이 긍정적 예방전략에 영향을 미쳤으며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의 긍정성과 정서조절 어려움의 하위요인인 충동통제 곤란이 긍정적 반응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의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조절 어려움의 정서적 명료성 부족이 부정적 반응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은 만 25세 미만의 교사가 자아확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교직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는 소통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시간이 11시간이상인 경우 근무시간이 짧은 교사보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과 충동통제력이 낮게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정서조절 어려움은 1년~3년 미만인 교사가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정서

조절에 도움을 주는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나 실제에 맞는 다양한 연수의 기회가 필요하다. 유아교사의 유아 문제행동 지도는 만 25세 미만인 교사인 경우 연령이 높은 교사보다 문제행동 지도전략 중 긍정적 예방전략 전체와 긍정적 예방전략 I, 긍정적 반응전략의 사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가 교육수준이 낮은 교사보다 긍정적 예방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갖고 있는 교사가 1년~3년 미만의 교사보다 긍정적인 반응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이 11시간 이상인 경우 부정적 반응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근무요건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정서조절 어려움간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유아 문제행동 지도의 긍정적 예방전략 전체와 긍정적 반응전략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부정적 반응전략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유아교사의 정서조절 어려움과 유아 문제행동 지도의 긍정적 예방전략 전체와 긍정적 반응전략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정적 반응전략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자기조절능력이 긍정적 예방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 회복탄력성의 긍정성과 정서조절 어려움의 하위요인인 충동통제 곤란이 긍정적 반응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 회복탄력성의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조절 어려움의 정서적 명료성 부족이 부정적 반응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 따라서 유아교사에게 회복탄력성과 정서조절이 높은 수준으로 도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개발하여 유아교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문제행동 지도에 있어 긍정적인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유아교실에서 ‘대장’의 의미와 관계맺음 특성¹⁾

류 미 향²⁾

I. 서론

인간은 본능적으로 집단을 이루며 생활하고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 규범을 만드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원 간에 힘의 불균형이 야기된다. 학교나 교실도 예외가 아니어서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 권력에 따른 위계관계가 형성됨은 많은 학자들이 주장해 온 바이다. 유아들의 세계에서도 권력에 따른 위계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위계관계는 외부자의 시선에서 유아들을 서열화시키고 개별 유아들에게 사회관계 특성을 유형화시킴으로써 이해하기보다 유아들의 삶의 세계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유아들은 자발적으로 또래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자신들만의 집단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그 문화 속에서 가치를 만들고 이 가치를 학습하면서 집단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아들이 형성하는 권력세계는 하나의 사회관계유형으로 이름지을 수 없을 만큼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김진영, 1999).

유아들은 주로 함께 놀이하고 상호작용하는 마음이 맞는 또래들과 함께 집단을 형성하게 되지만, 세력을 가진 유아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함께 놀이함으로써 학급 내에서 많은 또래들과 교류하고 문화를 공유하고 싶어 한다. 유아 또래집단은 소속이 되기 위해서 일정한 돈을 내거나 가입원서를 쓰는 등 일정한 소속에 대한 절차가 있는 성인세계의 집단의 개념과는 다르게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성격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권력세계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대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대장이 사회적 힘을 발휘하면서 관계를 맺는 방식이 어떠한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로는,

첫째, 유아교실에서 ‘대장’의 의미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교실에서 ‘대장’의 관계맺음 특성은 어떠한가?

1)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8010666).

2) 동아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Ⅱ. 연구방법

1. 연구기관 및 연구참여자

유아들의 권력세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세계에서 ‘대장’이 가진 의미와 ‘대장’이 맺는 관계 맺음의 특성을 탐구하기 위해 자유놀이 시간이 충분히 제공되는 유치원 만5세반 2개 학급을 연구 참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푸른유치원 라임반은 남아 15명, 여아 18명 및 두 명의 교사로 구성된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이었다. 한편 우주유치원 태양반은 숲이 둘러싸인 비교적 한적한 곳에 위치한 유치원으로 학급 구성은 남아 10명, 여아 8명과 교사 한 명으로 되어 있었다.

2. 자료수집 및 해석

유아들의 권력세계에서 ‘대장’을 파악하기 위해 관찰과 유아·교사 면담을 병행하였다. 관찰의 경우 푸른유치원은 25회기, 우주유치원은 28회기 오전 자유선택시간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회기 당 2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면담의 경우 유아들의 놀이 상호작용 관찰 중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아들의 생각이나 속마음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아 대상 수시 면담을 실시하였고 각 학급 내 유아들의 권력세계 및 사회적 힘이 있는 유아 대한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고자 교사 심층면담을 2-3회씩, 각 회기당 40~50분 정도 실시하였다. 동시에 각 학급에서 사회적 힘이 있는 유아에 대한 다른 관찰자의 의견을 듣고자 원장 및 원감 교사와 1회 30분정도 면담을 실시하였다. 관찰내용은 비디오 녹화 후 전사하였고, 관찰 직후 연구자 일지를 작성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한 의미 있는 사례나 교실의 분위기 등을 기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주의깊게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 있는 부분을 표시한 후 다시 동영상자료와 연구자일지를 대조해 가면서 놀이맥락과 유아들 간 미묘한 감정까지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다시 읽기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주제어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분류-재분류 작업을 반복하였다.

Ⅲ. 유아교실에서 ‘대장’의 의미

관찰과 면담 결과 ‘대장’ 역할을 하는 유아는 각 학급 당 한 명으로 라임반의 경우 승민이라는 남자 유아였고 태양반의 경우 혜연이라는 여자 유아였다. 승민이와 혜연이의 경우 놀이 상호작용 중에 혹은 연구자와의 면담 중에 스스로 자신이 ‘대장’임을 명명하면서 자신이 인기가 많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었다. 동시에 승민이와 혜연이는 학급 내 유아들과의 면담이나 담임교사 및 원장·원감 면담에서도 ‘대장’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유아교실 내에서 ‘대장’은 ‘친구들이 좋아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은 아이’,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이’, ‘자기 팀을 만드는 아이’였고, 유아들은 대장이 속한 팀에 들어가서 함께 놀이하고 싶어 하였다.

IV. 유아교실에서 ‘대장’의 관계맺음 특성

유아교실 내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승민이와 혜연이의 관계맺음 특성은 첫째, 강한 승부욕을 나타내면서 모든 놀이에서 자기가 이기고 싶어 하였고 둘째, 자신에게 유리하게 놀이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 많은 경우에 다른 유아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유아들은 ‘대장’의 의견에 크게 반박하지 않고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대장’들은 함께 놀이하는 유아들에게 명령 또는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넷째, 자신이 가진 놀이 기술이나 능력 등을 과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섯째, ‘대장’들은 함께 친구들의 놀이 참여와 배제를 결정하고 배제하기로 결정한 유아의 경우 무시하거나 놀잇감을 빼앗고 놀이집단에서 나가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여섯째, ‘대장’들은 친구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편을 갈라서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선생님 앞에서 바른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 눈치를 보거나 선생님에게 스킨십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V. 논의

본 연구는 유아들의 자연적인 놀이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각 학급 내 ‘대장’을 파악하여 ‘대장’이 갖는 의미와 관계맺음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유아 권력세계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각 학급의 ‘대장’들은 자신이 대장이고 인기가 많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 또래 친구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거나 자신이 잘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자주 드러냈으며 교사에게는 ‘착한 아이’로 인정받고 싶어서 교사의 존재를 신경 쓰며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 스스로 형성하는 또래집단이지만 권력에 의한 위계관계는 분명히 있었고, 또래들은 즐겁게 놀이하고 많은 친구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혹은 ‘대장’이 가진 힘에 놀려서 어쩔 수 없이 ‘대장’을 따르는 위계관계에 스스로 위치하였다. 유아들의 사회적 위치는 지속성을 가지고 어린시절 사회적 경험이 성장한 후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만큼 ‘대장’ 유아들이 가진 긍정적·부정적 리더십의 양면을 자세히 파악하고 이러한 성향이 다양한 환경적·인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비유아교사의 구성주의 이론 현장적용 경험: 경사로 활동을 중심으로

빈 혜 원¹⁾ · 김 소 이²⁾ · 홍 희 경³⁾ · 박 경 금⁴⁾ · 류 미 향⁵⁾

I. 연구의 필요성

유아교육현장에서 구성주의 이론의 적용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데, 하나는 Piaget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인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아의 이전 경험과 내재된 지식을 활용하여 유아 스스로가 지식을 구성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서순태, 2006).

곽영순(2001)에 의하면 구성주의 이론을 적용할 때, 유아교육과정 중 과학교육에서 유아들의 주도적 학습태도를 가장 잘 관찰 할 수 있는 데, 그 중에서 물리활동은 조작과 실험을 통해 유아들의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고, 탐색과 탐구를 통해 내적 지식을 확장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때, 교사는 유아와 협동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유아의 탐구적 경험을 해석하고 유아의 발달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활동을 계획하여 유아의 사고가 증진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유아의 인지갈등에 대한 경험은 사고 확장에 원동력이 된다. 이때 교사는 유아가 지속적으로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개입하여 개념적 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즉 구성주의 활동 현장에서는 유아가 겪고 있는 불평형적 사고갈등을 교사의 적절한 질문과 유아-교사 간, 유아-유아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유아의 물리적 경험이 지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협동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구성주의 교수실행 중 유아가 인지갈등을 겪는 것처럼 교사도 교수 실행과정에서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개념적 지식의 전달에 익숙해져 있는 오늘날의 입시환경 때문에 초보 교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성주의 교수 철학에서 이탈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실수나 실패는 교사 자신에 대하여 반성적 사고를 일으키게 하고, 더 나은 교수전략을 계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한다. Olson(1994)은 현장경험이 부족한 예비유아교사들이 구성주의 교수학습에 대한 이론적 배경지식 만으로 구성주의 교수법을 실행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ason(1992)에 의하면 대학에서 학습자인 예

1) 동아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2) 동아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3) 동아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4) 동아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5) 동아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비유아교사들에게 구성주의 관점의 교사교육이 교수태도와 교수전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비록 예비교사들이 구성주의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것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실제 적용의 경험은 예비교사들의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성주의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기 적합한 물리활동 중 경사로 활동을 경험한 예비유아교사들의 반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구성주의 활동 경험이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유아교육 교수방법 모색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의 구성주의 이론 적용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의 구성주의 이론 적용 경험의 의미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기관 및 연구참여자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B광역시 A구에 위치한 W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6인으로 방과 후 반에 등록된 유아들 중 원장과 방과후 교사 등의 추천 및 부모의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은 유아들로 구성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만 5세 남아 3인, 만 4세 여아 1인, 만 4세 남아 1인이었다. 연구가 이루어진 장소는 유아체육수업이 이루어지는 비교적 넓은 유치원 실내 공간으로, 유아용 미끄럼틀과 볼(Ball) 풀장만 배치되어 있었다.

2.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사과정생 5인과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업에서 한 학기동안 구성주의 교수학습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고 실제로 현장에 구성주의 교수법을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구성주의 철학, 구성주의 교수법 등에 대해 이론을 탐구하였고 구성주의 수업에 대한 실제 사례를 수집하였다.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구성주의 물리수업으로 경사로 활동을 선정하였고 자료와 교구 등을 준비하였다.

구성주의 교수법에 대한 이론탐구 후 이루어진 연구의 과정은 ‘활동 사전 토의-활동 준비-활동 진행-활동 직후 토의 및 반성적 평가-전문가 1인과의 집중 토의, 반성적 평가-다음 활동에 대한 계획’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과정은 순환되었다. 경사로 활동은 유치원 방과 후 시간 중 30~40여 분 간 놀이 형식으로 2주간 총 4회기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주교사, 보조교사, 관찰자, 촬영자 2인으로 역할을 나누어 회기마다 역할을 바꾸어가며 활동에 참여하였다. 다양한 관찰자의 견해를 공유하고자 연구자 5인은 매 회기마다 연구자 일지를 작성하였으며, 객관적 자료 수집을 위해 5인의 예비유아교사와 전문가 1인이 촬영

된 영상을 분석하며 활동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활동이 끝난 회기마다 예비교사 5인은 각자의 반성적 사고를 토의를 통하여 녹취하였으며, 구성주의 활동의 어려운 점에 대하여 전문가 1인에게 자문과 조언을 구하여 다음 회기 활동에 반영하였다.

Ⅲ. 예비유아교사들의 구성주의 이론 실제 적용

본 연구를 통하여 예비유아교사들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은 구성주의 활동 중 경사로 활동을 경험하며 교수방법에 대하여 수많은 인지적 갈등에 부딪혔다. 구성주의 활동 이전 계획단계에서는 이론을 실제에 어떻게 가장 이상적으로 적용시킬지에 대한 막연한 인지적 갈등들이 주를 이루었다. 회기를 시작한 후 초반에는 유아들에게 과학적 개념 및 원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려는 신념에 사로잡혔으며, 급기야 유아들에게 일반 수업과 동일하게 교사가 개념을 설명하고, 유아들로 하여금 습득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예비유아교사 5인 및 전문가 1인과의 끊임없는 토의를 통해 이를 개선시켜나갔다. 또한 조력자로서의 교사역할 뿐만 아니라 환경구성자로서의 교사역할을 수행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매회기를 마친 후 토의를 통하여 보다 나은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구성주의 활동 중 경사로 활동을 경험하면서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들이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회기의 초반 유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한 가지 놀이에 금방 흥미를 잃는 것을 보며 능동적 지식 구성자로서의 유아를 신뢰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회기의 후반으로 갈수록 스스로 터득한 과학적 개념을 놀이에 적용하며, 스스로 놀이를 창조하여 행하는 모습을 보았다. 유아들의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연구자들은 유아들의 실수에 너그러워질 수 있었고, 지도자가 아닌 활동의 구성원으로서 유아들과 함께 놀이에 참여하게 되었다.

Ⅳ. 논의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이 개념적으로 학습한 구성주의적 접근에 대해 경사로 활동을 통해서 유아교육현장에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구성주의적 접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예비유아교사들의 경사로 활동의 초기 계획은 유아들의 학습수준과 연구 참여자들의 반성적 평가와 협의의 시간을 통해 변형되었고 각 회기마다의 반성적 평가는 다음 회기에 반영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총 4회기의 경사로 활동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경험한 시행착오와 개념적으로 학습한 구성주의적 접근에 대한 현장과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활동을 연계할 수 없는 현장의 상황으로 인한 총 4회기의 활동은 구성주의적 접근을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진정한 구성주의적 접근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회기, 구성주의적 실제에 대한 모의 수업, 구성주의 유아교실 참관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보육교사의 직무배태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고 성 미¹⁾ · 송 주 연²⁾ · 박 수 경³⁾

I. 서론

현대사회의 변화로 인해 보육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은 물론 보육 기관의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측면 뿐 아니라, 영유아의 발달을 위한 복지 측면과도 연계하여 가족 및 지역사회에 이르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또한 보육교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직무를 잘 이해하고, 맡은 바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보육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육교사가 자신의 직무에 배태되어 맡은 업무에도 만족하고 조직을 위해 몰입하면 어린이집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 질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직무배태성,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보육교사의 직무배태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직무배태성,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보육교사의 직무배태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소재 국공립, 민간, 가정 및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

1)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졸업
2)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박사통합과정
3)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부교수

사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 304부(89%)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문항 누락이 있거나 불성실 응답을 한 설문을 제거하고, 최종 297부(87%)를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연구 도구

보육교사의 직무배태성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Mitchell 등(2001)이 개발한 연구도구를 수정, 보완한 현은지(2013)의 연구 도구를 사용하였다. 직무만족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Jorde-Bloom(1989)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참고로 권성민(2013)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직몰입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Allen과 Meyer(1990)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수정, 보완한 조윤희(201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배태성,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보육교사의 표본 특성에 따른 직무배태성,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보육교사의 직무배태성,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보육교사의 직무배태성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주요 결과

첫째,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연령, 학력, 자격, 교직경력, 시설유형, 근무기간)에 따른 직무배태성,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육교사의 연령, 학력, 자격, 교직경력, 시설유형, 근무기간 특성에 따라 보육교사의 직무배태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의 학력, 자격, 교직경력, 시설유형 특성에 따라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의 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연령과 시설유형 특성에 따라 보육교사의 조직몰입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직무배태성,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의 직무배태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합과 희생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연계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합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연계와 희생은 조

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첫째,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직무배태성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의 연령, 학력, 자격, 교직경력, 시설유형, 근무기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직무만족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의 학력, 자격, 교직경력, 시설유형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조직몰입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의 연령과 시설유형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의 연령이 높고, 교직경력과 현재 근무 중인 보육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길수록 보육교사는 직무에 배태되어 있으며, 직무에 대해 보다 만족하고 조직에 몰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육교사의 학력이 높고, 근무환경의 질이 높을수록 직무에 대해 만족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머무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조직에 대한 몰입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보육기관에서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보육교사의 직무배태성,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보육교사의 직무배태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 보육교사의 직무배태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 그리고 보육교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가 모두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직무배태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서로 역동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보육교사의 직무배태성,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간의 영향 관계에서 직무배태성으로서 적합과 희생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합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배태성으로서 적합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력이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영향력이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지역적, 기관별로 제한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보육교사로 연구 대상으로 확대하여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둘째, 실제 이직자 또는 퇴직자를 대상을 포함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져 보육교사들이 만족하는 직무 및 조직 여건이 무엇인지 탐색되기를 바란다. 셋째, 보육교사들의 직무배태성, 직무만족, 조직몰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현실적인 방안이 개발되고 실행되기를 바란다.

토의를 통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이 유아의 사회성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윤 세 미¹⁾ · 이 정 숙²⁾

I. 연구의 필요성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긍정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내면화시키며,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회성과 창의성의 증진은 유아기에 경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발달 과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사회성은 유아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며, 창의성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으로 접근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토의를 통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이 유아의 사회성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토의를 통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자와 담임교사의 지도·감독을 통한 협력적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교수 방법의 변화 및 유아의 질적인 반응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토의를 통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이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토의를 통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토의를 통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이 유아의 사회성과 창의성에 미치는 질적인 변화는 어떠한가?

1) 회기에 따른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과정 검증은 어떠한가?

2) 유아의 질적인 변화는 어떠한가?

1) 한양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 교사

2) 한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H 유치원 만 5세 유아 4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험집단에 유아 23명, 통제집단에 유아 23명을 배정하였다. 2016년 6월 16일부터 2016년 7월 29일 동안 예비검사,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실험처치기간 동안 실험집단에 토의를 통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7주간 16회기의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의 사회성과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유아 사회성기술 검사(윤치연, 2008)와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전경원, 2000)를 사용하였으며, 토의를 통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집된 검사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와 담임교사의 지도·감독 과정과 활동에 따른 유아의 변화를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동영상 녹화 및 연구자와 담임교사의 면담 및 협의, 교사와 연구자 저널, 활동 결과물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의 구성원 중 사회성과 창의성의 사전 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 검사의 점수가 가장 크게 변화한 유아 2명을 선정하여 토의를 통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경험하면서 발생하는 의미 있는 과정을 사례연구로 진행하여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Ⅲ. 주요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의를 통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토의를 통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사회성에서 효과적인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의 하위요소인 ‘문제해결’, ‘정서표현’, ‘질서의식’, ‘자신감’ 모두 토의를 통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의 변화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토의를 통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토의를 통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창의성에서 효과적인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성의 하위요소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 모두 토의를 통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의 변화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토의를 통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실시한 담임교사는 면담 및 협의 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시각을 통한 자기반성적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유아 중심적인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해주는 전문가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

이 되었다. 또한 실험집단의 유아들은 토의를 통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통해 점차 사회적이고 창의적인 반응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IV. 결론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리면, 토의를 통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은 유아의 사회성과 창의성 발달 뿐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교수 방법 실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토의를 통한 노랫말 바꾸기 활동이 유아의 사회성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자와 담임교사의 지도·감독을 통한 협력적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교수 방법의 변화 및 유아의 질적인 반응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연구자가 회기의 전체 활동을 진행하여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수정·보완을 거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담임교사의 지도·감독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시각에서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추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수 증

이 름:

소 속:

위 사람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에서 주최하는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일시: 2017년 4월 15일 토요일 09:00 ~ 17:00
- 장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대학 9층 대강당

2017년 4월 15일

한국영유아교원교육회장